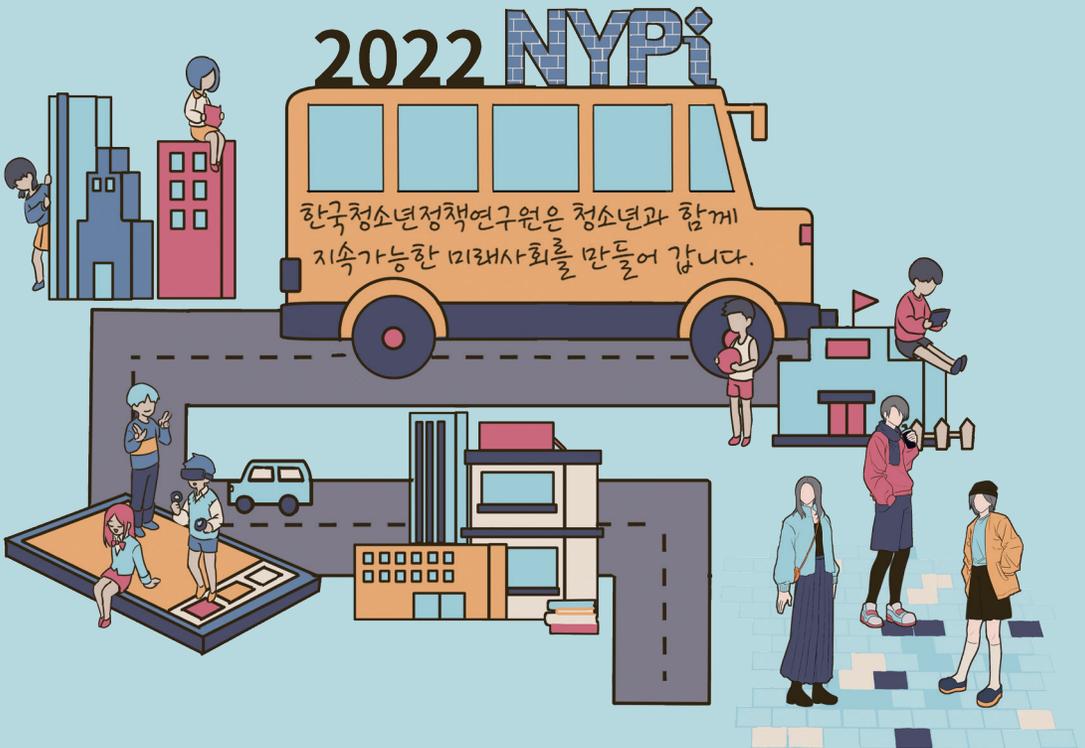


#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황세영 · 강경균 · 김남수





---

#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저 자 황세영, 강경균, 김남수

연구진 연구책임자 황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남수((주)국토환경연구원·부원장)  
연구보조원 진병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원)



## 보고서를 펴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 문제는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명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청소년정책의 역할을 묻는 데서 출발하였다. 청소년정책이 표방하는 청소년 권리 존중이라는 원칙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하며, 청소년정책에서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단순히 활동의 소재가 아닌 청소년 권리 실현의 핵심 가치로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슬로건 '청소년 권리 실현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미래'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도 사회변화를 위한 참여와 행동의 가치를 녹여내고자 노력하였다. 포럼과 집담회를 통해 기후위기를 청소년의 삶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기후환경 정책연대 활동을 통해서도 청소년시설의 역할에 대한 진전된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참여 실행연구의 두 사례는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사례를 만들어감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두 전달하기에는 보고서의 부족함이 많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 확산과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한걸음씩 나아가는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구진을 대표하여 황세영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과 참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 연구내용

-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 권리보장과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탐색으로서, 청소년 주도적 탄소중립 담론의 주요 논점과 연구 문제를 도출함.
- 유럽연합 및 유럽 8개국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정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에서 청소년 참여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모색함.
-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청소년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참여의 조건을 탐색함.
- 청소년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태도, 실천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전국 초5~고3 학생 3,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청소년 참여모델의 실증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센터와 연계하여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사례에 대한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수행함.

### ■ 연구방법

- (문헌분석) 기후위기·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주요 문헌, 청소년 기후행동 관련 선행연구, 유럽연합 및 유럽 각 국 정책 관련 문헌,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관련 문헌 등, 분석

- (양적분석) 조사 영역 및 문항에 대해 성별, 학교 급, 지역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빈도분석,  $\chi^2$ 검증,  $t$  검증, ANOVA(사후 검증 Scheffe) 등을 실시
- (질적분석) 청소년 활동과정(회의, 단톡방, 활동자료, 활동지, ppt 등) 및 활동결과물 (탄소중립시나리오 해석본, 탄소중립 정책제안서) 등의 자료 분석
- (콜로키움) 학교, 청소년기관, 민간단체, 청소년활동가단체 등의 기후·탄소중립 관련 참여활동 사례 발표
- (기타)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결성, 청소년정책포럼·집담회 개최, 기후환경 청소년동아리연대 지원,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 실시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의 보장을 전제로 함. 이에 관련된 정책 영역은 청소년 교육 및 활동 영역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 기후 행동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있음.
- 유럽연합과 유럽 8개국의 청소년 기후 행동에 대한 지원은 1) 그린 딜, 청소년전략 등, 체계적 지원 2) 청소년·청년의 기후 정책거버넌스 참여 지원, 3) 정책 참여 역량 개발 지원 4)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난, 기후 취약계층 등, 다양한 주제의 포괄, 5) 청소년 자발적 조직화 지원 등의 특징을 보임.
- 우리나라 정책 및 청소년 참여 사례 분석결과 1)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청소년 참여방안, 청소년 안전·복지 등, 권리보장을 위한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 2) 교육기본법 개정 등, 학교 환경교육의 수요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연계방안, 3) 청소년의 활동·참여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유관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4) 청소년 복지·안전·일자리 관련 기후·탄소중립 의제 연계성 강화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함.
- 청소년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구체적인 용어와 사안별 이해도에는 차이가 있음, 2) 학교와 가정에 주로 정보를 얻으며 참여 활동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음, 3)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 걱정, 우울 등이 높고, 기후변화 문제해결 전망, 실천 의지 등이 낮으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조함, 4) 개인적 실천 역량보다 정보활용, 공동체,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등으로 나타남.
- 실행연구 두 사례에서 청소년들은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활동 2)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단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이해, 토론, 학습해 나갔으며, 그 결과 1) 청소년이 해석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 청소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정책 4 가지 제안 등의 결과를 도출하여,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함.

## ■ 핵심 정책제언

### 핵심 정책제언

- 증가기 청소년 전략 수립(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반영)
  -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장(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청소년 탄소중립참여지원 재원 확보(기후대응기금)
  - 청소년 기후환경 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 모델 개발·확산
  - 국가탄소중립정책 청소년 참여 플랫폼 운영(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참여 모델 확산(가칭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운영)
  - 청소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참여 가이드 개발
  - 청소년정책참여 제도화를 위한 탄소중립 법령 개정
- 학교-지역사회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
  -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체 구축
- 청소년 기관(시설)·지도자 역량 계발 지원
  -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시설) 선정·지원
  -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지자체 지원 유도
  - 환경교육센터 지정 청소년시설의 지역 거점 기능 지원
  - 사회환경교육 연계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회 확대
- 다양한 청소년 주도 기후 행동 확산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행동 전략 및 실행 가이드 개발·보급
  -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구축·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단체 지원
  - 글로벌 청소년 기후리더 양성
- 기후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통합지원 방안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친환경분야 발굴
  -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청소년사업 모델 개발
  - 기후 적응·정의로운 전환 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연구보고22-기본06

- I.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 3. 연구추진체계 ..... 14
  
- II.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담론:**
  - 주요 논점과 연구 문제 ..... 15**
    - 1. 청소년 권리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담론 고찰 ..... 17
    - 2. 청소년 기후 행동 관련 선행연구 고찰 ..... 26
    - 3. 소결: 연구의 주요 논점 및 연구 문제 ..... 42
  
- III. 유럽의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 정책 ..... 45**
  - 1. 유럽연합(EU) 차원의 청소년 기후 행동 및 지원정책 ..... 47
  - 2. 국가별 청소년의 기후정책 참여지원 현황 ..... 56

3. 국가별 청소년 주도 활동·프로젝트 사례 .....	70
4. 소결 .....	76
<b>IV.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청소년 참여 사례 .....</b>	<b>81</b>
1. 우리나라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	83
2. 청소년 참여 사례 분석 .....	101
3. 소결 .....	115
<b>V.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b>	<b>119</b>
1. 조사 개요 .....	121
2.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	127
3. 소결 .....	161
<b>VI.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모델 개발을 위한 실행연구 .....</b>	<b>169</b>
1. 연구 개요 .....	171
2. 연구 방법 및 절차 .....	172
3. 연구 결과 .....	184
4. 소결 .....	220
<b>VII. 정책 제언 .....</b>	<b>223</b>
1. 정책 개발 과정 .....	225
2. 정책 제언 .....	233
<b>참고문헌 .....</b>	<b>265</b>
<b>부 록 .....</b>	<b>283</b>
<b>Abstract .....</b>	<b>295</b>

## 표 목차

표 I-1. 2021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청소년 선언문	3
표 I-2. 청소년 기본법상 권리·참여	5
표 I-3.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 개요	10
표 I-4.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활동 일정	11
표 I-5. 집담회 일정	11
표 I-6.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12
표 I-7. 정책실무협의회	13
표 II-1. 지속가능발전목표 13번 기후 행동 목표의 세부 내용	20
표 II-2. 청소년 기후 운동에 내재한 두 가지 입장	31
표 II-3. 청소년 기후 운동 관련 선행연구 요약	34
표 II-4. 청소년 주도 환경관리 모델	38
표 II-5. 청년 친화적인 이해당사자 참여 전략 틀	40
표 II-6. 청소년 참여의 일상적, 지역적 맥락 관련 선행연구 요약	41
표 III-1. 기후·지속가능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내 청소년 참여 조직화에 관한 의견서 (일부)	52
표 III-2. EYES(Engaging Youth In Sustainable Energy Planning) 프로젝트 이후 마련된 지역별 청소년참여구조	53
표 III-3. 유로트립 세부사업 현황(2020~2022)	54
표 III-4. 잉글랜드 교육부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주요 내용	57
표 III-5. 영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책제안	59
표 III-6.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의 청소년 워크숍 주요 내용	61
표 III-7. 영국 지방정부 탄소중립 추진과 청소년 참여 현황	63
표 III-8. 영국 기후 위기 관련 지역사회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사례	71
표 III-9. 기후 정의 청소년활동(Climate Justice Youth Work) 운영 안내서의 주요 내용	72

표 III-10. NYCI 기후 정의 현장 .....	73
표 III-11. 유럽의 청소년 참여 지원 현황 .....	78
표 IV-1. 탄소중립 관련 정책 분석 범위 .....	83
표 IV-2.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미래세대·청소년 참여 관련 주요 내용 (2021.9.24. 공포, 2022.3.25.시행) .....	85
표 IV-3. 탄소중립 시나리오(국가/청년/청소년) .....	87
표 IV-4. 지자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 관련 시민참여 사례 .....	88
표 IV-5. 교육기본법 상의 기후 변화·환경교육 조항 (2021.9.24. 공포·시행) .....	90
표 IV-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환경교육 의무화조항 (2022. 6. 10. 신설, 2023. 3.1. 시행) .....	91
표 IV-7. 각 교육청 환경교육·생태전환교육 추진 현황 .....	91
표 IV-8. 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환경교육 주요 내용 .....	94
표 IV-9. 청년 녹색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100
표 IV-10. 분석 대상 사례 .....	101
표 IV-11.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학교 .....	103
표 IV-12.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청소년기관·시설 .....	106
표 IV-13.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민간교육단체 .....	109
표 IV-14.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청소년활동가단체 .....	111
표 IV-15. 기후 위기 대응·탄소중립 실천 분야별 청소년 참여 활동 사례 및 유형(요약) .....	111
표 IV-16. 정책 현황 요약 및 시사점 .....	117
표 V-1. 설문조사 영역별 항목 .....	122
표 V-2. 설문조사 문항 개발 근거 .....	124
표 V-3. 설문조사 문항의 신뢰도 분석 .....	125
표 V-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26
표 V-5. 기후 변화 발생 .....	127
표 V-6. 기후 변화 발생 주요 원인 .....	128
표 V-7.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	129
표 V-8. 기후 변화 문제 인식 정도 .....	130
표 V-9.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탄소중립) .....	131
표 V-10.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파리 기후 변화협약) .....	132
표 V-11.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온실가스 감축) .....	133

표 V-12.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지속가능발전) .....	134
표 V-13.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지구온난화) .....	135
표 V-14.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기후 난민) .....	136
표 V-15.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기후 불평등) .....	137
표 V-16.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전체) .....	138
표 V-17.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매체) (1+2순위) .....	139
표 V-18.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장소) (1+2순위) .....	140
표 V-19.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및 위협 예측에 대한 불안 .....	142
표 V-20.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 대한 무력감 .....	143
표 V-21.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 대한 화가남 .....	143
표 V-22.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걱정과 당혹스러움 .....	144
표 V-23. 자신의 생활습관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죄책감 .....	145
표 V-24.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걱정 및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함 .....	146
표 V-25.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우울과 절망감 .....	147
표 V-26. 기후 변화 교육에 대한 인식 .....	147
표 V-27.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관한 대응에 대한 인식 .....	148
표 V-28.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	149
표 V-29.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습관 .....	150
표 V-30.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성찰·통찰 역량 .....	151
표 V-31.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정보활용 역량 .....	152
표 V-32.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	153
표 V-33.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 .....	153
표 V-34.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공동체 역량 .....	154
표 V-35.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전체) .....	155
표 V-36.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 (1+2순위) .....	156
표 V-37.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참여 경험(복수응답) .....	158
표 V-38.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	159
표 V-39.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요약) .....	165

표 VI-1. 실행연구의 목적 및 사례별 특징 .....	172
표 VI-2. 탄소중립 정책 관련 시민참여 모델의 예시 .....	173
표 VI-3. 실행연구 사례별 특징 .....	175
표 VI-4.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에서의 참여자 역할 .....	176
표 VI-5. A 센터 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반 활동 개요 .....	178
표 VI-6. B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의 주요 활동 일정 및 내용 .....	182
표 VI-7. 자료 수집 현황 .....	184
표 VI-8.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	186
표 VI-9.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	187
표 VI-10. 청소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본 목차 .....	195
표 VI-11. 청소년의 부문별 시나리오 선택 이유(농축수산 부문) .....	196
표 VI-12. 청소년의 참고 자료 및 필수 단어 소개 .....	196
표 VI-13. 청소년의 시나리오 내용 해설 .....	197
표 VI-14. 청소년의 시나리오 해석 소감 .....	197
표 VI-15. 기후 위기가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	205
표 VI-16.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이해와 평가 .....	206
표 VI-17. 탄소중립 정책 관련 관심사의 형성 흐름 .....	210
표 VI-18. 미래 비전 도출 과정(요약) .....	214
표 VI-19. 청소년 탄소중립 미래 비전 도출 결과 .....	215
표 VI-20. 정책 제안별 주요 논의사항 .....	217
표 VII-1.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 관련 의견수렴 .....	229
표 VII-2. 청소년권리 관련 의견수렴 결과 .....	230
표 VII-3. 청소년정책참여 관련 의견수렴 결과 .....	231
표 VII-4. 정책실무협의회 주요 내용 .....	232
표 VII-5. 기후대응기금 관련 현황 및 활용 방안 .....	236
표 VII-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방안 .....	237
표 VII-7. 국가탄소중립정책 청소년 참여 플랫폼 운영 방안 .....	239
표 VII-8.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참여 모델 확산 방안 .....	240
표 VII-9.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운영 모델(안) .....	241
표 VII-10. 청소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참여 가이드 개발 추진 방안 .....	242
표 VII-11.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제도화 방안(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243

표 VII-12.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추진 방안 .....	244
표 VII-13. 참고: 학교-청소년기관(시설) 협력 사례 .....	245
표 VII-14.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 추진 방안 .....	245
표 VII-15.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체 구축 추진 방안 .....	246
표 VII-16.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시설) 선정·지원 추진 방안 .....	248
표 VII-17. 청소년기관(시설) 친환경시설사례 .....	248
표 VII-18.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지자체 지원 유도 추진 방안 .....	250
표 VII-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원방안 .....	251
표 VII-20. 사회환경교육 연계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회 확대 추진 방안 .....	253
표 VII-21. 청소년 기후 행동전략 및 실행가이드 개발 방안 .....	254
표 VII-22.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추진 방안 .....	255
표 VII-23. 지역사회 자생적 청소년 기후 활동단체 지원방안 .....	257
표 VII-24. 글로벌 청소년 기후리더 양성 추진 방안 .....	258
표 VII-2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친환경분야 발굴 추진 방안 .....	259
표 VII-26.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방안 .....	260
표 VII-27.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청소년사업 모델 개발 추진 방안 .....	261
표 VII-28. 기후 적응·정의로운 전환 관련 청소년 지원 추진 방안 .....	262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	14
그림 II-1. 기후 위기 영향의 세대 간 차이연구 .....	18
그림 II-2. 온실가스를 줄이는 10가지 대안 .....	24
그림 V-1. 설문 개발 절차 .....	122
그림 V-2.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매체) (1+2순위) .....	139
그림 V-3.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장소) (1+2순위) .....	141
그림 V-4.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전체) (1+2순위) .....	156
그림 V-5.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참여 경험 비율(전체) (복수응답) .....	158
그림 V-6.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	160
그림 VI-1. 청소년 참여모델 개발 요소 .....	222
그림 VII-1. 연구 주요 결론 및 시사점 .....	227
그림 VII-2. 정책 슬로건 및 정책과제 .....	233
그림 VII-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내용 .....	235
그림 VII-4.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정책 중·장기 전략 .....	235
그림 VII-5. 청소년 기관(시설)의 ESG 경영 체크리스트(안) .....	249
그림 VII-6.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개념도 .....	256
그림 VII-7. 정책추진 로드맵 .....	263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연구추진체계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문제 제기

#### 표 1-1. 2021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청소년 선언문

어른들은 이 세상을 알아가기에도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왜 나서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기후 생태위기의 모든 피해는 우리 세대가 겪어야 할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에 어른들이 응답해야 합니다. [중략]  
우리는 다함께 움직여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다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 출처: 2021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청소년 선언문 「청소년의 목소리가 모두의 행동으로」에서 발췌<sup>2)</sup>.

이 선언문에는 기후 위기에 청소년들이 왜 목소리를 높이는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그 절실함이 담겨 있다. 흔히 미래세대로 규정되던 청소년들은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당사자로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기후 세대로서의 역할을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학교 결석 시위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후 행동’ 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후 위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 위기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의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국내외적으로

1) 이 장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 전문은 다음 출처에 수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소년, 참여의 새 시대를 열다. pp.201-205. 서울: 살림터.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은 교육 활동 영역을 넘어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적 참여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전 지구촌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널리 보고되고 있다.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기후위기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채택하였다. 더 나아가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신기후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2020년부터 5년 주기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이다<sup>3)</sup>. 이어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C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권고했다. 2019년에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목표 상향 동맹을 결성하면서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였다. 2021년 4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44개국과 유럽연합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서약하였다(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a).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에서는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였다(윤순진, 2021).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2021년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화력발전의 중단,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등, 에너지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도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전환을 이끌어 내기위한 정부, 산업계, 국민 전체의 실천과 소통과 합의를 통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제목인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탄소중립 정책 자체는 정부, 산업, 시민 모든 주체의 참여와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

3)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 정보.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 2022. 10. 17).

영역에서의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힘만으로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 말하는 청소년 주도성은 기후 위기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권리보장이라는 틀로 접근된다. 즉,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주도성을 갖는다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다양한 영역(교육, 활동/참여, 안전, 복지, 일, 자립 등)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표 I-2).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 안전과 보호, 그리고 참여의 개념을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에 따른 국가 청소년정책의 책무와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표 I-2. 청소년 기본법상 권리·참여**

<p>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검색일: 2022. 10. 17).

##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이 연구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제 정책 의사결정에까지 청소년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다. 최근 정책적으로도 청소년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을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선언하고, 청소년 주도의 참여 및 활동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년 1월 10일). 교육부와 환경부는 기존 환경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안팎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서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이처럼 탄소중립과 관련된 청소년 참여는 좁게는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으로,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와 국가 정책 참여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후 세대인 청소년들의 관점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기후위기가 청소년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주체로서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 권리보장과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탐색으로서 청소년 주도적 탄소중립 담론의 주요 논점과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유럽연합 및 유럽 각 국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정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에서 청소년 참여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있어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청소년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참여의 조건을 탐색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태도, 실천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전국 초5~고3 학생 3,0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청소년 참여모델의 실증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사례에 대한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 권리보장을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3) 주요 용어의 사용

- 기후위기·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표현으로 최근 '기후 위기'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청소년 설문조사의 경우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탄소중립: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한다<sup>4)</sup>.

- 탄소중립 정책: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 대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유럽 현황을 기술할 때는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기후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청소년 기후 행동: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의 다양한 실천 행동과 참여 노력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제로웨이스트) 등, 직접적인 실천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기후문제를 연결지어 인식하는 것, 사회적,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정치적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청소년정책상의 용어인 청소년 활동, 청소년 참여활동 등을 포함한다.
- 청소년·청년: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에 따른 청소년(9~24세)을 대상의 범위로 삼는다. 다만 선행연구 및 유럽 사례에서 ‘youth’는 연령대에 따라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 표기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담론: 주요 논점과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청소년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주요 논점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는 아동·청소년 권리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 권리의 중요성을 탐색하고, 청소년 기후 행동과 청소년 주도성 논의에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참여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담론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조건의 탐색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기후

4)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9&menuLevel=2&menuNo=11> (검색일: 2022. 10. 17)

행동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건들을 ‘행위주체성(또는 행위자성, agency)’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의 연구 문제를 1) 청소년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들의 현황 분석, 2)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 보장과 청소년 기후 행동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청소년들의 인식 및 참여 실태 파악, 3)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 참여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 등으로 도출하였다.

○ 청소년정책포럼 개최(2022.4.26.)

일정	내용
13:30~14:00	온라인 참석자 확인
14:00~14:10	(개회사) 김현철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축사) 윤효식 이사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10~14:50	(발제) “기후 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이유진 부소장(녹색전환연구소)
14:50~15:40	(지정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일·자립 분야: 천성원 이사장(청소년노동인권 노랑)</li> <li>• 청소년 복지·안전 분야: 전해숙 박사(이화여자대학교)</li> <li>• 청소년 미래산업·혁신 분야: 김유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li> <li>• 청소년 참여·활동 분야: 박현성 위원(국가환경교육센터 청년위원회)</li> </ul>
15:40~16:00	전체 토론

## 2) 유럽의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 정책 현황

청소년 주도적인 기후 행동의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청소년 기후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유럽 지역을 사례로 청소년 참여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거버넌스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회원 국가들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 8개 국가에서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 청소년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 3)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 현황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 권리 보장 방안에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여러 영역에서의 정책 및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탄소중립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의 큰 틀에서 청소년 권리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둘째,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중앙 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교육, 참여, 활동, 복지, 안전, 자립 등, 청소년 권리의 세부 영역별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4) 청소년 참여 사례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이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의 성격을 고려할 때 청소년 주도성이 발현되는 조건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장을 학교, 청소년기관, 민간단체, 청소년활동가단체로 구분하고, 각각 유사하지만 다른 목적과 정책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탄소중립 관련 청소년 활동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 사례의 수집은 문헌 검색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현장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섭외과정을 거쳐 14개 사례에 대해 내부 콜로키움과 세미나 발표 형태로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 취지와 활동 방식이 유사한 사례들을 제외하고 총 8개의 사례를 최종 분석 결과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과 청소년 참여를 잇는 쟁점들을 연구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한국환경교육학회 상반기학술대회 특별세션(2022년 6월 11일)을 주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 공유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 5)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태도, 실천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환경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배경(3),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27),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24) 등, 총 5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분석은 총 3,024명(초등학교 762명, 중학교 1,156명, 고등학교 1,106명)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각 영역 및 문항에 대해 성별, 학교 급, 지역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빈도분석,  $\chi^2$ 검증,  $t$ 검증,

ANOVA(사후 검증 Scheffe) 등을 실시하였다.

### 6)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모델 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는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의 탄소중립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 모델 개발에 필요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 활동과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제안활동을 사례로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청소년 센터와 연계하여 이루어졌으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토론과 결과물 생산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다.

표 1-3.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 개요

사례	A청소년센터	B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 목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제안
활동 기간	2022년 4월 ~ 10월	2022년 5월 ~ 10월
청소년	동아리 참여자 중 희망자 총 11명 (중학생:3명, 고등학생:3명, 대학생:5명)	공모를 통해 신청자 중 선정. 총 14명 (중학생:4명, 고등학생:2명, 대학생:2명, 대안교육기관 학생:6명)
청소년지도자	팀장 1명, 팀원 2명	팀원 1명
연구자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자문·협력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교육분과 위원	지자체 기후환경국 정책 팀 및 환경교육 팀 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및 환경교육 전문가

### 7)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 ○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활동

청소년 기관 및 시설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보라매청소년센터,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성사청소년문화의집, 한국충남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참여하는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를 결성하고, 기관 간 MOU를 추진하여 정책연대 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1-4.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활동 일정

회차	일자	주요내용	참석자
1	2022년 3월 15일	기관별 기후환경 분야 청소년사업 운영 현황 공유 정책연대 세부 추진계획 논의	기관 실무자 및 기관장, 연구진 등, 총 10명 내외
2	2022년 4월 19일	청소년 시설(기관)의 탄소중립 전략: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중심으로(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초청 강의)	
3	2022년 4월 26일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참석	
4	2022년 5월 25일	사례학습: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가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5	2022년 6월 29일	탄소중립 청소년정책의제 발굴 워크숍 - 사례학습: 해외정책, 기관별 사례 - 주제별 토의: 청소년기관 및 참여 분과	
6	2022년 7월 26일	정책의제별 심층 토의 (청소년 활동, 시설, 기관운영, 정책참여)	
7	2022년 8월 31일	청소년기관 ESG 실천현황 파악 및 정책 의견수렴	

○ 집담회 개최

청소년 권리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고,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관련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 기후위기 시대의 삶을 질문하다」를 주제로 2차례에 걸쳐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1~2차 집담회에는 청소년(3명), 청소년쉼터 종사자(2명), 교사(2명),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2명), 교육 연구자(2명), 지역사회 청소년교육활동가(1명)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조건의 맥락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었다. 이를 통해 개인 실천위주의 청소년 탄소중립 참여 담론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교육, 활동, 노동, 복지, 자립 등, 다양한 영역과의 연결·확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히 기후정의와 불평등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표 1-5. 집담회 일정

회차	일자	주요내용	참석자
1	2022년 7월 12일	청소년, 청소년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기후 위기 담론 모색 - 교육, 활동, 노동, 복지, 자립 등, 다양한 청소년 삶의 맥락과 기후 위기 문제 연결	연구진 외 10명
2	2022년 8월 23일	주제별 발제 및 토론 발제 1: 청소년이 말하는 기후 정의 발제 2: 생태적 삶과 불평등	연구진 외 12명

○ 기후환경 청소년동아리연대 지원

청소년의 기후 행동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의 사전행사로 개최된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2021.5.22., 본원 주관)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소년 기후행동 방안 마련을 위한 모임을 제안하였다. 이에 청소년 3명이 참여하여 3차례 이상의 온라인 모임을 실시했으며, 최종적인 제안은 정책과제 「5-2. 청소년 기후행동 연대 플랫폼 구축·운영」에 반영하였다.

8)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에 있어 기후 위기 문제와 탄소중립 정책을 연계하는 과제로서 청소년정책 전문가 외에도 환경·기후·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및 활동가를 비롯하여 기후·탄소중립 관련 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여성가족부)-탄소중립정책(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환경교육(환경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해당 부처와 정책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다.

○ 전문가 자문회의

표 1-6.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회차	일자	자문영역	자문진
1	2022년 4월 5일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 및 청소년참여 현황 파악	환경정책 전문가 2인
2	2022년 4월 22일 ~ 4월 26일 (서면자문)	청소년 설문조사 문항 검토	교육부 환경교육 담당자 1인 환경교육 연구자 1인 초·중·고 교사 및 교수 3인 교육평가 전문가 1인 청소년 1인
3	2022년 5월 20일	지자체 탄소중립정책 수립 및 청소년참여 현황 파악	지자체 탄소중립정책 연구자 1인
4	2022년 8월 26일	탄소중립 관련 진로·직업연구 동향 파악	직업연구 전문가 1인

회차	일자	자문영역	자문진
5	2022년 9월 15일	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환경교육센터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관장 및 실무자 3인
6	2022년 9월 19일	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청소년 ESG 교육 현황 파악	민간 청소년 ESG 교육전문가 1인
7	2022년 9월 20일	청소년참여기구와 탄소중립 정책참여 연계방안	청소년참여기구 현장전문가 2인
8	2022년 9월 21일	청년의 탄소중립정책참여 현황 및 청소년 참여방안	청년 환경활동가 3인
9	2022년 9월 26일	지역사회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활성화 과제	전국 시·도청소년활동진흥 센터장 및 실무자 27인
10	2022년 10월 4일	기후 위기 관련 기업 사회공헌사업 현황 파악	아동복지 전문가 2인
11	2022년 10월 4일 ~ 10월 6일 (서면자문)	청소년주도의 기후·탄소중립 활동 현황 파악	청소년수련시설 관장 1인
12	2022년 10월 12일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활동 연계방안	국가환경교육센터장 1인
13	2022년 10월 14일 ~ 10월 17일(서면자문)	학교-지역사회 환경교육 연계방안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자 1인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표 1-7. 정책실무협의회

회차	주요내용	협의 부처(과)	개최시기 (2022년)
1	학교 환경교육을 통한 청소년 탄소중립 참여방안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학교교육 담당)	1월
2	지역사회 환경교육 - 청소년활동 연계협력	환경부 환경교육팀	10월
3	청소년정책 중·장기 전략 청소년 활동 다각화 방안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10월
4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민참여 담당)	10월

### 3. 연구추진체계

이러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추진체계는 <그림 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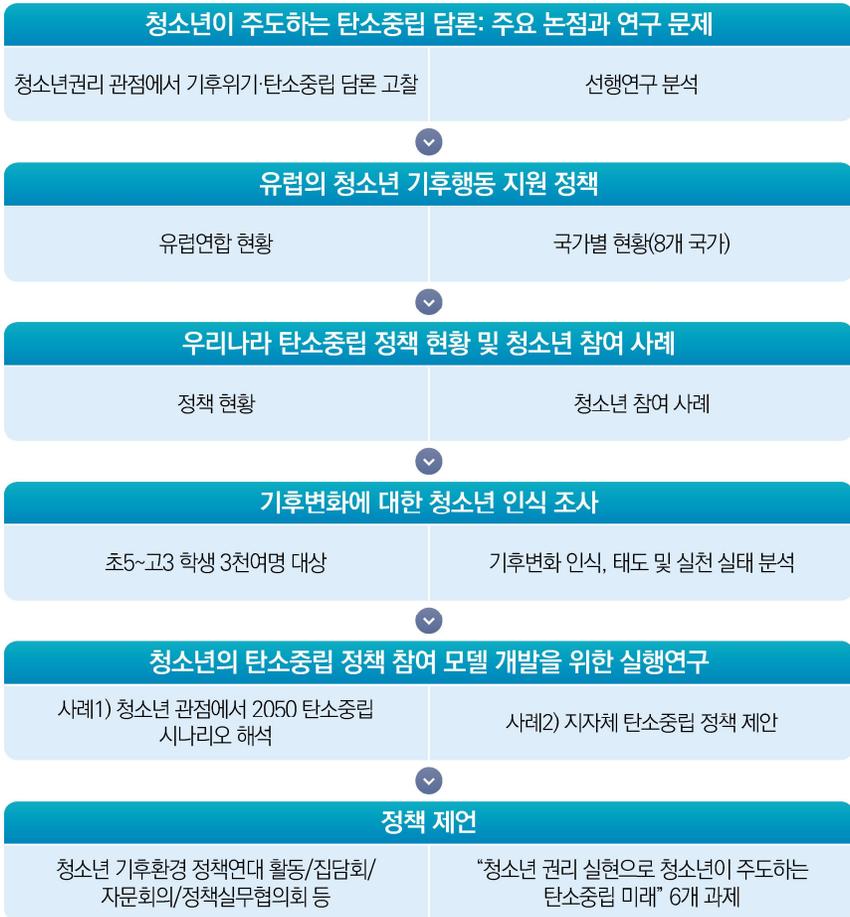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 ○ — 제2장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담론: 주요 논점과 연구 문제

- 1. 청소년 권리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담론 고찰
- 2. 청소년 기후 행동 관련 선행 연구 고찰
- 3. 소결: 연구의 주요 논점 및 연구 문제



### 1. 청소년 권리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담론 고찰<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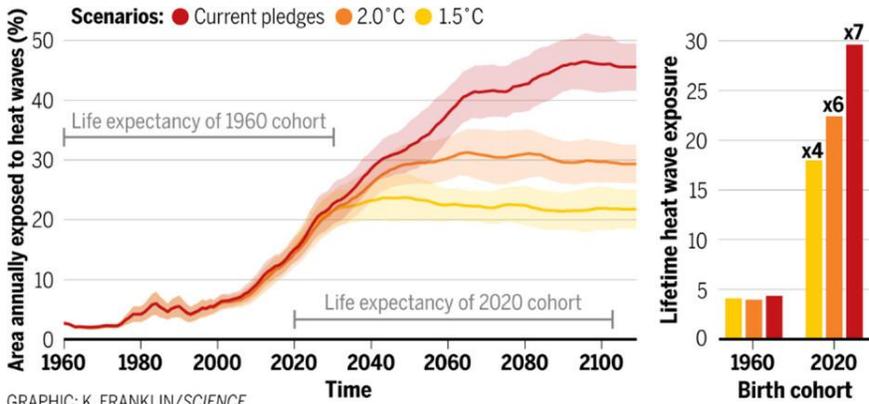
#### 1) “기후 위기는 아동·청소년 권리의 위기”: 기후 정의와 청소년 권리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폭염과 가뭄 등, 이상 기후 뿐 아니라 생물종 감소 및 서식지 피해, 폭우 및 침수에 따른 정주공간과 기반시설 피해, 식량자원과 생산환경기반 피해, 감염병 및 각종 질환 증가, 산업과 에너지 위험성 증가 등, 인류 생존의 근간이 되는 자연·사회 시스템에 전 방위적 영향을 미친다(김은아, 박성준, 정훈, 2020; IPCC, 2014).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미래세대에게 훨씬 더 위협적이다. 과학전문학술지 사이언스 지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각 국가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1960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팀은 만약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여 파리 기후협정의 1.5℃ 상승 수준으로 기온 상승을 막는다면 2020년 출생 세대의 폭염 횟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같은 세대 내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즉 유럽에서 태어난 2020년 출생 세대보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동일 세대의 극한 기후 경험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한겨레, 2021.9.27.).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기후 변화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 아동은 생리학적, 발달상의 이유로 기온, 대기,

5) 이 장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6) 이 절은 문헌 외에도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청소년 주도성 담론 형성을 위해 본 과제에서 주최한 청소년정책포럼(제목: 기후 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의미하는가? 일시: 2022년 4월 26일) 및 집담회(제목: 청소년, 기후 위기 시대의 삶을 질문하다 1차: 2022년 7월 12일, 2차: 2022년 8월 23일)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음.



GRAPHIC: K. FRANKLIN/SCIENCE

\* 출처: 한겨레(2021.9.27.) 기후 위기,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폭염 7배 많이 겪을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2891.html#csidxb6d2b01afa03b879c01864d65b41b3f> (검색일: 2022. 10. 17).

\* 원출처: Wim Thiery et al. (2021). Intergenerational inequities in exposure to climate extremes, Science, 374(6564), pp.158-160.

그림 II-1. 기후 위기 영향의 세대 간 차이연구

질, 수질, 영양상의 변화로 인해 건강, 발달, 웰빙에 큰 영향을 받고, 2)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나라에서 아동의 인구 비중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높으며, 3) 극한 기후와 자연 재난, 물 부족과 식량 불안정성, 대기 오염과 매개성 전염병,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외상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아동이 겪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UN General Assembly, 2017, p.3).

이어 2021년 유니세프는 “기후위기는 아동권리의 위기”라는 슬로건하에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아동의 노출 정도와 취약성을 나타내는 ‘아동기후위험지수(Children’s Climate Risk Index: CCRI)’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는 1) 기후 및 환경 충격과 스트레스 노출과 2) 아동의 취약성이라는 두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후 및 환경 충격과 스트레스 노출에는 물 부족, 강 범람, 해안 범람, 열대성 저기압(사이클론), 매개성 전염병, 폭염, 대기 오염, 토양 및 수질 오염 등의 요인이 포함되며, 아동의 취약성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상태, 교육, 식수 및 위생, 빈곤 및 사회적 보호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다(UNICEF, 2021, p.73). 이 모델은 전 세계 지역별, 국가별로 아동이 기후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이러한 노출에 얼마나 취약한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 차이를 보여주며, 온실가스 감축 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 외에도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구 기온 1.5°C 상승 제한과 더불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위한 기후 기금의 조성, 기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아동 참여 조치와 같은 아동 친화적 장치와 플랫폼 마련, 아동의 웰빙과 회복력 향상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이 요구된다(Save the Children, 2021, p.9).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제로 일반논평을 준비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기후 위기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사회 불평등과 인권, 즉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조혜제, 2020).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기후변화의 원인과 피해와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아우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논의 역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다가를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예고되는지, 예견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들을 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같은 다양한 권리들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전혜숙, 2022).

## 2) 청소년 기후 행동과 행위주체성: 그레타 툰베리? ‘무력한 피해자’<sup>8)</sup>?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17개 목표 가운데 13번째 목표는 기후 행동(climate action)으로서,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에 기후 변화 대응방안을 통합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증진, 인적 및 제도적 역량 증진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후 위기 피해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 여성·청년·지역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표 II-1).

7)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concept-note-general-comment-childrens-rights-and-environment-special-focus-climate-change>(검색일: 2022. 10. 17).

8) 집단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청소년을 기후 위기의 ‘무력한 피해자’로 틀지우는 것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행동과 참여를 방해하는 사회적 시선이다(이한결, 2022).

표 II-1. 지속가능발전목표 13번 기후 행동 목표의 세부 내용

세부 목표	내용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과 적응력을 강화한다.
13.2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a	기후 변화 완화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따라, 유엔기후 변화협약 (UNFCCC)의 선진 당사국이 공동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까지 이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처를 통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완전한 운용을 시작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해 최빈국과 군소도서 개발국에서 기후 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개발 메커니즘을 증진한다.

\* 출처: <https://impactlibrary.net/entry/UN-SDGs-goal-13> (검색일: 2022. 10. 17).

이러한 틀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에 대한 개념 역시 개인적인 인식 변화와 실천 노력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기후 위험에 대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당사자이자 권리주체로서의 위치로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 NGO인 Red Cross Red Crescent가 전개하는 청소년 캠페인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변화의 핵심을 인식, 행동, 옹호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Red Cross Red Crescent, 2021). 먼저 인식의 차원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실제로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미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행동의 차원은 단순히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개인적 실천을 넘어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복력(resilience)을 갖추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 참여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주거, 교통, 도시, 산업, 거버넌스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들에 회복력을 갖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접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옹호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청소년 캠페인, 시위, 학교 자치 활동,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유형의 참여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위주체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청소년 참여 실태를 인식, 행동, 옹호의 차원에서 점검해볼 수 있는

질문꺼리를 제공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은 단지 개인적인 실천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소리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기후 세대로서의 역할을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학교 결석 시위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부터이다.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8월 기후변화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고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는 곧 유럽과 전 세계 청소년들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700만명 이상 참여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오마이뉴스, 2021.6.9.).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은 네덜란드 우르헨타 재단이 900명의 시민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유럽인권재판소가 천명한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아일랜드,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으로 기후변화 소송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강이현, 2021). 2019년 유럽의회 선거와 2021년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의 약진은 이러한 흐름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도 실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Guardian, 2019.5.28., 2021.9.30.; ibid.).

이처럼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행동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변천 속에서도 청소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제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5)에서 최초로 아동·청소년 포럼이 개최된 이래, 제8차 총회(COP8)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아동 현장과 「아동·청소년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프레임워크 구상」(Joint Framework Initiative on Children, Youth and Climate Change)을 통해 청소년의 역할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제11차 총회부터는 해마다 본회의와 함께 청소년 회의(Conference of Youth)가 개최되어 왔으며, 제15차 총회부터는 YOUNGO라는 별도의 시민단체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로써 청소년 대표들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의 공식적인 정보교환, 정부 간 회의참여, 공식적인 회의 주재 등의 권한을 갖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UNFCCC, 2010; 황세영, 2021, p.5에서 재인용). 이어 제18차 총회에서는 2012~2020년까지 기후변화협약 제6조에 따

른 「도하 실행프로그램」(Doha work programme)을 채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생활양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특히 각 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ibid).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후행동’ 단체를 비롯하여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로 2019년 3월 결석시위가 시작되고, 2020년부터는 글로벌 기후 운동과 연대하여 시위를 여는 등, 청소년 주도의 기후위기 행동이 확산되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19년 서울시교육감에 ‘멸종위기 청소년들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2020년에는 17개 교육청에 교육예산이 석탄에 투자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이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대통령 의견서의 형태로 국가의 대응 노력을 피력하였고, 이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며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2021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 청소년기후행동의 활동가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참여구조의 비민주성을 사유로 탈퇴하기도 하였다<sup>9)</sup>.

이처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로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 참여가 친환경적 행동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배제되거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역시 여전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요구와 현실 정치체제 간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기후행동에 있어 참여의 스펙트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결석 시위와 같은 적극적인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에 국한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또는 봉사 활동의 형태로 청소년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탄소중립 정책이 현재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참여가 제도적, 실질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지 살펴볼

---

9)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웹사이트. <https://youth4climateaction.org> (검색일: 2022. 10. 17).

필요가 있다.

### 3) 기후 위기에서 탄소중립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만드는 미래는 어떻게 가능한가?<sup>10)</sup>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산업화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국가 경제정책에 있어 뉴노멀을 특징짓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녹색산업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시 등, 기후 변화 리스크 공시 의무화와 재생에너지 100% 활용 동참(RE100) 등, 탄소중립을 향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아 2017년 기준 세계 11위, OECD 회원국 중 5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sup>11)</sup>.

이에 2021년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과 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만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아래 그림과 같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그림 II-2),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는 어떻게 결정할까? 한국 사회에서 석탄 발전을 모두 폐쇄해야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탄소중립 사회에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가능한가?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온실가스 배출에 매기는 세금은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오르는 전기 요금 가격 인상분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지워야 할까?(이유진, 2022)

---

10) 이 내용은 본 과제에서 추진한 제43차 청소년정책포럼의 발제 및 토론 내용을 담고 있음.

11)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88> (검색일: 2022. 10. 17).



그림 11-2. 온실가스를 줄이는 10가지 대안

\* 출처: 이유진(2022). 기후 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제43차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원출처: <https://www.wri.org/insights/net-zero-ghg-emissions-questions-answered> (검색일: 2022. 10. 17).

특히 기후 위기가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토론과 청소년 당사자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기후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예고하는 수많은 변화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청소년을 기후 위기의 피해자로 보거나 반대로 과도한 책임감을 지우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성세대가 청소년과 함께 토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SPREAD Sustainable Lifestyles 2050」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모여 2012년 현재 자신이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생애 계획에 따라 2050년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SPREAD Sustainable Lifestyles 2050, 2012a). 개개인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먹거리 생산방식, 주거/건물,

교통/여행, 소비, 여가를 보내는 방법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 시스템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2050 시나리오는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결부되어 있다(SPREAD Sustainable Lifestyles 2050, 2012b). 예컨대 기후 위기의 본질이 자본주의의 지속불가능성에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경제성장을 여전히 전제로 한 탄소중립 정책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탈성장(de-growth)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미래사회를 상상할 것이다(사이토 고헤이, 2021).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사회의 비전은 청소년 관점에서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삶과 공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의 성취가 아닌 다원 가치 기반의 미래비전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사회는 이들의 새로운 '성취'를 지원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김유빈, 2022). 예컨대 탄소중립 사회에서 청소년의 일과 노동의 의미는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까?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정의로운 전환'은 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로부터 노동자와 지역을 배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탄소중립 추진이 산업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만 틀지어진다면 '정의로운 전환'은 그저 남의 일이거나 경쟁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다(천성원, 2022).

결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갖는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과 일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가치들에 대한 논의와 상상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점에서 청소년들이 지닌 다양한 삶의 조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청소년'은 하나의 정체성을 지니는 집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기후 행동에 적극적인 청소년과 아닌 청소년, 화력발전소 산업 의존적인 지역에 사는 청소년,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거공간에 살거나 반환경적인 일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등<sup>12)</sup>, 기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에 따라 청소년들 간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떤 상상이 가능하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성찰이 필요하다. 결국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주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조건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

---

12) 이와 관련하여 집담회에서는 편의점과 백화점 식품관 등, 소비산업 또는 기후 재난에 취약한 택배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들의 사례를 들어 이들에게 자립과 친환경적 실천 행동은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조인희, 2022).

## 2. 청소년 기후 행동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 선행연구 분석의 목적과 범위

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참여의 개념을 청소년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개인 실천, 정치 행위, 정책 참여 등, 다양한 참여 행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참여와 실천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접근 역시 다양하다. 먼저 행동의 개념을 개인적 수준에서의 실천으로 접근하는 행동계획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개인의 친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 실천에 영향을 주는 지식, 의도, 가치, 신념, 통제(locus of control)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행동 변화를 촉진하거나 가로막는 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Pickering, Schoen & Botta, 2021).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으로 환경교육에서 친환경적 실천을 위한 교육의 틀을 개발하는데 지배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행동 중심의 접근법은 개인에게 환경 실천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책이나 시스템 변화와 같은 더 큰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Trott, 2021b). 이와 관련하여 Jorgenson, Stephens and White(2019)은 기후 변화 교육과 에너지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정치적 변화와 정책 변화를 포괄하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으로서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청소년들 스스로 이러한 개인적 실천의 틀을 넘어 집합적 행동과 시스템의 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을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 교육에 있어서도 기존의 학교 중심, 지식 중심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며 보다 참여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청소년 중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ousell & Cutter-Mackenzie-Knowles, 2019).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의 목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social movement)으로서 청소년 기후 운동이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기후 위기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 동력, 권한의 한계, 사회에서의 제약 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 기후 행동의 의미를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실천에 있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 즉, 가족과 또래관계, 지역사회 등,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인식, 기후 행동 참여의 동기와 제약, 그리고 참여를 통한 영향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소년 기후 운동에 관한 연구

### (1) 청소년의 참여 동기 및 참여자 특징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와 경험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Fisher(2016)는 청년 기후 활동가들의 생애 궤적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기후 행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참여 의지의 원천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4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17~28세 청년들이 살아오면서 기후 행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게 된 전환의 계기, 자연과 사회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 지속적인 참여경험의 역동성, 기후운동에 대한 의지 등의 주제를 탐색하였다. 특히 활동가들의 지나온 경험 속에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회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서로 영향을 주며 기후 행동 참여 의지를 지속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활동가들의 기후 행동에 전환적 계기가 된 경험(turning point)은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슈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후 행동 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가진 개인적인 관심사를 기후 변화 이슈와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Haugestad et al.(2021)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에 참여한 노르웨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를 분석하였다. 먼저 93명(13~30세)의 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결과는 기후 운동의 참여 동기를 세 가지 주제로 보여준다. 첫째, 참여 동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다기보다 모두가 공유해야 할 책임으로 생각하고, 개인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박탈된 미래와 세대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미 기후위기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관련되어 있다. 셋째, '미래세대로서의 정체성의 공유'가 참여 동기를 촉진한다는 점이다. 특히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청소년 연령대 참가자들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각과 참여, 그리고 청소년 간 연대를 통해 사회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Brügger et al.(2020)은 사회 정체성 모델 이론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 참여의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위스의 14~25세 청소년 40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시위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시위 참여집단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강한 도덕적 확신, 분노, 자부심, 효능감에 대한 믿음, 사회 정체감 측면에서 모두 비참여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기후 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회 정체성이 영향을 준다는 점과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등, 정서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보다 크게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 기후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서적 호소와 더불어 기후 운동이 극단적인 행동이 아닌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Budziszewska와 Gład(2021)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사회 참여 경험의 의미를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요구되며, 특히 정체성 형성과 탐색을 통한 권한강화(empowerment)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에 참여한 폴란드 청소년(15~21세)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해석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시위 참여는 기후위기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꼭 필요한 일’로 인식되었다. 둘째, 시위 활동은 권한강화의 경험으로 인식되었다. 어른들에게 통제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공간과 목소리를 누리게 해주는 ‘행위 주체성(혹은 행위자성, agency)’이 발현되는 경험으로써, 특히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외치고 목소리를 내는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강력하고 열정을 다지게 해주었다. 셋째,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 간의 동료 의식을 다지게 해 주었다. 청소년들은 우정과 연대감을 경험하였고, 때로는 그룹 안에서 갈등과 차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삶의 다른 부분과 균형 문제, 시위 활동을 조직화 하는 문제, 지나치게 많은 일들로 인한 피로감과 소진 등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기후 운동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후 운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를 조사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Lee, K., O'Neill, S., Blackwood, L. and

Barnett, J.(2021)은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참여한 잉글랜드 청소년 22명(11~17세)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위 참여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다. 시위 비참여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기후 행동의 중요성과 세대 간 불평등에 공감했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권리로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어른들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청소년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들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시위 참여 집단과 참여의향 집단의 경우 시위를 통해 정부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변화가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실제로 작은 지역단위 노력들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비참여자들은 시위 자체가 변화의 촉매제가 된다고 보다는 쓰레기 줍기나 나무심기와 같은 개인의 행동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비참여자들은 시위 참여 청소년들을 ‘지나치게 친환경적’이거나 ‘수업을 빼먹기를 좋아하는’ 등의 극단적인 성향으로 간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온건한 입장에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그간 주로 청소년 시위를 중심으로 청소년 기후 행동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다양한 청소년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Feldman(2022)은 호주의 상황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사립학교 청소년들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이들 연구에서 시위 비참여자들을 ‘무관심한’ 청소년들로 따지를 붙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서구 선진국 청소년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비판도 있다. Ritchie(2021)은 태평양 섬나라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겪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의 배제 경험을 분석하면서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국주의적 역사와 이로 인한 환경생태계의 변화에도 있다는 점과 기후위기로 실질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이들 나라의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소년 기후 행동에 있어 청소년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메시지가 단일하기보다는 다층적이며, 세대 간 불평등문제뿐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문제도 핵심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 기후 행동이 ‘기후 정의’의 문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Grewal, Field & Berger, 2022).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기후 위기 문제를 세대 간 불평등뿐 아니라 사회 계층 간 또는 국가 간 불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사회구조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 정의’의 프레임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Svarstad, H., 2021). Stapleton(2019)의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의 기후정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추상적으로만 바라보던 인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와 부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문제로서 인식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 (2) 청소년 기후 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지금까지는 주로 청소년 기후 운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았다면, 실제로 청소년 기후 운동이 갖는 파급력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또는 사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Bergmann과 Ossewaarde (2020)는 독일에서 뉴스를 통해 그려지는 청소년 기후 운동에 대한 연령차별주의적 시각이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영향력을 제한한다고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일간지 각 1종씩 2종에 실린 청소년 기후 운동 관련 뉴스 98건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주의적 관점이 기후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다수인 85건의 기사에서 청소년 참여자들을 ‘학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미숙함과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어 있는 위치를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29건의 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의무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무단 결석자’의 행동, 나아가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순수하지 않은’ 이미지로 그림으로써 청소년 기후 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부각시켰다. 다음으로 21건의 기사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을 비현실적이고 근거가 없는 ‘몽상가’들의 행동으로 그리는 경향을 나타냈고, 이는 청소년들의 무지함과 주장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71건의 기사에서는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어린 영웅’으로 묘사하였는데, 때로는 ‘그레타, 기후 재앙에 맞서는 예수’와 같이 영웅적 이미지를 과장되게 그려냄으로써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거리감을 주는 캐릭터로 만들기도 했다. 또한 영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듯하지만 ‘어린 소녀’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그 영향력을 폄하하거나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 종합하면 미디어 담론은 기후 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시각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의 정당성보다는 회의주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결국 청소년 기후 행동에 불신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연구가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청소년 기후 운동 담론이 운동의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Marquardt(2020)는 청소년 시위로 촉발된 기후 행동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에서 대립되는 가치의 양상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가 촉발한 사회운동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의 확산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기술적 상상체(sociotechnical imaginaries)들 간의 경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회기술적 상상체는 미래 비전과 계획, 사회적 요구, 위험과 위협, 국가의 역할, 시민의 역할, 시장과 경제의 역할, 과학기술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가에 대한 여러 차원의 질문들로 구성된다. 2019년 청소년들의 시위는 많은 환경단체들을 비롯하여 학부모, 학자, 기업가 등, 여러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전통적인 좌우 이데올로기와 차별화되는 ‘포용성과 합리성’ 지향하는 운동으로 자리잡으며 석탄 발전소 폐쇄, 탄소 가격, 비행기 그만타기(flight shaming) 논쟁, 지방정부 기후 위기 선언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실제 청소년 기후 행동에 투영된 가치와 주장들은 여러 갈래가 있었으며, 크게 온건한 입장과 급진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사회기술적 상상체를 보여준다(표 II-2).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등,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 청소년 기후 운동은 주로 온건한 입장으로 그려진 반면 그 안에 내재한 보다 급진적인 입장은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더 큰 정치적, 사회적 변화 효과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II-2. 청소년 기후 운동에 내재한 두 가지 입장

사회기술적 상상체의 여러 차원	온건한 입장	급진적 입장
미래 비전과 계획	기술혁신주의에 기반.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술발전 등, 강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의 점진적인 변화 추구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급진적인 전환 필요. 기술 진보 대신 행동 양식과 시스템의 변화 요구. 반자본주의적 아이디어와도 연계
사회적 요구와 우선순위 과제	기후 변화 대응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과 연결. 경제적 진보 부의 창출, 일자리 확보와 기후 보호, 그리고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문제로 인식	기후 위기는 경제적 복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
위험과 위협	지나치게 야심찬 기후 행동으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바라봄. 독일의 경제적 경쟁력과 창출된 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경제적 위험은 기후 위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입장

사회기술적 상상체의 여러 차원	온건한 입장	급진적 입장
국가의 역할	과학지식에 기반한 탈 탄소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 요구	정치 체계,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상상 요구. 급진적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강조
시민의 역할	개개인이 소비, 생활양식의 변화, 자발적인 참여 등, 기후 변화에 책임을 지님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시스템 변화를 이루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시장의 역할, 경제와 성장의 의미	시장경제와 생태적 근대화를 통해 녹색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	성장 지향적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후기 성장 또는 탈 성장 등, 대안을 논의
과학기술의 역할	기후 과학을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을 평가하는 안내 틀로 활용	과학지식은 정치와 힘의 작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바라봄.

\* 출처: Marquardt, J. (2020). Fridays for future's disruptive potential: an inconvenient youth between moderate and radical ideas. *Frontiers in Communication*, 5, 48, p.13.

이처럼 청소년 기후 운동의 의의는 사회의 다양한 담론을 통해 그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기후 운동은 소셜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 간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파급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ielk와 Standlee(2021)는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더 큰 집합적 행동 문화를 창조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 운동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청소년 활동가(11~17세)들은 트위터에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또래 활동가들과 기후 운동가들과 연결하며 커뮤니티를 창조하고 있었다. 일부는 완전한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또 다른 일부는 십대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기후 운동과 청소년 문화를 결합하고 어른들에게는 책임감을 요구하면서 기후 운동에의 참여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들의 저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이 결합되어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해쉬태그와 리트윗은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홍보와 확산의 도구가 되었고, 오프라인 활동은 다시 청소년 활동가들 간의 연대의식과 커뮤니티 의식을 만들어냈다. 또한 해쉬태그와 리트윗을 통해 축적된 메시지들은 사건과 행동을 연결하고 조직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 확산되었다. 예컨대 '#COP25'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모인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소재로서 개개인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매개되어 공유된 사례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분노 등의 강한 감정들로 채워진 내러티브는 도덕적 긴박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온라인상에

기후 위기 행동에 대한 호소력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온라인상의 사회운동을 단지 개인의 “기분 좋은 행동”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위 슬랙티비즘(slactivism: 게으름뱅이라는 뜻의 slacker와 activism의 합성어)이라는 비판과 달리, 청소년 기후 운동이 온라인에서의 문화가 오프라인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Boulianne, Lalancette and Ilkiw(2020)는 트위터를 활용한 청소년 기후 행동의 글로벌 영향력을 논의하였다. 2019년 3월 25일에 열린 학교 결석 시위와 관련하여 작성된 트위터 데이터 993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적 범위는 53.1%, 글로벌 범위는 18.4%, 국가적 범위는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달된 내용의 기능적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보 공유는 52.3%, 의견제시는 29.0%, 공격과 비난은 13.6%, 집결을 위한 홍보는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청소년 기후 행동이 글로벌, 국가, 지역의 다양한 공간적 수준을 포괄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해결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ide와 Kunelius(2021)는 청소년 기후 운동에서 기후 과학이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식과 그 힘의 의미를 조명하였다. 파리 협약이후 2018년 출간된 IPCC의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의 1.5℃와 2℃ 간 차이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달함으로써 1.5℃ 수준으로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기존의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담론의 프레임이 전환되는데 기여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의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헌신과 수사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확산됨으로써 개인 행동 틀(personal action frames)이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촉발시키는 “연결되는 행동(connective action)”의 힘을 보여주는데 주목하였다(ibid. p.6). 23개국 31명(12~30세)의 청소년 및 청년 활동가들에 대한 면담에서 이들은 기후 과학에 대한 신뢰와 과학적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학습, 과학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소년 기후 운동의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을 기후 과학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해 나갔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너무 늦은 게 아닌가?”하는 비판론이 아닌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데 성공하였고, 이것이 세대 간의 정의와 책무의 문제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ibid. p.16).

한편으로 청소년 기후운동의 영향력을 사회정치적 변화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변화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현명주와 김남수(2021)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교육문화에서 규범화된 경계를 넘고 청소년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교육을 재규정하는 노력으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시위 참여가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사로부터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인식되는 등, 기존의 교육문화의 틀에서 볼 때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된 경험이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수직적이고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위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의 전환을 고민할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신현정의(202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 경험을 일상 속에서 기후 문제와 관련된 성찰을 반복하며 다양한 관계와 실천을 만들어내는 교육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McGregor와 Christie(202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운동이 지역사회 맥락에서 변화를 촉진하고 기후위기의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는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시각과, 기후 정의의 개념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기후 행동의 가치를 실제 교육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는 교사의 시각 간 간극에 주목했다. 이는 청소년 기후 행동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기존 학교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기능들과 충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기후 운동의 의미는 <표 II-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3. 청소년 기후 운동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 분야	주요 결과
청소년 기후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관심사를 지구적 이슈와 연결함으로써 참여 동기 유지</li> <li>-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책임의식의 발현, 청소년 정체성 중요</li> <li>- 기후 위기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참여 동기에 영향</li> </ul> </li> <li>• 행위주체성의 발현: 동료의식, 연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실천에서 나아가 집단적 행동 참여의 어려움: 권한 강화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기여</li> <li>- 지속적 참여의 어려움: 조직화, 소진</li> <li>- 기후 정의: 선진국 청소년의 목소리 대변의 한계. 불평등 문제 부각 필요</li> </ul> </li> <li>• 사회정치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의 한계: 정당성보다는 회의주의의 부각</li> </ul> </li> </ul>

연구 분야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바라는 미래의 다양한 스펙트럼: 급진적 입장보다는 온건한 입장이 주로 대변</li> <li>-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메시지가 빠르게 공유, 오프라인 행동과 결합하여 파급력 지남. 지역적 맥락과 글로벌 수준의 담론 간 상호작용, 기후 과학을 활용한 성공적인 메시지 전달</li> <li>- 청소년 정체성 재규정: '학생 역할' 탈피, 창의적인 시위 문화, 일방적인 교육의 학습자에서 주체적 참여자로</li> <li>- 교육 재규정: 기후변화교육의 결과가 아닌 과정과 시작점으로서 기후 행동의 의미. 학교 교육의 구조적 한계</li> </ul>

### 3) 청소년 참여의 일상적,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 (1) 청소년의 기후 인식에 대한 문화적, 지역적 관점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은 기후 운동이라는 정치적 행위로만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와 지역의 맥락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Börner, Kraftl and Giatti(2021)은 기후 운동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아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주체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취약 지역인 브라질 상파울로 외곽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에서 발견되는 행위주체성의 복합적인(hybrid) 맥락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들은 잦은 폭우와 범람, 그리고 이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이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무관심한 것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양가적이고 감성적이며', '내재적인 행동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Horton & Kraftl, 2009; Börner et al., 2021, p.278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은 미디어, 정부, 학교 교육 등에서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기후 담론을 지루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치부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 이면에 정작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신뢰를 쌓음으로써 기후 위기가 청소년들의 삶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기획한 마을 투어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안내하고,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지역에서의 자원 부족과 기후 변화의 피해를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들은 때로는 전문가처럼, 때로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행위주체성을 경험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참여적 실험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로 수행되어 청소년들의 일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기후위기를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에서 어른들이 만들어낸 담론과 다른 청소년들의 해석과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었다.

Trott(2021a) 역시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행위주체성의 의미를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생활 경험이 갖는 변혁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 환경 행동주의(everyday environmentalism)’를 “자신과 다른 이들의 일상적인 실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 실천을 바꾸고, 적응하고, 균열을 주려는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정의한다(Walker, 2017, p.14. *ibid.* p.2에서 재인용). 이는 주로 시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보다 개인의 소비패턴을 바꾸거나 기후위기에 대해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나누기, 등의 일상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rott(2021b)는 방과 후 기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에너지 절약 등을 실천하면서 개인 차원의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친구들과 계도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일상적 환경 행동주의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이루는 상향식의 문화적 노력으로서, 정책을 통한 하향식 변화와 더불어 기후위기 해결의 또 다른 접근법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적인 노력은 특정한 양식으로 정해진 친환경적 행동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권한강화의 기회를 의미한다. 예컨대 참여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관련 이슈와 대안을 탐색하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동의 영향력을 평가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과학지식 중심의 틀로 기후위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예술 기반 참여를 통해 기후 변화의 복잡성과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들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그려보도록 하는 방법도 해당된다.

한편 기후 재난은 청소년들의 일상과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Mort et al.(2018)은 기후 문제를 포함한 환경 재난에 있어 복구 정책을 마련하는데 아동·청소년들의 경험과 목소리 역시 시민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McDonald-Harker, Bassi and Haney(2022)은 캐나다에서 역사적인 재난으로 기록된 2013년 알버타 주 폭우 사태 이후의 아동·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환경 이슈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성찰성(reflexivity)이 녹색 정체성과 생활양식, 일상적인 실천과 행동주의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기후 재난을 경험한 아동·청소년 83명(5~17세)을 대상으로 재난 전후의 경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아이들(45명, 57%)은 재난을 경험한 후 지구와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폭우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실제 경험하면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우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날씨와 기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같은 재난을 경험한 성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들은 재난을 지구의 변덕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25명(32%)의 아이들은 폭우의 주된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고 보았고,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다양한 환경 이슈들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다. 재난 이후 환경 행동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아이들이(72명, 91%) 환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각자 개인의 일상과 가족, 학교, 지역 단위에서 친환경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후 재난을 경험한 필리핀 청소년 452명에 대한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climate change anxiety)이 기후 행동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imon, Pakingan & Aruta, 2022).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무관심한 어른들을 각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다룬 연구는 드물다. 전해수, 정하은과 최선아(2021)는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였다. 아동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삶의 방해꾼' 같은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상기후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제약과 대안관계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2)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모델

지역사회 맥락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환경문제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실천 역량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연구들에서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역량 증진과 함께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에 기여한다고 보고한다(Delia & Krasny, 2018). 이 절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Riemer, Lynes and Hickman(2014)은 비형식 환경교육의 형태로서 청소년 주도 환경관리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 참여(youth engagement)를 청소년 회의, 봉사활동, 방과후 활동, 지역사회 활동 조직, 정치 참여 등, “청소년들이 자기 바깥에 초점을 둔 활동에 의미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ibid. pp.555-556).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주도 환경관리 프로그램 모델은 1) 활동/프로그램, 2) 촉진 요인, 3) 참여, 4) 지속 요인, 5) 성과 등의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표 II-4>와 같다. 이 모델에서는 환경 이슈의 복잡성과 활동의 성과가 종종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촉진·지속시키는 요인과 반대로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표 II-4. 청소년 주도 환경관리 모델

프로그램 요소	내용
1. 활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일차적인 초점이 참여자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예. 어떤 주제에 대한 학습), 의도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음(예. 지역사회 조직화)</li> <li>• 구조: 단기간의 집중 프로그램(예. 청소년 회의/회담), 또는 장기간에 걸쳐 구성</li> <li>• 청소년 리더십: 참여자에 머무를 것인가 프로그램 구성에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li> <li>• 질: 권한 공유, 단기 측정가능 목표 설정,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와 롤모델 제시, 성장과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li> </ul>
2. 참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도: 참여 빈도와 집중 정도</li> <li>• 전략: 참여 촉진을 위한 정서적, 인지적, 영적, 행동 수준의 전략</li> <li>• 폭: 활동의 종류(구조화된 세션으로 구성 또는 다른 형태의 활동들로 구성)</li> <li>• 기간: 단기 또는 장기, 헌신적인 참여의 지속기간</li> </ul>
3. 촉진 및 유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요인: 종교적, 도덕적 신념, 이전 경험, 도구적 가치에 대한 인지</li> <li>• 사회적 요인: 가족 또는 또래 롤 모델, 프로그램 내 긍정적인 관계</li> <li>• 체계 요인: 학교 활동과 연계 여부, 대의명분과의 관련성</li> </ul>
4.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성과: 학업 성취, 자신감 향상, 개인적 문제 해결</li> <li>• 사회적 성과: 사회적 기술, 긍정적인 사회 관계와지지</li> <li>• 체계 성과: 시민 참여의 증진, 환경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li> </ul>

\* 출처: Riemer et al.(2014). A model for developing and assessing youth-based environmental engagement programme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0(4), pp.564-568.

이 모델은 Andrews et al.(2019)의 캐나다 서스캐처원 델타 강 지역의 환경 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학습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델타 강 주변의 댐 건설로 인한 생물종의 감소 등의 환경 변화를 학습하는데 있어 원주민의 역사와 자연생태에 대한 토착적 지식의 세대 간 전수에 초점을 두어 지역 내 학교와 대학 연구자, 지역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주민들 등이 연구 과정을 함께 기획하였다(co-design). 프로그램에는 7~11학년 청소년들이 참여하였고, 청소년들은 공동 연구자(co-researcher)로서 지역 축제기간 동안 어른들을 대상으로 델타 강의 의미, 지역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참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지역의 환경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비형식적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청소년들은 지역 단위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 정책에 있어 지역 중심의 정책과 실험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단위 정책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Howarth, Lane & Slevin, 2022). 그러나 유엔 기후 변화협약에서 기후 변화 관련 정책에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시민참여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다양성이 제시되고 있지만(Perlaviciute, 2022),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관련된 연구로 Zimba, Simbeye and Chirwa(2021)는 말라위 음주주시의 구단위 시민보호위원회에 청년들의(18~34세) 참여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음주주시는 말라위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범람, 산사태, 강풍 등의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시민보호위원회는 기후재난에 대한 대처와 위험관리를 위해 관련 지자체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 구조로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민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엘리트 위주의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역 내 클럽 등, 이미 조직화되어있는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청년들은 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 요인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책개발 과정의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의 제한, 어른과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의 부재, 수당 등, 외재적 동기로만 참여하거나 “청년 자신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참여”로 인식하는 경향성 등이 파악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기후 정책 수립 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 친화적인 이해당사자 참여전략의 틀을 제안하였다(표 II-5).

1단계는 이해당사자 참여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으로, 청년들의 참여 역량 증진을 위해 참여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거나 기후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는 설문조사나 정책초안 개발과 같은 다양한 정보취합 활동에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언어와 창의적인 활동들이 구안되도록 하는 것이다. 3단계는 다양한 수준으로 설정된 목표를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기후 정책수립에 있어 청년 참여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표 II-5. 청년 친화적인 이해당사자 참여 전략 틀

	1단계	2단계	3단계
청년참여 과정	조직 - 참여 역량강화 : 스킬과 지식 습득	이행 - 접근성 : 공간과 도구 제공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 참여 활동
계획수립 과정	기획 전 - 전략 수립, 이해당사자 파악	기획 및 이행 - 목표 정의, 실행계획 수립,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 기후정책

\* 출처: Zimba et al.(2021). Towards intergenerational equity: Analysis of youth engagement strategies in climate action planning in Mzuzu, Malawi. Urban Planning, 6(4), p.316.

이처럼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정책 또는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모델 외에도 청소년 참여를 연구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잘 드러내기 위한 성찰적인 접근도 제시된다. Fletcher et al.(2016, p.160)은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을 1)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관계 마련하기, 2) 사전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과 직접 프로젝트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3) 다양한 예술적 표현 등을 포함한 참여 활동을 청소년들 고유의 관심사와 지역 내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제시하기, 4) 재난 경험과 관련하여 자연적,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Bowman과 Germaine (2022)는 청소년들이 지닌 ‘변혁적 리터러시(transformative literacies)’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의 연구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역량들을 인정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개인적 조건이 이러한 지식과 역량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인 동시에 불평등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인과는 다른 방식의 언어와 틀로 이야기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기보다는 인정하면서 행동의 방향성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기후 인식에 대한 문화적, 지역적 관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모델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청소년 참여의 일상적, 지역적 맥락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 분야	주요 결과
청소년 참여의 일상적, 지역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인식에 대한 문화적, 지역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와 결합: 청소년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인식</li> <li>- 기후 재난 피해에 대한 무관심: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 기획을 통해 자신의 문제로 인식</li> <li>- 일상적 환경 행동주의: 개인 실천에서 나아가 주변에 영향을 주려는 노력</li> <li>- 참여적 실험연구의 관점: 청소년의 삶의 경험과 기후 위기 문제를 연결하여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기여</li> <li>- 기후 재난의 경험: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어른들에 영향을 주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 기대,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li> </ul> </li> <li>•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참여의 촉진 및 저해 요인 파악 중요</li> <li>- 전문가 및 어른 등, 지역사회 내 지지구조 마련 필요</li> <li>- 지역사회 정책 참여: 이해당사자로서 의사결정 전반에 참여, 역량 강화 지원필요</li> <li>- 청소년 중심성: 청소년이 지닌 '변혁적 리더러시'를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접근</li> </ul> </li> </ul>

#### 4) 시사점

지금까지 청소년 기후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청소년 기후 운동이라는 가시적인 정치 참여행동, 지역 수준의 청소년 참여모델, 일상 경험 맥락에서의 청소년 행위주체성 형성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서 청소년 참여 개념을 단순히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즉, 개인의 행동변화) 넘어 청소년 참여의 다양한 맥락을 청소년을 둘러싼 삶과 세계의 조건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 이를 청소년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재정향하는 것으로 접근하려는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청소년 기후 운동이 갖는 가치를 보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의 형태를 통해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기후 운동은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책임의식과 정체성이 발현되는 기제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참여 청소년들은 집합적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정체감, 동료의식, 연대감을 느끼며 행위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청소년 참여가 모두 '운동'의 형태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활동,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이 기후 위기 문제를 나와 우리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가 사회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믿음을 키워가며, 또래 간 연대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로써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지향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처럼 청소년 '행위주체성'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참여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환경주의(everyday environmentalism)'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행위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여러 영역, 즉, 교육, 활동/참여, 복지/안전, 자립/일 등과 관련하여 기후 위기와 청소년의 삶을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후 문제가 청소년들 스스로 삶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는 '위기'로 인식되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이 부정적인 정서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실천 위주의 학교교육과 청소년 활동에서 나아가 청소년 복지, 안전, 자립, 일의 맥락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 참여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모델이나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에서 강조되는 '청소년 중심성' 또는 '청소년 주도성'이 추상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 발현 또는 제한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 3. 소결: 연구의 주요 논점 및 연구 문제

본 장에서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담론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기후위기는 아동·청소년 권리의 위기로서, 청소년의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이자

권리주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 또는 영웅주의 프레임을 벗어나 청소년을 둘러싼 삶의 조건인 교육, 활동/참여, 복지/안전, 자립/일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발굴함으로써 청소년 권리 증진의 관점에서 청소년 참여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해진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점으로부터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권리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폭넓은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개인의 삶에서 안전과 복지를 보장받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정책 영역은 탄소중립 정책과 교육 및 청소년 활동 영역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급급적 여러 부처의 정책과 주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교육, 활동/참여, 복지/안전, 일/자립 등,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과 역량 계발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의 정책 과제 발굴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주로 3장과 4장의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 기후 행동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참여 행동을 분석하고, 보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개인 실천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영향력 확산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대로 청소년 참여의 영역은 개인의 친환경적 행동뿐 아니라 에너지, 기후, 소비, 교통, 주거, 산업, 일자리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많은 영역들로 확장되어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교육, 활동, 참여의 주제가 어떻게 다각화될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내용은 4장의 청소년 참여 사례, 5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기후 행동은 개인 수준의 인식과 실천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미치는 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의 수준과 질을 판단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지, 참여의 과정에서 역량계발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행위주체성을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떻게 가능할지 실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청소년 기후 운동이나 교육 활동 프로그램 측면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서 더 나아가 장기적인 미래상을 정립하는 정책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제시하고, 참여 모델 개발 및 역량 계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내용은 6장의 실행연구에서 제시하였다.



## 제3장 유럽의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 정책

- 1. 유럽연합(EU) 차원의 청소년 기후 행동 및 지원정책
- 2. 국가별 청소년의 기후정책 참여지원 현황
- 3. 국가별 청소년 주도 활동·프로젝트 사례
- 4. 소결



## 1. 유럽연합(EU) 차원의 청소년 기후 행동 및 지원정책

### 1) 유럽 청소년의 기후 행동<sup>14)</sup>

유럽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 기관인 IPSOS가 2021년 유럽 내 23개국 15~35세 2만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청소년과 청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기후 문제를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ab, 2021, 강이현, 2021에서 재인용).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 2022년 1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유럽 청소년(15~24세)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 대응이 자신들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sup>15)</sup> 이들의 문제 의식은 미래세대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맞닿아 있다.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으로 미래세대의 환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청소년 기후 운동은 2018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등교를 거부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한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15세였던 툰베리는 1인 시위로 행동을 시작했지만 곧 다른 청소년들이 시위에 동참하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이름으로 등교 거부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의 시위는 곧 스톡홀름을 넘어 유럽은 물론 세계로 확대됐다.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주관해 열린 전 세계 기후 파업에는 120국 이상의 도시에서 수백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 시위는 청소년

13) 이 장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음.

유럽연합,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현황: 강이현 박사(벨기에 브뤼셀 생루이대학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현황 및 소결: 황세영 연구위원

14) 이 절은 강이현(2021)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1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20en/ip\\_22\\_447](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20en/ip_22_447) (검색일: 2022. 10. 12).

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후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sup>16)</sup>

청소년과 청년들의 기후 운동은 실제 투표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이 확산되던 2019년 7월에 실시된 유럽의회 총선거는 청년들의 기후위기 의식을 반영한 최초의 투표였다. 30대 이하 유권자의 투표율이 대폭 상승해 1994년 이후 투표율이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유럽 지역 녹색당들이 연대한 녹색당그룹은 의회 내 751석 중 74석을 차지해 의석수를 22석 늘리며 선전했다(European Parliament, 2019). 유럽연합뿐 아니라 국가 단위 정치에서도 청소년 기후 운동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2021년 연방선거에서 3위의 지지율을 차지해 약 20년 만에 연립정부를 이뤄 정권을 잡았다.<sup>17)</sup>

유럽 청소년들은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기후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강이현, 2021). 독일에서는 9명의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Gerretsen, 2021). 독일 대법원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정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후법이 '생명과 동물의 기본 권리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염두에 두고 보호해야 한다.'고 적시한 독일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Donger, 2022)<sup>18)</sup>. 모호한 기후 변화 정책이 2031년 이후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2020년에 포르투갈 청소년(8~21세) 6명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유럽연합 회원국 및 지역 내 다른 국가들(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의 부적절한 기후 위기 정책이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Gerretsen, 2021, 강이현, 2021에서 재인용). 이어 2021년 6월에는 6명의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은 그린피스 및 지구의벗 노르웨이 지부와 함께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채굴이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소송 또한 받아들여 노르웨이 정부가 2022년 4월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Vigne, 2022).

한편, 유럽연합 차원의 청년들의 환경 정책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2019년에 기후 세대유럽(Generation Climate Europe)이 설립되기도 했다(Tenti, 2019,

---

16) <https://fridaysforfuture.org/what-we-do/strike-statistics/list-of-towns/> (검색일: 2022. 10. 12).

1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20713.html> (검색일: 2022. 10. 12).

18) Donger, E. (2022). Children and Youth in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Advancing Rights through Legal Argument and Legal Mobilizatio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11(2), 263-289. doi:10.1017/S2047102522000218.

강이현, 2021에서 재인용). 이 단체는 유럽연합에 기후와 환경 문제에 관한 더 강력한 정책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47개 유럽 국가 내 460개 청년 단체들을 대표하는 9개 단체들이 조직한 유럽 규모의 첫 환경 단체이다. 이들은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기후 정의, 청정교통,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5개 실무그룹을 운영하며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노력하고 있다.<sup>19)</sup>

## 2) 유럽연합(EU) 차원의 기후 정책 참여 지원<sup>20)</sup>

EU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들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을 유럽 청(소)년의 해(European Year of Youth)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의 관심 사안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19년에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이 없는 ‘기후중립21)’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했다. EU는 그린 딜이 경제 및 산업 분야뿐만 아닌 사회 전반이 참여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고 시민 참여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sup>22)</sup>. 현재까지 파악되는 EU 그린 딜 내 청소년 관련 사업은 1. 유럽 시민기후협약(European Climate Pact), 2. EU 틴스포그린(Teens4Green), 3. 기후교육연맹(Education for Climate Coalition)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유럽 시민기후협약은 그린 딜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기후협약 시민대사로 임명된 이들은 EU로부터 별도의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지만 지역 및 네트워크 내 기후 행동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며, 시민사회와 EU 간 다리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 기후협약 대사는 EU 기후 정책에 대한 자문회의에 초청되며 청소년 기후협약 대화에 참가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참가자격은 30세 미만이다<sup>23)</sup>. 2022년 4월 현재 14명의 청소년 기후협약 대사가 활동하고 있다<sup>24)</sup>.

---

19) <https://gceurope.org/> (검색일: 2022.10.12.).

20) 이 절의 주요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europa.eu/youth/year-of-youth\\_en#eu-policies](https://europa.eu/youth/year-of-youth_en#eu-policies) (검색일: 2022. 10. 12).

21) ‘기후중립’은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모든 인위적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통해 넷제로를 만드는 것보다 엄격한 의미의 배출 감소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기후활동가들이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경향신문, 2021.09.09.).

22)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get-involved](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get-involved) (검색일: 2022. 10. 12).

23) [https://europa.eu/youth/year-of-youth\\_en#voices](https://europa.eu/youth/year-of-youth_en#voices) (검색일: 2022. 10. 12).

24) [https://europa.eu/climate-pact/news/kick-starting-sustainable-europe-young-people-2022-03-31\\_en](https://europa.eu/climate-pact/news/kick-starting-sustainable-europe-young-people-2022-03-31_en) (검색일: 2022. 10. 12).

둘째, 틴스포그린(Teens4Green) 프로젝트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에 최대 1만 유로(약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린 딜 정책의 일환인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은 모든 국가가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 산업, 경제, 사회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정책이다. 이 메커니즘은 특히 석탄 광산 등, 탄소집약형 산업 비중이 큰 국가 및 지역 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훈련 프로그램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 탄소중립을 더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 EU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2021~2027년 사이에 약 550억 유로(약 77조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EU 회원국들에 기술 및 자문 지원을 하며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다<sup>25)</sup>.

그러나 기후 세대유럽과 CEE 뱅크워치 네트워크(2022)<sup>26)</sup>는 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이행 내 청소년 참여 현황에 대해 “아직 청소년들이 정의로운 전환 계획의 핵심 관계자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아일랜드와 스페인 정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개발 단계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반면,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매우 단편적인 형태로 이미 완성된 계획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었거나 청소년들의 참여가 아예 배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EU가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틴스포그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EU 틴스포그린은 유럽지역 스타트업 네트워크, 청소년환경유럽(Youth and Environment Europe), CEE 뱅크워치 네트워크 및 기후 세대유럽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관하며 EU는 여기에 약 100만 유로(약 14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대상 지역 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들을 지원할 예정이다<sup>27)</sup>.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기후 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디자인하고 이행하는데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상 연령은 15~24세 청소년으로 12개월 간 최대 1만 유로(약 1,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sup>28)</sup>.

25)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finance-and-green-deal/just-transition-mechanism\\_en](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finance-and-green-deal/just-transition-mechanism_en) (검색일: 2022. 10. 12).

26) <https://www.just-transition.info/wp-content/uploads/2022/05/Briefing-The-state-of-youth-engagement-in-the-implementation-of-the-EU-Just-Transition-Mechanism.pdf> (검색일: 2022. 10. 12).

27)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newsroom/news/2022/06/16-06-2022-eu-teens-4-green-winners-of-the-call-will-promote-youth-participation-in-just-transitio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newsroom/news/2022/06/16-06-2022-eu-teens-4-green-winners-of-the-call-will-promote-youth-participation-in-just-transition) (검색일: 2022. 10. 12).

28) [https://europa.eu/youth/year-of-youth\\_en#voices](https://europa.eu/youth/year-of-youth_en#voices) (검색일: 2022. 10. 12).

셋째, 기후교육연맹은 2025년까지 유럽교육지역(European Education Area)의 핵심 사업이자 유럽 그린 딜의 주력 사업으로 참여형 교육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교사 훈련, 과학과 교육 연결, 녹색 기술 및 경쟁력 강화, 인식 증대, 행동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 유럽 내 교사, 학생 및 교육 관계자들이 서로 지속가능성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sup>29)</sup>.

한편, EU는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청년단체가 정책입안자, 전문가, 연구자, 시민사회와 함께 미래세대와 관련된 정책 우선순위와 협력을 논의하는 EU 청년 대화(EU Youth Dialogue)를 운영해 왔다.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유럽 청년 전략(EU Youth Strategy)도 청년 대화를 통해 결정된 바 있다(European Union, 2021). 그러나 유럽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뒤, 이 전략에서 일자리나 교육 문제에 비해 기후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문제가 제기됐다(Tenti, 2019). 이후 유럽 지역 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EU 자문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는 청소년 기후 운동가 및 청소년단체 대표들과 고위 EU 정책결정자들이 함께 EU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책을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기획했다. 제1회 라운드테이블은 2021년 7월 13일에, 2회 행사는 같은 해 11월 26일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앞으로도 EU 본부가 자리잡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유럽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 기후 세대유럽 등, 청년단체 및 유럽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이다. 약 19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EU의 분야별 장관과 만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해당 장관은 행사 뒤 한 달 안으로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sup>30)</sup>.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는 EU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와 조직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년 2월에 EESC는 EU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내 청소년 참여와 조직화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 의견서는 EU의 기후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서 청소년들이 유의미한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제회의

29) <https://education-for-climate.ec.europa.eu/community/about> (검색일: 2022. 10. 12).

30) <https://www.eesc.europa.eu/en/agenda/our-events/events/youth-climate-and-sustainability-round-table-2#:~:text=The%20Youth%20Climate%20and%20Sustainability%20Round%20Tables%20are%20a%20space,the%20EU%20decision%20making%20process> (검색일: 2022. 10. 12).

협상단에 청소년 대표를 공식 포함하고 EU 청년 대화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 정책 참여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표 III-1).

**표 III-1. 기후·지속가능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내 청소년 참여 조직화에 관한 의견서 (일부)**

- 기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EU 정책결정 과정 내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법안 초안 작성부터 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까지의 과정이 포함된다.
- 청소년 기후 운동과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이는 기후 정의의 세대간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 EESC는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파견되는 공식 EU 협상단에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제 행사에서 참관단체 지위를 가진 EESC 대표단에 청년 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유럽의회와 EESC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럽 청소년 기후서밋(The European Youth Climate Summit)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EU 기관 간 연결을 촉진해 EU 정책 결정에서 청소년들이 유의미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유럽의회도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성 관련 공식 협의 절차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EU가 당사국으로 있는 아루스조약<sup>31)</sup>이 전격 이행되어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가 환경 정책에 관한 참여권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환경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EU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 출처: <https://www.eesc.europa.eu/en/our-work/opinions-information-reports/opinions/towards-structured-youth-engagement-climate-and-sustainability-eu-decision-making-process-own-initiative-opinion>(검색일: 2022. 6. 2).

이처럼 유럽연합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정책 참여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지자체 정책에 청소년 참여를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행된 바 있다. EYES(Engaging Youth In Sustainable Energy Planning)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불가리아 등, 6개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EYES, 2020).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구조마련과 역량개발을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 자문단 기구를 운영하여 지역 전문가들이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참여팀(Youth Intervention Teams)의 정책 참여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청소년 참여팀은 2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핵심적인 활동 그룹으로서, 여러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대변하고, 에너지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청소년 공론장을 기획

31) 일반 대중이 환경에 관한 공공정책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협약.

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여 지자체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제안을 전달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시범사업에서 경험한 청소년 그룹의 파악, 참여 전략 수립, 참여 활동, 성과, 전체적인 전략의 수정 등, 일련의 과정을 절차화하여 각 단계에서 지자체, 자문단, 청소년 그룹 간 상호이해와 소통에 관해 파악되어야 할 쟁점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수준의 기후 정책 수립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EYES, 2020).

이 프로젝트에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청소년 참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II-2>에서와 같이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청소년 참여구조는 1) 새로운 청소년기후위원회(덴마크, 폴란드, 리옹)를 설립, 2) 기존 청소년위원회(이탈리아) 활성화, 3) 기존 환경관련 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스페인), 4) 청소년단체 간 연대를 통한 청소년 포럼 운영(불가리아), 5) 청소년 주도의 정책 제안 행사 기획(스페인) 등,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이는 각 지역별 제도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2. EYES(Engaging Youth In Sustainable Energy Planning) 프로젝트 이후 마련된 지역별 청소년참여구조**

시범지역	프로젝트 이후 마련된 기후정책 청소년참여 구조
덴마크 손더보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후위원회 설립</li> <li>• 지역 청소년 대변,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li> </ul>
스페인 그라노예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환경·지속가능성자문단에 청소년위원 참여</li> <li>• 에코페스티벌: 시장에게 청소년들의 제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행사를 청소년들이 기획</li> </ul>
이탈리아 나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법정기구인 청소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책 의사결정 기회 보장</li> </ul>
프랑스 리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차원의 청소년기후위원회 설립 논의 단계</li> </ul>
불가리아 바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140여개 청소년단체를 결합한 청소년 포럼 운영</li> </ul>
폴란드 치에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후위원회 설립</li> <li>• 지자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에 참여</li> </ul>

\* 출처: EYES(2020). Guidelines for municipalities to use youth participation for improving local policies and enhance youth engagement in climate action. <https://www.projecteyes.eu> (검색일: 2022. 10. 12).

청소년들을 위한 기후 행동 지원은 유럽 내 국가 간 교류 프로그램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로트립(YOUROTRIP)<sup>32)</sup>은 EU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의 지원으로 실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유로트립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에 목적을 두며 그리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8개국 16~30세 청소년들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국가 및 EU 단위 기후 행동 정책을 구상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유로트립은 2020~2022년까지 2년 동안 운영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III-3. 유로트립 세부사업 현황(2020~2022)

-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훈련
- 8개국을 상대로 한 7개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출신 및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는 협력 증진. 참가자들은 1주일 간 지역 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참여형 활동을 통해 기후 변화를 막는 정책 문서(policy paper)를 제안
- 각 교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청소년 위원회를 형성해 네트워킹 행사, 지역 이해관계자(지역 정부, 학교, 대학, 시민단체, 기업, 환경 기관, 청소년 기관)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지역 청소년위원회 대표들이 브뤼셀의 EU 기관에 자신들의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고, 공동 제안서를 개발해 청소년위원회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출처: <https://yourotrip.eu/about/> (검색일: 2022. 10. 12),

다음으로, EU 알프스지역 전략(EUSALP)은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알프스 일대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는 공동 프로젝트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알프스 지역과 관계된 7개국 내 48개 지역이 공동으로 알프스 지역이 직면한 특수한 어려움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만든 전략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는 2017년 11월에 바이에른 주 EUSALP 의장이 뮌헨에서 열린 제1회 연례 포럼에서 주관한 청소년회의(Youth Congress)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티롤 지역의 EUSALP 의장이 이를 넘겨받아 청소년 참여를 EUSALP의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스위스 연방공간개발사무소 등이 주도해 유스.

32) <https://yourotrip.eu/about/> (검색일: 2022. 10. 12).

셰이핑.EUSALP(youth.shaping.EUSALP)가 시작되었다. 유스.셰이핑.EUSALP 프로젝트는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해 EUSALP 청소년캠프, 청소년 참여 온라인 도구, 프로젝트 경연대회인 ‘당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라(Pitch your project)’ 등을 개최해 청소년들의 지역 지속가능성 정책 참여를 장려한다. 현재 EUSALP 청소년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알프스 지역에서 4명씩 파견된 청소년들이 1년간 활동(1년 연장 가능)하며 EUSALP 정책 개발 및 사업에 직접 관여한다. 이들은 구체적인 행동, 주제 및 아이디어를 EUSALP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연간 4~5회 회의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임을 통해 활동하고, 모든 EUSALP 관계 기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청소년위원회는 2021년 7월에 공식 시작되어 2022년 7월 1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청소년 사업 네트워크, 알프스 지역 주변부의 미래 및 알프스 지대의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고취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했다<sup>33)34)</sup>.

또한 중앙 발트 지역의 지역 간 협력 프로젝트인 ‘체인지메이커스’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년 간 2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sup>35)</sup>. 총 예산은 약 140만 유로(약 19.6억원)였다. 이 프로젝트는 18세 이하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수자원 부문, 그리고 재활용 관련 기업가정신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서 온 총 250명의 학생이 실생활 속에서 접하는 비즈니스 분야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혁신과 창의성에 기초한 50개의 미니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중·고교에 학습 모델을 제공하며 이플랫폼(ePlatform)이라는 이름의 자유열람형 이러닝(e-learning) 도구를 제공한다<sup>36)</sup>.

33)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newsroom/news/2022/02/23-02-2022-youth-getting-involved-applications-for-the-2nd-eusalp-youth-council-are-now-ope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newsroom/news/2022/02/23-02-2022-youth-getting-involved-applications-for-the-2nd-eusalp-youth-council-are-now-open) (검색일: 2022. 10. 12).

34) <https://eusalp-youth.eu/about-youth-shaping-eusalp/> (검색일: 2022. 10. 12).

35) <https://www.su.se/english/research/research-projects/changemakers-start-ups-for-sustainable-environment-created-by-youngsters?open-collapse-boxes=research-project-description,research-project-members,research-project-publications> (검색일: 2022. 5. 27).

36) <https://sites.utu.fi/changemakers/> (검색일: 2022. 10. 12).

## 2. 국가별 청소년의 기후정책 참여지원 현황

### 1) 영국

#### (1) 중앙 정부 정책과 청소년 참여

영국은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제26차 기후당사국회의를 주최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고조되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 19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교육시스템 전반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탄소 제로 배출 캠페인 「Let's go zero 2030」<sup>37)</sup>이 확산되는 등, 학교교육의 체제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잉글랜드의 교육부가 2022년 4월 내놓은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 대응전략」은 매우 주목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전략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교육정책의 역할을 명시하고, 해당 책무를 학교뿐 아니라 대학 및 아동·청소년 기관에 이르는 모든 교육 관련 기관에 부과함으로써 매우 폭넓은 범위에서 교육 시스템 전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전략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 영역을 단순히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자연 경험 확대, 녹색 기술과 일자리, 교육기관 건물의 탄소배출 감축 등, 매우 포괄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후 변화위원회, 생물다양성 정책,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잉글랜드 교육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목표와 원칙을 명료화하고, 세부 실행분야별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의 탄소중립 2030 추진 의지와 확고히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이행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 이 전략이 제시하는 교육정책의 주요 실행 분야는 1. 기후교육, 2. 녹색기술과 직업개발, 3. 교육부지와 디지털 인프라구축, 4. 생산 및 공급망 관리, 5. 국제협력 등 다섯 가지 영역이다(표 III-4 참고).

먼저 기후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한 교수·학습의 측면을 다루며, 특히 2023년까지 모든 중등교육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후 소양 측정이 시작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로

37) <https://letsgozero.org/> (검색일: 2022. 10. 12).

녹색 기술과 직업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6조원이라는 대규모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세 번째 교육부지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교육기관 건물의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건물 외 교육부지를 자연 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연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국가교육자연공원(National Education Nature Park)’ 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이 사업에서는 잉글랜드 지역 모든 학교의 지리적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자연공간의 조성, 에너지 사용량 측정 등의 활동에 필요한 안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학점을 쌓아 진로에 활용하거나 기후 리더로서 수상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학교 급식이나 폐기물과 같은 생산·공급망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2025년까지 모든 학교마다 기후 행동 실행 계획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협력분야로, 개발도상국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녹색기술 분야 유학생 유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분야별 담당관을 지정하고, 장관이 직접 총괄 역할을 맡도록 하여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 패널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표 III-4. 잉글랜드 교육부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범위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범위: 교육부 및 산하 기관, 유아교육기관, 학교, 고등직업교육(further education)기관, 대학교육, 아동사회복지기관</li> <li>목적: 203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네 가지 전략적 목표(단기, 중기, 장기)의 달성</li> </ul>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변화위원회, 생물다양성 정책 관련 다스굽타(Dasgupta) 리뷰, 녹색일자리TF 등에서 교육 정책 관련 제안한 내용 반영</li> </ul>
비전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전: 영국이 2030년까지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교육 영역에 있어 세계를 선도한다.</li> <li>목표1) 변화하는 세계에서 교육과 훈련의 우수성 확보: 학습과 실습 경험을 통해 기후 변화로 영향을 받는 세상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li> <li>목표2) 탄소중립: 건물에서의 직·간접적인 탄소배출 감축, 법적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혁신 유도, 아동·청소년들이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li> <li>목표3) 회복탄력성과 기후 변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과 시스템의 적응</li> <li>목표4)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생물다양성과 공기 질의 향상, 자연 경험 기회 증진</li> </ul>
실행 영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까지 중등 자연사 과목 개설</li> <li>2022년부터 중등 졸업자 대상 기후 소양 측정</li> <li>2023년까지 신규교사 대상 지속가능성 교수법 표준 개발</li> </ul> </li> </ol>

목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청소년보장제(National Youth Guarantee)와 연계하여 모든 아동의 체험활동 기회 증진</li> </ul>
2. 녹색 기술과 직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직업훈련교육 법안을 통해 탄소중립, 기후 변화 적응 관련 기술훈련 강조</li> <li>• 38억 파운드(약 6조) 투자계획</li> <li>• 녹색 경력개발을 위한 학교·대학 지원과 정보제공</li> </ul>
3. 교육 부지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까지 제로배출 학교·대학 4곳 설립</li> <li>• 2022년 교육·아동서비스기관과 에너지기업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효율 추진방안 마련</li> <li>• 2022~2023년에 학교의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온라인 포털에 공개하는 시스템 개발</li> <li>• 2030년까지 학교 통학의 절반 기량을 도보 또는 자전거로 가능하도록 지원</li> <li>• 2023년까지 학교의 홍수피해, 탄소 배출량, 생물다양성 정보를 국가교육자원공원에 게시, 2026년까지 800 곳 이상의 홍수 피해 학교 수 감소</li> <li>• 2025년부터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의 탄소 감축 목표치 설정, 2025~2035년 사이 학교 목표치 설정</li> </ul>
4. 생산 및 공급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탄소배출 기록 및 실행계획 수립 담당자를 지정하여 탄소 소양 교육 실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시행, 폐기물 관리 지원</li> <li>• 2025년까지 모든 기관에 기후 행동계획 담당관 지정, 교육부의 학교지원 물품 전체를 친환경 원칙에 따라 구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li> <li>• 2030년까지 순환경제에 입각한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실시</li> </ul>
5. 국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정부의 국제교육전략과 연계하여 빈곤국의 기후 재난 대응과 회복탄력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li> <li>• 타부처 및 해외 파트너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교육 연맹 결성</li> <li>• 우수프로그램의 해외 확산과 녹색 기술 분야 유학생 유입 강화</li> <li>• 온라인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및 2027년까지 국제 기후리더십 도입</li> </ul>

\*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 strategy for the education and children's services system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strategy/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a-strategy-for-the-education-and-childrens-services-systems> (검색일: 2022. 10. 12).

한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사회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최근 정책으로는 2018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청소년운영위원회(Youth Steering Committee)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청소년특별회의와 유사한 구조로 14~24세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며, 전국 영국청소년협회(British Youth Council)를 중심으로 청소년단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sup>38)</sup>. 2019년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환경

부와 산업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청소년들은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는 청소년 참여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탄소중립 정책 메시지를 청소년 친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들의 권한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 정책에 있어서도 행동 실천력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기업의 책무 강화 등을 제안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활동은 기후 정책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이 의미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청소년 친화성과 참여를 위한 장치 마련에 있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5. 영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책제안**

분야	정책 제안
정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성있는 청소년 참여 전략의 개발: 청소년단체의 협력과 다양한 청소년 목소리 반영</li> <li>• 모든 정책 메시지가 청소년들에게 명확하고, 간결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노력</li> <li>• 기후 행동의 책임이 청소년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보장</li> <li>•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영향력 확산을 위해 청소년 기후 리더를 양성하고 네트워크 지원</li> </ul>
기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행동실천에 대한 명확한 정보(예. 올바른 선택의 기준 등) 제공</li> <li>•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비용 및 책임의 공유</li> <li>• 지속가능한 실천수단(기차 이용, 지역 농산물 사용 식당, 채식 재료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li> <li>•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제 가능한 실천방법 홍보</li> <li>• 관련 법제화의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li> <li>• 정책 의사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li> <li>• 정책 관련 정보와 쟁점들을 비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개선</li> <li>• 개인 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책임 공유</li> </ul>
청소년 참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인식 증진과 실천 참여 유도</li> <li>•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갖게 하는 방식의 다양한 지역사회 캠페인 전개</li> <li>• 다양한 관점 간 차이를 고려하여 메시지 전달</li> <li>• 청소년 기후 리더들을 양성하여 오래 청소년간 영향력 확산</li> <li>• 친환경적 실천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의 확산</li> </ol>

38) <https://www.gov.uk/government/news/dcms-launches-new-youth-voice-projects> (검색일: 2022. 10. 12).

분야	정책 제안
	2. 청소년의 정책 참여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 자문 및 소통과정 개선: 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전문 용어 사용 줄이기</li> <li>•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청소년 참여 보장 및 다양한 목소리 반영</li> <li>• 명목상의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참여과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반영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li> </ul>

\* 출처: British Youth Council & Youth Steering Committee (2020). Review of Environment and Climate Policy. <https://www.byc.org.uk/news/2020/uk-government-must-collaborate-with-young-people-to-tackle-climate-change-emergency> (검색일: 2022. 10. 12).

청소년 참여 활동이 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행동과 정책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 변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도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Just Transition Commission)는 산업계와 노동계 등, 경제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기후탄력적인 경제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부정의(injustice)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sup>39)</sup>. 2020년에는 청소년단체 Young Scot과 함께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이슈를 토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2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15~25세 청소년과 청년 11명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은 <표 III-6>과 같다. 청소년들은 2045 미래 비전을 구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특히 기술 및 교육과 관련하여 탐색했다. 이를 통해 인프라, 법적, 제도적 장치, 경력개발과 고용 등과 관련한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다.

39) <https://www.gov.scot/groups/just-transition-commission/?msclid=7454c9bbbc9911ec8910600ac896c744> (검색일: 2022. 10. 12).

표 III-6.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의 청소년 워크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토론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코틀랜드의 탄소중립 목표, 포용 경제 및 탄소 경제에 대한 이해</li> <li>• 청소년들이 바라는 2045 미래 비전</li> <li>•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와 기술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 탐색</li> <li>• 기후 변화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공유</li> <li>• 미래에 전망되는 기회 파악</li> </ul>
분야별 토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필요성, 전기차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방안</li> <li>• 법적, 제도적 장치: 기업의 실천 촉진을 위한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 분담</li> <li>• 경력개발과 고용: 사라지는 일자리 및 다른 영역의 공공 투자 축소에 대한 불안, 변화하는 일자리 정보에 대한 교육,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li> <li>• 기타: 스코틀랜드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 분야에서의 녹색 고용 창출 필요</li> </ul>

\* 출처: Young Scot (2020). Just Transition Commission Engagement Report. <https://youngscot.net/ysobservatory/just-transition-commission-engagement-report> (검색일: 2022. 10. 12).

## (2) 지방정부 정책과 청소년 참여

영국은 2008년 제정한 기후 변화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확산으로 당초 목표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에서 2019년에는 1990년 대비 ‘최소 100%’ 감축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19년 이후 지자체들의 기후비상선언이 이어지면서 2020년 말 기준 79%의 지자체에서 기후비상선언에 동참하고 있다(Howarth et al., 2022, p.vii). 비영리단체인 Friends of Earth에서 주도하는 TakeClimateAction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지원체제로,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 선거에서 기후 위기를 우선순위의제로 다루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 중심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sup>40)</sup>. 2021년 발간한 지자체 안내서에서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취약한 집단의 회복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청년) 역시 가장 위협에 처한 집단으로 이해된다(Friends of Earth, 2021). 또한 잉글랜드 지방정부협의체에서는 2019~2022년 추진계획상에 기후 위기 대응 부문을 명시하고, 기후비상선언에 동참한 지자체간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지식허브를 제공하고 있다<sup>41)</sup>.

40) takeclimateaction.uk (검색일: 2022. 10. 12).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에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나 제도적 지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여러 사례 공유 자료들을 통해 지자체마다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표 III-7>과 같다. 먼저 Essex County<sup>42)</sup>에서는 2020년 지역 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한 학교 통학로’ 조성 계획을 포함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통학길에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도보, 자전거, 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통학로 주변을 구역별로 디자인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 통학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현황을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Cambridgeshire County Council에서는 지자체 2050 탄소중립 목표수립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지자체 환경·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시민대상 지역사회참여사업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관련 사업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되거나 확장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나머지 두 지역의 경우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포함하는 청소년정책참여모델의 사례를 보여준다. Gloucestershire County Council에서는 2020년 기후 변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 초안에 대해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 기후패널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이 계획에 기후패널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지속적인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Newham Council에서는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회의를 운영하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청소년회의를 운영하였다. 청소년 100여명은 분야별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시장 및 위원회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41) [www.local.gov.uk/our-support/climate-change-hub](http://www.local.gov.uk/our-support/climate-change-hub) (검색일: 2022. 10. 12).

42) County는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 단위임.

표 III-7. 영국 지방정부 탄소중립 추진과 청소년 참여 현황

지역	지자체 정책 추진 목적 및 내용	청소년 참여 내용
Essex County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더 안전하고, 푸르고, 건강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의 지속가능한 교통 추진</li> <li>• 지속가능한 통학로에 대한 안내자료 제작 필요성 제기</li> <li>• 1구역(학교 입구), 2구역(방사성 모양의 도보 및 자전거 전용 구역), 3구역(차없는 거리), 4구역(버스정류장), 5구역(승하차 구역) 등, 학교 주변 교통을 구역화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지속가능 통학로 디자인 안내자료' 제작</li> <li>• 이를 활용하여 각 학교에서 통학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참여 목표치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학교에서 통학로 계획 수립시 학생들의 의견 수렴</li> <li>• 학생들의 통학 현황에 대해 매해 설문조사 실시(도보, 자전거, 버스, 자가용 등, 이용 실태 포함)</li> <li>• 학생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함.</li> </ul>
Cambridgeshire County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수립</li> <li>• 2021년 캠브릿지대학 연구팀에 지역사회 청소년 실천방안 연구 의뢰</li> <li>•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청소년 FGI 및 설문조사 실시</li> <li>•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 참여 모델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지속가능성위원회의 지역사회참여사업에 청소년프로그램 추진 논의</li> </ul>
Gloucestershire County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기후 비상 선언 후 2020~2025년 기후 변화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li> <li>• 계획 초안에 대한 지역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 기후 패널을 운영하기로 결정</li> <li>• 실행계획에 청소년 기후패널 운영 사항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및 청소년단체를 통해 16-25세 청소년기후그룹 모집</li> <li>• 실행계획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실시</li> <li>• 지역별로 소그룹에서 지역 내 청소년들과 연대 활동 실시</li> </ul>
Newham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의 장으로 시민회의(Citizen's Assembly)운영</li> <li>• 인구대표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36명의 시민이 참여(30%가 16~29세)</li> <li>•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장 운영(3일)</li> <li>• 정책제안 토론회 운영(2일)</li> <li>• 일반시민 참여를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여 찬반 의견 수렴 실시</li> <li>• 6개 분야 1) 교육·인식·실천, 2) 기술·에너지, 3) 교통·운송, 4) 식품·재활용, 5) 환경·야외공간, 6) 건물·주거)에 대한 24가지 정책을 시장에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회의와 별도로 청소년의회 운영</li> <li>• 10~25세 청소년과 청년 100명이 참여하여 기후 위기 대응방안 토론 및 정책 토론 실시</li> <li>• 시장 및 위원회에 57가지 정책 제안 전달</li> </ul>

\* 각 출처: [www.essex.gov.uk/sustainable-travel](http://www.essex.gov.uk/sustainable-travel) (검색일: 2022. 10. 12).  
<https://www.local.gov.uk/case-studies/cambridgeshire-climate-young-people> (검색일: 2022. 10. 12)  
[cscic.org/gycg](https://www.newham.gov.uk/news/article/134/young-people-of-newham-give-the-council-their-ideas-to-tackle-climate-emergency) (검색일: 2022. 10. 12).  
<https://www.newham.gov.uk/news/article/134/young-people-of-newham-give-the-council-their-ideas-to-tackle-climate-emergency> (검색일: 2022. 10. 12).

##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폴데렌(polderen)’이라는 문화가 있어 유럽 내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가 활발한 국가로 손꼽힌다. 2019년 확정된 네덜란드의 국가기후협약(Dutch National Climate Agreement)은 2030 기후법과 2050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산업, 건축, 교통, 농업 분야별로 추진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을 협의한 문서이다<sup>43</sup>). 네덜란드 기후협약이 아직 초기 단계일 때 학생 및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책안 구상부터 이행과 평가 단계에서도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후운동 단체 JKB(용에 클리마트 베베깅, Jonge Klimaat Beweging)을 통해 국가기후협약에 참여했다. JKB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거의 같은 규모의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 연합으로 네덜란드 기후협약(Dutch Climate Agreement) 협상에 참여한 첫 청(소)년 단체였다<sup>44</sup>). JKB는 청(소)년 단체를 대표해 기후 정의와 청소년 참여를 추구하고 공감을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했다(European Commission, 2021, p.26).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환경 정책 수립 및 자문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넓히고 있다. 네덜란드 기반시설 및 환경 위원회(Dutch Council for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는 정부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관한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이다. 여기에 3명의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위원이 4년간 이 위원회의 모든 토론에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해왔다<sup>45</sup>). 이처럼 장기적인 환경 정책에 관한 청소년의 참여는 청(소)년환경위원회(Jongerenmilieuraad, JMA)가 설립되면서 보다 체계화되었다. JMA는 2021년 4월부터 환경부 및 기반시설-수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청소년 환경위원회로 12~30세 청소년과 청년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가 환경 정책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고 향후 30년 간 국가 환경 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가 환경 프로그램(National Milieuprogramma) 작성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참가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1년 간 주 10시간의

43) <https://www.government.nl/topics/climate-change/climate-policy> (검색일: 2022. 10. 12).

44) <https://www.yes-dc.org/youth-participation-in-climate-policy-dutch-experiences-shared-at-cop25/> (검색일: 2022. 10. 12)

45) [https://www.rli.nl/sites/default/files/meaningful\\_youth\\_participation\\_-\\_experiences\\_from\\_the\\_netherlands\\_workshop\\_cop25\\_madrid.pdf](https://www.rli.nl/sites/default/files/meaningful_youth_participation_-_experiences_from_the_netherlands_workshop_cop25_madrid.pdf) (검색일: 2022. 10. 12).

참여를 필요로 한다. 청소년들은 위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행정, 인사, 마케팅과 홍보까지 직접 담당한다<sup>46)</sup>.

2015년 제정된 새로운 청소년법은 청소년정책의 책임이 지방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47)</sup>. 네덜란드 보건복지스포츠부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인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e Jeugdraad, NJR)를 지원하며, 지역별 청소년위원회도 운영된다<sup>48)</sup>. 일부 지방정부는 12~18세 청소년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 시장이나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제도의 맥락에서 기후 정책과 관련한 청(소)년 참여는 네덜란드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표준화 된 지역 에너지 전략 중 하나로써 분야별, 국가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기후 관련 정책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참여는 청년에너지전환계획(JongRES)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JongRES는 2030년까지 각 지역에서 시행할 에너지 전환 전략(RES)에 청년들(young professionals)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JongRES는 5명의 지역 코디네이터와 전국 위원회로 구성되어 청년 대표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훈련하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기획한다<sup>49)</sup>. 에너지, 주거,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 내 청년들이 노동시장 및 학교교육 정책의 인적자원 문제에 관한 피드백을 주었고, 특히 농업,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이해당사자들보다 더 진보적인 행동계획과 비전을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 중 일부는 네덜란드 기후협약에 포함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1, p.26).

### 3) 덴마크<sup>50)</sup>

덴마크는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기후 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덴마크 정부는 기후정책에 대한 미래세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후에너지산업부 산하 청년기후위원회(Youth Climate Council)를 설립하였다. 이는

46) <https://jongerenmilieuraad.nl/en/word-bestuurslid-van-de-jmr/> (검색일: 2022. 10. 12).

47)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netherlands/1-youth-policy-governance> (검색일: 2022. 10. 12).

48)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netherlands/5-participation> (검색일: 2022. 10. 12).

49) <http://jongres.nl/> (검색일: 2022. 10. 12).

50) 이 절의 주요 출처: <https://kefm.dk/klima-og-vejr/ungeklimaraadet> (검색일: 2022. 10. 12).

제24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여한 청년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위원회 모집 당시 400여명의 청년이 지원했고, 2021년 기준 15명의 청년위원들은 재생에너지, 노동, 청소년단체, 농촌, 자연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배경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청년기후위원회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식품, 기후 세금, 북해, 코로나 이후 녹색 재건, 기후실행계획 등 여러 분야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21년에는 호수, 야생 자연, 교육, 행동실천, 지속가능한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청년기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SNS채널 등을 활용하거나 워크숍 조직, 기후 뉴스 제작 등 더 많은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 덴마크 청년대표단, 덴마크청년위원회 등 다른 청년조직과도 협력하고 있다<sup>51)</sup>.

#### 4) 독일

독일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에 세계 최고 규모로 참가하는 등 기후 변화 정책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례로 15~24세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 9명은 2019년에 독일이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을 거의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기후법이 불충분하다며 정부를 고소했다. 분명한 탄소 감축 목표를 지닌 장기 전략이 없는 기후법은 그 결과를 짊어지게 될 미래 세대의 자유를 위협에 빠트린다는 이유였다. 2021년 4월, 독일 고등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30년까지만 탄소 배출 감축 세부 계획을 명시한 법을 확대해 2030년 이후까지 세부 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는 "아직도 어린 고소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판결했다(Eddy, 2021).

이처럼 독일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배경 중 하나로 정부가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호의적으로 보고 지원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의 기후! 우리의 미래! (Unser Klima! Unsere Zukunft!)"는 2017년에 독일 환경부가 주관한 청소년 토론 행사이다. 당시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념하기 위해 16~25세 사이의 청소년 약 250명의 독일 청소년들이 모여 기후 변화와 기후 정책 내 청소년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이 가운데 24명의 대표가 후속 모임을 갖고, 토론 결과를 모아 권고 및 요구 사항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다<sup>52)53)</sup>.

51) <https://kefm.dk/klima-og-vejr/ungeklimaraadet> (검색일: 2022. 10. 12).

52) <https://www.adelphi.de/en/project/our-climate-our-future-youth-dialogues-cop23> (검색일: 2022. 10. 12).

53)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54-young-peoples->

유판(youpaN)은 2017년에 독일교육기금의 유박스(youboX) 프로젝트가 실행한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국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행동계획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목표로 기획되었다. 유판에 참가한 16~23세 사이의 청년 25명은 청소년 참여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8개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sup>54)</sup>.

1. 청소년의 참여를 더 보장할 것
2. YoupaN을 최소 2030년까지 운영할 것
3.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
4. 지속가능발전교육 훈련 코스를 정책결정권자와 교육인들을 상대로 실시할 것
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교육의 기회로 삼을 것
6. 지속가능한 과학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연구를 할 것
7. 교육 공간이 보호처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내 차별을 없앨 것
8. GDP의 10%를 교육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투자할 것<sup>55)</sup>

한편, 독일 정부는 기후 문제와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진행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독일 생태경제학연구소(IÖW)가 독일 환경청과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미래? 청소년에게 물어보다(Zukunft? Jugend fragen)’는 14~22세의 청소년 1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설문조사의 구상에는 10명의 청소년자문위원회가 참여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 설문조사 질문 개발부터 설문조사 진행 참여
- 결과 자료와 인포그래픽 작성 참여
- 워크숍, 청소년 회의 기획 및 실행
- 프로젝트 회의 참여
-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정기적인 프로젝트 경과보고 회의 참여

---

participation-in-policy-making (검색일: 2022. 10. 12).

54)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54-young-peoples-participation-in-policy-making> (검색일: 2022. 10. 12).

55) <https://youpan.de/forderungen/> (검색일: 2022. 10. 12).

##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역시 청소년들의 기후 정책 참여를 활발히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청소년위원회가 조직하는 기후청(소)년위원회는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공개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행사에는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모인 14~27세의 청(소)년 60명 이상이 참가해 3일 동안 기후 정책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소비, 에너지, 모빌리티, 참여 등의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14명의 국회의원들과 만나 지금 해야 하는 행동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이들의 토론 결과는 기후장관과 청소년담당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Ludwig & Dorner, 2022)<sup>56</sup>).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계획을 다루는 오스트리아 공간 개발 개념(ÖREK 2030)은 국가 단위부터 지역 단위까지 참여형 과정을 통해 기획되며, 청소년들도 참여한다.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청소년 120명이 공개 선발 과정에 지원해, 이 가운데 18명의 청년 전문가들이 선발되어 ÖREK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사회 및 기술적 어려움과 기후 친화적 공간 개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들은 분야별 워크숍 및 시니어 전문가들과의 공동 기획 과정, 이해관계자들과의 워크숍에 참여했다. 또한 120명의 신청자들 모두에게 사전 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다<sup>57</sup>).

## 6) 스웨덴

스웨덴은 그레타 툰베리의 등교 거부 시위가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이며,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정치는 전통적으로 정책 결정자들과 다양한 이해집단, 사회운동 단체 등의 상호 관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따르며, 이 같은 정치문화 속에서 청소년의 정책 결정 참여도 이뤄진다. 스웨덴에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전략은 없지만 청소년의 참여는 스웨덴 청소년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국회는 2014년에 “모든 청소년은 좋은 생활 조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삶을 정할 수 있는 권한과 사회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8</sup>).

56) <https://timeforchange.world/klimajugendrat/> (검색일: 2022. 10. 12).

57) [https://www.gfse.at/fileadmin/4\\_gfse/services\\_\\_\\_policy\\_briefs/youth\\_gfse\\_policy\\_brief\\_v2\\_01.pdf](https://www.gfse.at/fileadmin/4_gfse/services___policy_briefs/youth_gfse_policy_brief_v2_01.pdf) (검색일: 2022. 10. 12).

스웨덴 정부는 법안이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관련 기관, 이해집단, 지방 정부 등에 보고서를 회람한다. 스웨덴에는 국가 단위의 청소년위원회는 없지만 스웨덴 청소년 단체들의 대표 단체인 '스웨덴 청소년단체 국가위원회(LSU)'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LSU는 회원 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정부의 자문 과정과 공청회에 참석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청소년위원회 등, 자문기구들이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스웨덴청소년시민사회기구(MUCF)는 지역 청소년정책 팔로업(LUPP)이라는 설문조사를 개발해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지역 정부가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설문조사는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sup>59)</sup>.

## 7)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 국가 정책에 있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아동·평등·장애인·청소년부(이하 청소년부)를 통해 국가청소년의회(National Youth Assembly of Ireland)를 설치하였다. 국가청소년의회에는 12~24세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일 년에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022년에는 국가기후 행동계획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해당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18명의 청소년 대표단과 함께 기후 변화 관련 분야별로 참여를 지원한 10여명의 청소년 특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활동은 기존의 기후정책 시민참여기구인 국가기후 행동대화(National Dialogue on Climate Action) 프로그램에 반영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가기후 행동계획을 포함하여, 국가이해관계자포럼의 운영, 초·중등 교육과정에 기후 행동의 반영, 녹색학교, 청소년기후 홍보단, 청소년환경기자단 사업 등이 포함된다<sup>60)</sup>.

이외에도 아일랜드는 앞서 언급했던 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지원으로 석탄 채굴 중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국가 기후 행동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참여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은 온라인 설문조사, 워크숍, 서면 의견 제출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

---

58)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sweden/55-national-strategy-to-increase-youth-participation> (검색일: 2022. 10. 12).

59)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sweden/54-young-peoples-participation-in-policy-making> (검색일: 2022. 10. 12).

60) <https://www.gov.ie/en/press-release/4f46a-national-youth-assembly-of-ireland-convenes-for-the-first-time-as-the-youth-assembly-on-climate/> (검색일: 2022. 10. 12).

으며, 16~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컨설팅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주요 질문은 단순히 석탄 채굴 관련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살기에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DECC, 2022).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는지,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길 희망하는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 등에 대해 토의하였고, 이 지역이 어떤 면에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방문하고 싶은 곳인지를 미래의 신문 기사 제목을 뽑아보는 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ibid. p.13).

### 3. 국가별 청소년 주도 활동·프로젝트 사례

#### 1) 영국

영국에서 지역사회 맥락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ioneers of Sustainable Hope(POSH) 프로젝트는 11개 지역 청소년위원회가 참여하여 전문가와 함께 지역 에너지 이슈를 탐구하고 효율적인 전기 사용방법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지역의 전기회사들이 참여하여 에너지 이슈와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한다. Children, young people, and flood 프로젝트는 기후 재난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홍수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선언문을 작성함으로써 홍수 이후 복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Climate Change Youth Sector Leadership 프로젝트는 지역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였다. Force of Nature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전 세계 52개국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행동역량으로 전환으로 초점을 두며,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활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주도성을 계발하기 위해 기업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I-8. 영국 기후 위기 관련 지역사회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명	참여 단체	청소년	활동 내용
Pioneers of Sustainable Hope (POSH)	청소년단체, 지역전기회사	11개 지역 청소년위원회에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와 함께 지역 에너지 이슈 탐구 및 에너지 사용 지도그리기</li> <li>효율적인 전기 사용 방법을 홍보하는 짧은 영상 제작 및 배포</li> </ul>
Children, young people, and flood	아동권리단체, 대학, 학교	홍수 피해 지역 아동·청소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 선언문 작성: 홍수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피해 방지장치의 보안, 취약계층 보호계획, 홍수 피해 아동을 위한 학교의 시설 및 교육제공, 학교 교육과정에 홍수 관련 교육 포함, 홍수 피해에 대한 적정 보험료 산정, 홍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li> </ul>
Climate Change Youth Sector Leadership	지역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지도자와 지역활동가 대상 교육 및 청소년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행동에 대한 청소년 단체 및 지역 단체의 인식 제고</li> <li>청소년과 함께하는 기후 행동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료 제공</li> </ul>
Force of Nature	청소년과 청년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전 세계 52개국 천 명이상의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행동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li> <li>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마련</li> <li>자원봉사, 스피치,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 기업 컨설팅 등, 네 분야에서 청소년 리더십 개발</li> </ul>

\* 출처: <https://www.enwl.co.uk/go-net-zero/community-and-local-energy/what-is-community-and-local-energy/case-studies/posh-bites/?msclid=4fa1a897bbf311ec8322f37a2fc1e8da> (검색일: 2022. 5. 27).  
 Young People's Flood Manifesto 2015. Children, Young People and Flooding: Recovery and Resilience, Lancaster University and Save the Children <http://wp.lancs.ac.uk/cyp-floodrecovery/outputs> (검색일: 2022. 5. 27).  
<https://www.groundwork.org.uk/projects/climate-change-youth-sector-leadership/> (검색일: 2022. 10. 12).  
<https://www.forceofnature.xyz/students> (검색일: 2022. 10. 12).

## 2)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청소년활동의 지원은 국가청소년협회(National Youth Council)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는 글로벌 청소년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Youth 2030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 Youth 2030 프로젝트는 아일랜드의 개발협력담당부서인 Irish Aid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세계시민의식,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 정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17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시민회의에 청소년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기후 변화 정책 거버넌스에 청소년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NYCI, 2017).

이러한 흐름 속에 2020년부터는 청소년부와 Irish Aid(우리나라 국제협력단에 해당)의 지원으로 청소년기후 정의기금(Youth Climate Justice Fund)을 마련하여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청소년 주도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고 있다<sup>61)</sup>. 이 프로젝트는 협회가 주관하며, 아일랜드 농촌 및 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단체, YMCA, 청년농부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21년 기금은 약 50만유로(약 7억원)로, 기후 행동을 중심으로 질 높은 청소년 활동의 개발과 네트워크 확산, 정책참여, 지역사회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를 세대 간, 계층 간, 국가(지역) 간 불평등과 같은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청소년활동(youth work)의 역할을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후 정의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2020년 발간된 안내서에서는 실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자들이 기후 행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원리, 프로젝트 운영상의 체크리스트, 조직 차원의 접근을 안내하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원들과 팁을 제공하고 있다(상세 내용은 표 III-9 참고).

표 III-9. 기후 정의 청소년활동(Climate Justice Youth Work) 운영 안내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youthwork), 기후 정의, 인권, 아동권리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li> </ul>
청소년지도자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 지도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기</li> <li>•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하기</li> <li>• 지도자 스스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기</li> <li>• 청소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기</li> <li>• 청소년들이 가진 지식 확인하기</li> <li>• 활동을 함께한 핵심 파트너 찾기(지역 자원, 정책 당국 등)</li> </ul>
기관 차원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기관의 운영 전략에 반영, 지도자 지원, 자금 마련 등</li> <li>• 지도자: 역량 개발, 학습 모임 또는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 청소년 지도 역량을 기후 변화 이슈에 접목, 지역적 맥락과 글로벌 맥락을 동시에 고려</li> </ul>

\* 출처: NYC(2020). How to get young people involved in climate justice movement. <https://www.youth.ie/documents/how-to-get-young-people-involved-in-the-climate-justice-movement/> (검색일: 2022. 10. 12).

61) <https://president.ie/en/media-library/speeches/speech-to-the-youth-climate-justice-fund> (검색일: 2022. 10. 12).  
<https://www.youth.ie/climate-justice/> (검색일: 2022. 10. 12).

NYCI를 주축으로 한 기후 정의 프로젝트는 아일랜드 전 지역의 청소년 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 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기후 정의 현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기관 및 단체들이 스스로 서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계 전반의 실천 캠페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III-10. NYCI 기후 정의 현장

<p>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기후 정의의 원칙을 고려하고 실행할 것을 다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과의 활동</li> <li>- 프로젝트, 프로그램, 실천</li> <li>- 다른 기관과의 협력</li> <li>- 청소년정책과 연구</li> <li>- 청소년 참여</li> <li>- 직원 교육과 전문성 개발</li> <li>• 기후 정의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li> <li>-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될 권리를 지지할 것</li> <li>- 동등이 아닌 평등하게 대우할 것</li> <li>-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도 반대할 것</li> <li>- 기후 책임유리를 위한 교육을 활용할 것</li> <li>-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li> <li>- 지역에서 전 지구적 수준에까지 이르는 연계 구축할 것</li> </ul> </li> </ul>
---

\* 출처: <https://www.youth.ie/climatejusticecharter/> (검색일: 2022. 10. 12).

아일랜드 기후정의 청소년활동 프로젝트는 유럽의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기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청소년 활동(youth work)의 역할을 제시한 사례로서 조명되었다(Gorman, 2021).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활동의 역할을 청소년 기관·시설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라보는데 시사점을 가진다.

### 3)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다양한 청소년단체가 기후 행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프로그램에 초대하거나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캠페인을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 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JKB(Jonge Klimaatbeweging)은 매해 선출되는 8명의 16~32세 자원봉사자로 이뤄지는 이사회가 운영한다. 이 단체는 2015년 유엔기후협약 파리 회의를 앞두고 30개의 네덜란드 청소년단체, 노동조합, 학생조직 등이 청소년 기후 운동 성명서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2016년 신설된 독립 재단이다<sup>62)</sup>. JKB는 공익 단체 지위를 갖춰 세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익재단이다. 공익재단과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그리고 개인 기부금을 프로젝트별로 받아 진행한다<sup>63)</sup>.

JKB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1. 청소년 기후 어젠다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네덜란드 기후협약 주제에 관해 토론
2. 외교부와 함께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자체 청소년 기후 어젠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3.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청소년 단체와 함께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월간 토론회 주관(European Commission, 2021).

기후에너지재단(Klimaat Energie Koepel, KEK)은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및 청년들의 네트워크 씽크탱크 조직이다. KEK는 청소년 기후 플랫폼을 구축해 경제기후부 장관과 정기적인 대화를 가지며 네덜란드 기후 변화 목표 이행 여부를 모니터한다(European Commission, 2021, pp.26-27). JKB와 마찬가지로 비정부 공익 단체로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JKB의 활동은 모두 보수를 받지 않는 기후 및 에너지 분야 청년들의 자원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sup>64)</sup>.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청(소)년(Youth for Sustainable Travel, YFST)은 암스테르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단체이다. 이들은 제25회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 앞서 항공 여행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일 투더 캅(Sail to the COP) 캠페인을 조직하면서 설립된 단체이다. YFST는 당초 페루에서 개최되기로 했던 제25회 당사국총회에 선박으로 이동할 것을 계획했으며, 이후로도 기차, 버스, 자전거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이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 기후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는 레일 투더 캅(Rail

62) <https://www.jongeklimaatbeweging.nl/over-ons/stichting/> (검색일: 2022. 10. 12).

63) <https://www.jongeklimaatbeweging.nl/wp-content/uploads/2021/01/Financiele-bijlage-opgemaakt-v2.pdf> (검색일: 2022. 10. 12).

64) <https://klimaatenergiekoepel.nl/over-4/>(검색일: 2022. 10. 12).

to the COP) 캠페인을 다시 전개해 기차 이용을 촉구했다<sup>65)</sup>. 영국 네덜란드대사관은 YFST가 주관한 레일 투더 캅에 참가해 이들의 활동을 지지했다<sup>66)</sup>.

#### 4) 독일<sup>67)</sup>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환경운동 및 기후 행동이 활발한 독일에서는 지역 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이 후원하고 독일 작센주 환경부가 관리를 맡은 ‘기후의 자취’ 프로젝트는 지역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청소년 기후 행동 및 기후 교육을 국제적인 협력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짚어볼 만하다.

‘기후의 자취’는 자연환경을 공유하는 독일과 체코 지역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국제 프로젝트이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독일 작센 지역과 국경을 접한 체코 세베로자페드 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후 위기 인식 향상을 위해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역 내에서 1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특히 기후 캠프와 견학을 통해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29개의 환경교육 행사, 9개의 기후보호 캠프, 6개의 테마별 훈련 코스 등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에는 총 1,233,480 유로(약 17.2억원)가 투자되었으며, 이 가운데 유럽지역개발기금에서 1,048,458유로(약 14.7억원)를 투자했다.

프로젝트팀은 세베로자페드와 작센 지역의 학교 커리큘럼을 분석해 환경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등산을 하거나 친환경농장, 녹색에너지 시설을 방문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관한 짧은 영상이나 오디오 녹음 등, 캠프에서 제공된 다양한 미디어 활용 활동에 참가했다. 이들은 참가 이후 지역산 제품을 사거나 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휴가를 가는 등, 이산화탄소 소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후의 자취’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학교들의 커리큘럼에 없는 환경교육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이 돋보인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 이후 세베로자페드와 작센 지역에서 보다 정기적인 환경 캠프가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65) <https://railtothecop.com/> (검색일: 2022. 10. 12).

66) <https://www.netherlandsandyou.nl/latest-news/news/2021/10/18/railtothecop> (검색일: 2022. 10. 12).

67)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rojects/Czechia/helping-young-people-learn-about-climate-change-across-the-czechia-german-border](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rojects/Czechia/helping-young-people-learn-about-climate-change-across-the-czechia-german-border) (검색일: 2022. 10. 12).

## 5) 스페인<sup>68)</sup>

스페인은 석탄 발전소 1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3,300개의 직접 및 1만 개의 간접적 일자리가 이와 연관되어 있다. 스페인은 현재 EU에서 유일하게 국가적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세웠으며 2018년에 마지막 탄광을 폐쇄했다. 과거 탄광과 석탄 발전소가 있던 지역 8곳에서 이 전략을 실행할 예정이다. 16~30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들은 2021년에 개최되었던 특별 전국 공청 과정의 대상이었다. 이 공청 과정은 온라인 설문조사 및 7개의 온라인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이 공청 과정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기후 세대유럽은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전 의견수렴 과정부터 참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기후 세대유럽과 CEE 뱅크워치 네트워크, 2022).

## 4. 소결

이상 살펴본 EU 및 각 국 차원에서의 기후 위기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지원 현황을 요약하면 <표 III-12>과 같다. 먼저 EU차원에서는 그린 딜과 청소년 전략 등, 큰 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린 딜은 산업전환과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이슈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들 의제 형성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또는 청년 단체가 EU 집행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을 단지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국가 및 중앙정부의 기후 정책에서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덴마크는 별도의 청년기후위원회를, 영국과 아일랜드는 기존의 청소년참여제도(위원회)를 연계하여 기후 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청소년위원회 안에 기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속적인 청소년 참여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청소년참여제도와

68) <https://www.just-transition.info/wp-content/uploads/2022/05/Briefing-The-state-of-youth-engagement-in-the-implementation-of-the-EU-Just-Transition-Mechanism.pdf> (검색일: 2022. 10. 12).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탄소중립 관련 부처별/지자체별 정책 거버넌스를 어떻게 연계할지,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청소년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잉글랜드 지방정부 사례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에 더 나아가 지자체 에너지전환 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 EYES 프로젝트는 지역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참여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 방식은 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포함하여 시민의회에 청소년을 포함한다거나, 별도의 청소년 워크숍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계획수립과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등, 정책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 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을지 등, 청소년이 갖는 권한과 대표성에 대한 쟁점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도 함께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참여 지원과 더불어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교육 및 청소년 기관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잉글랜드는 교육기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 실행전략이 도입되었고, 아일랜드는 기후 정의를 중심으로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이 크다. 잉글랜드는 교육부의 중장기 정책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기관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분야 간 연계협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 기관들의 인식변화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II-11. 유럽의 청소년 참여 지원 현황

	주요 내용
EU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로운 전환' 지역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Teens4Green)</li> <li>• 청(소)년 기후협약 대사로서 EU에 자문, EU청년전략에 기후의제 주류화 진행</li> <li>• EU 및 각 국 기후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 참여 구조화 방안 마련 촉구</li> <li>• 6개국 지자체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 조직화 지원(IYES)</li> <li>• 8개국 청소년위원회 조직 및 국제네트워크 지원(유로트립)</li> <li>• 알프스지역 인접 7개 국가 공동의 지역전략개발에 청소년위원회 참여</li> </ul>
국가 및 중앙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청소년 기관 정책 (영국) 교육기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 실행 전략 제시 (아일랜드) 청소년 기후 행동과 결합한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기관의 역할 정립</li> <li>• 기후 정책 청소년 참여 제도화 (덴마크) 기후에너지산업부 산하 자문기구로 청년기후위원회 운영, 다양한 영역의 배경을 지닌 청년들로 구성, 청년들과의 소통 및 정부 정책에 권고안 전달 (네덜란드) 국가기후협약 구상, 이행, 평가 단계에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대표로 참여, 청소년단체 간 협의 및 대표 선출, 해커톤 스타일의 회의 운영. 다른 환경 관련 정책에도 청소년위원회 참여 제도화 (오스트리아) 연방청소년위원회에서 기후청(소)년위원회 조직 및 운영, 지속가능국토개발계획에도 청소년 참여</li> <li>• 청소년의 정책 참여 사례 (영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산업부·환경부 탄소중립 정책에 청소년 참여방안 제안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에서 청소년 워크숍 개최 (아일랜드) 청소년의회에서 기후 변화정책 의견 제안. 향후 기후 변화 시민의회에 청소년 참여 예정 (독일)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 행동계획에 청소년 제안 포함</li> </ul>
지자체 정책	<p>(네덜란드) 지자체 에너지 전환 전략에 청소년 대표성 보장 장치가 표준화되어 실시, 지식 공유·훈련·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p> <p>(영국) 잉글랜드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수렴 및 청소년 참여방안 마련</p>
청소년 프로젝트	<p>(영국) 청소년위원회, 기후 피해 지역 이동청소년, 지역 네트워크, 청소년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참여의 형태</p> <p>(네덜란드) 청소년·청년 스스로의 조직화 및 기후 의제 주도적 개발, 정부는 공익 단체로 인정하고 활동을 지원·지지</p> <p>(스웨덴) 기후체인지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젝트</p> <p>(독일) 청소년 설문조사 기획과 수행과정에 청소년자문위원회 참여</p> <p>(스페인) 정의로운 전환 관련 청소년 공청회 및 워크숍 실시</p>

기후 위기와 관련된 유럽 청소년 프로젝트 사례들은 다루는 주제의 폭과 청소년 주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기후 피해 지역’,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등,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틀에서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에 내재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고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의 지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많은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직화된 단체나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주도로 청소년 기관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기후 세대유럽과 CEE 뱅크워치 네트워크(2022)는 EU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이행에 있어 청소년 참여 현황이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원인을 분석하며 시민단체와 청소년 활동가들이 동원 역량이 클 경우에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청소년 주도로 단체를 결성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청소년정책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주도적 활동의 조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간 연대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 ○ — 제4장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청소년 참여 사례

- 1. 우리나라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 2. 청소년 참여 사례 분석
- 3. 소결



## 1. 우리나라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 1) 분석 범위와 초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 산업, 고용, 환경, 복지, 안전 등, 정책 전 영역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 권리의 관점에서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탄소중립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의 큰 틀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삼고자 한다. 둘째,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중앙 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가운데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교육, 참여, 활동, 복지, 안전, 자립 등, 청소년 권리의 세부 영역별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 IV-1. 탄소중립 관련 정책 분석 범위

분석 범위	분석 초점
탄소중립 관련 법령 및 정책	정책 수립·이행 시 청소년 참여(또는 시민 참여) 현황 파악
주요 부처 정책 및 유관기관 사업	청소년 교육, 참여, 활동, 복지, 안전, 자립 등, 영역별 관련성 파악

### 2)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현황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수립

69) 이 장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고, 강경균 연구위원이 청소년정책 현황 일부를 작성하였음.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다. 2021년 5월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sup>70)</sup>가 출범하였고, 이어 8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어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은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온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통해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sup>71)</sup>.

탄소중립의 달성은 결국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에너지 전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산업 전환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을 배려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모든 사회 구성이 공감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협력, 교육의 역할도 중요하게 대두된다(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b, p.96).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미래세대 주도의 실천과 참여를 확산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교육의 대전환, 학교 밖 평생 교육의 장에서의 탄소중립 강조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ibid, p.97).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되는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탄소중립의 목표가 현실화되는 경로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이해와 참여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책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표 IV-2). 기본원칙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탄소중립 사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69조는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제70조의 기금의 용도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항목이 마련되어

---

70) 법 시행 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 변경.

71) 제정 이유. <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검색일: 2022. 10. 12).

있다. 2022년 기준 기후대응기금은 2.4조원이며,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25). 이에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활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IV-2.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미래세대·청소년 참여 관련 주요 내용 (2021.9.24. 공포, 2022.3.25.시행)**

<p>제3조(기본원칙)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저야 할 책임이라는 <b>세대 간 형평성</b>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p> <p>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b>국민의 책무</b>)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위원회의 기능)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b>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b>에 관한 사항</p> <p>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b>국민참여를 보장</b>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 (검색일: 2022. 10. 12).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의 실효성을 지향하기 위해 중간단계 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기존에 제시한 2018년 대비 26.3%에서 35% 이상 상향하는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명시하였다(환경부 보도자료, 2021.8.31). 이어 탄소중립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2021년 12월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외교부·환경부 보도자료, 2021.12.23). 2021년 8월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3가지로, 석탄발전소 유지 1안,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LNG 발전이 일부 이뤄지는 2안, 화력발전이 전면중단되고 그린 수소 생산 비중을 높여 획기적인 감축 노력을 가정한 3안으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1a, p.1). 초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산업계, 노동·농민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발표된 최종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등, 2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ibid, p.2).

시나리오 수립과정에서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시나리오 초안을 학습하고 토론을 거치는 일종의 공론장을 마련하였다. 시민회의 참가자는 전국 15세 이상 국민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500여명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선정된 시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집 학습 및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고, 이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c). 그러나 실제로 최종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과정은 시민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소년 기후소송, 청소년기후행동의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탈퇴 선언, 청년단체 단독의 기후 중립 시나리오 제출에서 보듯이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미래세대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게 담겨있는 반면, 청소년과 청년들의 요구는 기후 정의와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드러내고 있다(표 IV-3).

이는 적어도 앞으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요구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 외에도 참여·교육·복지·안전·일자리 등, 모든 정책 영역에 있어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층과 세대의 관점에서 형평성과 권리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3. 탄소중립 시나리오(국가/청년/청소년)

	국가 탄소중립시나리오	청년 기후중립 시나리오	청소년기후 행동의 요구
비전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회복력있는 지구, 일상을 지키는 사회, 희망을 꿈꾸는 삶	기후 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목표	2050 탄소중립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40 기후중립(1.5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61%, 2040년까지는 97% 감축)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70%이상 감축
목표수립의 기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	IPCC 보고서에 따라 한국에 할당된 탄소예산의 범위 고려	기후 정의 (청소년의 생존과 권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의 시나리오(A: 화석연료 발전 전면 중단, B: LNG 일부 유지)</li> <li>• 그린수소 생산 및 이산화탄소포집기술 적극 활용</li> <li>•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점진 축소</li> <li>•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피해 산업/노동자/지역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예산을 고려한 감축로드맵 작성 및 탄소 가격제시를 통해 산업구조의 빠른 전환 유도</li> <li>• 에너지수요 감축(2040년까지 2018년대비 40% 감축)</li> <li>• 2030년 모든 석탄발전소 중단</li> <li>• 이산화탄소포집기술을 일부 분야에만 활용</li> <li>• 일자리 전환 대상을 위한 보상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li> <li>•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단계적 퇴출</li> <li>•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li> <li>•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을 권리주체로 인정</li> <li>• 기후 위기 적응 및 재난 대책 수립</li> </ul>

\* 다음 출처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  
 2050탄소중립위원회(2021b).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서울: 2050탄소중립위원회.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청년 제안(2021). 청년이 제안하는 2040 기후중립시나리오.  
 청소년기후행동 <https://youth4climateaction.org/Demands> (검색일: 2022. 10. 12).

(2)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현황

탄소중립 기본법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11조와 12조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0년 7월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향식 접근의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연대’를 발족하였다<sup>72)</sup>. 환경부는 올해 17개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환경부, 2022, p.10). 이러한 일정에 따르면 향후 1~2년 간 국가기본계획 및 지자체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올해는 지역별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등, 지역 탄소중립 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먼저 2022년 10월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탄소중립 기본조례(제목은 상이)가 제정된 곳은 46곳이다<sup>73)</sup>. 이 가운데 시민 참여형 조례로 평가되는 곳으로는 서울 송파구와 양천구, 경기 광명시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

과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론장 마련 등 시민참여 사례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 IV-4>에서와 같이 서울시, 서울 강동구, 광명시, 충청남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 시민 속의 과정을 통해 지역 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온 경험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시민 공론장 마련 사례로는 경남 기후도민회의가 있으며, 여기에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IV-4. 지자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 관련 시민참여 사례

정책	지역별 활동	주요 내용
지역 에너지계획( 근거: 에너지법 제7조)	서울 에너지 시민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과정에서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워크숍을 기획</li> <li>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과 대안 마련에 참여</li> </ul>
	서울시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민 대상 4개 부문(신재생에너지/수송/가정·상업 에너지 절약/에너지 복지) 설문조사 및 숙의형 온라인 토론회 개최</li> <li>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 54% 감축 등, 목표 설정</li> </ul>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기본계획(2016) 수립을 바탕으로 민관합치 거버넌스 구축</li> <li>시민교육 플랫폼인 기후에너지센터 개소</li> </ul>

72)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cnc/cncIntro.do> (검색일: 2022. 10. 12)

7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83%84%EC%86%8C%EC%A4%91%EB%A6%BD> (검색일: 2022. 10. 12)

정책	지역별 활동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을 넷제로 에너지카페로 선정·지원하여 시민참여 통로로 활용</li> <li>초중고생 대상 기후에너지학교를 통해 동네 에너지 생산소를 방문하여 에너지자립마을 체험교육 실시</li> </ul>
	충청남도 2050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 에너지전환 비전과 목표수립을 위한 도민에너지기획단 워크숍 실시</li> <li>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참여 컨퍼런스 등, 집중 속의 프로그램 운영</li> <li>세 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에너지시민 시나리오'를 다수 합의안으로 채택</li> </ul>
탄소중립 정책	경남 기후도민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기후 위기 대응 민관거버넌스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li> <li>경남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2050 경남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도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140명의 도민위원 구성</li> <li>에너지전환, 산업구조 전환, 수송교통, 도시건물, 순환경제, 녹지환경, 농축수산 7개 분과 운영, 공동학습과 토론, 설문조사 등, 속의 과정을 거쳐 도민의견 권고안 도출</li> <li>2022년 4월 '도민실천약속 200' 제안</li> </ul>

\* 출처: 희망제작소(2021. 5. 18).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사례. 서울: 희망제작소.  
 김고운(2019).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연구. 서울: 서울연구원.  
 여형범, 차정우, 고명찬과 이민정(2017).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 공주: 충남연구원.

###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사업 현황

#### (1) 교육부 및 교육청의 기후·환경교육 정책 현황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은 최근 정책적으로 매우 강화되고 있다. 2020년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여 기후 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 선언을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 온실가스 감축, 생태 시민으로서의 성장 등을 강조하였다(환경부 보도자료, 2020.7.9.). 2021년에는 탄소중립 정책 법제화 기초 하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기후 변화 및 환경교육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 표 IV-5. 교육기본법 상의 기후 변화·환경교육 조항(2021.9.24. 공포·시행)

제22조의2(기후 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 (검색일: 2022. 10. 12)

이어 2021년 12월 교육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1)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반영, 2)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확대, 3) 미래세대 및 관계기관 정책대화 등, 교육 공동체의 인식 제고, 4) 학교환경교육 지원 전담기관과 운영체제 마련 등,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2.7.).

2021년부터는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탄소중립 시범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프로그램 운영과 교실숲 조성 등에 초점을 두며, 2022년에는 238개교를 선정하였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학교 공간 및 인프라 구축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0개교를 선정하였다(교육부, 2022).

한편으로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건축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 학교 조성과 생태교육 공간 마련을 통해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2.3). 또한 학교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지정하고 2022년에는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탑재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https://www.seeic.kr/index.do>)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부담을 사유로 의무화가 제외된 점, 의무화의 구체적인 내용(교육과정 시수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표 IV-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환경교육 의무화조항  
(2022. 6. 10. 신설, 2023. 3.1. 시행)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 (검색일: 2022. 10. 12)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과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최근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다. 생태적 ‘전환’ 교육 개념은 산업 물질문명에서 탄생한 근대교육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체제를 구상하기 위해서 단순히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교육 체제 자체를 생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코로나 19 이후 관심을 촉발한 측면이 크다(이희진 외, 2021). 이러한 문제의식은 몇몇 교육청의 생태전환기본계획의 목표와 가치로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표 IV-7>와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하여 환경교육, 생태교육, 탄소중립교육 등, 다양한 논의가 혼재되어 있다.

2022년 기준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관련 학교교육 지원 조례와 계획이 마련하였다.

표 IV-7. 각 교육청 환경교육·생태전환교육 추진 현황

지역	계획명 (담당부서)	목표 및 핵심 가치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서울	2022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교육혁신과)	- 앓과 삶을 잇는 통합 -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변혁 -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적 실천 -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연대로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114호, 2021.7.22.)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 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7884호, 2021.3. 25.) -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제7669호, 2020.7.6.)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제7685호, 2020.9.24.) -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0~2024) 발전 계획

지역	계획명 (담당부서)	목표 및 핵심 가치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경남	2022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기후환경교육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하고 실천하는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li> <li>-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li> <li>-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후·환경문제 공동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 교육 진흥 조례</li> </ul>
울산	2022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민주시민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연대·공존의 생태시민 양성 (생태환경교육 기반 조성, 교육현장 확산 및 지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시행 2020.8.6.)</b></li> <li>-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2262호, 2020.10.29.)</li> <li>- 학교덧밭 활성화 지원 조례 (제2268호, 2020.10.29.)</li> <li>- 학교 자원재활용 지원 조례 (제2424호, 2021.8.12.)</li> </ul>
충남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 (미래인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생태환경계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li> <li>-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전환</li> <li>- 지속가능한삶을 위한 충남 생태환경 문화 확산</li> <li>-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1.11.10.)</li> <li>-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9.4.22.)</li> <li>-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2022)</li> </ul>
전남	2022 기후 변화 환경교육 기본계획 (미래인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실천·연대로 공존의 삶을 가꾸는 생태시민 육성 (기후 변화환경교육 기반 구축, 기후 변화환경교육 활성화, 실천문화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라남도교육청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2022. 2.)</b></li> <li>-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2019.11.)</li> <li>-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2020.7.)</li> <li>- <b>기후 변화 환경교육 5개년 계획 (2022년 수립)</b></li> </ul>
경기	2022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계획(융합 교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생태전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li> <li>- 학생 주도 환경보전 실천 운동을 지원하는 학교</li> <li>- 탄소중립을 체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기도교육청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7164호 2021.10.6.)</b></li> <li>-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제6919호 2021.3.16.)</li> </ul>
인천	2022학년도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생태·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지구생태시민 양성</li> <li>- 인천의 해양·육지환경을 활용한 인천형 기후생태 환경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제4조 1항</li> </ul>

지역	계획명 (담당부서)	목표 및 핵심 가치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교육 추진계획(창의 인재교육과)	- 만관산화 거버넌스 기반의 기후 위기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강원	2022 강원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민주 시민교육과)	- 생태 감수성을 지니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생태 시민 양성 (교육과정 연계·융합 생태환경교육 운영, 생태환경 역량 성장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체제 강화)	-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5.7.31.)
전북	2022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민주 시민교육과)	-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구살리기를 실천하는 생태시민 양성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적 역량 함양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896호(2021.4.2.)
제주	2022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미래 인재교육과)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지구생태시민 육성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학생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통합적 다가치 교육 내실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 교육 진흥 조례(2021.4.14.)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2021.9.27.)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2022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2022). 2022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2022). 2022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2021).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 홍성: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2022). 2022 기후 변화 환경교육 기본계획. 무안: 전라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2022). 2022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계획. 수원: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2022). 2022학년도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생태·해양교육 추진계획.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2022). 2022 강원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 춘천: 강원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2022). 2022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 전주: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2). 2022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러한 교육청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IV-8>와 같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2023년부터 초등·중학교에서 환경교육 의무화가 시행되기 앞서 이미 많은 학교에서 환경교육 관련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는 등 학교 환경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학교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캠페인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으로, 에너지 이용과 탄소감축관련 지침을 통해 실천 방법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채식급식을 제공하거나, 학교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하는 공간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참여와 관련해서는 학생 자치와 동아리활동에 기후환경 또는 탄소중립 실천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던가, 기후 행동 1.5℃ 앱을 활용해 학생과 학교단위 탄소감축 실천활동을 기록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과 울산에서는 관련 정책을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참여활동도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전문기관을 연계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지역 특색을 반영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8. 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환경교육 주요 내용

주요 항목	내용 및 현황
학교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편성: 학년별 2차시 이상(경기), 학년별 10차시 이상 권장(전남), 7시간 이상 권장(서울),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교과연계 4시간 이상 권장(울산), 교과 시수 확보 권장 및 창의적체험활동 4회 이상 확보(충남)</li> <li>학교지원사업: 생태전환학교(서울), DMZ생태학교·에코스쿨 모델학교·연구학교(강원), 생태환경미래학교·탄소중립프로그램운영학교(경남), 연구학교·자원순환교육실천학교(울산), 친환경생태학교(전남),</li> <li>학교평가에 포함: 학교 평가지표에 포함(서울), 교육활동 설문에 반영(경남)</li> </ul>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단위 활동계획 수립, 실천 캠페인, 환경교육/탄소중립 주간</li> <li>에너지 이용 규정 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서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경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강원(행정직 연수), 충남(학교·기관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li> <li>채식급식 운영: 월1회 의무(울산)</li> <li>시설공간 조성: 에코그린공간구축(서울), 그린스쿨·미래에너지학교(경기), 녹색캐튼(울산),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충남초록에너지학교(충남)</li> </ul>
청소년 주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자치: 학생회 및 학급단위 실천 활동</li> <li>동아리지원사업</li> <li>학생실천활동 지원: 서울, 경기·강원·전남(기후 행동 1.5℃ 스쿨 챌린지), 충남(초록발자국 앱)</li> <li>정책제안: 학생기후 행동위원회(서울), 원탁토론회·행동하는 청소년 기후 위기 대응단(울산)</li> <li>기타: 학생네트워크 지원(서울), 국제교류(서울), 기후 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에 학생기획단 운영(울산), 환경 학생 기지단(충남)</li> </ul>
지역사회 연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교육공동체 연계</li> <li>지역연계 기관협의체 구축</li> <li>지자체 연계: 생태전환교육 포럼(서울), 탄소제로학교·찾아가는 기후학교(울산), 생태전환교육비전포럼(전남)</li> <li>특색사업: 농촌유학(서울), 초등 3학년 전체 환경체험학습(경남),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수업(경남), 5대 테마별 환경교육 특구 지정(충남)</li> </ul>

\* 출처: <표 IV-7>과 동일

## (2) 환경부 및 지자체 지역사회 환경교육 정책 현황

환경부는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역 사회 환경교육(이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는 5년 단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시행하고, 학교 환경교육 지원과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에는 부처 내 환경교육 전담조직(‘환경교육팀’)이 설치되었다. 2022년 1월 기준 17개 시·도와 40개 시·군·구에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설치되어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sup>74)</sup>.

앞서 진술하였듯이 최근에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기후변화교육 강조 기조 속에서 교육 정책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에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 환경교육정책연구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추진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2021년 9월에는 환경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2021 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여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발표하고, 미래세대 학생들과 함께 학교환경교육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환경부 보도자료, 2021.9.13.). 2021년에는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기존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역환경교육의 상호연동 및 이행평가, 환경교육도시 지정, 환경교육 실태조사, 학교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9.11.5.).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를 2020년 기준 4개에서 16개로 추가 지정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을 1,000개소로 지정하는 등 지역 차원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환경부, 2020). 또한 환경부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역·기초환경교육센터는 60개소로, 이를 점차 확대하여 지역 환경교육 이행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구로구(구립공동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영등포구(문래청소년센터), 안산시(경기도 청소년수련원), 부천시(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환경교육센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99%98%EA%B2%BD%EA%B5%90%EC%9C%A1> (검색일: 2022. 10. 12).

터 등이 있다<sup>75)</sup>.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에게 전달된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서에는 전국 시군구 소재 청소년수련시설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활동의 거점으로 삼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2022).

전국적으로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총 14곳이다. 또한 2014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성남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서초구, 구리시, 통영시, 서산시, 하남시, 당진군, 시흥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등에서 ‘환경교육도시’ 선언이 이루어지는 등, 지자체의 환경교육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김인호, 2021). 이들 지자체는 환경교육팀이 별도 부서로 설치되어 있어 향후 지자체 청소년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마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사회 중심 환경교육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정책과 현장을 잇는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처,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 초·중등 기후변화교육 교재 개발 보급, 찾아가는 환경현안 리빙랩, 환경분야 진로교육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환경교육정책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청 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0년부터 14~18세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청년위원회가 추가적으로 구성되었다(국가환경교육센터, 2022).

또한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지원사업은 환경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학교 탄소중립 컨설턴트 양성, 지역사회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 환경교육 청년 기업이 양성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환경교육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2021). 그리고 센터의 지역사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가운데 올해는 환경교육사 신규 교육생 인턴십 지원과정에 미취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 우대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 일·자립 정책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76)</sup>.

이처럼 사회환경교육 분야는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과 맞는 지점이 크다는 점에서

---

75) 출처: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6> (검색일: 2022. 10. 12).

76) 출처: 환경교육포털. [keep.go.kr](https://www.keep.go.kr) (검색일: 2022. 10. 12).

향후 환경부-여성가족부, 국가환경교육센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간 협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 (3)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현황

여성가족부는 「제 4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기후환경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후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0.). 이에 향후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와 청소년 참여기구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청소년 활동 정책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청소년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지만, 최근 국가지원 청소년 사업에서 청소년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경우, 올해 청소년 참여 사업분야에 기후·환경 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참여분야가 신설되었으며, 20개 팀이 선정되어 캠페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실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77)</sup>.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평창수련원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디지털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체험활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다양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모바일 앱 ‘행가래’를 통해 탄소배출저감량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향후에는 누적 포인트를 기부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할 계획이다(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22).

반면 이러한 청소년 실천 활동 외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기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김경준, 강경균과 변나향(2021, p.317)에서는 친환경적 청소년 시설환경 조성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보라매청소년센터 등 8개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를 결성하여 청소년시설의 실천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간 ESG 경영추진 협약이 이루어지는 등 수련시설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77) 2022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고. [https://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B0%F8%B8%F0&searchColumn=title&searchTextEn=B0F8B8F0&bgubun=&cate=&no=30274](https://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B0%F8%B8%F0&searchColumn=title&searchTextEn=B0F8B8F0&bgubun=&cate=&no=30274) (검색일: 2022. 10. 12).

기후위기 문제는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이 더 책임을 가져야 하는 정의(justice)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 결석 시위 등, 청소년 기후 운동이 보여준 국제적인 연대의 성과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청소년 분야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은 탄소중립을 위한 한·아세안 공동체 협력과 관련된 청소년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서밋은 ‘행동하는 탄소중립, 더 나은 미래로’를 주제로 개최되어 청소년의 역할, 환경정의, 녹색기술, 건강, SDGs 등을 주제로 토론회와 권고사항 작성활동이 이루어 졌다<sup>78)</sup>. 청소년 96명이 작성한 권고문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순환경제, 녹색기술, 의료서비스, 불평등해소 방안을 국가 정책과 국제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아직까지는 이러한 활동이 논의와 교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요구가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청소년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국가적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대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및 회복력 지원과 관련된 청소년 사업을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 (4) 청소년 복지·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은 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구축, 기후변화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의 복지와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b). 여기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야외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폭염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79)</sup>.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청소년 복지 사업에서 환경문제와 결합된 관점을 일부 찾아볼

78) 2022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홈페이지. <https://akys.kr/index.asp> (검색일: 2022. 10. 12).

79)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s://schoolsafekr/> (검색일: 2022. 10. 12).

수 있다. 예컨대 환경시민단체 환경정의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환경복지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시설보호 청소년의 생활습관 개선과 공동체성 증진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그룹홈,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환경복지교육을 실시했다(환경정의, 2020).

#### (5) 친환경 산업·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탄소중립과 관련된 청소년 참여는 개인적인 실천 활동에 머무르지 않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 및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 수립된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2025년까지 2만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20).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2021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달성 등, 미래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5개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지원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sup>80)</sup>. 지자체에서는 청년 녹색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창업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표 VI-9).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 녹색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조은주, 2022).

청소년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비즈쿨사업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가치를 강조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sup>81)</sup>.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ESG 포럼이나 워크숍 등은 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정도이다<sup>82)</sup>. 따라서 탄소중립 미래에서 기업의 역할과 일자리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청소년

8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keiti.re.kr/> (검색일: 2022. 10. 12).

81) 참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us\\_edu/222564059650](https://blog.naver.com/us_edu/222564059650)) (검색일: 2022. 10. 12).

82) 예) ESG 청소년 포럼 <https://esgyouthforum.kr/> (검색일: 2022. 10. 12).

년 진로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IV-9. 청년 녹색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서울시 미래청년일자리: 제로웨이스트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업에 참여자 인건비 최대 6개월 지원</li> <li>• 모집기업: 50여개, 지원인원: 150여명, 근무기간: 6~12개월</li> </ul>
경기도 청년 DIY아카데미 사업: 미래 전략 일자리분야 '기후환경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친환경 제품 생산, 공공환경 어플 개발 등</li> <li>• 경기도 소재 기관 또는 단체의 청년교육사업 지원형태, 최대 3개 선발 및 과정 당 3천만원 지원</li> </ul>
경기 청년 드림 마스터 리그: 제조창업 경험지원 사업 '기후환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가능한 제조분야 창업 아이템 선정 및 시제품 개발비 최대 1천만원 지원</li> <li>• 식물성원료 친환경 원단, 텀블러 세척기 등, 개발 성과</li> </ul>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 브리지: 유망산업분야(기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또는 미취업자 대상 직업훈련 제공</li> <li>• 참여 수당 월 200만원, 수료자에게 50만원 지원</li> </ul>

\* 출처: 조은주(2022).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 평가와 청년에게 관철은 일자리(decent work)로서의 녹색 일자리 과제. 2022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기후변화교육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한국동서발전 등, 울산에 본사를 이전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설립된 (사)울산에너지포럼이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청 등과 함께 실시한 중학생 대상 신재생에너지 팀 프로젝트 교육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조사·발표하고, 전문가와 토론 시간을 갖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한국동서발전 보도자료, 2021.10.19). 이들 기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에너지 전환정책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유럽연합의 틴스포그린 프로젝트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데서 벗어나 미래 에너지 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 참여 사례 분석

### 1) 사례 수집 및 분석 방법

지금까지 정책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청소년 참여활동이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의 성격을 고려할 때 청소년 행위주체성이 발현 되는 조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을 학교, 청소년기관(시설), 민간단체, 청소년활동가단체로 구분하고, 각각 유사하지만 다른 목적과 정책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탄소중립 관련 청소년 활동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 사례의 수집은 문헌 검색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현장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섭외과정을 거쳐 14개 사례에 대해 내부 콜로키움과 세미나 발표 형태로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 취지와 활동 방식이 유사한 사례들을 제외하고 총 8개의 사례를 최종 분석 결과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과 청소년 참여를 잇는 쟁점들을 연구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한국환경교육학회 상반기학술대회 특별세션(2022년 6월 11일)을 주최하여 사례 공유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 분석 방법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고유한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전체 청소년 교육·활동의 지형에서 해당 사례의 의미 분석을 통해 참여 촉진의 조건과 정책 지원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도구적 차원의 목표에 가깝다.

표 IV-10. 분석 대상 사례

유형	사례	일시
학교	A 중학교	6월 11일
	B 고등학교	7월 12일
청소년기관(센터)	C 청소년센터	4월 15일
	D 청소년문화의집	9월 2일
	E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8월 19일
민간교육단체	F 협동조합	6월 17일
	G 청소년교육단체	8월 29일
청소년활동가단체	H 청소년행동	6월 11일

## 2) 사례별 청소년 참여의 특징과 의의

### (1) 학교: 지식과 실천이 이어지는 시민교육의 가능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교에서 환경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 확산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 제고, 더 나아가 교육의 전환(“생태전환교육”)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두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사업을 운영해 온 경험 속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등에 기후·탄소중립 주제를 잘 반영해 온 노하우를 축적해 오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학교 전반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들 사례는 학교교육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학생 주도성이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경험적 결과를 보여준다.

A중학교는 전교생이 46명에 불과한 농촌소재 작은 학교로서,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퍼머컬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지역연계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알아가고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삶-앎-함”이 일치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 학교의 자율동아리인 기후행동동아리는 학생 주도성이 작동되는 실천적 맥락을 잘 보여준다. 동아리 담당 교사는 4년 여간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관련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초기에는 교사가 활동을 주도하였지만 점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할을 위치시키고 있었다(“참견하는 대신 동료시민으로서 함께 행동”). 학생들은 ‘기후행동주간’ 기간에 학교에서 운영할 활동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역할분담을 해나가면서 책임감을 키우고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의 경우, 동아리의 제안으로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결정한 것은 기후 행동과 민주시민교육이 교차하는 경험이 되었다.

B고등학교는 중소도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로서 교과 프로젝트, 탐구활동, 진로 캠프, 융합프로그램, 토론·디자인·에세이 대회 운영, 영재학급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평가에도 반영)에 탄소중립 주제를 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결과물을 인터뷰 등으로 소개하는 ‘그린뉴딜&탄소중립 신문’은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들을 인정해 주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학생

주도성의 관점은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교사는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학생들의 냉소와 무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꾸기 위해서 흥미를 유도한다거나 진로와 연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한 접근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과 친환경 업사이클링 활동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인근 학교들과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한마당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교육이 기후위기 시대에 실천하는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먼저 A학교는 기후 행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하는데 있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가 존중해 주는 분위기를 형성해왔다. B학교는 우리나라의 입시환경에서 교육과정상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학생들이 보다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1.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학교

기관 특징	A중학교	B고등학교
정책·예산 지원	(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지원사업	(교육부) 탄소중립시범학교, 탄소중립중점학교 (환경부) 꿈꾸는 환경학교
목표	기후 위기 시대 <b>살·앓·함</b> 이 일체되는 교육	살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주요 청소년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행동동아리</li> <li>- 기후 행동주간 조직·운영: 기후 위기·음식물쓰레기제로 캠페인, 고기 없는 저녁식사, 나무심기 행사</li> <li>-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 관련 학생 설문조사 실시 및 자발적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린뉴딜&amp;탄소중립 신문만들기 등, 다양한 학생주도 프로젝트</li> <li>탄소중립한마당: 체험부스 운영, 지역주민 천여 명 참여, 주민자치회</li> </ul>
청소년 참여의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리 운영에 있어 학생 스스로의 조직화 및 기획, 역할분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풍부한 프로그램 운영</li> </ul>
청소년 참여 촉진/장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퍼머컬처, 협동조합 등,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학교의 환경</li> <li>학생 주도성의 중요성 인식 및 결정권 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 운영(평가)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노력 반영</li> <li>학생들의 냉소적 반응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노력</li> <li>마을자원 적극 연계, 마을교육자치회 활용</li> </ul>

## (2) 청소년 기관(시설): 기후 위기와 청소년 활동·참여·자립지원 영역의 연결

청소년 기관(시설)은 학교와 달리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활동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세 사례에서는 청소년 활동, 지역사회 참여, 자립지원이라는 기관 고유의 청소년 서비스가 기후 위기라는 주제와 어떻게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준다.

C청소년센터는 많은 청소년 기관(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실천 중심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만 차이점은 청소년들이 탄소배출 절감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모바일 앱 '지구공'에 기록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활동의 성과를 확인·확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센터에서는 총 5주간 8개의 탄소중립 실천 미션을 제시하였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227개 학교 및 청소년단체를 통해 총 2,716명의 청소년 및 가족이 참여하는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지구공 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각 미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공동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기반 탄소중립 청소년 실천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활동 결과 약 2.7톤의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효과에 상응하는 실천성과가 만들어졌고, 센터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후 행동 1.5°C 앱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청소년 실천활동의 효과를 가지적으로 보여주고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확산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인실천 중심 활동은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다각도로 스스로 탐구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참여형 활동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의 주도성과 목소리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D청소년문화의집은 자체 문화기획단 청소년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문화기획단에서는 평소 놀이와 건강한 먹거리 중심의 즐거운 문화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다가, 코로나 19 이후 배달음식 포장용기 문제 등으로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업 구상단계에서 현황 파악을 하면서 청소년센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축제를 하는 사례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포장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점들이 참여하는 사례들은 없다는 점에 착안,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연대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들이 주도

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먼저 자체 학습 활동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을 배우고, 개인적인 실천을 경험해 보면서 제로웨이스트 활동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다. 지역 내 상점 연대활동은 가게에서 일회용품 포장대신 텀블러를 대여하거나 손님이 다회용기를 가져와 상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지역 내 카페, 분식집 등, 소상공인 운영 가게를 중심으로 참여할 가게를 모집하면서 청소년들은 SNS에 홍보자료를 올리기도 하고, 직접 만든 홍보자료를 가지고 가게에 방문하여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게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텀블러를 대여할 경우 위생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동시에 텀블러 및 다회용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역주민 158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아, 참여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네 군데의 가게에서 참여를 결정하였고, 청소년들은 이 가게들을 홍보하는 제로웨이스트 지도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참여 가게들을 방문하여 실제 텀블러 대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가게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활동도 실시하였다. 가게마다 실천 결과는 조금씩 달랐다. 어떤 가게에서는 활동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100개가량 줄일 수 있었고, 어떤 가게에서는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이러한 활동의 의미를 조금씩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어떤 가게는 아예 텀블러 대여제를 정착해서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막중한 책임감”에 부담을 가졌으나, 지역 가게들과 연대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점차 캠페인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E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지원사업으로 제로웨이스트 카페 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업장은 청년협동조합에서 자신들의 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이었던 카페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카페는 일회용품없는 카페를 표방하며 일회용 컵을 없애고 텀블러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다회용 빨대, 냅킨 대신 손수건 활용, 무포장 원두 구매, 비건 지향 메뉴구성 등, 음료 생산과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카페에서 음료 제조, 손님 응대, 매장 정리 등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일터에서의 친환경 실천 방식을 체험으로 익히고 있다.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친환경 실천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카페에서 일하는 데 관심을

두고 이 곳 작업장을 선택했지만, 이곳의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보통의 다른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지를 깨닫기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는 하지만 다른 곳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카페는 가정에서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우리동네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로웨이스트 물품 판매와 리필스테이션 운영 등을 통해 마을에서 친환경적 실천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친환경 농산품을 나누는 지구농장터, 동네 카페의 종이팩 수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인턴십을 마친 청소년들 다수는 카페 창업을 위해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다른 카페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한편으로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같은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멘토링 지원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 외에도 친환경적 실천 물품 만들기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표 IV-12.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청소년기관·시설

기관 특징	C청소년센터	D문화의집	E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작업장
정책·예산 지원	자체예산	지자체 탄소중립시민실천사업	지자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목표	청소년 탄소중립 가치 행동 확산	지역 내 소상공인 연계를 통한 제로웨이스트 확산	청소년 일 경험과 친환경 실천 연계
주요 청소년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주간 8개 탄소중립 미션 운영</li> <li>- 전국 227개 학교 및 청소년단체 총 2,716명 청소년 및 가족 참여</li> <li>- 엠(‘지구공’) 기반 청소년 실천내용 기록: 약 2.7톤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획단 활동</li> <li>- 환경스터디, 제로웨이스트 개인 실천 활동, 전문가 강의 및 워크숍</li> <li>• 제로웨이스트 가게 연대</li> <li>- 지역 내 참여 가게 모집</li> <li>- 텀블러·다회용기 기부캠페인(지역주민 158명 참여)</li> <li>- ‘용기내 연대’ 운영 및 모니터링</li> <li>-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지도 제작</li> <li>- 제로웨이스트실천 키트 캠페인(지역주민 7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로웨이스트 카페작업장 인턴십</li> <li>- 일회용품없는 카페, 텀블러대여, 비건요리, 분리배출 교육</li> <li>- 2021년 7명 수료, 2022년 5명 참여 중</li> </ul>

기관 특징	C청소년센터	D문화의집	E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작업장
청소년 참여 의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션 수행 방식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성과를 체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집 내 청소년문화기획단의 제안으로 사업구상, 기획, 평가 전 과정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터에서의 친환경 실천 체험</li> </ul>
청소년 참여 촉진/장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을 통해 온실가스 절감 효과 확인 및 동참의지 확산</li> <li>• 일시적인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일부 가게들의 냉담한 반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 일에 대한 높은 수요</li> <li>• 체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식 변화(“스며들”)</li> </ul>

### (3) 민간 청소년 교육단체: 청소년 시민 참여활동의 다변화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교육·활동은 기후 위기문제를 지역사회 맥락에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을 심화·확장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F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생태전환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청년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청소년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무포장 가게와 텃밭을 기반으로 생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역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지구마을학교’, 미디어 활용 생태교육, 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기획해 왔고, 청소년마을학교와 지자체 시민예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역량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은 분리수거, 텃밭 활동, 바다쓰레기 등을 주제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생태적 삶의 가치를 깨닫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배우게 된다. 청소년센터와 함께한 자기주도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이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를 기록하고, 멸균팩·우유팩을 모아 재활용 공장에 보내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청소년센터와 작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 청소년지도사 대상 워크숍도 기획하고 있다.

대도시로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 상황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교차한다.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을 환경 활동가로 키우려고 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역 생태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믿음이 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은 협동조합에서 지향하는 교육 목적을 담기에 한계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과정의 틀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참신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한 통로를 모색하고 있다.

G청소년교육단체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찾아 행동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청소년 사회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참여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로 발걸음’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단순히 분리수거 행동차원을 넘어 생산, 소비, 폐기 등, 플라스틱 생애 주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과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기후 행동이 단순한 개인 실천을 넘어 직접 대안을 찾고 사회 의제화하는 데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역량을 계발하고자 의도되었다.

청소년들은 단체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체는 작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마련된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자로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참여 중인 프로그램 안에서 소모임을 조직하거나, 프로그램 이후 후속 활동을 기획하는 등(동아리 인큐베이팅) 주제별 프로그램 참여 외에도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높이는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체의 프로그램에는 평소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실천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많은 청소년 등,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현장 답사, 조사 실험, 연설, 기자회견, 버스킹, 문화제, 사진찍기,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스스로 찾은 대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자 개개인의 진로와도 접목될 수 있는 자아실현 과정으로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기여했다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관심사를 공유한 또래를 만나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느꼈던 ‘외로움’을 넘어 강한 연대감과 동질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 만족감을 나타냈다. 단체는 프로그램 주제별로 환경, 노동, 불평등 등과 관련된 시민사회와 연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지역 사회에 보다 확산시

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체에서 추구하는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기획 방식에 대해 공감하고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과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표 IV-13.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민간교육단체

특징 \ 단체	F협동조합	G청소년교육단체
정책·예산 지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교육·청소년기관/단체 등	비영리단체지원사업,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등
목표	동네에서 지구까지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	청소년 시민이 문제를 찾아 대안을 행동 사회참여의 효능감
주요 청소년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마을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분리수거, 텃밭 등, 청소년 프로젝트</li> <li>• 청소년마을학교: 시민프로젝트 공모 선정, 텃밭 프로젝트 기획</li> <li>• 생태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활용 식물도감 만들기, 바다쓰레기 주제 영화만들기</li> <li>• 자기주도 봉사활동: 청소년 소비문화 실태조사, 자기 쓰레기배출 기록, 전국 캠페인으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스틱 제로 발걸음(월 1회, 10회):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발굴, 피해주민과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 심화, 캠페인 진행</li> <li>• 개인 실천을 넘어 '직접 행동'을 강조한 다양한 소재 발굴</li> <li>• 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평가</li> <li>• 청소년 소모임 및 후속 활동 지원</li> </ul>
청소년 참여의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을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li> <li>• 직접 실천과 협력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참여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li> <li>• 사회구조적인 측면 이해: 집단적 노력, 정치적 행동의 중요성</li> </ul>
청소년 참여 촉진/장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청소년-청년 지속적인 활동 및 연대</li> <li>• 청소년기관과의 협력 관계</li> <li>• 지역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li> <li>• 교육청·학교 외부강사 활동의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답사, 여행, 조사, 실험, 기자회견, 연설, 버스킹, 인터뷰,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 구성</li> <li>• 자아실현(진로)과 공동체기여 가치 추구</li> <li>• 뿌듯함, 자랑하고 싶은 마음</li> <li>• 사회참여에 대한 또래집단의 부정적인 압력</li> </ul>

#### (4) 청소년활동가단체: 고립에서 연대로 나아가기

마지막 사례는 기후 위기에 대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참여하고자 조직한 단체로, 전문가와 어른들의 도움없이 청소년 스스로 조직한 기후 행동의 반향을 보여준다. H청소년행동은 2019년 기후 위기의 시급성을 알리고 행동에 동참하고자 H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직한 단체이다. 청소년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죄책감, 막막함, 우울감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관련 영상과 책을 함께 보며 토론과 학습을 해 나갔다. 이들의 첫 번째 행동은 공부하면서 ‘스스로 소화해 낸 이야기’를 글로 풀어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단체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며 기후 행동에 대한 열의도 커져갔다. 2020년에는 전 세계 기후 정의 행동의 날을 즈음하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 전하는 한마디를 SNS에 올리는 온라인 피케팅을 열고, 165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만든 메시지를 모아 ‘지구력’(달력)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2021년에는 추석 명절에서 모티브를 따서 ‘기후제’라는 형식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사과와 배, 생선 등이 자신의 이야기를 절절하게 외치는 ‘차례’를 지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재미있는 발상을 통해 ‘순수한 진심’을 전달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물론 모든 행동들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케팅과 같은 행동 영역은 대중들 앞에 서야 하는 일이다보니 참여하기 꺼려질 때 함께 다독거리며 보다 좋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비건, 친환경 삶, 대중교통 이용 등, 개인적인 실천에는 일상의 제약과 희생이 따르기에 끊임없는 성찰과 ‘수행자’의 마음을 요구하는 일이다. 기후 행동을 하면서 어른들의 조언과 협력에 대한 기대와 갈증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청소년들끼리 모임을 유지하며 학습과 성찰과 회복의 시간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다.

H청소년행동의 사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청소년 참여의 문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도성과 행동 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단체의 사회에서의 역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 또는 활동가로서 사회내 목소리를 내기 용이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조직이 고립되지 않고 더 많은 청소년들과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표 IV-14.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청소년활동가단체

특징	단체	H청소년행동
정책·예산 지원		지역 청소년센터에서 동아리 공간 지원
목표		배움, 행동, 성찰, 치유를 통해 자발적인 청소년 기후 행동 실천
주요 청소년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8월 결성, 현재 만24세 미만 청소년 16명 활동</li> <li>• 자료집 제작: 청소년의 언어로 기후 위기 이야기하기</li> <li>• 정기 공부모임, 다규 상영회, 토크쇼</li> <li>• 금요행동(피케팅), 크리스마스 행진, 기후 지방선거 액션, '시에 바라는 한마디'(지구력 제작)</li> </ul>
청소년 참여의 초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모든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
청소년 참여 촉진/장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인 참여와 문제의식의 공유, 학습과 성찰을 통한 성장, 청소년 간 연대 의식</li> <li>• 청소년을 존중하지 않는 어른과 사회 분위기</li> </ul>

### 3)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을 위한 과제

#### (1) 제로웨이스트에서 기후 정의까지 청소년 기후 행동의 다양성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참여의 사례들은 청소년 기후 행동의 확산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다음 <표 IV-1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탄소중립 실천에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주제에 해당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 참여활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과 단체에서 자원순환(플로깅, 제로웨이스트 활동 등)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이 청소년 기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활동 콘텐츠의 다각화, 그리고 이를 기획·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IV-15. 기후 위기 대응·탄소중립 실천 분야별 청소년 참여 활동 사례 및 유형(요약)

기후 위기 대응·탄소 중립 실천 분야	사례에서 나타난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유형
에너지	B고등학교: 에너지 동아리 정책제안, 토론회	학교 교육과정
건물	B고등학교: 학교 전기에너지 사용실태 분석	학교 자치활동
수송	H청소년행동: 대중교통 이용 실천	개인 실천

기후 위기 대응·탄소 중립 실천 분야	사례에서 나타난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유형
생태계(산림, 해양 등)	A중학교: 나무심기 F협동조합, G청소년교육단체: 해양 쓰레기 F협동조합: 미디어 활용 식물도감 만들기	교육 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원순환	B고등학교: 친환경 업사이클링 활동, 탄소중립 실천 최고반, 지구환경지킴이 C청소년센터, D청소년문화의집, E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F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 활동	개인 실천, 봉사 활동, 사회참여 활동
농업	A중학교: 퍼머컬처 E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친환경 농산물 장터 B고등학교, F협동조합: 텃밭 활동	교육 활동
축산업, 채식, 동물권	A중학교: 채식 경험 E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비건 카페 메뉴 H청소년행동: 비건 실천, 가족공예 수업 거부	개인 실천, 교육 활동, 일 경험
기후 정의	A중학교, H청소년행동: 기후 위기 시위 참여 B고등학교: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인권 문제 F협동조합: 플라스틱 제로 발걸음(피해 현장 방문)	학교 교육과정, 국제교류 활동, 정치 참여, 사회 참여
기후 변화 적응	H청소년행동: 멸종위기 종을 위한 '차레'	사회 참여

또한 일부 정치 참여 또는 사회참여 유형이 보이는 하지만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사회교육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혹은 청소년이 보다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활동들에서도 주된 목표는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개인 실천 중심 프레임 안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A학교의 동아리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후 시위에 참여하거나 G단체에서 사회변화와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 H행동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방식은 현재 청소년 참여의 지형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A학교는 생태적 교육을 표방하는 소규모 학교이고, G단체는 이제 막 시작하여 차별화된 방식으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H단체는 소수의 청소년들이 모인 그룹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기존 체제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매우 복잡한 현상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탐구하기보다는 해결해야하는 문제로서 당장의 실천을 강조하는데서 파생되는 한계일 수도 있다. 그런

데 이는 청소년 참여를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 것이 아닌 단순한 실천 목록으로, 장기적인 변화와 상상이 아닌 단기적인 성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제는 기후위기와 청소년 참여 담론에서 실천 프레임을 넘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행위주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탄소절감과 제로웨이스트 활동의 가치는 그 자체로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방향성은 보다 큰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가리킬 때 청소년들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발전적 모색이 가능하다. 또한 활동 성과에 있어서도 이 활동이 청소년 권리의 어떤 측면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지(A학교: 생태적 삶에 기여하는 앎을 교육받을 권리, F협동조합: 지역에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 권리, E작업장: 친환경적 방식으로 일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영향력은 학교 교육, 지역사회 활동, 일 경험 등, 청소년들의 일상 세계와 관련된 여러 영역들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연결·확장되는 것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 (2) 참여 역량 계발의 과제: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 효능감, 의사결정 권한

사례 분석 결과 학교 안팎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에서 필요한 참여 역량은 행위주체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탐색해 볼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 문제에 당장은 적극적이지 않은 청소년들이라도 그들의 일상적인 관심과 흥미에 귀 기울여 참여의 지속적인 동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고등학교 담당 교사가 입시위주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상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주제를 융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현실적인 욕구(입시에 도움)에 부합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어느 정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식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G단체의 프로그램에서는 개인 실천을 넘어 사회적인 대안을 모색해 가는데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가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의 과정으로 심화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기후 문제를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이자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이 참여 동기의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준다.

둘째, 기후위기 문제는 너무 거대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칫 무력감을 줄 수 있다. 이에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실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C청소년센터의 사례와 같이 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이 학교에서도 확산되는 것은(교육청 현황 참고, 표 IV-7),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과 견주어보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대로 결과 중심, 개인 실천 프레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효능감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하며, 이는 어떠한 사회적 영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대안을 찾는 과정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질 때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 B중학교 동아리에서 학생들은 연간 동아리 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나가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로서 활동하였고, H행동의 청소년들은 외부의 도움없이 거의 모든 기획을 스스로 해 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세 가지 요소(관심과 흥미, 효능감, 의사결정권한)들은 청소년들의 행위 주체성 형성과정을 특징짓는 요소들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5장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기후위기·탄소중립 참여 역량을 이 세 요소와 관련지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6장 실행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에 있어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기관·단체의 역할 및 협력 과제: 영역 간 넘나들기를 통한 청소년 참여 공간 넓히기

본 사례 분석 결과는 학교, 청소년기관(센터), 민간단체, 청소년활동가단체 등,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조직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된 청소년 참여 공간이 어떻게 마련되고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교는 최근의 강화된 정책적 기조 속에서, 청소년기관(센터)은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소재이자 확장된 사업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민간단체는 기존 학교와 청소년기관(센터)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청소년 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곳으로서, 청소년활동가단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청소년 참여 공간을 넓혀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영역 간 만남은 때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며, 소통과 협력에는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은 C센터에게는 준비된 기회로 인식되었지만, F단체에는 부응하기 어려운 요구로 인식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기관 간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F단체는 청소년지도자 워크숍을 기획하는 파트너로 인식되었지만 G단체에게는 아직까지 손을 내밀기에는 접점이 없어 보이는 관계처럼 서로 다르게 인식되었다. E학교박청소년작업장은 제로웨이스트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서툰 협력 경험을 통해 친환경 일 경험과 청소년 자립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의 생태철학과 청소년센터의 청소년 활동이 결합된다면, 단순 체험과 실천 위주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성찰과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청소년 활동 영역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H행동과 같은 청소년활동가단체와 다른 기관(단체)과는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까? H행동의 사례는 행위주체성의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다른 기관(단체)과 협력을 통해 어떻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 유럽에서 청소년 기후행동에 대한 지원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연대활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시설)들이 기관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조직화와 연대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및 사업 현황, 그리고 청소년 참여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등, 청소년정책에서 특화된 전문 영역을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청소년정책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활용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사례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탄소중립 관련 청소년 활동이 주로 개인 실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 참여와 정책 참여 방안을 개발하고, 청소년 행위주체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활동과 연대를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후 거버넌스에 청소년 참여를 지원하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가 될수 있으며, 6장의 실행연구를 통해서도 정책 참여와 관련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기본법 개정,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교육부-환경부 환경교육 협력 증가 등,

최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학교 교육의 초점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주도적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참여활동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특화된 영역에 대한 학교 연계협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활동시설 외에도 지역 환경교육센터, 민간단체 등, 환경교육과 시민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와 연대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사례 분석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 효능감, 의사결정 권한 등, 청소년 행위주체성의 여러 측면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5장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학교 밖 또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은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 등,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기후위기·탄소중립 실천은 모든 부처의 정책 과제인 만큼 여성가족부에서는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중장기 청소년 활동·참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청소년 활동의 기여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활동가 단체와 같이 기존 청소년정책의 기관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는 자발적인 청소년 간 조직화와 연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복지, 안전,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정책은 일부 에너지복지와 녹색일자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청소년 권리의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은 부족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일부 민관 협업 또는 민간단체의 사업으로 사례들을 확인한 바, 향후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등,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 복지사업에서의 기후·탄소중립 의제 연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청소년사업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IV-16. 정책 현황 요약 및 시사점

정책 영역	주요 정책 현황	정책 시사점
탄소중립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국민 이해 증진, 국민 참여 보장, 기후대응기금 마련</li> <li>기후 정의 관점에서 청소년·청년 요구 목소리 확산</li> <li>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등, 정책 거버넌스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에 청소년 참여 다각화 방안 필요</li> <li>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청소년정책사업 발굴 필요</li> </ul>
학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본법상 기후 변화·환경교육 조항 마련</li> <li>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li> <li>학교환경교육정보센터 운영 등, 지원체계화</li> <li>학교교육과정 운영편성 확산, 학교 탄소중립 실천지원 사업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환경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방안 필요</li> <li>학교 교육과 상호보완되는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전략 필요</li> </ul>
학교 밖 또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부) 국가/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체계구축</li> <li>(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서 에너지·기후 변화교육 사업 실시</li> <li>(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계획, 청소년활동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유관정책 영역 간 협력 구축을 통한 청소년정책사업 발굴 필요</li> <li>청소년기관(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li> <li>청소년 연대 활동 지원 필요</li> </ul>
복지·안전·일 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부, 에너지·환경 공공기관 등) 에너지복지사업</li> <li>(환경부 등) 녹색일자리 분야 직업훈련 및 청년일자리 지원</li> <li>(민관협업, 민간) 안전/복지/ESG 관련 청소년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권리 관점의 일자리·진로교육 분야 정책 마련 필요</li> <li>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과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필요</li> </ul>



# ○ — 제5장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 1. 조사 개요
- 2.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 3. 소결



## 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주도의 활동과 참여 정책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설문 내용은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후 변화 관련 태도 및 실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탄소중립 실천 및 참여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 모집단은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총 3,02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설문의 구성 및 문항 개발

#### (1) 설문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구성 및 문항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 변화, 환경,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 있는 조사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문헌고찰 및 검토한 조사표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학교급별 교사 및 환경교육 연구자 5인과 청소년 1인에게 의견 수렴을 거쳤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기후 변화 및 환경 교육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학교급별 설문 문항, 선택지 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표현의 적절성 및 난이도를

83) 이 장은 강경균 연구위원이 작성하였고, 황세영 연구위원이 소결을 작성하였음.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한 단어, 어휘 및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이후 조사 분야 전문가 및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설문지를 검토하였으며, 최종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개발된 최종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202204-HR-고유-004)받아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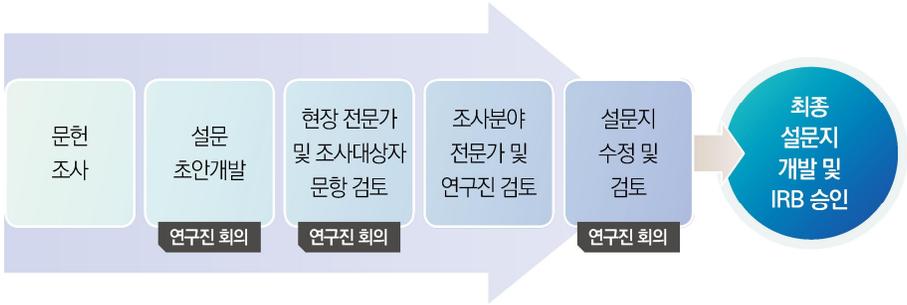


그림 V-1. 설문 개발 절차

(2)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개발

본 연구의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문헌을 고찰한 결과, 설문지의 구성은 사회 인구학적 배경,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V-1. 설문조사 영역별 항목

영역(문항 수)	항목(문항 수)
사회인구학적 배경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1)</li> <li>• 학교 급(1)</li> <li>• 거주지역(1)</li> </ul>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 발생 관련 인식(1)</li> <li>• 기후 변화 발생 주요 원인(1)</li> <li>•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1)</li> <li>• 기후 변화 문제 인식 정도(5)</li> <li>•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7)</li> <li>•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매체, 장소) 유형(2)</li> </ul>

영역(문항 수)	항목(문항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에 관한 감정 및 느낌(7)</li> <li>• 기후 변화에 관한 교육, 대응, 문제해결 전망(3)</li> </ul>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습관(1)</li> <li>•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20)</li> <li>•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1)</li> <li>•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 참여 경험 및 이유(2)</li> </ul>

• 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고 통계분석에 활용할 목적으로 성별, 학교 급, 거주지역을 구성하였다.

•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후 변화 발생 관련 인식, 기후 변화 발생 주요 원인,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 용어 및 이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획득 경로 유형, 기후 변화에 관한 감정 및 느낌, 기후 변화 관련 교육 및 대응,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등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학생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습관,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 참여 경험 및 이유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상의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문항의 개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V-2. 설문조사 문항 개발 근거

영역	항목	개발근거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 문항 1. 기후 변화 발생 관련 인식	• 김현노, 전호철, 이홍림(202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문항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한 문항의 표현 일부 수정
	• 문항 2. 기후 변화 발생 주요 원인	• 김현노, 전호철, 이홍림(202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문항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한 문항의 표현 일부 보완
	• 문항 3.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 김현노, 전호철, 이홍림(202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문항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한 보기 일부 수정
	• 문항 4. 기후 변화 인식 정도	• 김현노, 전호철, 이홍림(202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문항의 표현 일부 수정 보완(문항 4-1~4) • 연구진 자체 개발(문항4-5)
	• 문항 5.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학습자료(2021). 「탄소중립시민회의 설문조사 보고서」, 문항에서 전문가 검토 및 연구진 자체 개발을 통해 문항 일부 수정 보완
	• 문항 6.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 (매체, 장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학습자료(2021). 「탄소중립시민회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전문가 및 연구진 검토를 통해 문항 일부 수정 보완
	• 문항 7. 기후 변화에 관한 감정 및 느낌	• 국가환경교육센터 전문자료(2021). 「2021년 청소년 환경·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문항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문항의 표현 일부 수정 보완
	• 문항 8. 기후 변화에 관한 교육, 대응,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인식	• 국가환경교육센터 전문자료(2021). 2021년 청소년 환경·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문항에서 전문가 및 연구진 검토를 통해 문항 수정 보완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 문항 9.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습관	• 김현노, 전호철, 이홍림(202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문항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문항의 표현 일부 수정 보완
	• 문항 10.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 정희라, 최자선, 백성희(2020). 「초등학생 환경역량 검사도구의 개발」, 에서 전문가 및 연구진 검토를 통해 문항 삭제 및 일부 표현 수정
	• 문항 11.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	• 김현노, 전호철, 이홍림(202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문항의 표현 일부 수정 보완
	• 문항 12.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 참여 경험 및 이유	• 여상인(2018).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행동에 대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행동 의지와 신념」, 에서 전문가 및 연구진 검토를 통해 문항 추가 및 일부 수정 보완

청소년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개발된 문항이 내적일관성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V-3>와 같다.

표 V-3. 설문조사 문항의 신뢰도 분석

변수	Cronbach's $\alpha$	항목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 문항 4. 기후 변화 인식 정도	.744	5
	• 문항 7. 기후 변화에 관한 감정 및 느낌	.742	7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 문항 10.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931	20

설문조사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 중 <문항 4>의 기후 변화 인식 관한 정도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44이며, <문항 7>의 기후 변화에 관한 감정 및 느낌을 알아보는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42로 모두 양호한 신뢰도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에 대한 문항으로 <문항 10>의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31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3) 표본의 구성 및 자료 수집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1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표본 크기는 조사 일정 및 비용을 고려하여 총 3,000명(초등학교 800명, 중학교 1,100명, 고등학교 1,10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전국 17개 시도 기준 119개교(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45개교), 3,059명(초등학교 800명, 중학생 1,134명, 고등학생 1,125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8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 학교에 먼저 설문조사 안내문을 협조공문으로 발송하고, 설문조사를 승인한<sup>84)</sup>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

84)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함.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조사대상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함.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료 수집은 3,029명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5명을 제외한 총 3,024명(초등학교 762명, 중학교 1,156명, 고등학교 1,106명)이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V-4>와 같다.

표 V-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024	100.0
성별	남자	1,459	48.3
	여자	1,565	51.7
학교 급	초등학교	762	25.2
	중학교	1,156	38.2
	고등학교	1,106	36.6
권역	서울	478	15.8
	경기/인천	1,008	33.3
	강원/충청	436	14.4
	경상	739	24.4
	전라/제주	363	12.0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1,459명(48.3%), 여자 1,565명(51.7%)으로 나타났고,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1,156명(38.2%), 고등학교 1,106명(36.6%), 초등학교 762명(25.2%)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권 1,008명(33.3%), 경상권 739명(24.4%), 서울권 478명(15.8%), 강원·충청권 436명(14.4%), 전라·제주권 363명(12.0%) 순으로 경기·인천권이 가장 많았다.

####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학교 급, 지역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빈도분석,  $\chi^2$ 검증,  $t$  검증, ANOVA(사후 검증 Scheffe) 등을 실시하였다.

## 2.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 (1) 기후 변화 발생에 대한 인식

기후 변화 발생과 관련 인식을 분석을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 발생 관련 인식에 대한 각 문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5. 기후 변화 발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chi^2$
전체		2,954	82.7	7.2	3.9	0.4	5.8	
성별	남자	1,415	80.6	7.8	5.0	0.6	5.9	16.063**
	여자	1,538	84.6	6.7	2.9	0.1	5.7	
학교 급	초등학교	751	73.2	11.9	4.8	0.7	9.3	104.044***
	중학교	1,120	81.3	7.7	4.3	0.3	6.3	
	고등학교	1,083	90.7	3.5	2.8	0.2	2.8	
권역	서울	476	83.0	9.0	5.8	0.0	2.2	42.840***
	경기/인천	985	82.4	6.3	3.6	0.8	6.9	
	강원/충청	410	80.3	6.6	3.8	0.0	9.3	
	경상	720	82.7	8.0	3.6	0.4	5.3	
	전라/제주	363	85.9	6.6	3.0	0.0	4.5	

주: 1) \*\* $p < .01$ , \*\*\* $p < .001$

주: 2) ①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②기후 변화가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5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

③기후 변화가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먼 미래(2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④기후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⑤잘 모르겠다.

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발생 현상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82.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84.6%)가 남자(80.6%)보다 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1$ ),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90.7%, 중학교 81.3%, 초등학교 73.2% 순으로 기후 변화가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이러한 결과는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기후 변화 발생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라·제주권 85.9%, 서울권 83.0%, 경상권 82.7%, 경기·인천권 82.4%, 강원·충청권 80.3%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p < .001$ ),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기후 변화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기후 변화 발생 주요 원인

기후 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을 분석을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여 진행하였다. 기후 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각 문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6. 기후 변화 발생 주요 원인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chi^2$
전체		2,947	94.5	5.5	
성별	남자	1,411	94.5	5.5	0.000
	여자	1,536	94.5	5.5	
학교 급	초등학교	748	90.8	9.2	27.206***
	중학교	1,116	96.1	3.9	
	고등학교	1,083	95.5	4.5	
권역	서울	476	96.6	3.4	5.396
	경기/인천	982	94.0	6.0	
	강원/충청	408	94.4	5.6	
	경상	719	94.5	5.5	
	전라/제주	363	93.3	6.7	

주: 1) \*\*\* $p < .001$

주: 2) ①인간 활동(예: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산림 훼손 등)

②자연적 현상(예: 태양에너지 변화, 지구 자전축 경사 변화, 화산 분출 등)

기후 변화 발생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기후 변화에 대한 발생의 주요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원인(94.5%)이 '자연적 현상'(5.5%)으로의 원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의 발생 원인이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나 산림 훼손 등, '인간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96.1%, 고등학교 95.5%, 초등학교 90.8% 순으로 기후 변화의 발생 원인이 '인간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 (3)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총 5문항에 대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각 문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7.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chi^2$
전체		2,946	67.8	18.1	10.1	2.9	1.1	
성별	남자	1,411	65.5	18.6	11.2	3.6	1.0	10.319*
	여자	1,535	70.0	17.6	9.0	2.3	1.1	
학교 급	초등학교	751	51.3	28.8	13.5	4.2	2.1	206.274***
	중학교	1,114	65.4	20.2	10.7	3.0	0.8	
	고등학교	1,082	81.9	8.5	7.1	1.9	0.6	
권역	서울	474	66.3	20.4	8.7	3.7	0.9	14.268
	경기/인천	981	68.5	18.1	10.1	2.3	1.1	
	강원/충청	410	66.9	17.3	12.1	3.1	0.7	
	경상	719	68.9	18.1	9.3	2.9	0.8	
	전라/제주	362	67.2	16.2	11.3	3.2	2.1	

주: 1) \* $p < .05$ , \*\*\* $p < .001$

주: 2) ①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②5년 이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③20년 이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④50년 이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⑤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67.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70.0%)가 남자(65.5%)보다 기후 변화에 대하여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 급이 높은 순으로(고 81.9%, 중 65.4%, 초 51.3%) 기후 변화에 대하여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 (4) 기후 변화 문제 인식 정도(전체)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8. 기후 변화 문제 인식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문항 구분	전체	3.26	0.70	
	평소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다	3.17	1.03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3.85	0.9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3.07	1.07	
	기후 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3.45	0.96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2.78	0.97	
성별	남자	3.24	0.74	-1.978*
	여자	3.29	0.66	
학교 급	초등학교(a)	3.16	0.72	37.239*** a,b<c
	중학교(b)	3.19	0.70	
	고등학교(c)	3.40	0.66	
권역	서울(a)	3.30	0.69	2.004
	경기/인천(b)	3.27	0.72	
	강원/충청(c)	3.18	0.68	
	경상(d)	3.29	0.72	
	전라/제주(e)	3.24	0.64	

주: 1) \* $p < .05$ , \*\*\* $p < .001$

주: 2) ①나는 평소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다.

②나는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④나는 기후 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⑤나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기후 변화를 실제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지 그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후 변화 관심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법

인식,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 인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이 3.2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M=3.85)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M=2.78)가 가장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M=3.29)가 남자(M=3.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M=3.40)가 초등학교(M=3.16)·중학교(M=3.19)에 비해 높게 나타나( $p < .001$ ), 고등학생이 초·중학생보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5)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관련 용어 및 이슈인 탄소중립, 파리 기후 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 지구온난화, 기후 난민, 기후 불평등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을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탄소중립(Net-Zero)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중 '탄소중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9.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탄소중립)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chi^2$	
<b>전체</b>	3,011	32.6	40.7	26.7		
<b>성별</b>	남자	1,452	32.8	37.1	30.0	21.068***
	여자	1,559	32.4	44.1	23.5	
<b>학교 급</b>	초등학교	756	33.1	42.7	24.2	88.088***
	중학교	1,153	39.1	41.1	19.8	
	고등학교	1,102	25.5	39.0	35.5	
<b>권역</b>	서울	478	30.1	40.3	29.6	42.290***
	경기/인천	999	30.9	37.5	31.6	
	강원/충청	434	40.2	37.7	22.1	
	경상	737	33.4	45.7	21.0	
	전라/제주	363	30.1	43.8	26.2	

주: 1) \*\*\* $p < .001$

주: 2) ①처음 듣는다.

②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③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탄소중립’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으나, 무슨 말인지 모른다’(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 듣는다’(32.6%),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를 잘 알고 있다’(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44.1%)가 남자(37.1%)에 비해 ‘탄소중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30.0%)가 여자(23.5%)에 비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p<.001$ ).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001$ ), 고등학교(35.5%), 초등학교(24.2%), 중학교(19.8%)의 순으로 ‘탄소중립’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001$ ), 서울권(40.3%)과 경기·인천권(37.5%)이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가 높게 나타났고, 강원·충청권은 ‘처음 듣는다’(40.2%)가 지역별 분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파리 기후 변화협약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중 ‘파리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0.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파리 기후 변화협약)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chi^2$
전체		3,010	38.9	30.3	30.8	
성별	남자	1,452	38.9	30.7	30.4	0.324
	여자	1,559	38.9	29.9	31.2	
학교 급	초등학교	756	72.2	20.6	7.2	661.407***
	중학교	1,152	38.0	34.3	27.7	
	고등학교	1,102	17.0	32.7	50.3	
권역	서울	478	32.9	29.9	37.2	49.548***
	경기/인천	1,001	40.5	28.2	31.3	
	강원/충청	434	46.1	33.4	20.5	
	경상	735	38.1	33.5	28.4	
	전라/제주	363	35.2	26.3	38.5	

주: 1) \*\*\* $p<.001$

주: 2) ①처음 듣는다.

②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③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파리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파리 기후 변화협약’에 대하여 ‘처음 듣는다’가(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30.8%),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가(3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001$ ), 초등학교(72.2%), 중학교(38.0%)의 순으로 ‘파리 기후 변화협약’에 대하여 ‘처음 듣는다’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파리 기후 변화협약’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50.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001$ ), 강원·충청권(46.1%), 경기·인천권(40.5%), 경상권(38.1%), 전라·제주권(35.2%), 서울권(32.9%)이 ‘처음 듣는다’가 높게 나타났다.

### ③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1.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온실가스 감축)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chi^2$	
전체	3,006	16.4	36.9	46.7		
성별	남자	1,450	17.6	34.5	47.8	7.667*
	여자	1,556	15.3	39.1	45.6	
학교 급	초등학교	753	26.3	45.4	28.2	318.327***
	중학교	1,150	19.2	40.9	39.9	
	고등학교	1,103	6.8	26.9	66.3	
권역	서울	478	12.7	33.4	53.9	28.807***
	경기/인천	1,000	16.4	36.1	47.5	
	강원/충청	434	20.7	42.1	37.2	
	경상	732	16.6	37.8	45.6	
	전라/제주	363	16.1	35.8	48.1	

주: 1) \* $p<.05$ , \*\*\* $p<.001$

주: 2) ①처음 듣는다.

②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③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4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36.9%), ‘처음 듣는다’(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47.8%)가 여자(45.6%)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고 높게 나타났다( $p < .05$ ).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 < .001$ ), 고등학교가 66.3%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가 가장 높았고,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는 초등학교(45.4%)와 중학교(40.9%)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 < .001$ ), 서울권(53.9%), 전라·제주권(48.1%), 경기·인천권(47.5%), 경상권(45.6%), 강원·충청권(37.2%)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 ④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지속가능발전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중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2.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지속가능발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chi^2$
전체		2,996	17.6	32.1	50.3	
성별	남자	1,444	19.1	30.9	50.0	4.670
	여자	1,552	16.3	33.2	50.5	
학교 급	초등학교	753	37.5	42.4	20.1	592.927***
	중학교	1,148	17.1	34.9	48.0	
	고등학교	1,095	4.5	22.0	73.4	
권역	서울	478	17.4	26.6	56.0	30.935***
	경기/인천	994	17.3	33.5	49.2	
	강원/충청	429	20.6	39.5	39.9	
	경상	735	17.6	30.4	52.1	
	전라/제주	360	15.5	30.2	54.3	

주: 1) \*\*\* $p < .001$

주: 2) ①처음 듣는다.

②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③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50.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32.1%)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42.4%)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48.0%)와 고등학교(73.4%)는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001$ ), 서울권(56.0%), 전라·제주권(54.3%), 경상권(52.1%), 경기·인천권(49.2%), 강원·충청권(39.9%)이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⑤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중 ‘지구온난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3.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지구온난화)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chi^2$	
전체	3,004	0.9	4.8	94.4		
성별	남자	1,449	1.1	5.0	93.9	2.385
	여자	1,555	0.6	4.5	94.9	
학교 급	초등학교	751	0.7	4.7	94.6	14.996**
	중학교	1,154	1.0	6.4	92.6	
	고등학교	1,100	0.9	3.0	96.1	
권역	서울	476	1.1	3.7	95.2	9.780
	경기/인천	998	0.8	3.6	95.5	
	강원/충청	431	0.7	6.4	92.9	
	경상	736	1.1	5.3	93.6	
	전라/제주	363	0.5	6.1	93.4	

주: 1) \*\* $\alpha, 01$

주: 2) ①처음 듣는다.

②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③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9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면( $p < .01$ ), 고등학교(96.1%), 초등학교(94.6%), 중학교(92.6%)의 순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로 나타났다.

⑥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기후난민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중 '기후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4.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기후 난민)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chi^2$
전체		3,005	17.9	32.1	50.0	
성별	남자	1,449	18.7	31.2	50.1	1.829
	여자	1,555	17.1	33.0	49.9	
학교 급	초등학교	753	32.5	36.1	31.4	226.775***
	중학교	1,152	15.6	33.9	50.5	
	고등학교	1,100	10.3	27.5	62.2	
권역	서울	478	16.4	24.8	58.8	29.086***
	경기/인천	999	17.9	32.0	50.0	
	강원/충청	433	19.6	37.4	43.0	
	경상	733	17.0	35.0	47.9	
	전라/제주	362	19.4	29.8	50.7	

주: 1) \*\*\* $p < .001$

주: 2) ①처음 듣는다.

②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③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기후 난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기후난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50.0%)가 가장 높았고,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가 3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36.1%), 중학교(50.5%)와 고등학교(62.2%)의 경우,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 < .001$ ), 서울권(58.8%), 전라·제주권(50.7%), 경기·인천권(50.0%), 경상권(47.9%), 강원·충청권(43.0%)의 순으로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⑦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 기후 불평등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중 ‘기후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5.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기후 불평등)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chi^2$
전체		3,011	34.5	40.9	24.6	
성별	남자	1,452	37.9	37.8	24.4	16.092***
	여자	1,560	31.4	43.8	24.9	
학교 급	초등학교	756	40.7	36.5	22.8	99.168***
	중학교	1,153	39.2	42.8	18.0	
	고등학교	1,102	25.3	41.9	32.8	
권역	서울	478	30.9	40.2	28.9	42.707***
	경기/인천	999	30.7	44.3	25.0	
	강원/충청	434	46.2	35.1	18.7	
	경상	737	33.9	39.8	26.3	
	전라/제주	363	37.0	41.4	21.5	

주: 1) \*\*\* $p < .001$

주: 2) ①처음 듣는다.

②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③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기후 불평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기후 불평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40.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 듣는다’도 3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p < .001$ ), 남자(37.9%)는 ‘처음 듣는다’, 여자(43.8%)의 경우, ‘기후 불평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 < .001$ ), 중학교(42.8%), 고등학교(41.9%)의 순으로 ‘기후 불평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음 듣는다’는 초등학교(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 < .001$ ), 경기·인천권(44.3%), 전라·제주권(41.4%), 서울권(40.2%), 경상권(39.8%), 강원·충청권(35.1%)의 순으로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가 높게 나타났고, 강원·충청권(46.2%), 전라·제주권(37.0%), 경상권(33.9%), 경기·인천(30.7%)의 순으로 ‘처음 듣는다’가 높게 나타났다.

⑧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전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용어와 이슈 전체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관련한 개별 문항과는 다르게 전체 문항에 대한 성별, 학교급 별, 권역별 비교를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6.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전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6	2.23	0.48		
성별	남자	1,455	2.23	0.49	-0.607
	여자	1,561	2.24	0.46	
학교 급	초등학교(a)	759	1.98	0.46	295.779*** a<b<c
	중학교(b)	1,154	2.18	0.45	
	고등학교(c)	1,103	2.47	0.40	
권역	서울(a)	478	2.31	0.49	10.879*** c<d,b,e,a
	경기/인천(b)	1,004	2.25	0.47	
	강원/충청(c)	434	2.11	0.46	
	경상(d)	737	2.22	0.47	
	전라/제주(e)	363	2.26	0.48	

주: 1) \*\*\* $p < .001$

기후 변화에 관련된 용어와 이슈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른다’(M=2.23)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초 M=1.98, 중 M=2.18, 고 M=2.47), 권역별로는 서울 지역이(M=2.31) 타 지역에 비해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

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매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의 매체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7.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매체) (1+2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976	72.9	38.0	19.7	7.3	27.5	29.5	1.7	2.4
성별	남자	1,424	73.3	38.2	19.6	7.3	24.2	32.3	1.9	2.0
	여자	1,553	72.4	37.8	19.8	7.3	30.6	26.9	1.6	2.8
학교 급	초등학교	751	55.4	26.2	27.7	9.5	33.0	41.3	1.8	4.1
	중학교	1,141	78.2	36.1	17.9	6.4	26.6	29.8	1.8	1.9
	고등학교	1,084	79.3	48.2	16.0	6.8	24.7	21.0	1.6	1.8
권역	서울	472	67.7	43.0	17.8	11.0	28.8	28.1	1.4	1.5
	경기/인천	991	71.5	38.2	20.0	7.0	27.5	30.0	2.3	2.3
	강원/충청	421	74.3	35.7	21.0	5.7	27.6	30.1	2.2	1.4
	경상	730	75.4	37.4	20.8	6.6	25.8	28.3	1.5	3.3
	전라/제주	362	76.4	34.8	17.5	6.7	29.3	31.6	0.5	3.3

- 주: 1) ①소셜미디어(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②인터넷포털사이트(인터넷 신문 포함)  
 ③스마트폰 앱(예: 기후 행동 1.5℃, 지구공 등)  
 ④인쇄매체(신문, 도서, 잡지 등)  
 ⑤교과서  
 ⑥TV  
 ⑦OTT 서비스(NETFLIX, Disney+, Seezn, WAVE, POOQ, TVING 등)  
 ⑧기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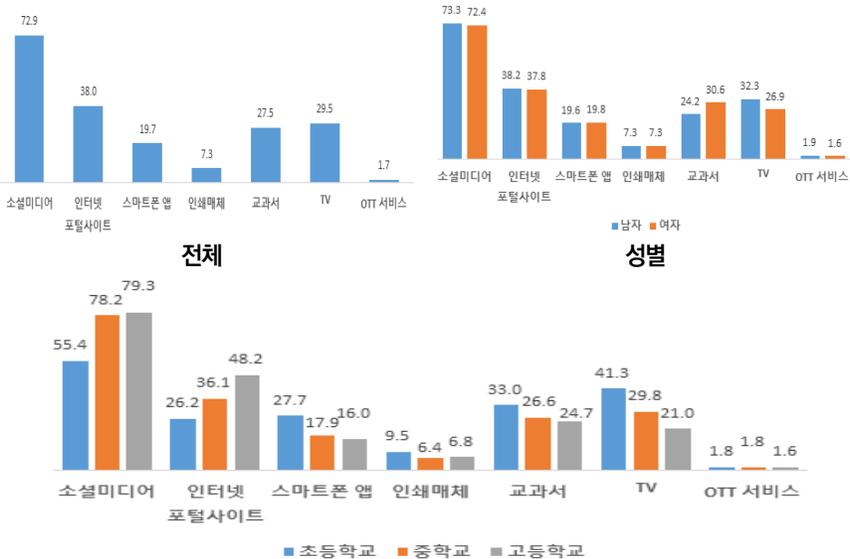


그림 V-2.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매체) (1+2순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의 매체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 소셜미디어가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포털사이트(38.0%), TV(29.5%), 교과서(2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소셜미디어가 남자 73.3%, 여자 72.4%로 가장 높았고, 2순위 인터넷포털사이트가 남자 38.2%, 여자 37.8%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소셜미디어(55.4%)와 TV(41.3%)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소셜미디어(78.2%)와 인터넷포털사이트(3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소셜미디어(79.3%)와 인터넷포털사이트(4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서울권(67.7%), 경기·인천권(71.5%), 강원·충청권(74.3%), 경상권(75.4%), 전라·제주권(76.4%)에서 소셜미디어가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는 서울권(43.0%), 경기·인천권(38.2%), 강원·충청권(35.7%), 경상권(37.4%), 전라·제주권(34.8%)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장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의 장소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8.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장소) (1+2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학교	가정	기업	청소년 센터	학교 밖 기관/단체	기타
전체		2,980	93.5	75.7	7.6	3.6	14.8	3.8
성별	남자	1,427	92.2	76.7	7.8	4.0	14.1	4.2
	여자	1,553	94.6	74.9	7.5	3.2	15.5	3.4
학교 급	초등학교	752	91.8	73.5	6.9	5.5	15.8	5.7
	중학교	1,147	95.0	75.3	6.0	4.0	15.3	2.9
	고등학교	1,081	93.1	77.8	9.8	1.8	13.6	3.3
권역	서울	472	92.8	75.7	6.8	4.8	15.5	4.1
	경기/인천	995	94.5	75.7	7.5	4.0	14.3	3.4
	강원/충청	422	93.0	73.5	8.1	3.3	15.9	4.5
	경상	730	91.8	75.6	9.5	1.7	16.0	4.0
	전라/제주	362	95.2	78.9	4.9	5.0	11.9	3.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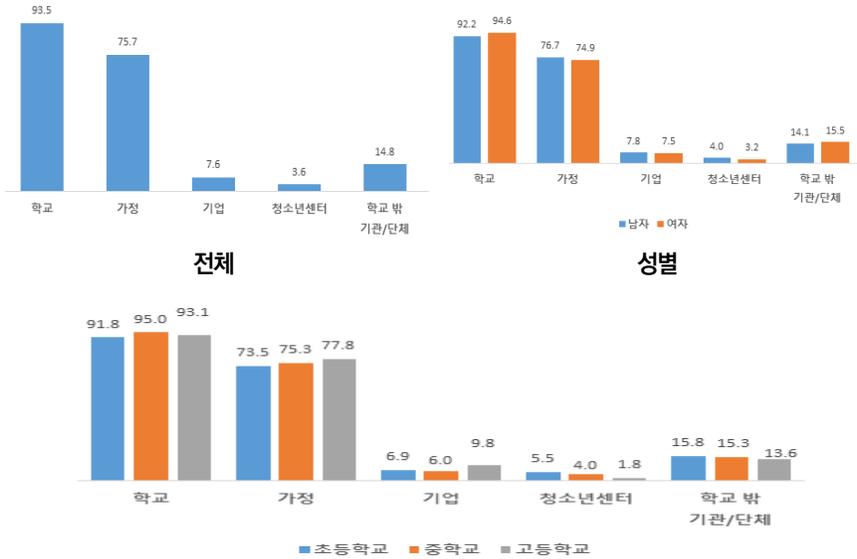


그림 V-3.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 유형(장소) (1+2순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가 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정이 75.7%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유형 중 학교가 성별(남자 92.2%, 여자 94.6%), 학교 급(초등학교 91.8%, 중학교 95.0%, 고등학교 93.1%), 지역별(서울권 92.8%, 경기·인천권 학교 94.5%, 강원·충청권 93.0%, 경상권 학교 91.8%, 전라·제주권 95.2%)에서 1순위로 나타났다. 가정은 성별(남자 76.7%, 여자 74.9%), 학교 급(초등학교 73.5%, 중학교 75.3%, 고등학교 77.8%), 지역별(서울권 75.7%, 경기·인천권 75.7%, 강원·충청권 73.5%, 경상권 75.6%, 전라·제주권 78.9%)에서 2순위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유형으로 나타났다.

### (7) 기후 변화에 관한 감정 및 느낌

기후 변화에 관한 청소년들의 감정 및 느낌에 대한 인식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F*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및 위협의 예측에 대한 감정과 느낌(불안)

기후 변화에 관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이나 위협과 관련한 예측 불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9.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및 위협 예측에 대한 불안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7	3.49	1.05	
성별	남자	1,454	3.39	1.10	-4.983***
	여자	1,563	3.58	0.99	
학교 급	초등학교(a)	760	3.46	1.12	0.924
	중학교(b)	1,153	3.47	1.05	
	고등학교(c)	1,103	3.52	1.00	
권역	서울(a)	478	3.54	1.08	1.786
	경기/인천(b)	1,005	3.47	1.05	
	강원/충청(c)	434	3.49	0.99	
	경상(d)	737	3.43	1.08	
	전라/제주(e)	363	3.59	1.02	

주: 1) \*\*\* $p < .001$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협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협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3.49로 평균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M=3.58)가 남자(M=3.39)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01$ ).

②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 대한 감정과 느낌(무력감)

‘기후 변화에 관하여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개인적인 노력이 소용없을 것이라는 무력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0.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 대한 무력감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6	2.85	1.12	
성별	남자	1,453	2.85	1.14	0.323
	여자	1,563	2.84	1.09	
학교 급	초등학교(a)	759	2.59	1.10	42.243*** a(b<c)
	중학교(b)	1,153	2.82	1.06	
	고등학교(c)	1,103	3.06	1.14	
권역	서울(a)	477	2.83	1.14	2.461*
	경기/인천(b)	1,005	2.83	1.11	
	강원/충청(c)	434	2.93	1.06	
	경상(d)	737	2.78	1.12	
	전라/제주(e)	363	2.97	1.13	

주: 1) \* $p<.05$ , \*\*\* $p<.001$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 노력에서의 무력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나의 개인적인 노력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무력감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2.85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M=3.06), 중학교(M=2.82), 초등학교(M=2.5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 $p<.001$ ), 지역별로는 전라·제주권(M=2.97), 강원·충청권(M=2.93), 서울권과 경기·인천권(M=2.83), 경상권(M=2.78)의 순으로 나타났다( $p<.05$ ).

③ 기후 변화의 원인 제공 대상(사람, 집단, 국가, 기업 등)에 대한 감정 및 느낌(화남)

‘기후 변화에 관하여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 화가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1.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 대한 화가남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09	3.18	1.11	
성별	남자	1,450	3.08	1.14	-4.731***
	여자	1,559	3.27	1.08	
학교 급	초등학교(a)	758	3.03	1.19	10.571*** a(b,c)
	중학교(b)	1,152	3.18	1.10	
	고등학교(c)	1,099	3.27	1.07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권역	서울(a)	478	3.25	1.05	1.466
	경기/인천(b)	1,002	3.17	1.11	
	강원/충청(c)	432	3.16	1.12	
	경상(d)	734	3.12	1.18	
	전라/제주(e)	363	3.24	1.05	

주: 1) \*\*\* $p < .001$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 대하여 화가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집단, 국가, 기업 등에 대해 화가 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3.18로 ‘보통이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여자(M=3.27)가 남자(M=3.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01$ ), 초등학교(M=3.03)보다 중학교(M=3.18), 고등학교(M=3.27)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④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감정 및 느낌(걱정과 당혹스러움)

‘기후 변화에 관하여 걱정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2.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걱정과 당혹스러움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3	3.03	1.05		
성별	남자	1,450	2.94	1.08	-4.832***
	여자	1,563	3.12	1.03	
학교 급	초등학교(a)	759	2.91	1.10	7.607** a<c,b
	중학교(b)	1,152	3.10	1.03	
	고등학교(c)	1,102	3.05	1.05	
권역	서울(a)	478	3.14	1.03	3.596** d<a
	경기/인천(b)	1,004	3.04	1.07	
	강원/충청(c)	433	3.08	1.05	
	경상(d)	735	2.92	1.05	
	전라/제주(e)	363	3.05	1.05	

주: 1) \*\* $p < .01$ , \*\*\* $p < .001$

‘기후 변화에 대한 걱정과 이에 대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는 걱정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스럽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3.03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M=3.12)가 남자(M=2.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p<.001$ ), 초등학교(M=2.91)보다 고등학교(M=3.05), 중학교(M=3.10)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1$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M=3.14)가 경상권(M=2.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

⑤ 자신의 생활습관이 기후 변화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감정 및 느낌(죄책감)

‘기후 변화에 관하여 청소년 자신의 생활 습관이 기후 변화의 원인(온실가스 등)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3. 자신의 생활습관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죄책감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09	2.90	1.07	
성별	남자	1,450	2.73	1.08	-8.522***
	여자	1,559	3.06	1.03	
학교 급	초등학교(a)	758	2.89	1.13	0.141
	중학교(b)	1,151	2.91	1.06	
	고등학교(c)	1,101	2.89	1.03	
권역	서울(a)	478	2.92	1.05	0.561
	경기/인천(b)	1,002	2.92	1.04	
	강원/충청(c)	431	2.89	1.04	
	경상(d)	736	2.85	1.12	
	전라/제주(e)	363	2.90	1.07	

주: 1) \*\*\* $p<.001$

‘기후 변화에 대하여 자신의 생활습관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나의 생활 습관이 기후 변화의 원인(온실가스 등)을 제공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2.90으로 ‘보통이다’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M=3.06)가 남자(M=2.73)보다 높게 나타났 다( $p<.001$ ).

⑥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걱정 및 특별한 감정에 대한 감정 및 느낌

‘기후 변화에 관하여 기후 변화 문제에 걱정이나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4.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걱정 및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함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06	2.31	1.06	
성별	남자	1,447	2.42	1.10	5.468***
	여자	1,559	2.21	1.01	
학교 급	초등학교(a)	755	2.20	1.08	4.908** a<c,b
	중학교(b)	1,153	2.35	1.04	
	고등학교(c)	1,098	2.33	1.06	
권역	서울(a)	478	2.23	1.00	1.840
	경기/인천(b)	1,003	2.34	1.09	
	강원/충청(c)	428	2.39	1.02	
	경상(d)	737	2.26	1.07	
	전라/제주(e)	361	2.33	1.08	

주: 1) \*\* $p < .01$ , \*\*\* $p < .001$

‘기후 변화에 대하여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걱정 또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2.31로 나타나 부정적인 감정을 묻는 다른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남자( $M=2.42$ )가 여자( $M=2.21$ )보다 높게 나타났고( $p < .001$ ), 고등학교( $M=2.33$ ), 중학교( $M=2.35$ )보다 초등학교( $M=2.20$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⑦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감정 및 느낌(우울과 절망감)

‘기후 변화에 관하여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하거나 절망감’이 든다는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5.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우울과 절망감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1	2.54	1.09	
성별	남자	1,449	2.47	1.13	-3.146**
	여자	1,562	2.60	1.05	
학교 급	초등학교(a)	757	2.52	1.17	0.292
	중학교(b)	1,153	2.53	1.07	
	고등학교(c)	1,101	2.56	1.06	
권역	서울(a)	475	2.64	1.11	1.917
	경기/인천(b)	1,003	2.52	1.07	
	강원/충청(c)	433	2.52	1.06	
	경상(d)	737	2.48	1.12	
	전라/제주(e)	362	2.60	1.12	

주: 1) \*\* $p < .01$

‘기후 변화에 대하여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느끼는 우울과 절망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하고 절망감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2.54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30.9%, ‘보통이다’가 30.8%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여자(M=2.60)가 남자(M=2.47)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1$ ).

(8) 기후 변화 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기후 변화 교육 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6. 기후 변화 교육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8	3.28	1.03	
성별	남자	1,455	3.29	1.07	0.488
	여자	1,563	3.27	0.99	
학교 급	초등학교(a)	760	3.61	0.97	61.575*** c<b<a
	중학교(b)	1,154	3.25	1.00	
	고등학교(c)	1,103	3.09	1.03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권역	서울(a)	478	3.31	0.95	6.464*** c,d<b
	경기/인천(b)	1,006	3.40	1.00	
	강원/충청(c)	434	3.18	1.03	
	경상(d)	737	3.18	1.11	
	전라/제주(e)	363	3.24	0.97	

주: 1) \*\*\* $p < .001$

학교에서 기후 변화 교육 운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기후 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에 대한 평균은 3.28로 ‘보통이다’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 급에서는 초등학교(M=3.61), 중학교(M=3.25), 고등학교(M=3.09) 순으로 나타났다( $p < .001$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충청(M=3.18)권과 경상권(M=3.18)보다 경기·인천권(M=3.40)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 (9) 기후 변화에 관한 대응에 대한 인식

기후 변화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7.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관한 대응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7	2.66	0.90	
성별	남자	1,455	2.75	0.94	5.406***
	여자	1,562	2.57	0.85	
학교 급	초등학교(a)	760	2.92	0.88	56.019*** c<b(a)
	중학교(b)	1,154	2.65	0.87	
	고등학교(c)	1,102	2.48	0.89	
권역	서울(a)	478	2.61	0.91	1.160
	경기/인천(b)	1,005	2.68	0.88	
	강원/충청(c)	434	2.65	0.92	
	경상(d)	737	2.69	0.91	
	전라/제주(e)	363	2.60	0.87	

주: 1) \*\*\* $p < .001$

기후 변화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기후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 남자(M=2.75)가 여자(M=2.57)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M=2.92), 중학교(M=2.65), 고등학교(M=2.48) 순으로 나타났다( $p < .001$ ).

(10)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기후 변화에 관하여 인류의 기후 변화 문제 해결 여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8.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6	2.78	1.08	
성별	남자	1,454	2.88	1.16	4.965***
	여자	1,562	2.68	0.99	
학교 급	초등학교(a)	760	3.01	1.11	27.388*** c,b<a
	중학교(b)	1,153	2.75	1.07	
	고등학교(c)	1,102	2.64	1.04	
권역	서울(a)	478	2.70	0.98	2.431*
	경기/인천(b)	1,005	2.84	1.10	
	강원/충청(c)	433	2.76	1.04	
	경상(d)	737	2.81	1.13	
	전라/제주(e)	363	2.67	1.05	

주: 1) \* $p < .05$ , \*\*\* $p < .001$

‘결국 인류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는 기후 변화 문제해결 전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이 조금 낮게 나타나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해결 신념이 ‘보통이다’보다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M=2.88)가 여자(M=2.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고등학교(M=2.64)와 중학교(M=2.75)보다 초등학교(M=3.01)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p < .001$ ),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M=2.84), 경상권(M=2.81), 강원·충청권(M=2.76), 서울권(M=2.70), 전라·제주(M=2.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5$ ).

### 3)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 (1)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습관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현재의 생활습관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9.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습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823	2.82	1.09	
성별	남자	1,362	2.74	1.10	-3.778***
	여자	1,461	2.89	1.08	
학교 급	초등학교(a)	736	3.09	1.10	31.398*** c,b<a
	중학교(b)	1,064	2.74	1.08	
	고등학교(c)	1,023	2.70	1.06	
권역	서울(a)	462	2.87	1.04	1.353
	경기/인천(b)	931	2.79	1.08	
	강원/충청(c)	399	2.77	1.10	
	경상(d)	682	2.88	1.11	
	전라/제주(e)	350	2.76	1.13	

주: 1) \*\*\* $p < .001$

주: 2) ①나는 솔직히 말해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 ← ③중간 → ⑤나는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우선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현재의 생활습관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나는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우선한다’보다 ‘나는 솔직히 말해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 $M=2.82$ ), 남자( $M=2.74$ )가 여자( $M=2.89$ )보다 ‘나는 솔직히 말해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p < .001$ ). 학교 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교( $M=2.74$ )와 고등학교가( $M=2.70$ ) 초등학교( $M=3.09$ )에 비해 ‘나는 솔직히 말해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p < .001$ ).

## (2)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및 실천역량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찰·통찰 역량(4문항), 정보활용 역량(4문항),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4문항),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4문항), 공동체 역량(4문항)의 5가지 세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을 성별(*t*검증), 학교급(*F*검증), 권역별(*F*검증)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성찰·통찰 역량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중 ‘성찰·통찰 역량’은 청소년 자신의 평소습관과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 및 실천 계획 세우기,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V-30.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성찰·통찰 역량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6	3.50	0.71	
성별	남자	1,454	3.40	0.73	-7.352***
	여자	1,562	3.59	0.69	
학교 급	초등학교(a)	761	3.51	0.79	8.111*** b<c
	중학교(b)	1,152	3.43	0.73	
	고등학교(c)	1,104	3.55	0.63	
권역	서울(a)	478	3.55	0.65	3.216* c<a
	경기/인천(b)	1,007	3.49	0.74	
	강원/충청(c)	436	3.40	0.72	
	경상(d)	736	3.53	0.73	
	전라/제주(e)	360	3.50	0.66	

주: 1) \* $p < .05$ , \*\*\* $p < .001$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인 ‘성찰·통찰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자( $M=3.59$ )가 남자( $M=3.4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학교 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교( $M=3.43$ )보다 고등학교( $M=3.55$ )가 높게 나타났고( $p < .001$ ), 지역별로는 서울권( $M=3.55$ )이 강원·충청권( $M=3.40$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5$ ).

②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정보활용 역량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중 ‘정보활용역량’은 기후 관련 정보수집 및 제시, 기후 관련 궁금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탐색, 다양한 해결 방안 중 더 중요한 것 선택, 정보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 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V-31.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정보활용 역량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5	3.04	0.82	
성별	남자	1,453	2.99	0.84	-3.621***
	여자	1,562	3.10	0.81	
학교 급	초등학교(a)	761	3.01	0.82	20.215*** b,a<c
	중학교(b)	1,152	2.95	0.82	
	고등학교(c)	1,102	3.17	0.81	
권역	서울(a)	478	3.12	0.81	3.823** c<a
	경기/인천(b)	1,005	3.04	0.83	
	강원/충청(c)	436	2.95	0.80	
	경상(d)	736	3.08	0.85	
	전라/제주(e)	360	2.97	0.77	

주: 1) \*\* $p < .01$ , \*\*\* $p < .001$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인 ‘정보활용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자(M=3.10)가 남자(M=2.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중학교(M=2.95), 초등학교(M=3.01)보다 고등학교(M=3.17)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p < .001$ ), 지역별로는 강원·충청권(M=2.95)보다 서울권(M=3.12)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1$ ).

③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중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 노력, 실천 가능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기후 변화 문제해결 제시, 기후 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V-32.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7	2.96	0.78	
성별	남자	1,454	2.92	0.81	-2.160*
	여자	1,563	2.99	0.74	
학교 급	초등학교(a)	761	2.95	0.81	5.860** b<c
	중학교(b)	1,153	2.90	0.76	
	고등학교(c)	1,103	3.02	0.78	
권역	서울(a)	478	3.05	0.76	4.203** c,e<a
	경기/인천(b)	1,007	2.96	0.81	
	강원/충청(c)	436	2.86	0.77	
	경상(d)	736	2.98	0.78	
	전라/제주(e)	360	2.90	0.72	

주: 1) \* $p<.05$ , \*\* $p<.01$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인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자(M=2.99)가 여자(M=2.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중학교(M=2.90)보다 고등학교(M=3.02)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p<.01$ ), 지역별로는 서울권(M=3.05)이 강원·충청권(M=2.86)과 전라·제주권(M=2.9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1$ ).

④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중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은 기후 변화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 설득, 다양한 의견을 통한 의사결정, 타인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 파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V-33.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7	3.32	0.82	
성별	남자	1,454	3.23	0.83	-6.016***
	여자	1,563	3.41	0.79	
학교 급	초등학교(a)	761	3.25	0.82	19.570*** b,a<c
	중학교(b)	1,153	3.25	0.81	
	고등학교(c)	1,103	3.44	0.81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권역	서울(a)	478	3.40	0.72	5.248*** c<b,d,a
	경기/인천(b)	1,007	3.33	0.84	
	강원/충청(c)	436	3.17	0.82	
	경상(d)	736	3.34	0.87	
	전라/제주(e)	360	3.31	0.76	

주: 1) \*\*\* $p < .001$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인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자(M=3.41)가 남자(M=3.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중학교(M=3.25)와 초등학교(M=3.25)보다 고등학교(M=3.44)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p < .001$ ), 지역별로는 서울권(M=3.40), 경상권(M=3.34), 경기·인천권(M=3.33), 전라·제주권(M=3.31), 강원·충청권(M=3.17)순으로 나타났다( $p < .001$ ).

#### ⑤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공동체 역량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중 '공동체 역량'은 친구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 기후 변화에 대한 다른 나라에 관심, 학교에서의 기후 변화 관련 활동 참여, 우리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 관련 문제 인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V-34.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 공동체 역량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7	3.01	0.80		
성별	남자	1,454	2.95	0.82	-4.154***
	여자	1,563	3.07	0.78	
학교 급	초등학교(a)	761	3.03	0.83	10.332*** b<a,c
	중학교(b)	1,153	2.93	0.79	
	고등학교(c)	1,103	3.08	0.77	
권역	서울(a)	478	3.09	0.76	3.227* e<a
	경기/인천(b)	1,007	3.00	0.82	
	강원/충청(c)	436	2.95	0.76	
	경상(d)	736	3.04	0.83	
	전라/제주(e)	360	2.93	0.75	

주: 1) \* $p < .05$ , \*\*\* $p < .001$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인 '공동체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자(M=3.07)가 남자(M=2.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중학교(M=2.93)보다 초등학교(M=3.03), 고등학교(M=3.08)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p < .001$ ), 전라·제주권(M=2.93)보다 서울권(M=3.09)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5$ ).

⑥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전체)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역량인 성찰·통찰 역량, 정보활용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5.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전체)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018	3.17	0.67	
성별	남자	1,455	3.10	0.68	-5.485***
	여자	1,563	3.23	0.64	
학교 급	초등학교(a)	761	3.15	0.69	16.232*** b,a<c
	중학교(b)	1,153	3.09	0.66	
	고등학교(c)	1,104	3.25	0.64	
권역	서울(a)	478	3.24	0.61	5.066*** c<d,a
	경기/인천(b)	1,008	3.16	0.69	
	강원/충청(c)	436	3.06	0.66	
	경상(d)	736	3.20	0.69	
	전라/제주(e)	360	3.12	0.60	

주: 1) \*\*\* $p < .001$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전체(성찰·통찰 역량, 정보활용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자(M=3.23)가 남자(M=3.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학교 급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교(M=3.25)가 중학교(M=3.09)와 초등학교(M=3.15)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p < .001$ ), 지역별로는 강원·충청권(M=3.06)보다 경상권(M=3.20)과 서울권(M=3.24)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3)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의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사항의 순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6.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 (1+2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2,965	25.0	26.3	23.9	21.9	15.5	26.9	19.6	39.8	0.6	
성별	남자	1,417	24.6	27.5	22.3	21.9	14.4	28.4	21.8	38.0	0.6
	여자	1,548	25.4	25.3	25.4	21.9	16.4	25.6	17.5	41.6	0.6
학교 급	초등학교	751	29.1	34.7	34.4	20.4	14.6	22.8	12.6	29.8	1.0
	중학교	1,127	26.2	24.2	23.5	21.4	16.6	27.0	19.7	40.6	0.4
	고등학교	1,087	21.0	22.8	17.1	23.4	14.9	29.8	24.3	46.0	0.4
권역	서울	471	21.5	19.9	25.2	22.9	15.4	28.1	23.2	42.7	0.7
	경기/인천	984	26.4	26.5	25.1	20.5	16.2	27.5	17.2	39.7	0.5
	강원/충청	422	26.1	32.5	23.5	20.9	15.9	26.1	17.1	37.5	0.4
	경상	728	24.8	28.7	23.2	24.2	14.6	23.9	20.9	38.0	0.7
	전라/제주	360	25.1	22.2	20.9	20.9	14.8	30.9	21.3	43.0	0.4

- 주: 1) ①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②기후 변화의 원인, 현상, 해결책 등에 대한 교육  
 ③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  
 ④피해 발생에 따른 기준과 처벌 강화  
 ⑤실천 행동에 대한 보상 강화(예: 마일리지 적립, 쿠폰 발행)  
 ⑥기업 스스로의 친환경 경영 강화  
 ⑦기후 변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⑧국가(정부)의 정책 마련 및 실시  
 ⑨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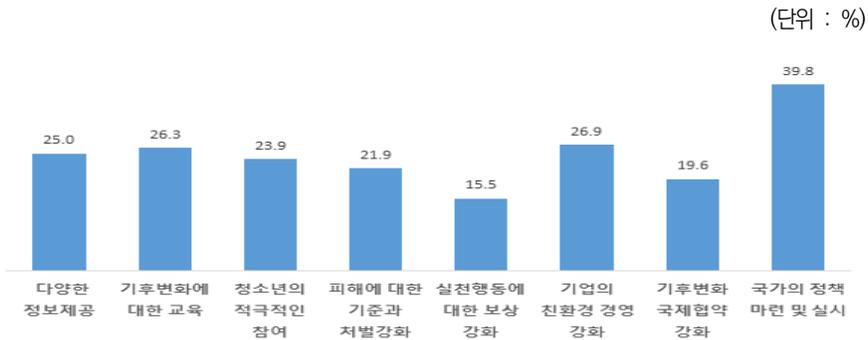


그림 V-4.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전체) (1+2순위)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부)의 정책 마련 및 실시’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 스스로의 친환경 경영 강화’가 26.9%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국가(정부)의 정책마련 및 실시’가 남자(38.0%)보다 여자(41.6%)가 높게 나타났고, ‘기업 스스로 친환경 경영 강화’는 남자(28.4%), 여자(25.6%)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기후 변화의 원인, 현상, 해결책 등에 대한 교육’(34.7%), ‘청소년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3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국가(정부)의 정책마련 및 실시’(40.6%), ‘기업 스스로의 친환경 경영 강화’(2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국가(정부)의 정책마련 및 실시’(46.0%), ‘기업 스스로 친환경 경영 강화’(2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국가(정부)의 정책 마련 및 실시’가 전라·제주권(43.0%), 서울권(42.7%), 경기·인천권(39.7%), 경상권(38.0%), 강원·충청권(37.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는 서울권(28.1%), 경기·인천권(27.5%), 전라·제주권(30.9%)에서는 ‘기업 스스로의 친환경 경영 강화’, 강원·충청권(32.5%), 경상권(28.7%)에서는 ‘기후 변화의 원인, 현상, 해결책 등에 대한 교육’으로 나타났다.

#### (4)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 참여 경험 및 이유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 기후 변화와 관련 문제해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chi^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 참여 경험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이 직접 참여한 활동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7.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참여 경험(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2,997	12.1	54.2	18.8	15.0	52.9	2.0	3.3	16.4	55.3	68.1	3.6	16.8	7.9
성별	남자	1,436	13.7	48.1	18.0	13.0	49.7	2.6	4.5	12.3	50.5	60.1	4.0	14.6	10.1
	여자	1,562	10.6	59.9	19.5	16.9	55.7	1.6	2.1	20.3	59.7	75.4	3.3	18.9	5.8
학교 급	초등학교	757	11.6	45.8	17.5	19.8	56.8	2.3	3.5	11.9	56.1	65.1	3.4	21.8	8.4
	중학교	1,142	10.7	50.8	17.7	13.2	48.3	1.7	2.6	16.3	53.0	65.9	3.3	13.7	10.1
	고등학교	1,098	13.9	63.6	20.7	13.8	54.9	2.3	3.9	19.7	57.1	72.4	4.0	16.7	5.2
지역	서울	475	14.1	62.4	21.2	24.9	51.1	1.6	3.7	19.6	61.2	74.1	3.1	19.4	5.9
	경기/인천	993	12.8	55.0	20.3	13.4	53.2	2.1	3.6	16.2	56.6	67.8	4.1	18.1	7.8
	강원/충청	432	9.3	47.8	16.2	10.9	54.5	2.5	3.1	11.9	46.4	62.8	3.2	13.9	7.0
	경상	737	12.1	52.3	17.7	13.8	50.6	1.8	3.2	18.0	53.7	67.6	3.7	15.8	9.4
	전라/제주	361	10.7	53.2	16.8	14.3	57.0	2.4	2.2	15.2	57.8	68.3	3.2	15.3	8.5

- 주: 1) ① 학교에서 탄소배출량 측정 및 줄이기 활동  
 ②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③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④ 채식 위주의 식단(소고기 등, 육류 섭취 줄이기)  
 ⑤ 지역 환경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  
 ⑥ 기후 변화와 관련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⑦ 기후 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정책 제안  
 ⑧ 기후 변화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사용  
 ⑨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⑩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⑪ 기후 변화 관련 청소년 동아리 조직  
 ⑫ 기후 변화 관련 학교 밖 교육 또는 활동  
 ⑬ 참여하거나 경험한 활동 없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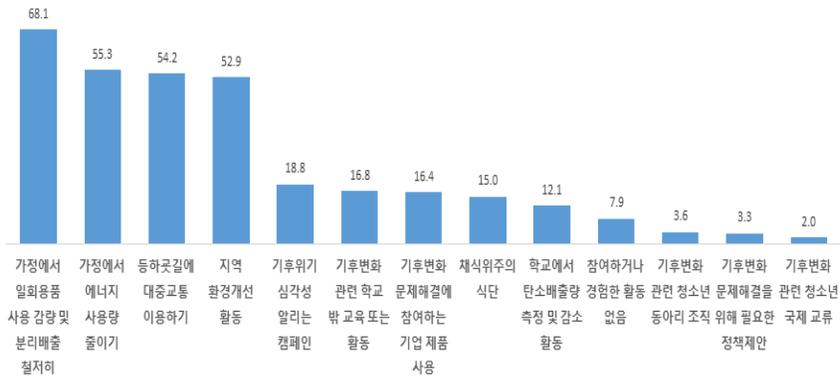


그림 V-5.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참여 경험 비율(전체)(복수응답)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이 직접 참여한 활동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한 활동에 대해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68.1%),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55.3%),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54.2%), ‘지역 환경 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5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남자는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60.1%),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50.5%), ‘지역 환경개선 활동’(49.7%), ‘등하굣길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4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75.4%), ‘등하굣길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59.9%),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59.7%), ‘지역 환경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5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가 고등학교(72.4%), 중학교(65.9%), 초등학교(65.1%)의 순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 환경 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가 56.8%, 중학교는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가 53.0%, 고등학교는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63.6%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74.1%)와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62.4%)가 높았고, ‘채식위주의 식단’(24.9%)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8.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chi^2$
전체		2,431	19.5	34.6	27.8	14.1	4.0	
성별	남자	1,126	18.8	29.0	32.0	16.0	4.2	38.549***
	여자	1,306	20.2	39.4	24.2	12.5	3.7	
학교 급	초등학교	635	19.6	34.2	25.4	13.4	7.3	46.483***
	중학교	906	18.5	35.2	32.0	11.2	3.0	
	고등학교	890	20.5	34.3	25.2	17.5	2.6	

구분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chi^2$
권역	서울	420	19.3	33.2	28.9	13.9	25.685
	경기/인천	778	20.5	33.0	28.3	14.5	
	강원/충청	327	14.3	34.8	30.7	13.6	
	경상	607	21.3	38.5	23.0	14.3	
	전라/제주	299	19.4	32.7	31.3	13.4	

주: 1) \*\*\* $p < .001$

주: 2) ①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②참여 기회가 없어서

③별로 관심이 없어서

④내가 참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⑤기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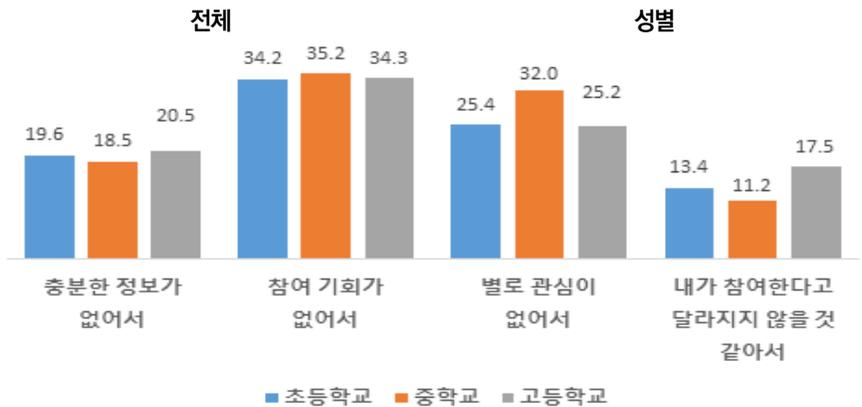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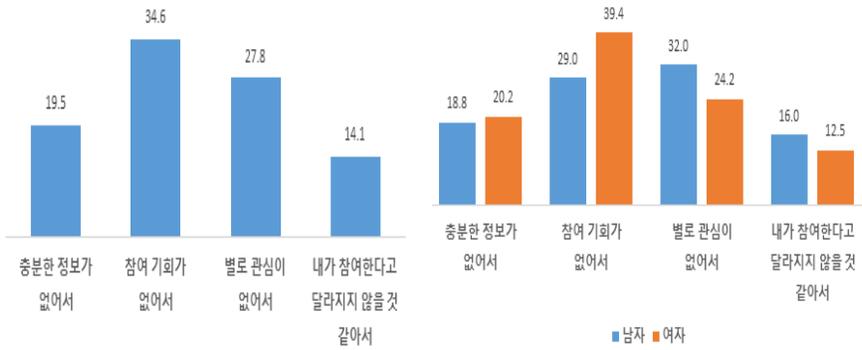


그림 V-6.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참여 기회가 없어서’가 34.6%로 가장 높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27.8%), ‘충분한 정보가 없다’(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32.0%), ‘참여 기회가 없어서’(29.0%)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39.4%), ‘별로 관심이 없어서’(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학교 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p<.001$ ),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가 중학교(35.2%), 고등학교(34.3%), 초등학교(34.2%)의 순으로 나타났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는 중학교(32.0%), 초등학교(25.4%), 고등학교(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소결

####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 및 참여 정책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3,02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기후 변화 발생에 대한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8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 변화 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원인(94.5%)으로 인식하며,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가 67.8%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 발생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후 변화 관심 정도( $M=3.17$ )는 보통 수준이며,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M=3.85$ )에 비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M=3.07$ )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 변화 교육과 활동에 있어 기후 변화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 의지를 갖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행연구(2장 2절) 및 사례분석(4장 4절)의 결과와 일치하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후 변화 문제해결 실천방법을 알고 있다( $M=3.45$ )는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은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 문제를 지식과 인식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M=2.78)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6장의 실행연구 참여 청소년들의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초·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초·중학생과 중학생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지구온난화(94.4%), 지속가능발전(50.3%), 기후 난민(50.0%), 온실가스감축(46.7%), 순으로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탄소중립(40.7%)의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가 높고, 파리 기후 변화협약(38.9%), 기후 불평등(34.5%)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용어 가운데 정책과 사회 정의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초·중·중학생보다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용어와 이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중학생과 중학생 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 인천권이 다른 지역보다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학교와 가정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얻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소셜미디어, TV, 교과서 순으로 정보를 얻고, 중학교의 경우는 소셜미디어, 인터넷포털사이트, TV,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셜미디어, 인터넷포털사이트, 교과서 순으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보 습득에 있어 교과서보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높다는 점은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와 소셜 미디어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불안감(M=3.49), 기후 변화의 원인 제공 대상(사람, 집단, 국가, 기업 등)에 대해 화가남(M=3.18),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과 당혹스러움(M=3.0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걱정 및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함(M=2.31),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우울과 절망감(M=2.54),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 대한 무력감(M=2.85), 자신의 생활습관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죄책감(M=2.9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기후 변화

에 대해 걱정 및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불안감, 걱정 및 당혹스러움, 기후 변화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분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중고등학생들보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개인적 노력에 따른 실천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무력감과 분노의 감정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들은 대체로 기후 변화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 $M=3.28$ ), 학교 급로는 초등학교,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을 포함한 수도권이 기후 변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M=2.66$ ),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M=2.78$ ) 등,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청소년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갖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 역량의 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섯째,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습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는 솔직히 말해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학교 급에 따라 살펴보면,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우선한다'가 초등학생에서 ( $M=3.09$ ) 중학생( $M=2.74$ )과 고등학생( $M=2.70$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의지를 스스로 낮게 인식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후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곱째,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분석한 결과, 성찰·통찰 역량 ( $M=3.50$ ),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 $M=3.32$ ), 정보활용역량( $M=3.04$ ), 공동체 역량 ( $M=3.01$ ),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M=2.96$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가 공동체 역량을 제외한 전 역량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이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역량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실천 노력(성찰·통찰 역량)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정보활용 역량), 학교, 지역사회, 다른 나라 등,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공동체 역량),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창의적 해결역량) 등을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과 참여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덟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부)의 정책마련 및 실시’(39.8%)와 ‘기업 스스로의 친환경 경영 강화’(26.9%),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 현상, 해결책 등에 대한 교육’(2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등,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기후 변화의 원인, 현상, 해결책 등에 대한 교육’(34.7%), ‘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34.4%)가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40.6%)와 고등학교(46.0%)의 경우, ‘국가(정부)의 정책 마련 및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개인 실천과 교육을 넘어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정보와 참여기회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홉째,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한 활동 유형으로는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68.1%),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55.3%),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54.2%), ‘지역 환경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5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참여 활동들이 개인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다 다양한 참여 활동의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참여 기회가 없어서’(34.6%), ‘별로 관심이 없어서’(27.8%)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기회도 부족하지만, 청소년 스스로의 관심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참여 기회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청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태도, 실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표 V-39.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요약)

조사 내용	주요 결과
기후 변화 발생 및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82.7%)고 인식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도(3.17)는 보통 수준임.</li> <li>· 기후 변화 발생의 주요원인을 '인간의 활동'에 의한 원인(94.5%)으로 바라봄</li> <li>·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가 67.8%로 높게 나타남.</li> <li>·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M=3.85)에 비해 나에게 주는 영향(M=3.07)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함</li> <li>· 기후 변화 문제 실천방법을 알고 있다(M=3.45)고 인식하는데 비해 기후 변화 적응(M=2.78)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음</li> <li>·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기후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하여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li> </ul>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의 응답 비율은 지구온난화(94.4%), 지속가능발전(50.3%), 기후 난민(50.0%), 온실가스감축(4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탄소중립(40.7%)의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가 가장 높음. 파리 기후 변화협약(38.9%), 기후 불평등(34.5%)의 경우 '처음 듣는다'의 응답 비율이 높음.</li> <li>·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학교보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용어와 이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ul>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학교(93.5%), 가정(75.7%) (1+2순위)</li> <li>· 매체: 소셜미디어(72.9%), 인터넷포털사이트(38.0%), TV(29.5%), 교과서(27.5%) (1+2순위)</li> </ul>
기후 변화에 관한 감정 및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로 인한 불안감(M=3.49), 기후 변화의 원인 제공 대상(사람, 집단, 국가, 기업 등)에 대해 화가남(M=3.18),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과 당혹스러움(M=3.03)이 다소 높게 나타남.</li> <li>·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걱정 및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함(M=2.31)로 가장 낮게 나타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걱정 및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우울과 절망감(M=2.54),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 대한 무력감(M=2.85), 자신의 생활습관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죄책감(M=2.9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li> </ul>
기후 변화에 관한 교육, 대응, 문제해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높게(M=3.28) 나타남.</li> <li>· 기후 변화에 대응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나(M=2.66) 기후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함.</li> <li>·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M=2.78) 나타남.</li> </ul>

조사 내용		주요 결과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청소년이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M=3.17)으로 나타남.</li> <li>· 세부 영역: 성찰·통찰 역량이 가장 높게(M=3.50)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M=3.32), 정보활용역량(M=3.04), 공동체 역량(M=3.01),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M=2.96) 순으로 나타남.</li> </ul>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부)의 정책마련 및 실시'(39.8%)와 '기업 스스로의 친환경 경영 강화'(26.9%),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 현상, 해결책 등에 대한 교육'(25.0%) 순으로 나타남.</li> </ul>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 참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68.1%),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55.3%),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54.2%), '지역 환경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52.9%) 순으로 나타남.</li> <li>·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참여 기회가 없어서'(34.6%), '별로 관심이 없어서'(27.8%)가 높게 나타남.</li> </ul>

## 2) 청소년 활동·참여 정책 관련 시사점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정책 개발에 갖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본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변화 발생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에 비해 실제 이해도와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기후 변화 문제가 실제 자신의 문제이자 해결할 수 있다는 행위주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차원의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공동체와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관련하여 기후 변화 문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실천 의지는 낮은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중·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의 기획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어려운 개념보다 일상생활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행동 습관을 기르는 차원에서 개인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적 노력 못지않게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주체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여러 사회

주체의 탄소중립 관련 이행에 대한 정보를 알고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에너지, 교통, 건축, 소비, 농업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업, 소상공인 등, 여러 주체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적 이슈 또는 관련 정책적 이슈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중학생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용어 및 이슈에 대한 이해에 있어 초등학생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과 더불어 실천 노력, 문제 해결 전망 등,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중학교 단계가 기후 변화 문제를 개인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서 다룰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과 이슈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중학생의 지식수준을 고려한 학교 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는 과학과 사회, 정책과 윤리의 문제가 공존하는 매우 복잡한 이슈로서, 청소년들이 관련 개념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용어들에 비해 탄소중립, 기후 불평등, 기후 적응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은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전문적인 역량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더불어, 심화주제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교육·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지도의 전문성과 기후·탄소중립 주제를 결합한 특화적인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들을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 ○———— 제6장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모델 개발을 위한 실행연구

- 1. 연구 개요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3. 연구 결과
- 4. 소결



## 1. 연구 개요

###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청소년 참여 모델 개발의 필요성

기존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중앙정부의 청소년유관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정책 참여활동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국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활동 역시 확대·다변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문제가 미래세대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들이 여전히 개인 실천과 인식 개선 위주의 활동에 머물러 있어,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참여 역량의 계발과 정책 참여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들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참여를 다각화하는 데 있어,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행 사례를 통해 정책 참여모델 개발에 갖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2)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정책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탐색하는 데 있어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Youth

85) 이 장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음.

연구 개요, 연구 방법, B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례, 소결: 황세영 연구위원  
A청소년센터 사례: 김남수 부원장(주)국토환경연구원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에서는 청소년들이 연구의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연구자와 함께 자신들의 문제를 탐구하고 실천가능한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한다 (McIntyre, 2000; 남채봉, 2013, p.3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참여 모델 개발이라는 연구문제에 있어 청소년들이 연구자 및 청소년지도자와 공동으로 실행(action)의 목표와 방식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행의 과정과 결과 도출에 필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스스로가 만들어낸 실행(정책 참여)의 가치를 스스로 파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책무를 점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참여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 정책을 향후 청소년정책 참여 모델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각 영역에서의 실행연구 사례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국가 단위 정책으로는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사례로 삼아,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해석과 대안을 실행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지자체 단위 정책으로는 현재 수립 단계에 있는 B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사례로 삼아, 이에 포함될 청소년정책 제안을 실행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실행과정 참여 경험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행위주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청소년 참여 모델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VI-1. 실행연구의 목적 및 사례별 특징

실행연구 목적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 모델 개발의 주요 원칙과 실행방안 제시	
사례별 특징	연구현장	A청소년센터	B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책대상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연구초점	청소년 관점의 탄소중립 정책 이해·소통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에 청소년 참여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시민참여 모델에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의 관점 결합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행과정을 기획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기존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모델을 참조하였다(표 IV-4 참조). 시민참여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있으나 아래 <표 VI-2>와 같이 크게 공통적으로 1) 참여자 선정, 2) 사안 이해, 3) 쟁점 토론, 4) 의사결정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 참여자들은 정책 대상과 관련하여 관련 사안들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을 발견·도출하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판단을 내리게 된다. 물론 2~4 단계의 과정은 선형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순환·반복된다.

표 VI-2. 탄소중립 정책 관련 시민참여 모델의 예시

참여단계 예시	참여자 선정	사안 이해	쟁점 토론	의사결정
충청남도민에너지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연령, 성별, 직업 고려</li> <li>신청자 중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워크숍: 정책 현황 파악 및 관심사 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워크숍: 에너지 시나리오 토론</li> <li>3차 워크숍: 전문가, 이해관계자 컨퍼런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차 워크숍에서 2번의 의사결정(다수결)</li> <li>다수안에 대한 보완의견 제시</li> </ul>
탄소중립시민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연령, 성별, 직업 고려</li> <li>표본 추출 -&gt; 참여의향 확인 -&gt; 위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집 학습</li> <li>토의 및 질의응답(온라인 게시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회 실시</li> <li>- 부문별 전문가 발표</li> <li>- 분임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조사: 사안별 인식 및 태도</li> <li>국가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제시</li> </ul>
경남기후도민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연령, 성별, 직업 고려</li> <li>신청자 중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특강</li> <li>전체/분과별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가치 및 분과별 미래상 키워드 도출</li> <li>분과별 쟁점 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의견 권고안 도출</li> <li>도민실천약속 200 제안</li> </ul>

\* 각 출처: 여형범 외(2017).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 2050탄소중립위원회(2021a).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 발표자료. 서울: 2050탄소중립위원회. 경남기후도민회의 <https://www.2050net0.kr/> (검색일: 2022. 6. 22.).

참여자 선정은 주로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연령, 성별, 직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선정 방식은 처음부터 신청자를 받아 선정하거나(에너지기획단/도민회의), 참여자 규모가 큰 경우 표본 추출을 통해 무작위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도 한다(시민회의). 사안 이해의 과정은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단계로서 워크숍(에너지기획단), 자료집 학습(시민회의), 전문가 강의(도민회의), 분과별 토의(도민회의), 온라인 게시판 활용(시민회의) 등, 다양한 학습방법들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다음으로 쟁점 토론 단계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에 대한 대안 도출을 위해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이 때 쟁점 사안은 사전에 정해지기도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도출할 수도 있다. 충청남도에너지기획단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시민들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때의 쟁점은 각 시나리오에 대한 찬·반 입장들로 제시되었다. 반면 경남기후도민회의의 경우 도민들이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와 정책 분과별 미래상 키워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의사결정의 단계는 시민참여의 목적에 따라 의사결정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게 결정된다. 에너지기획단의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시민들이 다수결로 최종안을 결정하여 충청남도에 제안하는 방식으로서 사례들 중 가장 명확한 목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탄소중립 시민회의의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고, 당시 수립중인 시나리오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와 의견들을 정리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여론을 파악한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도민회의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고 도민 스스로의 실천약속을 제시한 것으로 의사결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참여 과정의 흐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청소년 주도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단계에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참여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대상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 나갈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완결성을 가지고 기획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A청소년센터 청소년동아리와 함께 진행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 활동에서 청소년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타당한가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시나리오에 포함된 영역별 정책 구상이 타당한가에 초점을 둘 수도 있는 등, 그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청소년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학습하고 이해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토의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 나갔다. 이는 정책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습과 이해의

과정이 강조된 탄소중립시민회의의 과정과 유사하며, 청소년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정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활동의 주요 질문으로 삼았다. B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진행한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제안활동의 경우 당초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한다’ 정도의 구상으로 시작되었는데, 활동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이루어져 보다 명확한 활동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 모델 가운데 경남도민회의의 방식과 운영 규모와 기간은 다르지만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지역의 미래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을 청소년 입장에서 제시하고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선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VI-3. 실행연구 사례별 특징

사례	A청소년센터	B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 목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제안
활동 기간	2022년 4월 ~ 10월	2022년 5월 ~ 10월
청소년	동아리 참여자 중 희망자 총 11명 (중학생:3명, 고등학생:3명, 대학생:5명)	지역 내 공모를 통해 신청자 선정 총 14명 (중학생:4명, 고등학생:2명, 대학생:2명, 대안 교육기관 학생:6명)
청소년지도자	팀장 1명, 팀원 2명	팀원 1명
연구자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자문·협력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위원	지자체: 탄소중립정책팀, 청소년정책팀 전문가: 지역 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및 환경교육 전문가
결과물 활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피드백 및 활용방안 검토 예정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정책사업에 반영 (11월 정책간담회 실시)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에서는 1) 청소년 참여의 촉진 및 저해 요인 파악하고, 2) 전문가 및 성인 등, 지역사회 내 지지구조를 마련하며, 3) 청소년들이 이해당사자로서 의사결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며, 4) 과정 전반에 청소년 중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선행연구 표 II-5, II-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연구진,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에게는 자발적 참여 동기가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보았다. 청소년들은 각 정책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지 스스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활동과 학습과정을 설계하고, 이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책임 공유가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내 삶의 문제, 나의 미래 또는 내 지역의 문제)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나 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원하여 토의를 유도하거나,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 섭외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활동의 방향성과 결과물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여러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토론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공동 학습자이자 기획자로서,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를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습해 나가면서, 활동을 설계하는 데 있어 청소년들 간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특정 개인이 주도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참여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자체 정책제안의 형태로 활동이 진행된 B지역의 경우, B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자체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청소년정책제안의 실효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실행연구의 연구자로서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은 자신의 참여 경험에 비추어 정책 참여 모델 개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표 VI-4.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에서의 참여자 역할

참여자	청소년	연구자	청소년지도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참여 동기</li> <li>• 공통 목표의식 설정</li> <li>• 활동 설계 및 학습</li> <li>• 역할 분담 및 책임 공유</li> <li>• 활동 개선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이해를 위한 학습 지원(자료, 전문가)</li> <li>•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토의결과에 대한 지지와 피드백</li> <li>• 참여모델 시사점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의 학습자/기획자</li> <li>• 청소년 리더십, 능동적인 참여 이끌어내기</li> <li>• 관련 기관 및 자원 연계</li> <li>• 활동 개선방안 제시</li> </ul>

## 2) 연구 과정 및 분석 절차

### (1) A청소년센터 청소년동아리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 활동”

A청소년센터는 기후·환경 주제를 청소년 활동의 주요 전략 주제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전부터 A청소년센터에서

다른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는데, 특히 센터에서 추진 중인 기후·환경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이 모임은 “동아리별로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지도자협의회, 2차)”되었다.

A청소년센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원 내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후·환경 전반에 대한 교육, 옥상 환경 학습터를 활용한 생태 활동, 기후·환경과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한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특히 2020년에는 “필환경시대 청소년의 기후 행동(청소년 플마) 프로젝트”를 운영했는데, 641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기후 행동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했다. 2021년에는 친환경메이커스 동아리인 뉴그린 등, 5개의 기후·환경 분야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여, P4G 청소년 목소리 포럼, 환경을 바꾸는 달리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후 변화 대응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체로서 참여해야 할 주요 과제 중 2순위를 차지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활동으로 국가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루는 작업은 이러한 흐름 속에 위치한다. 이 활동은 당초 기획 단계부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활동의 소재 또는 주제로 삼을 것을 결정하고 추진되었다. 다만 청소년들이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접근하여 다루고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시작되었다.

이 활동 참여자는 청소년들, 청소년지도자, 연구진(공동연구자가 연구 수행, 연구책임자는 참관)이며, 참여자들이 모두 참여한 모임(이하 공식 모임)은 줌을 이용하여 월 1회씩 운영되어 총 5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식 모임 사이에는 연구진을 제외하고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중간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활동 1회와 2회에 걸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체 읽기를 시도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면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시나리오가 소통이나 이해 측면에서 어렵다고 비평했다. 그리고 이 비평 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내용을 동료 청소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설 자료 만들기를 올해 활동의 최종 결과물로 결정하였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각 공식 모임의 활동 주제는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매 활동 마무리 단계에서 다음 공식 모임까지 각자 해야 할 과제를 정하고 그 과제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음 모임의 주제가 정해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과정에서 진행된 활동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능동적 읽기’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의 흐름을

보면, 먼저 텍스트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콘텍스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과 각자 이전 활동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탄소중립 위원회 사이트에 대한 첫인상 등을 공유했고, 이어서 본 텍스트인 시나리오 자체에 대한 첫인상 비평을 공유하고, 부문별로 나누어 심도깊은 읽기를 시도하여 공유하였다. 심도 깊은 읽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읽기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된 내용을 동료 청소년들에게도 자신들의 언어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활동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정해지고 나서 부문별 모임을 결정하여 보다 집중적인 읽기와 해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그룹별로 자신들의 탐구와 학습을 통해 해석한 내용을 동료 청소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설명 자료의 형식과 내용 구성 및 배포 양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기본으로 그룹별 활동을 통하여 건물, 농축수산, 산업, 수송, 폐기물 부문에 대한 안내서를 작성하였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총 8개 부문이 있고,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핵심 부문으로 지목되는 전환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과정과 결과 모두 청소년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매 회 공식 모임에서는 다음 모임까지 해야 할 과제가 결정되며 마무리되었다. 모임에 참여하는 청소년 각자는 해당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체 온라인 메신저 방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였다. 같은 기간에 지도자와 연구진 간 협의가 이루어져, 이전 모임에 대한 성찰과 다음 모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현재 청소년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청소년 해석본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 수정 및 편집 과정에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표 VI-5. A 센터 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반 활동 개요

회기	일자	내용	모임 형식/참관 (괄호안의 수는 인원수)
	(사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탄소중립 위원회 웹사이트 들어가보기</li> <li>-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보기</li> </ul>	
1	2022. 4. 9(토)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소개</li> <li>• 기후 변화(원인, 영향, 완화, 적응)에 대한 생각 나누기</li> <li>• (사전 활동이었던) 국가탄소중립 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첫인상 나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Zoom과 줍보드)</li> <li>• 연구진(2)</li> </ul>

회기	일자	내용	모임 형식/참관 (괄호안의 수는 인원수)
	개별 과제/단독방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 1</li> </ul>	
2	2022. 5. 14(토)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 1 나누기</li> <li>-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알게 된 점 공유</li> <li>- 활동 결과물에 대한 생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Zoom과 줌보드)</li> <li>연구진(2), 탄중위(1)</li> </ul>
	개별 과제/단독방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 2 : 특정 부문에 집중</li> </ul>	
3	2022. 6. 18(토)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 2.</li> <li>- 각자 관심 부문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소개와 토론</li> <li>- 활동 결과물에 대한 논의와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Zoom과 줌보드)</li> <li>연구진(2), 탄중위(1)</li> </ul>
	개별 과제/단독방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 3: 팀별 논의</li> </ul>	
4	2022. 7. 23(토)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 3</li> <li>- 동료 청소년들을 위한 해석본의 형식 결정</li> <li>- 부문별(조별)모임에서 내용에 대한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Zoom과 줌보드)</li> <li>연구진(1), 탄중위(1)</li> </ul>
	개별 과제와 그룹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 현황 공유(22. 8. 27)</li> <li>부문별 활동 자체 점검의 날(22. 9. 16)</li> </ul>	
5	2022. 9. 24(토)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 4</li> <li>-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설본 초안의 형식과 내용 공유</li> <li>- 미결정 사안에 대한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Zoom)</li> <li>연구진(2)</li> </ul>

공식 모임에서 1회기와 2회기는 지도자가 진행과 기록을 맡아 진행했다. 이후에는 구성원 내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각각 사회와 기록을 담당하였다. 공식 모임은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이루어졌다. 줌 화상회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익숙해진 소통 방식으로 도구 자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줌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공동 작업이나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줌보드라는 협업 툴을 활용했으며 공식 모임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기록하였다. 공식 모임 중 팀별 협의는 줌에서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였는데, 소회의실 이용 시에도 공동 협업을 위해서 줌보드를 활용하였다. 이 활동에서 연구진은 1회 모임 이외에는 모임의 성격이나 흐름을 바꿀만한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질문이 있거나 모임의 마무리에서 소감을 전달하는 정도로 참여했다.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직접 전달하기 보다는 지도자들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서 전달하였다.

## (2) B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연구현장 선정을 위해 연구자는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자체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적극적이고 지역 내 시민 참여 활동이 활발한 B지역에서 함께 활동한 기관을 탐색하였다. B지역은 국가 시나리오의 계획인 2050 탄소중립보다 앞서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화력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광역 단위 지자체인 B지역을 포괄하는 청소년 참여활동을 기획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먼저 의향을 확인하였다. B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최근 기후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SDGs 청소년 제안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 활동 경험을 쌓아오면서 지역 내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협의 과정에서 센터에서는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활동이 개인 실천과 캠페인 위주의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계점을 인식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데 청소년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 참여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3월에 수립한 당초 계획은 청소년 동아리를 모집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청소년들의 활동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 정책제안이 실제 지자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4월에 동아리를 모집하는 기간 중에 센터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담당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담당부서는 올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지자체의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본 연구원과 B센터에서 기획해 온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역명)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의 이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의 회기별 활동 내용은 <표 VI-6>와 같다. 먼저 활동 초반에는 정책단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1회기에는 B센터차원의

워크숍과 대표 선발이 있었고, 3회기에는 지역 환경교육주간에 정책단으로서 초대되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청소년들의 다짐을 발표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하였다. 정책 이해와 학습을 위해 1회기에는 연구자가 기후 변화 전반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회기에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책임자가 직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4회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사를 도출하고 청소년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을 가졌다. 청소년들의 관심사는 크게 환경교육, 인식개선,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정책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팀별 토의를 돕기 위해 청소년들이 각자 해당 주제에 대해 해당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활동지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5회기는 이를 각 팀별로 공유하여 팀의 의견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팀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해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직접 네이버 폼에 설문지를 만들어 간단한 조사를 해오기도 했다. 이후 정책 제안 구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문항을 추가하고 참여자 규모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었다. 반면 초반에 월 1회로 이루어지는 활동 방식은 청소년 간 공동의 목표의식과 정체성(team building)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여러 청소년들이 결석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팀별 활동 시 일부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주도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6회기 활동은 전체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들 각자가 공동의 작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청년 기후 활동가이자 현재는 기후정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이 진행하여, 실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이 사회에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워크숍에서 청소년들은 우리 지역의 2045 비전에 대해 조별 토의를 진행하면서, 미래에 자신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지 상상을 하면서 개인적인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이 만든 비전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존중,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사회',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 '목소리를 들어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미래상으로 축약되었다. 이러한 비전은 이후 탄소중립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하면서 구체화되었다.

7회기부터는 팀별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해나갔다. 연구자는 청소년정책 제안의 기존 사례를 공유하여 좋은 정책의 기준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고, 청소년들은 팀별로 제안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갔다. 앞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관심사를 팀별로 구성했을 때와 달리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실천 분야에 집중하여 정책 제안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후 팀별 활동은 주로 줌회의와 단독방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팀별로 줌보드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줌회의를 통해서는 관련 자료 수집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역할 분담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앞서 이루어졌던 설문조사 문항에 팀별로 필요한 조사 문항을 추가하여 정책 제안서 작성의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9회기에는 팀별로 제안한 네 가지 정책 제안서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자체 및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반영의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2022년 11월 25일).

표 VI-6. B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의 주요 활동 일정 및 내용

회기	일자	내용	비고
1	2022. 5. 14.(토) 10: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정책단 오리엔테이션</li> <li>탄소중립정책단 위촉식</li> <li>토의: 기후 변화의 원인, 현상, 영향, 적응에 대한 인식 공유</li> </ul>	
2	2022. 6. 4.(토) 10: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공유 및 질의응답</li> <li>탄소중립 정책 관심사 공유 및 토론</li> </ul>	기본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의 발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참석
3	2022. 6. 7.(화) 13:0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교육주간 기념식 참석</li> <li>탄소중립정책단 청소년의 다짐</li> <li>시민단체 선언·협약</li> </ul>	지자체장, 교육감, 주요기관대표 등, 참석
4	2022. 7. 9.(토) 10:00~12:00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분야별 팀 구성</li> <li>환경교육/인식개선/정의로운 전환/에너지</li> </ul>	팀별 회의
5	2022. 7. 16.(토) 10: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별 토의: 지역 현황, 정책 필요성, 정책 아이디어 등</li> <li>팀별 발표</li> </ul>	사전과제: 토의 주제별 개인 의견 작성

회기	일자	내용	비고
6	2022. 7. 30.(토) 10: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위기 문제 및 탄소중립 정책 국내외 현황 공유</li> <li>우리 지역의 청소년 2045 탄소중립 비전 설정</li> </ul>	워크숍(진행: 기후 정책 연구원)
7	2022. 8. 13.(토) 10: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이 제안한 정책 사례 검토</li> <li>좋은 정책의 기준 토의</li> <li>정책 우선순위 정하기</li> <li>정책제안서 작성방법 토의</li> </ul>	후속토의(잼보드): 주제별 관심사 표명
8	2022. 8. 26 (금)~27(토)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팀 구성: 교육1, 교육2, 실천인센티브</li> <li>팀별 정책 아이디어 토론 및 현황자료 공유</li> <li>청소년 설문지 문항 개발</li> </ul>	팀별 회의, 잼보드 활용
9	2022. 9. 3.(토) 10: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별 정책제안서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li> <li>추가자료 검토 및 수정방향 토의</li> <li>청소년 설문지 문항 의견수렴</li> </ul>	정책 초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실행연구에서 자료수집의 범위는 넓게 보면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자료는 청소년들이 공식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회의 녹음 및 영상 자료, 활동 진행 방식을 논의하고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던 단톡방 대화 내용, 활동이 마무리 될 무렵 진행됐던 청소년 면담 자료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매 활동시 준비했던 활동 자료(전문가 강의, ppt 등), 청소년들이 만들었던 활동기록(활동지, 잼보드 상의 기록), 연구협의회 녹취록 등이 보조적인 자료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활동 결과물 역시 분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 수집에 앞서 자료 수집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동의를 받았다(승인번호: 202204-HR-고유-004). 수집된 자료의 상세 현황은 <표 VI-7>와 같다.

표 VI-7. 자료 수집 현황

자료 유형 \ 사례	A청소년센터 동아리	B청소년진흥센터 정책단
활동 과정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의 녹취록</li> <li>전체 참가자 및 팀별 단독방 대화기록</li> <li>팀별 활동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의 녹취록</li> <li>전체 참가자 및 팀별 단독방 대화기록</li> <li>팀별 활동 자료, 활동지</li> <li>전문가 강의자료</li> <li>워크숍 및 활동 ppt 자료</li> <li>정책 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li> </ul>
활동 결과물	탄소중립시나리오 해석본	탄소중립 정책 제안서
공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행연구 계획서</li> <li>각 센터 활동추진자료</li> <li>연구협의회 녹취록</li> <li>청소년 면담 서면 응답지</li> <li>청소년지도자 면담 녹취록</li> </ul>	

### 3. 연구 결과

#### 1) A청소년센터 동아리 활동: 청소년이 해석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1) 정책 해석 과정에서 행위주체성 형성의 맥락

##### ① 각자의 경험과 환경·기후 변화의 연결

모든 모임에서 모임의 작동 방식이나 활동 주제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인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되는지이다. 이 모임의 구성원은 “A센터에서 과거에 기후·환경 분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지금 활동 중인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 중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단독방, 지도자 A-1)”이다. 이들의 기후 또는 환경 관련 경험들은 다양했으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또한 다양했는데, 일부는 베이징, 인도네시아, 독일 등, 국외에서 지내면서 환경 문제를 직접 경험하거나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거나 지구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제가 베이징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베이징이 미세먼지가 정말 심해요. 근데 학교를 쉬어야할 정도로 심하기도 하고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적은 정도인데 어느 날은 베이징에서 세계적인 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절을 한다. 자동차도 많이 못 타게 하고 공장도 쉬고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딱 그날이 되니까 거짓말처럼 하늘이 너무 맑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의 손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고 그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면담, 청소년 A-2)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전에 환경 관련 동아리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환경 관련 활동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청소년은 스스로를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활동은 기존의 동아리 활동과 다르게 탄소중립시나리오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특별하게 구성된, 일시적인 연합 동아리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희같이 환경에 정말 관심이 있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변화를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런칭이라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중략) 그래서 저희가 속해있는 작은 커뮤니티를 바꾸면 그게 또 하나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톡방, 청소년 A-3)

청소년들이 모임에 참여한 계기나 이 모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탄소중립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만날 기회로 보는 등,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지구에 1도라도 오르면 세계 곳곳에 가뭄이 드는 등, 여러 기후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지구가 좀 더 좋아지긴 힘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이 활동이 청소년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책이다 보니까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9)

1회기는 기후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꺼내어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의견은 크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가 잼보드에 작성한 뒤, 어째서 그런 내용을 적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네 가지 질문은 기후 변화 논의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기후 변화 원인(causes), 영향(impacts), 완화

(mitigation), 적응(adaptation)을 질문형으로 바꾸어 1)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날까?, 2) 기후 변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3)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4)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다.

표 VI-8. 기후 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1.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날까?	2. 기후 변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환경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li> <li>• 지구온난화</li> <li>• 자동차 배기가스</li> <li>•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li> <li>• 오늘 내가 먹은 고기?</li> <li>• 인간의 욕심</li> <li>• 산업 발달을 위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계속해서 쌓인 온실가스들</li> <li>• 외면</li> <li>• 편리함이 최고</li> <li>• 온실가스 배출, 무분별한 자원 사용, 기업 나라 시민들의 무관심</li> <li>• 기업들과 공장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악화가 된다면 일상생활의 걸림돌</li> <li>• 동식물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함</li> <li>•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이상 기후</li> <li>• 마스크 쓰고 사는 삶이 계속 될 수도..</li> <li>• 극심한 가뭄, 해수면 상승, 오존층 파괴 등등</li> <li>•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얼어있던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그것에 대한 면역체계가 없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홍수, 산불, 바이러스, 물가, 태풍 등</li> <li>• 지구 온도 상승, 영구동토층이 녹고, 섬들이 사라지고 온갖 재난 재해가 발생</li> <li>• 전염병 발생 급증</li> <li>• 미세먼지</li> </ul>
3.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4.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li> <li>•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제품 사지 않기</li> <li>• 사람들의 인식 개선 및 환경 보호의 진입 장벽 낮추기</li> <li>•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li> <li>• 나라와 정부의 정책들이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li> <li>• 덜 사기</li> <li>•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li> <li>• 환경을 생각해서 포장을 한 제품 구매</li> <li>• 제로 웨이스트 실천, 사람들의 환경 인식 개선, 서서히 유틸리티 섭취 줄이기</li> <li>• 환경 정책!! 시민들의 참여도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약 참여 혹은 정책을 통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나라와 큰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li> <li>• 시민들의 기후 환경 인식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기후에 대한 연구 및 인프라 구축(편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li> <li>• 미리 미리 준비하기(ex. 홍수, 가뭄 등등)</li> <li>•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급함을 많이 알리기</li> <li>• 날씨에 맞는 옷 입기</li> <li>• 불편함 즐기기</li> <li>• 편리미엄, 울로라는 가치 및 삶과 반대되는 라이프 스타일, 개념 개발 및 보급</li> <li>• '관찰을거야'라고 생각하기</li> <li>• 오늘의 지구의 상태에 직면하기</li> <li>• 관련 정책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장기적 불편함을 받아들이기(ex. 전기요금 상황)</li> </ul>

청소년들의 의견 중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잼보드에 작성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실제 정책과도 부합하는 데 비하여 적응의 경우 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구체적인 적응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sup>86</sup>.

저는 맨 마지막에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까가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 3개는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봤던 거여서 비교적 쉽게 느껴졌는데 마지막 질문이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고민을 많이 해서 적었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11)

②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첫인상과 비판적 읽기

첫 번째 모임 사전에 공통 소재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또는 탄소중립 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둘러보기를 권장했고, 그 첫인상을 공유했다(표 VI-9 참조). 표현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어렵다는 것은 스스로 보기에 그렇고, 다른 이들이 보더라도 어렵게 느낄 것이라는 의미이다.

표 VI-9.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li> <li>• 수치가 잘 와 닿지 않음</li> <li>•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li> <li>• 접근하기에 조금은 부담스럽다</li> <li>• 남녀노소 누구든 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정책인데, 정작 읽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li> <li>•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읽더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li> <li>• 목표는 있는데 왜 그만큼인지 근거 또는 설명이 부족하다</li> <li>• 전문용어가 너무 많다</li> <li>• 수치를 사람들이 쉽게 알고 떠올릴 수 있도록 바꾸면 좋겠다(ex. 폐수 XX톤 --&gt; 욕조 300개 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으면 좋겠다.</li> <li>• 이 시나리오가 과연 실행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li> <li>• 정부나 기업들의 정책이 나와 멀게 느껴진다</li> <li>• 시민들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해보고 싶다</li> </ul>
---	---

몇 가지 질문이 도출되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한 문서인지, 정책 문서라면 소통을 고려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작성한 것인지, 이 내용은 실현가능한지 등이 핵심이었다.

86) 이른바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은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 완화 전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후 결석시위 등을 추진하며 요구하는 내용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기후 적응은 내용상으로 기존의 재난 대응이나 물 분야와 보건 분야 등에서 다루면서 기후 교육과 소통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환경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인이잖아요.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도 국민들의 참여인데 그런 일반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너무 웹사이트도 물론 보기 좋게 만들기는 했지만.. 수치가 어떤 건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해보려고 환경부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그런 카드 뉴스도 단순화만 했을 뿐이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국민들의 이해 부분을 조금 덜 고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단톡방, 청소년 A-5)

용어 같은 건 무조건 쉽고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ML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쉽게 가능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소주잔 2개 정도 크기 아니면 일반 화장품 공병의 절반 정도 크기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읽어보니까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XX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기준 같은 걸 이용해서 수치가 제시되어 있어서 그걸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훨씬 더 좋게 시나리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성했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10)

시나리오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첫 모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두 번째 모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알게 된 점, 궁금한 점, 인상 등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렇더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소년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2회기에 공유한 결론은 첫인상과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질문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과연 모든 게 다 실현 가능할까를 강하게 느꼈는데요. 현재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플라스틱도 끊지 못하고 요즘에 집집마다 가연 세탁 건조기 아니면 음식을 쓰레기를 가루로 만드는 기계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여름에 에어컨은 인간들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단시간에 줄인다는 점에서 갑자기 가능할까? 어떻게 대체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게 계속 된다고 해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4).

이와 같이 질문하기, 스스로 생각하기, 다른 관점에서 보기 등을 통한 비판적 읽기는 활동 내내 드러났다.

이걸 읽을 때 저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보편적인 태도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번 미팅 때 얘기했던 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던졌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쉽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을 많이 발표할 것 같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3).

공식 모임 중 제기되었던 질문이나 문제의식은 또 다른 질문이나 결과물로 확장되거나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시나리오에 대한 해설본 제작이 활동의 목표로 설정되면 서 활동의 초점이 시나리오 중 어렵거나 간략하게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이해 하기 쉽게 풀어쓰는 과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활동의 결과물이나 목표를 정책 제안으 로 설정했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확장되어 활동 결과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 ② “우리” 활동의 목표와 진행 방식 정하기

이 활동에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정책 문서가 활동의 소재로 정해졌지만, 구체 적인 활동 목표는 정해지지 않고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이 활동 전반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이 기 때문이다. 1회 모임의 사전 과제, 1회 모임, 2회 모임의 중간 과제, 2회 모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접하면서 그리고 “시나리오가 어렵다”는 공통 결론에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나리오를 해설하는 활동이나 결과물을 만드는 데로 목표가 좁혀졌다.

지도자들은 활동 기획 초기에 이 활동의 결과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 예시 상황 제시,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고려해봤다. 특히 지도자 1은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자체에 하나하나씩 각주를 달아보는 활동으로 결과물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였다.

이렇게 밑줄을 긋든 뭇 하든 간에 모르는 것을 청소년의 언어로 각주를 달아서 그것을 다시 각본으로 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것 자체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언어로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상의 단계까지는 아이들이랑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단톡방, 지도자 A-1).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목표와 결과물도 각주와 유사한 성격으로 결정되었다. 즉, 부문별로 동료 청소년 또는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체를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최종 결정된 활동의 결과물은 '확장된 각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구성으로 만들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활동 후반부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었다.

1회기와 2회기 모임은 특별한 규칙이 없이 편하게 살펴보는 과제였다면, 2회기 모임 이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시점부터는 서로의 생각과 읽기를 공유하는 차원 뿐 아니라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즉 분업과 협업의 관점도 고려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시나리오 전체를 함께 보기 보다는 각자 관심이 큰 부분을 결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 분야가 다르고 관심도가 다르니까 알고 있음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시작은 서로의 관심 분야를 공부를 해서 약간 조금 더 알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단톡방, 청소년 A-4)

부문별 내용에 대한 소개는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소개와 부연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부연 설명을 위해 2회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용어를 찾아보거나 관련 내용을 검색했는데, 검색 자료는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부연 설명은 예시를 들거나, 관련 자료를 소개하거나, 혹은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도심 환경 교통은 영어 약자를 따서 UAM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활주로 없이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체를 이용한 도심 내 항공 이동 서비스라고 말을 하고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 많이 떠오르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를...(단톡방, 청소년 A-1)

산업 부분에서도 대표적으로 철강을 예시로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배출이 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하는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현재 철강 업계에서는 철광석에 석탄을 더해서 우리가 제조해 낼 수 있는 철강을 주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화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철광석에 있는 O랑 석탄의 C가 만나서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요.

근데 수소환원제철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아까 E퓨얼도 비슷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방법은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 철강 회사인 포스코에서 최근에 수소환원제철법 연구를 도입할 거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단독방, 청소년 A-2)

각자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을 위해 자료로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은 개인 학습이 공동의 학습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3회기부터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 제한 기준을 만들겠다. 혹은 인증 대상을 확대하겠다. 인증 범위를 확대하겠다. 의무화를 하겠다. 관리제를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읽어봤을 때 제가 고민이 되는 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혹시 이런 식으로 의무화를 했을 때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냐.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단독방, 청소년 A-3)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공동의 학습과 공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업과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1회기 모임을 마치고 지도자 모임에서는 발표와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당시 청소년 간에 팀 빌딩이 안 된 상황으로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자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소년들의 단독방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2회기부터 청소년들이 사회와 기록을 맡아서 진행하고, 기록은 모임 진행 중에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줌보드에 논의 중 키워드를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③ “마치 탐구 프로젝트와 같은” 집중적 학습

각자의 읽기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발표 내용을 토대로 추정컨대 시나리오를 비판적 시각에서 읽어보되, 자신을 포함하여 누가 읽더라도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은 관련 내용을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읽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공식 모임에서 발표와 자료 링크 공유를 통해서 다른 구성원과 공유했다. 공유의 과정은 각자가 익힌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유 뿐 아니라 읽으면서 겪은 어려움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저도 보면서 용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해서 단어만 뽑아서 찾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단어를 찾으려 봤는데도 또 다른 단어를 검색하면 이전 단어는 잊어먹고 약간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가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더 잘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단톡방, 청소년 A-4)

요약본에 보면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이라는 기술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로 봤는데 되게 정리 잘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일반 시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뭘지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2).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주제는 전기 요금 상승을 포함,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기 요금이 상승할 경우, 과연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을지, 또 취약한 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종합하면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 위기 대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환경과 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은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가격들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생각해보셨다면 그것을 감안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1)

저는 뭐가 신재생에너지, 화력 발전 이런 거 하려면 비용이 크게 든다. 이런 쪽으로만 비용을 생각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취약 계층이 물가가 상승하면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다는 부분에서 되게 이런 세세하게 들어가야 모두 공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울 점이 많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4)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 이라면 그냥 쓰레기 안 쓰고 화석 연료 안 쓰고 이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했을 때 탄소와 관련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직장을 모두 잃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시장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부분에서 관심이 갔고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어요(단톡방, 청소년 A-3)

또 한 가지 청소년들 시나리오 읽기에서 발견된 중요한 질문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였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토론 주제는 아니었지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넘쳐나는 에코백 사용 자제, 텀블러 사용,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행동의 종류를 넘어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까지 연결되었다.

#### ④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기와 일상과 연결하기

청소년들은 3회기부터 자신의 관심이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시나리오 중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고 그 내용을 공식 모임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 문서를 읽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기는 해당 정책 문서의 내용에 각자가 부여한 의미를 드러낸다. 청소년들은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면서 종종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기사, 가족과의 대화, 일상에서의 경험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산업 분야에 관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써놨어요.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 아버지가 소규모 스텐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여쭙았는데 4년 전에 정부에서 실시했던 정책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배경을 설명해드리자면 사업장에서 쓰는 지게차나 포크레인 같은 차들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엔진 효율이 안 좋아져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노후된 경유차 엔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은 대기업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장에서는 환경을 신경 쓰면서 운영하는 현실적인 면에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단톡방, 청소년 A-2)

탄소중립 정책 문서를 나의 일상과 연결짓는 시도는 거꾸로, 일상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경험과도 연결된다.

제가 이를 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 카드 하나로 키보드, 자전거, 대중교통 탄다라고 해서 캐시백 티머니를 연결해서 대중교통하고 키보드나 자전거가 환승 할인을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도부터 이번 년도 안에 시범으로 한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것을 읽으면서 이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에 대한 연장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입니다(단톡방, 청소년 A-1)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추상적인 정책 문서를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결짓는 과정들은 계속 이어졌다. 해석본 작업은 탄소중립 추진 부문 중 한 가지 부문씩을 선택하고 같은 부문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건축, 도시 건물, 농축수산 등의 부문에 관심이 많았고, 전환이나 흡수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은 없었다. 저마다 해당 부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험과 이유가 있었는데, 자신과의 연결이 있는 경우 일상 언어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끝에 공동의 형식으로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지만, 집중 분야는 각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의사 결정을 했다.

#### ⑤ 읽기에서 쓰기로 이동: 소통 양식과 전문성에 대한 고민

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는 해석본 제작을 그 활동의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어진 매우 능동적 읽기에 해당한다. 해석본을 만들려면 어떤 부분을 주목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넘어서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읽기에서 쓰기로 활동의 주된 양식이 달라지면서 청소년들은 누구를 독자로 상정하여 어떤 형식으로 어떤 틀에 따라 자신들의 해석을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5회기 공식 모임에서는 그간 청소년들이 그룹별로 모여 고민하고 논의했던 사항을 공유하고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했다. 해석본의 기본틀은 ‘청소년들의 스스로의 경험과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목한 부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려웠던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부하고 해석한대로 자신들의 언어로 기술한다.’는 것으로 마련되었다. 이렇게 읽기 과정에서 쓰기 과정으로 옮겨가면서 부담과 두려움이 생겨났다. 이제 본인들은 독자가 아니라 작가로서 쉬운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나도 자세히 모르는 분야를 다른 청소년에게 쉽게 알려준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어려운 단어나 시나리오 안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 분야를 공부하고 찾아보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니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면담, 청소년 A-4).

처음 보는 단위의 의미를 찾아보거나 그것의 적절한 비유를 찾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같습니다.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해해도 혹시라도 오류가 생길까 봐 우려했던 점도 있었습니다(면담, 청소년 A-3).

이러한 두려움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룹 토론과 집중 학습을 통해 새로운 버전을 작성해갔고, 이러한 두려움과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된 해법은 초안 완성 후 자신들의 활동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환경 활동 중인 동료 청소년들에게 배포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동료 청소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뒤, 이후에 배포 대상이나 활용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2) 청소년이 만든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해석본의 의의

### ① 청소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본의 구성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해석본은 폐기물, 산업, 수송, 농축수산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표 VI-10. 청소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본 목차**

[시작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는 얼마나 알까? '2050 탄소중립 퀴즈(테스트)'
[시작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아는 것, 왜 중요할까?(공감대 형성)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에서도 내가(우리가)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OO 분야를 읽기 전, 이것 먼저 알고 가보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OO 분야! 이해를 위해 필요한 필수 단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OO 분야 파헤쳐보기
[마무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나(우리)의 생각

이러한 흐름은 자신들의 활동 흐름과도 연결된다. 부문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시작 1과 2는 아이스브레이킹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들의 첫 이미지”와 같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부문별로 내용과 형식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부문별 첫 번째 질문은 어째서 자신들이 그 부문을 선택했는지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농축수산 부문을 참여한 이유 중 하나는 아래와 같다.

**표 VI-11. 청소년의 부문별 시나리오 선택 이유(농축수산 부문)**

우리 삶은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힐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는 일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일에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탄소배출이 되는지 인지하지 못 합니다.  
 환경오염, 탄소배출을 떠올리면 우리는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공장의 매연, 운송과 수송 등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부분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탄소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몸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농축수산 부문에서 일어나는 탄소배출 사례를 이해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알아야 건강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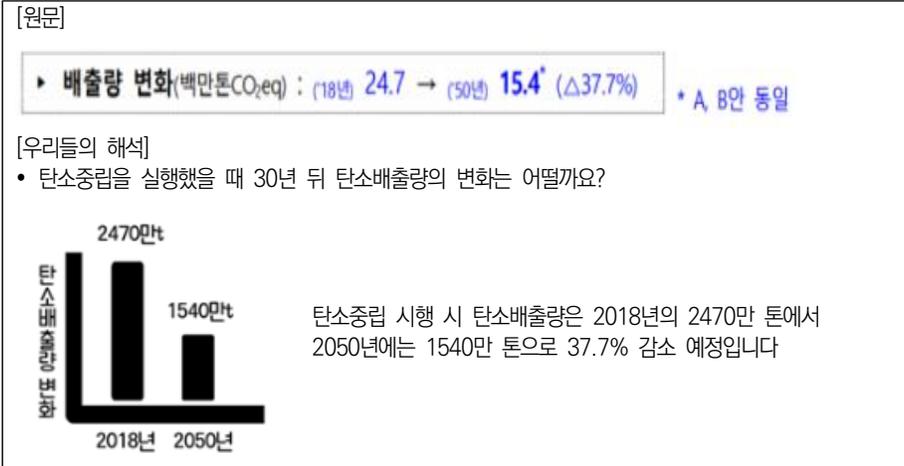
이어서 각 부문별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필수 단어를 소개한다. 단어에 대한 설명은 사전적 설명도 있지만 비유를 활용하기도 했다.

**표 VI-12. 청소년의 참고 자료 및 필수 단어 소개**

- <농축수산>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 알면 좋은 단어
  - 바이오차(Biochar):  
 우리가 색깔을 표현할 때 '차콜색' 이라는 단어를 써보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흔히 옷을 고를 때 회색보단 진하고 검은색은 아닌 숯과 비슷한 색을 차콜색이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harcoal(차콜)은 숯 또는 목탄을 말하는 영어입니다.  
 바이오차는 Biomass(바이오매스)와 Charcoal(숯)의 합성어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물질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가열하여 만든 고형물이며  
 농업 분야에서 토양의 중금속이나 농약을 흡착시키고 산성화된 토양의 PH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 시나리오 중 핵심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아래 예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요약본에 제시된 배출량 변화를 나타낸 내용을 풀어서 작성한 내용이다.

표 VI-13. 청소년의 시나리오 내용 해설



마지막 목차에서는 이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담고 있다.

표 VI-14. 청소년의 시나리오 해석 소감

-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구온난화가 심각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줄여 나간다는 것인지 몰랐다. 이 활동을 통해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막막했다.
- 차근차근 단어부터 이해를 하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설명해주어 점점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이를 실현하면서 다른 부분, 특히나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직 대책 마련 중인 정책들도 있는 것이 훗날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준 숙제 같다.
- 커다랗게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환경에 경각심을 갖고 쓰레기를 줄인다면 지 등의 친환경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알려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해석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요컨대, 청소년들이 만든 해석본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해설이자 자신들의 이야기이다.

②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스스로 해석하고 동료 청소년을 위해 해설본을 만든다.

청소년들은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성취감을 느꼈으며, 동료 청소년들과의 토론과 협업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에 도움이 되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과 같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의견은 연구진이 부여할 수 있는 이 활동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매우 도움되었습니다. 일단 '탄소중립시나리오'라는 주제가 모두에게 낯선만큼, 말하는 당사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가 같이 토의를 통해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저희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배포되는 것인 만큼,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생각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면담, 청소년 A-5).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알기 쉽게'라는 단어였습니다. 작년 기후환경 동아리에서도 자료를 제작해서 청소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했을 때도 어떻게 말해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했었는데 이번 활동이 그 연장선이 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할 탄소중립 내용을 다른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면담, 청소년 A-4)

제일 신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로 다양한 나이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환경과 관련된 정책 들은 대부분 듣고 그렇구나~하고 이해하고 넘어 갔던 게 대부분인데 이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내가 직접 탐구하고 이걸 서로 나누는 게 흥미로웠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진짜로 이해하게끔 나의 생활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신기했고 흥미로웠습니다(면담, 청소년 A-6)

어려움도 있었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학업과 병행하면서 이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여건 자체였다. 게다가 공식 모임에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식 모임 사이에 개별 과제나 그룹 토론에도 참여해야 하는 등,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정책 문서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했다. 초반부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체를 볼 때 가장 어려웠고, 그나마 그룹별로 부문을 정하여 토론을 하면서 조금은 익숙해졌다. 누군가로부터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

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쉬운 내용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성취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따라서 누군가가 바로 바로 질문에 답을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공식 모임이 한 달에 한 회 가량으로 진행되면서 공식 모임 중간에는 활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흐름과 소통이 끊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식 모임에서는 당초 기대보다는 토론이 덜 활발했다.

이러한 전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도했고 스스로 정책 해설 문서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과정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처음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속에 탐구하는 과정들이 솔직히 스스로 매끄럽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원래 항상 해오던 교육 방식 자체가 스스로 탐구하기 보다는 주입식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배우고, 외우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큰 틀은 있되 세부적인 과정이 스스로 탐구하고 나누는 활동이다보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처음 기대와는 달리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점점 윤곽이 잡혀가고 이제는 정말 제작만 남은 시점에서 각자의 관심분야로 나눠졌고 매주 공부해오는 활동 멤버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정말 많고 점 점 더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면담, 청소년 A-4).

사실 나는 활동 초반이나 중간쯤부터 바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거의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의외였다. 대부분의 활동들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초·중반부터 활동에 대한 탐구나 과정적인 부분이 다소 부족하고 결과를 내기만 급급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 활동은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면담, 청소년 A-2).

### ③ 촉진자에게도 주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활동

이 활동에서 지도자들은 활동에 있어서는 지도자이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유사한 입장에서 스스로의 경험과 시나리오의 내용과 연결짓기도 하고, 직접 찾아보는 등, 지도자와 모임 참여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접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나 경험이 청소년들과 유사했다.

바이오 이런 것들이 식물에서 추출을 한다고 해도 과연 식물이든 생물이든 끊임없이 만들어내든지 있는 것들을 계속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일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됐고 전반적으로 정말 용어 하나하나가 저도 어려웠어 서(단톡방, 지도자 A-2).

지도자들의 함께 읽기 과정은 공부를 잘 하는 청소년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들이 이걸 충분히 알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다면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제 아쉬움이었고. 애들이 했던 얘기가 오히려 제가 같은 참가자의 입장에서 같이 들어와서 더 좋았더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궁금해하고 같이 헤매고(면담, 지도자A-1).

앞에서 청소년들이 “결과물을 내는 데 급급했던” 다른 활동들에 비해 이번 활동은 충분히 토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한 것과 같이, 지도자 역시 청소년들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만큼이나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

시설의 특성상 1년에 정해진 예산으로 사업들을 돌아가면서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명확한 결과 값이 나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저희는 기다려주는 걸 못해요. 그니까 충분한 이런 고민과 숙제와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그 과정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그러다 보니까 양은 많지만 질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청소년 활동에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중략) ...충분히 알고 그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기후환경 쪽 사업을 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더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 돼야만 예측했던 결과값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 같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팀 사업이 대부분 그런 것 같기는 해요(면담, 지도자A-1).

이는 청소년 주도의 정책 참여 활동에서 청소년 간 분업 뿐 아니라 지도자와 연구자의 역할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청소년들 간에 토론이나 논쟁이 발생했을 때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추정하는 논의들이 이어지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답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개하면 좋을지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대부분의 공식 모임에서는

특별히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발언을 자제했다. 이 모임에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구성된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임 자체의 밸런스를 흐트러트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주도의 정책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지도자와 연구자에게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신뢰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 ④ 더 많은 시간과 지원 장치가 필요한 활동

3회기에 접어들면서 시험 기간과 겹치게 되면서 공식 모임에는 출석률이 저조해지기 시작했고,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은 서면을 통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참여했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된 데는 학교와 학원 일정뿐 아니라 주제 자체의 어려움과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업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모임이지만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가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다.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하는 데 개인적으로 많은 한계가 느껴지기도 했다(면담, 청소년 A-7)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소재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이 정책 문서를 스스로의 언어로 해석하고 희망하는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첫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2회기와 3회기에서 공유된 읽기의 내용은 비판적이고 확장적이었으며, 모든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청소년들도 그랬다고 밝히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설본을 만들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참여 청소년들이 이전에 환경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지식이나 관점 등, 기본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소재로 청소년 활동을 추진하는 데 기존에 환경 활동 경험이 없거나 관련 지식 또는 관점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지원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환경에 대해 아예 지식이 없다면 조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 쪽을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정책을 공부할 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면 좀 더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찾아봐 공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어 이 점은 좋았지만, 기초지식이라든지, 시나리오 정책에 많이 나오는 용어를 조금 알려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면담, 청소년A-7).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 활동의 장애 요인이자 선결 요건으로 환경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청소년들은 당사자로서 기후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그렇지만 개념이나 용어가 어려워 “거부감(청소년 A-2)”이 생기는 탄소중립 정책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청소년A-1)”과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 청소년은 이번 활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대개의 경우 학업 대신에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되는 경우 “약간의 보상(청소년 A- 2)”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탄소중립 정책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친구들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초, 중, 고등학생 때 분리배출, 또는 환경에 대해서 학교에서 진지하게 배웠던 적이 있었나?였습니다. 물론 배운 적은 있지만 국, 영, 수만 중요하게 생각한 학교에서 환경에 대해 배워도 일 년에 두 번 남짓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분리배출조차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작은 부분부터 실천이 되어야 점점 나아가 정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정치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하는데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환경 정책은 궁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정책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접근하기 쉬운 활동부터 차근차근 관심도를 높인 후 정책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면담, 청소년 A-4)

## 2) 청소년 탄소중립정책단 활동: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제안

### (1) 정책 참여과정에서 행위주체성 형성의 맥락

- ① 기후 위기 문제 인식: 환경에 대한 관심 → 기후 위기, 탄소중립정책 중요성 인식  
→ ‘우리가 원하는 미래’

정책 참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

가 중요하다. 정책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는 학교에서 추천해서 참여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나 학생회와 같은 참여활동 경험이 많은 청소년은 드물었다. 기후 위기 문제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보거나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소수였다. ‘탄소중립’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2~3명 정도였고, 절반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였다.

이에 첫 회기 활동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해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인식을 드러내고, 앞으로 더 알고 싶거나 공통의 관심사로 삼아야 할 쟁점들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주려고’ 하기 보다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공유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었다. A센터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개념들을 원인, 영향, 해결, 적응 등, 분야별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기후 변화의 원인, 영향, 해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적응과 관련해서는 낯설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2회기 활동에서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연구 책임자의 발표와 토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때 청소년들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방대한 정책 분야가 있음을 알고, 모든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신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갔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주관한 환경교육 주간 기념행사에서 청소년정책단의 다짐을 발표했던 3회기 활동은, 본 연구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지역 행사 무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책단으로서의 멤버십과 역할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목표를 발표하는 활동을 할 때는 추후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면담, 청소년 B-3)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에서도 지자체에서 조금이지만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면담, 청소년 B-4)

이어지는 4, 5회기 활동에서는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정책 영역별로 팀별 관심사를 정하고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들은 환경교육, 인식개선,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정책을 관심 정책으로 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 열의에는 청소년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까지의 활동이 주로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스스로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토의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6회기 활동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책단의 비전과 목표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날 청소년들은 앞서 살펴본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과 대비되는 ‘청소년 탄소중립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토의에 참여하였다. 워크숍 퍼실리테이터(기후정책 전문가)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개인의 실천으로만 가능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개인의 실천을 넘는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후 위기에 대한 사고자극과 심각성이 눈 앞에 다가온 것 같은 생생한 강연이었고 정책단 활동에 대한 동기도 더 굳건해졌던 것 같습니다.(면담, 청소년 B-6)

저부터도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자료들을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거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구나.(면담, 지도자-B)

이처럼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시급성과 생생함은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나와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미래 비전을 토의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쌓은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회변화가 나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었다. <표 VI-15>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은 환경, 수송, 산업, 에너지 부문에서 일어날 변화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전망해 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미래 가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표 VI-15. 기후 위기가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분야	주요 내용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지 파괴, 전염병 확산, 식량값 상승, 해수면상승으로 주거지 침수, 해충 발생, 마스크 등, 새로운 의복 등장</li> <li>•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 감소로 음식의 수 감소, 해수면상승으로 국토손실, 폭염과 한파 증가, 눈을 보는 즐거움 사라짐. 여름과 겨울의 양극화 심화, 문화재 손상</li> </ul>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편리하고 효율높은 수송 수단인 자동차는 계속해서 필요, 친환경자동차는 효율이 낮다는 인식, 국제교류 증가로 수송에 쓰이는 연료가 계속해서 증가, 자동차가 부의 과시 수단으로 여겨지는 문제 등으로 수송 문제 해결이 어려움</li> <li>• 공용주차장을 지을수록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li> <li>• 폭염으로 인해 자동차를 더 많이 타게 되어 기후 위기 악화</li> </ul>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반도체산업, IT, 정보 산업, 제철소, 공장식 축산업 등의 지속 문제</li> <li>• 값싼 옷을 생산하는 의류산업, 건설 원재료, 산업 쓰레기 처리, 기업의 책임 회피</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국토, 비효율적 공간 사용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어려움</li> <li>• 화력발전소 수명이 남아있어 당장 폐쇄 조치가 어려움</li> <li>•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이 줄어들</li> </ul>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1)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넘어, 2)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3) 청소년이 만드는 탄소중립 비전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이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정책 영역별로 관심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데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한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소극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청소년들 역시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전문 영역을 다루면서 어려움을 느꼈고, 활동시간과 자료의 제한 속에서도 조금씩이나마 지식을 쌓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도 어려운데 참여라는 주제도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과 탄소중립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과 이걸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면담, 지도자-B)

아무래도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막혔던 것 같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문 해주실 때에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아서 속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내 손으로 그 벽을 깨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성장한 것 같다.(면담, 청소년 B-4)

② 탄소중립 정책 제안을 위한 관심 주제의 형성: 지자체의 정책 →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2회기에서 공유한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1) 국가 탄소중립 정책 현황, 2) 해당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3)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4) 부문별 추진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부문별 추진계획의 경우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등, 방대한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에게서 듣고 <표 VI-16>와 같이 다양한 질문을 해 나갔다. 청소년들의 질문은 에너지 전환 목표의 실효성과 수단에서부터 각 부문별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는데, 이는 청소년들 각자가 지닌 지식과 관심 분야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탄소중립 정책을 처음 다루면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 내용이 자신들에게 낯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과 각 분야별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천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표 VI-16.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이해와 평가

회기	2회기(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해)	5회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평가)
주요 내용	<p>(전문가 질의)</p> <p>1) 에너지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력발전소 폐쇄 후 전력공급 대안이 있는가?</li> <li>-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 및 정책 개선 필요</li> <li>- 신재생에너지 저장 및 관리 정책 필요</li> </ul> <p>2) 온실가스 감축 분야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에너지 효율/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li> <li>- 그린 리모델링에서 액티브/패시브 기술 중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li> <li>- 어업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책이 있는가?</li> <li>- 상하수도 운영시 전력 사용 많으므로 관련 연구 필요</li> <li>- 폐기물 소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여전히 탄소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지?</li> </ul> <p>3) 정의로운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수산업,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의 훈련과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li> </ul>	<p>(개별 의견 + 전체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인 틀은 잡혀 있지만 그 속에 자세한 부분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li> <li>• 산업 부문에 있어 공장 운영 방식이나 원료 등의 요소만 고려할 게 아니라 그들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li> <li>•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궁금하다.</li> <li>•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li> <li>• 에너지 빈곤층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이 담기면</li> </ul>

회기	2회기(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해)	5회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평가)
	<p>4)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을 새로 조성하기보다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는 것이 중요</li> <li>-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정책 필요</li> </ul> <p>(전체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2045년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li> <li>- 구체적인 계획에 비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li> <li>- 예산이 많이 들텐데 사람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li> <li>-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데 협력을 잘 할지 의문이다.</li> <li>- 환경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학생으로서 체감이 되지 않는다.</li> <li>- 15개 시·군 간 합의가 이루어질까 의문이다.</li> <li>-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수소 기술의 효율성, 안전성 토론</li> </ul>	<p>좋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면 좋겠다.</li> </ul>

물론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낯선 용어와 방대한 내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단은 “음, 그렇구나”하며 수용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내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지자체의 정책을 직접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사실 [박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음 그렇구나... 해서(2회기 활동, 청소년 B-1)

직접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과 현황, 비전 등,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면담, 청소년 B-2)

이후 청소년들은 각자 자신이 좀 더 알고 싶은 정책 영역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팀을 이루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위 <표 VI-11>에서와 같이 5회기 활동에서 청소년들은 팀별 토의결과를 정리하면서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비록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대한 한계는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충분히 좋은 질문을 던지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분야를 선정한 것은 일반적인 시민참여 공론장에서 비교적 정책의 많은 영역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정책단의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꼭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의 질문도 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회기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가 청소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행위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컸을 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컸을 때 우리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무엇일까,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뭐가 달라질까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토론이 됐으면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2회기 활동, 전문가 B-1)

이처럼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구상하고, 그 미래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기존에 전문가가 만든 정책과 다른 관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은 본 정책단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다만 여기서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과 ‘실제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에 대해서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청소년들은 지자체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전자, 표 5회기) 팀별로 정책 관심사를 형성해 나갔다. <표 VI-17>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은 에너지 정책, 인식개선, 환경교육, 정의로운 전환을 관심사로 정하고 팀별 논의를 이어나갔다(후자). 청소년들 다수가 관심을 가졌던 환경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경험을 통해 현재 환경교육이 청소년과 일반 시민의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주도하거나 관심사를 반영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인식개선 분야는 교육과 맞닿아있는 주제로서,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다는데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정의로운

전환 분야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알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처음 접한 개념이자 이 지역의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보인 주제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혼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합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탄소중립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 그리고 빠른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변화는 삶에서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없는 노동자,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등, 변화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변화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지 고민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면담, 청소년 B-2)

정의로운 전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정책이 발표된 사례나 실제로 시행된 것들을 찾아보며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면담, 청소년 B-5)

7회기에 이르러 다양한 정책 관심사 중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네 가지를 공통적인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다(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기업 책임(1순위), 환경교육(2순위), 실천 인센티브 제공). 그런데 최종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것은 환경교육과 실천 인센티브 분야로,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기업 책임에 관한 것은 시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청소년들은 스스로 제안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특별 논의에서 다루었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표 VI-17. 탄소중립 정책 관련 관심사의 형성 흐름

회기	2회기(관심사 표출)	4~5회기(공동 관심사 토의)	7회기(우선과제 결정)
주요 논의 및 결정	(토의) 더 알고 싶은 것, 관심 분야 토의 - 에너지 정책: 다양한 에너지원 고려 - 인식전환·소통: 정책 알리기, 관심과 실천 유도하기, 논쟁에 참여하기 - 환경교육 - 정의로운 전환 - 용어: NDC, 기후탄력성, 블루카본 등	(개별작성/전체토의) 주제별 자료수집 - 에너지 정책: 글로벌 흐름과 우리나라 정책의 차이, 신재생에너지 지원현황 - 정의로운 전환: 기본 개념 및 논쟁 파악, 특구지정, 위원회 구조 필요 -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실태자료, 학생 만족도 낮음, 전문성 문제, 지자체 지원방향 - 인식개선: 기업·농업·축산 분야 현황파악, 광범위한 효과제고 방법 필요	(토의) 공통 제안 중 우선순위 논의 • 공통 제안 및 우선순위 -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 탄소배출 책임 기업: 시급/영향력(1순위) - 신축건물 에너지 자립/탄소중립 - 참여형 환경교육: 행동과 실천(2순위) - 환경 축제/행사: 인식개선 - 실천 인센티브 제공: 아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 유도(3순위) • 공통 제안 모두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 • 정책 제안 2가지: 교육/인센티브 중심

이처럼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너지 정책,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모으는 것과 실제 정책 제안(환경교육, 실천 인센티브) 과정에서 보이는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탄소중립에 대한 청소년의 정책 제안의 범주를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의 논의가 환경교육과 실천 인센티브 주제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으로 정책 제안 취지의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기획되었다기보다는 참여 청소년들이 당초 가진 경험과 관심, 그리고 정책단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다. 반면,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관심을 가졌지만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제들(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정책 등)의 경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청소년들 스스로 충분한 이해가 있거나 입장을 가지기는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활동 여건이었거나, 애초에 이러한 관심사를 지닌 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했다면 이 주제 역시 정책 제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팀을 이끌었던 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활동에 대한 열정, 탄소중립의 대한 다양한 기초적 지식, 팀 협력 프로그램의 경험 등, 너무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배워가는 단계인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은 시민참여에 있어서 가장 복합적인 최종적 단계입니다. 탄소중립과 시민참여에 있어서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자율적으로 완성해내도록 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면담, 청소년 B-2)

물론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활동은 제안된 정책 내용면에서도 평가해볼 가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도자 또는 전문가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과제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당초 문제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있었다. 즉, 청소년들이 단순히 환경교육과 인센티브의 내용과 방법에만 논의가 치중되지 않고, 당초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인 에너지 정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취약계층 등의 키워드가 어떻게 정책 제안 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함께 토론에 참여하였다. 정책 제안서 초안이 나온 후 청소년 들은 앞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적 이슈와 기업 문제를 꼽았는데, 이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이 다양한 정책 참여 활동의 주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은 그 현장을 알아야 더 현장과 괴리감이 적은 살아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어촌마을 등, 직접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고 그 장소,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면담, 청소년 B-2)

이번 정책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 나아가 기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실질적인 경제적 주체인 기업에 대한 책임도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면담, 청소년 B-4)

### ③ 정책 제안에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학습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은 청소년 개개인이 정책 관심사를 확인하고 정책단 전체의 관심사로 합의해 나가고, 나아가 좋은 정책의 기준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등, 그 자체로 학습의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팀별로 정책 주제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가고 결과물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의 대화는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에 있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요구를 타당성있게 제시하는데 의의를 둘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후자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7회기 조별 활동]

어떤 것이 청소년들에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시행하고 어느 지역에서 시작해서 어느 단체에서 이걸 집행하고 시행할 것인지 그것은 지자체가 판단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현황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지자체에 제안합니다에 포커스를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지도자-B)

그러면 결국 저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인니까 그냥 좀 더 막연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청소년-B-7)

그니까 저희의 당위성,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효과가 메리트가 있으면 거기서 더 수정 보완 구체화해서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청소년-B-2)

이 과정에서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정책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8회기 조별활동]

그니까 저희가 할 건 그거네요. 어떤 걸 할지 정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까지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네요.(청소년-B-1)

그렇죠.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듣고 이게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개발 과정에서 지역만큼은 꼭 여기서 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지도자-B)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며 타협하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소그룹에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경험에 대해 어떤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워했고, 또 다른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들 간 차이는 있지만, 정책 제안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경험했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내용은 많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면담, 청소년 B-3)

나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을 타협해야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면담, 청소년 B-3)

정책 제안서를 처음 만들려고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시간은 가고 막막한 상황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즐거운 경험이었고 성장하게 되는 좋은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면담, 청소년 B-4)

이처럼 정책 제안의 과정은 정책의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사회 상을 달성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의 역할을 스스로 정립해 보는 학습 과정으로 의미가 있었다. 즉, 정책 제안 활동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성은 이러한 역할을 모색하고 정립하는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 (2)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제안의 의의

### ① 청소년이 그리는 미래 비전 도출: 변화하는 사회의 주체로서 청소년

정책단 활동에서 최종적으로 제안된 정책에 대해 내용적인 면에서 평가하기에 앞서, 정책 제안의 도출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바라는 미래 사회상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과정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래 비전 도출 과정은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개인 실천위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청소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 비전 워크숍에서 기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 실천을 넘어선 청소년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제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정말 개인의 실천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개인 실천은 당연히 해야겠  
 죠. 그럼 개인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청년,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암울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우리가 원하는 2045년  
 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6회기 활동, 워크숍 퍼실리테이터)

우선 워크숍에서는 청소년들이 2045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를 상상하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의 이러한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 사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표 VI-18). 이처럼 청소년들이 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를 교차하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미래상’이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거나 나 자신과 관계없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주체적으로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표 VI-18. 미래 비전 도출 과정(요약)

구분	미래 개인 가치	미래 사회 가치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직업과 경제활동 참여</li> <li>• 자녀와 소고기 먹기</li> <li>• 자녀와 갯벌에서 놀기</li> <li>• 마스크 벗고 살고 싶음</li> <li>• 여행 가고 싶음</li> <li>• 대중교통이 매우 활발히 발전된 사회</li> <li>• 자녀와 함께 계곡이 딸린 산에서 놀기</li> <li>• 한적한 시골에서 집 짓고 살기</li> <li>•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li> <li>• 해외여행 또는 봉사</li> <li>• 놀고 먹기</li> <li>• 산으로 피서</li> <li>•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li> <li>• 봄과 가을을 길게 보내고 싶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에 많은 나무 (녹지화)</li> <li>• 자살률 끝씨예방,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사회</li> <li>•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나라별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li> <li>• 우리(청소년)가 만든 정책이 시행되는 사회</li> <li>• 대중교통과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사회</li> <li>•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li> <li>• 탄소중립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li> <li>• 시민, 도민, 국민의 시선에 민감하고 신경쓰는 기업이 늘어났으면</li> <li>• 과소비 하지 않고 소비를 절감하는 사회</li> <li>• 군사력, 경제력 포함 강한 국력의 대한민국</li> <li>• 탈석탄 성공, 100% 재생에너지 사용해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존중,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사회</li> <li>• 빈부격차 감소, 편가리지 않고 모든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회</li> <li>• 능력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li> </ul>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이 제시한 탄소중립 미래상은 <표 VI-14>와 같다. 앞서 살펴본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이 제시한 비전은 좀 더 가치 중심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시민(청소년) 참여, 자연 공존, 사회 정의를 큰 틀로 제시했는데, 이는 막연하게나마 향후 지자체 탄소중립기본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평가의 틀을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로써 만들어낸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전제와 가치)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도 상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VI-19. 청소년 탄소중립 미래 비전 도출 결과

미래 분야	주요 내용
청소년 참여	<p><b>“목소리를 들어주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li> <li>환경문제해결에 대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한다</li> <li>청소년이 능동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li>양질의 환경교육을 지역적, 학교 인팍으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ul>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p><b>“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존중,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을 훼손하는 너무 지나친 개발을 멈춰야 한다</li> <li>지나치게 동물을 잡지 않도록 축산업에 제한을 준다</li> <li>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li> </ul>
정의로운 전환,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p><b>“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에 폭우가 와서 홍수가 나서 잠겼는데 아파트 높이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침수되니까 기후 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li> <li>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li> <li>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지원해야한다</li> </ul>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도출한 미래 비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 과정이 의미있다고 평가했지만 어렵다고 느끼기도 했다.

탄소중립 비전 설정이 어려웠던 것 같다. 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인지 활동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다.(면담, 청소년 B-8)

이에 연구자와 지도자는 이후 정책 제안 내용이 미래 비전에서 제시한 가치에 부합하는지 질문하는 한편 제안된 정책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가치들을 미래 비전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비전과 정책 제안 간의 부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청소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정책

정책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교육과 실천 인센티브 분야에서 총 4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표 VI-15). 이는 청소년들의 논의가 기후 위기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회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실천 당위성’에 주목하였음을 보여준다. 교육분야에서 5지역 5교육 프로젝트는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공존하고, 갯벌과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의 특색을 고민한 결과이다. 청소년들은 현황 파악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기존의 개념 중심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결과적으로 5개 지역을 탐방하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이슈,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각 지역에서 미션을 수행하여 5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 제안이 비교적 기후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청소년들을 위한 심화 프로젝트로 제안되었다면, 청소년 환경종합예술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기후 문제를 접근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타 지역에서 환경 축제가 운영되고 있는 점에 착안, 단순히 즐길 거리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환경과 예술을 접목하여 지역의 기후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시선을 작품에 담는다면 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았다. 이 두 정책은 환경교육 정책분야에 속하면서도 청소년들의 당초 관심사였던 에너지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5지역 5교육 프로젝트의 경우) 이슈를 반영하고, 소수가 아닌 다수의 참여(청소년 환경종합예술제의 경우)라는 문제의식을 녹여내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실천 인센티브 분야는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 과제로

폐기물 문제에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문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청소년들은 탄소포인트제 등,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폐기물 분야에서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면서도 개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 지자체와 기업 등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네프론 기기 전파 과제 제안 팀에서는 당초 편의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자발적인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네프론 기기와 같이 자동배출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이동식 차량이나 상점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판단된 결과로 제시되었다. 탄소중립 트럭의 경우 네프론 기기 전파 팀에서 파생되어 나온 제안으로, 해안가 쓰레기 문제의 경우 관광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동식 차량에 분리수거 기계를 설치하는 한편으로 홍보와 교육의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고민한 결과였다. 이 두 제안은 폐기물이라는 친숙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수집했으나, 결국 새로운 해결방안보다는 기존 사례를 적용·확산하는 것이 최선의 결론이었는데 의견이 모아진 결과이다. 이는 폐기물 관리라는 전문 영역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정책은 아닐 수 있지만,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파급 효과를 키우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당초 정책 우선순위 과제였던 기업의 책임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을 녹여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I-20. 정책 제안별 주요 논의사항

분야	교육 분야		실천 인센티브 분야	
제안명	1. 5지역 5교육 프로젝트	2. 청소년 환경종합 예술제	3. 네프론 기기 전파를 통한 쓰레기 포인트제 활성화	4. 탄소중립 트럭
논의과정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위기 직접 체험 필요</li> <li>탄소중립 미래산업·직업에 대한 궁금증</li> <li>도내 여러 지역의 특성 반영(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산불, 해안, 생태체험)</li> <li>청소년리더를 양성하여 또래에 영향력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에 대해 어렵게 느끼기보다 예술과 접목하여 친숙하게 다가갈 필요</li> <li>기후 위기를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즐기며 알기 쉽게 접근할 필요</li> <li>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축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 비율 낮음</li> <li>분리배출 실천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가 쓰레기 문제 심각</li> <li>관광지 내 쓰레기 수거에 한계가 있음</li> </ul>

분야	교육 분야		실천 인센티브 분야	
제안명 논의과정	1. 5지역 5교육 프로젝트	2. 청소년 환경종합 예술제	3. 네프론 기기 전 파를 통한 쓰레기 포인트제 활성화	4. 탄소중립 트럭
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 환경교육계획</li> <li>체험형·참여형 교육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지역 유사 사례 및 타 지역의 환경축제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포인트제 등, 실천 인센티브 국내외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사례 (씨네크트럭)</li> </ul>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환경교육에서 지역사회 환경교육으로 초점 이동</li> <li>참여 대상과 목표: 전체 청소년(재미 고려) vs 기본 소양을 갖춘 청소년(심화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최 지역, 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리수거를 돕는 기계/ 이동식 차량/ 상점 등, 다양한 방식 고려</li> <li>기업 협력 문제</li> <li>비용 및 실제 활용도의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 홍보 등, 다양한 기능 고려</li> </ul>
최종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청소년 리더 양성 - 사회적 약자,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li> <li>생태체험활동</li> <li>탄소중립 직업 강의와 체험 활동</li> <li>기업 연계 탄소중립 사업 프로젝트 제안활동</li> <li>화력발전소 견학 활동</li> <li>여러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참여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안팎 청소년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li> <li>- 예술제, 영화제</li> <li>- 동아리 부스</li> <li>- 미술전: 지역환경 사진 인스타 챌린지</li> <li>- 환경예술공모전: UCC, 그림, 댄스 등, 환경과 예술 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프론과 같은 자동분리배출 기계 설치 확산</li> <li>- 아파트 분리수거장, 주택가 골목 등에 설치</li> <li>- 분리배출시 포인트 적립</li> <li>- 기업(기계설치)과 지자체(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가에 이동형 분리수거 트럭 설치</li> <li>- 쓰레기를 일정한 가저오면 음료수나 과자로 교환</li> <li>- 트럭 관리를 위해 환경단체와 협력</li> </ul>

정책단이 제안한 정책들은 이처럼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고민한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을 실제로 “내가 참여하는 입장이라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서”와 같이 직접 참여하여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지역 5활동 프로젝트를 계획해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내가 참여하는 입장이라면 어떠한 것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하였고 실제로 환경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면담, 청소년 B-3)

청소년들이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환경영화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등, 어려울 수 있는 환경문제들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재밌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것 같아 부듯합니다.(면담, 청소년 B-6)

정책 내용이 마음에 매우 든다. 왜냐하면 정책이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기 때문이다.  
(면담, 청소년 B-8)

반면, 토의 과정에서 완전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거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 제안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요소로서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결과로서만 평가하기보다 성찰적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실현 될 수 있는 정책'과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사이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실현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 제안서를 완성한 것 같아 부듯합니다.(면담, 청소년 B-6)

자꾸 문제점이 뭔지 생각할 때 마다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문제점을 없앨지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다.(면담, 청소년 B-8)

학교환경교육 내실화에 대한 정책도 제안하고 싶었지만 청소년이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 정책으로 완성시키지는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면담, 청소년 B-6)

이처럼 정책 제안 활동을 경험하면서 청소년들은 정책 참여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었다. 이번처럼 광역 지자체보다 작은 지역에서 점차 큰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의 범위를 넓혀 나간다면, 청소년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제안과 더불어 이러한 참여의 기회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지역별로 작은 규모로 운영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시간 등의 이유로

참여를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학교나 지역에서 차근차근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담, 청소년 B-3)

아직 기후 위기 또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정보 소통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면담, 청소년 B-6)

앞으로 청소년 활동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실제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욱 창의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면담, 청소년 B-4)

## 4. 소결

### 1) 탄소중립 정책과 청소년의 역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정책 문서이다. 정책 문서의 독자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 해당하지만, 실제 독자는 모호하다. 정보가 공개되어있다고 해서 내용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환경 정책에서 모든 시민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룹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등한 참여를 어렵게 한다. 정책 문서 작성 기관에서는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실질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내용을 담아서 배포하지만 그러한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이고 동등한 무게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즉, 시민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다 할 수 있으려면 A 센터 청소년들이 했던 활동과 같은 학습과 해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해석본을 만드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 과정에서 빠져있는 연결 고리를 만드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의 이해당사자로서 학습에 기반한 적극적 읽기를 수행하였고, 이어서 청소년들이 동료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어 추진했다.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전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자주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모두가 이해당사자인 이 사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초대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B센터 청소년들의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정책 초안이 이미 마련된 이후의 참여는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비판과 의의제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참여의 장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의 역할은 참여 역량을 갖추므로써 더 충실하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A 센터 청소년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고 지식을 갖춘 청소년들이 모여서 시도했으므로 단기간임에도 활동 결과물을 내는 것이 가능했다. B 센터 청소년들의 경우 기후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정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정책 발굴과 제안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경험이 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학습과 참여 촉지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제한한대로 학교 수업과 같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청소년 활동으로서 기획하는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 2) 청소년 참여 모델의 개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민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정책에서는 공론장과 같은 시민 참여 모델을 마련해 왔지만, 청소년들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참여 모델에 대한 시도는 많지 않았다. 본 실험연구의 두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정책 이해, 소통, 개발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센터의 사례는 정책의 이해와 소통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읽기와 비평을 통해 나름의 견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B센터의 사례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이에 향후에는 탄소중립 정책 전 과정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여 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의 형식과 활동 콘텐츠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읽기, 지자체 정책 제안이라는 콘텐츠의 개발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공론장 참여,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수립,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 더 많은 콘텐츠의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동 방식에 있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

을 기획하고, 나아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효능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장치를 고안하고 다양한 전문 자원과 연계하여 이들의 목소리와 권한을 인정하는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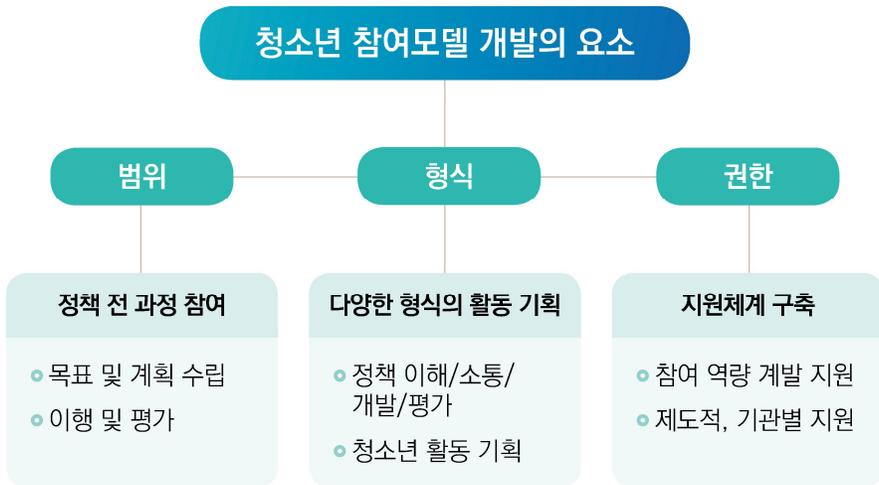


그림 VI-1. 청소년 참여모델 개발 요소

# ○———— 제7장 정책 제언

———— 1. 정책 개발 과정

———— 2. 정책 제언



## 1. 정책 개발 과정

### 1)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VII-1).

첫째, 기후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 청소년의 인식과 경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기후 변화 발생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으나 구체적인 개념과 사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실제적인 관심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주제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행위주체성의 계발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 효능감, 의사결정 권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학교 환경교육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급별, 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 문제를 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 경험은 아직까지 학교와 가정의 영향이 크며, 청소년들 스스로가 다양한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청소년센터, 환경교육센터, 지역사회민간단체 등 기후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기관·단체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여러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및 학습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기후환경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활동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소속 기관들처럼 기관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복합적인 현상을 깊이있게 다루기보다는 플로깅과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등, 개인 실천

87) 이 장은 황세영, 강경균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차원에서 기후 위기 시대의 미래세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와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이를 촉진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중립 위원회 구성 등 정책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보장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장치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럽의 사례 및 본 연구 실행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는 위원회 참여와 같이 매우 공식적인 방법에서부터 청소년 주도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지역사회 전문단체, 학교 및 청소년 기관 등 여러 주체가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청소년 권리와 관련하여 청소년 교육, 활동, 참여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해 복지, 안전, 자립 등, 다양한 권리 영역에서의 논의는 부족하다. 이들 분야는 청소년에 한정적인 정책 영역이라기보다는 기후 정의 담론과 기후 취약계층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기후 위기 문제가 세대 간 불평등을 내포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 세대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여러 영역에 걸쳐 기후 위기 시대의 청소년 권리 보장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유관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문제점	주요 근거(분석 결과)	시사점	정책과제 도출
1. 기후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 청소년의 인식, 경험은 제한적임	<p><b>(정책분석)</b> 학교 환경교육 수요 증가</p> <p><b>(설문조사)</b>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도, 책임감 높음.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식. 구체적인 정책 용어/이슈에 대한 이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p> <p><b>(사례분석)</b> 청소년 관심과 흥미, 효능감, 의사결정 권한의 경험 중요</p> <p><b>(사례분석, 설문조사)</b> 제로웨이스트 등 친환경 실천 위주로 이루어지며 에너지, 기후 정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한계</p>	기후·탄소중립 이슈를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연결하는 활동 경험 다변화 필요	<b>과제 3.</b> 학교-지역사회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활성화
2.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지원 체계 부족	<p><b>(설문조사)</b> 기후변화 관련 정보/교육을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얻음. 개인 실천 위주의 활동 경험에 편중, 참여 활동 경험 적음.</p> <p><b>(유럽현황)</b> 청소년 주도의 활동 및 자발적인 조직화를 지원하는데 초점</p> <p><b>(실행연구)</b>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참여 욕구 확인</p>	청소년의 관심과 요구에 기반한 청소년주도 활동 지원, 참여 욕구를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참여역량 개발 필요	<p><b>과제 5.</b> 다양한 청소년 주도의 기후 행동 확산 지원</p> <p><b>과제 2.</b>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 모델 개발 확산</p>
3. 청소년 기관/시설 개별적 접근의 한계, 정책적 지원 부족	<p><b>(정책분석)</b>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증가</p> <p><b>(유럽현황)</b> 청소년 기관의 역할 정립 및 정책 전략 수립</p> <p><b>(사례분석, 설문조사)</b> 개인 실천 위주의 제한적인 활동 경험</p>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관 운영/중장기 정책 전략 필요 청소년 지도자 전문 교육 기회 필요	<p><b>과제 3.</b> 학교-지역사회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활성화</p> <p><b>과제 4.</b> 청소년 기관(시설)-지도자 역량 개발 지원</p>
4. 탄소중립 정책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회 및 모델 부족	<p><b>(정책분석)</b> 탄소중립 기본법, 정책 거버넌스 형성 단계</p> <p><b>(유럽현황)</b> 기후 정책 거버넌스에 청소년 주류화 지원</p> <p><b>(설문조사)</b>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책임 강조, 해결 가능성에 대한 평가 높지 않음.</p> <p><b>(실행연구)</b> 탄중위, 자자체의 청소년 참여 모델 가능성 확인</p>	참여 역량 개발 필요, 정책 참여 모델 개발 필요	<b>과제 2.</b>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 모델 개발 확산
5. 모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권리보장의 관점 부재	<p><b>(유럽현황)</b>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난 등 다양한 쟁점 포괄</p> <p><b>(정책분석, 사례분석)</b> 청소년 교육/활동 영역에 편중</p>	복지/안전/자립/일 등 청소년 정책 영역 확대	<p><b>과제 1.</b>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중장기 청소년 전략 수립</p> <p><b>과제 6.</b> 기후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통합지원 방안 마련</p>

그림 VII-1. 연구 주요 결론 및 시사점

## 2) 정책 의견수렴 결과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참여 기관들은 청소년 수련시설 차원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 필요하고 경영 계획에 청소년 기후 활동 지원과 ESG 전략을 적극 반영해 나가며,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평가지표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의 기후환경분야 청소년 프로그램의 단편적, 개인 실천 중심의 접근을 벗어나기 위해 활동 가이드 제작 등, 개별 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 제작과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국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후환경분야 청소년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의 네트워크에 지역별 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위원회, 환경단체 등 탄소중립 정책 분야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기후환경 분야가 모든 청소년 활동 시설의 특화 분야가 아닌 만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역할도 강조되었다. 환경교육센터는 아직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청소년센터에서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전국적인 확산 과정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지원방식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이를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이들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기후 행동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은 청소년 기관(시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적극 제기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지원으로 청소년 기후환경 동아리연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기존 동아리 활동이 개별 학교 또는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요구했다.

한편 기후환경 청소년 활동 콘텐츠의 다각화와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 사업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정책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서 ESG 개념을 활용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I-1.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 관련 의견수렴

참여자	의견 및 요구	정책 제안 반영 내용
청소년 기후환경정책연대 6개 기관 관리자 및 실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련시설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 캠페인 필요</li> <li>청소년수련시설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지자체 평가지표 반영 등)</li> <li>기후 위기·탄소중립 관련 청소년 활동 다각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청소년 지도자 연수 기회 마련</li> </ul>	4-1.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 (시설) 선정·지원 4-2.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지자체 지원 유도 4-3. 사회환경교육 연계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회 확대
전국 시·도청소년활동진흥 센터장 및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환경분야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li> <li>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한 확산방안</li> </ul>	3-1.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3-3. 지역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 체 구축
학교 환경교육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청소년 요구 실현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li> </ul>	3-1.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3-2.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
청소년수련시설(환경 교육센터 운영) 관장 및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교육센터의 지역 거점화 기능 지원 필요</li> <li>기후환경분야 청소년 활동 플랫폼 구축 필요</li> </ul>	4-3. 환경교육센터 지정 청소년시설의 지역 거점 기능 지원 2-2.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구축·운영
기후환경 청소년동아리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기후 행동의 영향력 확산을 위한 동아리연대 플랫폼 마련</li> <li>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조직 마련을 통해 자발적, 능동적 활동 기획</li> </ul>	2-2.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구축·운영 2-4. 글로벌 청소년 기후 리더 양성 기획
진로직업 전문가, 민간 청소년교육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분야 미래직업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정책방안</li> <li>ESG 주제의 진로활동 연계방안</li> </ul>	6-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친환경분야 발굴 6-3.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청소년사업 개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정책담론을 개발하고자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교사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 청소년 활동가들과 함께 “청소년, 기후 위기 시대의 삶을 질문하다”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1차 집담회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가 청소년을 둘러싼 삶의 조건의 변화라는데 동의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안전과 복지를 보장받으며 살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여러

정책 영역의 주체, 즉, 학교,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 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에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이 사회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대의식과 공동체(혹은 플랫폼) 중심의 지속적인 활동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차 집담회에서는 기후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에 집중하여,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적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역시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경우 기후 위기 문제를 개인의 친환경적 실천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주거와 자립 문제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의 관점에서 생태적 삶을 추구할 권리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및 아동권리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청소년 기후권리 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기업 ESG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권리교육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표 VII-2. 청소년권리 관련 의견수렴 결과

참여자	의견 및 요구	정책 제안 반영 내용
청소년, 교사, 청소년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개개인의 실천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li> <li>• 청소년 기후 행동 공동체가 확산될 필요가 있음</li> <li>•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안전망 보장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함.</li> </ul>	1-1.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장 6-2.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6-4. 기후 적응·정의로운 전환 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사회복지 전문가, 아동권리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기후권리교육 개념 정립 및 교육 컨텐츠 개발 필요</li> <li>• 기업 ESG 경영 흐름에 따른 사회공헌사업 수요 변화에 맞춘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사업 기획 필요</li> </ul>	6-2.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6-3.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청소년사업 개발

청소년들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가, 활동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핵심은 더 많은 참여 기회(모델)의 제공, 참여 역량 계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기존 환경정책 및 최근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에서 시민 참여와 별도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다는데 공감대

를 이루었다. 청년 기후활동가들의 경우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나 청년들의 발언이 인정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 경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실행연구 사례와 같이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와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것도 참여 경로의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반면 지역 상황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직접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청소년 참여모델에 대한 제안은 탄소중립 참여기구 제도를 우선 제안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참여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표 VII-3. 청소년정책참여 관련 의견수렴 결과

참여자	주요 논의사항	정책 제안 반영 내용
환경·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 모델과 청소년 참여방안</li> <li>•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등, 거버넌스 참여 방안</li> </ul>	2-1. 국가탄소중립정책 청소년 참여 플랫폼 마련
청소년 참여기구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정책 연계 청소년 참여 모델의 실행 가능성</li> <li>•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를 포함한 참여 경로 다각화 필요</li> </ul>	2-2.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참여 모델 확산 2-3. 청소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참여 가이드 개발
실행연구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기회 보장 필요</li> <li>• 다양한 관심사와 역량을 반영한 활동 다각화 필요</li> </ul>	5-2.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구축·운영
청년, 청소년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한계 및 청소년과 청년의 역할</li> <li>• 청소년-청년 연대 방안</li> </ul>	5-3.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단체 지원

이와 같은 정책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연구진은 정책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책 영역별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모델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참여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와는 제7차청소년기본계획에 청소년의 기후 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등 중장기 청소년 전략 차원에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방안을 협의하였다. 환경부와는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기후 행동의 확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현장의 요구대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전문교육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활동 플랫폼 마련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VII-4. 정책실무협의회 주요 내용

정책 영역	담당자	주요 논의사항
탄소중립 정책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교육/국민참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실행연구 성과 공유</li> <li>• 탄중위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추진방안 논의</li> </ul>
사회환경교육	환경부 환경교육팀 담당자,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환경부, 청소년활동진흥원-국가환경교육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li> <li>• 청소년지도자 전문교육, 청소년 활동 플랫폼 마련 등, 협력사항 논의</li> </ul>
학교환경교육	교육부 학교환경교육지원사업 연구진(한국교육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기후 변화 인식·참여 실태조사 결과 공유</li> <li>• 청소년 주도성 기반 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li> </ul>
청소년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반영</li> <li>•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방안</li> <li>•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li> </ul>

## 2. 정책 제언

### 1) 정책 슬로건 및 정책과제

슬로건: **청소년 권리 실현**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미래**

<p><b>정책과제 01</b> 중장기 청소년 전략 수립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반영)</p>	<p>1-1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장(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1-2 청소년 탄소중립참여지원 자원 확보(기후대응기금) 1-3 청소년 기후환경 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p>
<p><b>정책과제 02</b>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 모델 개발·확산</p>	<p>2-1 국가탄소중립정책 청소년 참여 플랫폼 운영(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2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참여 모델 확산(가칭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운영) 2-3 청소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참여 가이드 개발 2-4 청소년 정책참여 제도를 위한 탄소중립 법령 개정</p>
<p><b>정책과제 03</b> 학교-지역사회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활성화</p>	<p>3-1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3-2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국립청소년수련시설) 3-3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체 구축</p>
<p><b>정책과제 04</b> 청소년 기관(시설)·지도자 역량 개발 지원</p>	<p>4-1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시설) 선정·지원 4-2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지자체 지원 유도 4-3 환경교육센터 지정 청소년시설의 지역 거점 기능 지원 4-4 사회환경교육 연계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회 확대</p>
<p><b>정책과제 05</b> 다양한 청소년 주도 기후행동 확산 지원</p>	<p>5-1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행동 전략 및 실행 가이드 개발·보급 5-2 청소년 기후행동 연대 플랫폼 구축·운영 5-3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단체 지원 5-4 글로벌 청소년 기후리더 양성</p>
<p><b>정책과제 06</b> 기후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통합지원 방안 마련</p>	<p>6-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친환경분야 발굴 6-2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6-3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청소년사업 모델 개발 6-4 기후 적응·정의로운 전환 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p>

그림 Ⅶ-2. 정책 슬로건 및 정책과제

## 2)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 정책과제 01 중장기 청소년 전략 수립(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반영)

#### 제안 배경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 위기 문제 대응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청소년정책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의 당사자로서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탄소중립 미래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청소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장을 명시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기존 청소년정책추진체계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 정책 영역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1-1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장(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기후 위기 시대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 방안 마련을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전략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23년부터 실시되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장을 청소년정책의 책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4항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상에 청소년정책의 추진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은 <그림 VIII-3>과 같다. 이를 기본 골격으로 삼아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 관련 내용

-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1-1. 청소년 참여 확대
  -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
-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4-1.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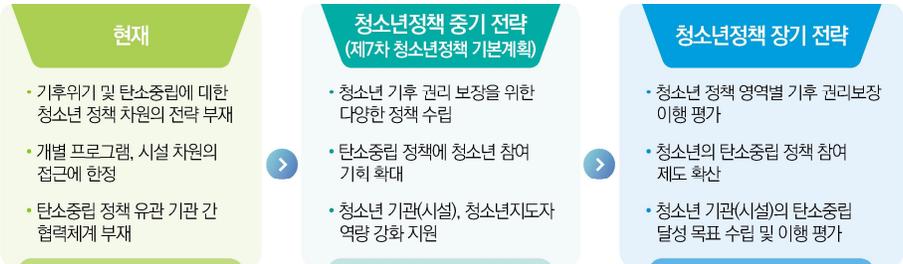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23~2027) 반영 제안

**정책 목표:**  
**탄소중립 전환의 시대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 및 참여 보장**

- 청소년 기후 권리 증진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청소년정책 추진내용 반영
- 청소년 주도적 기후행동 전략 개발 및 확산
- 청소년 기관/시설 역량 강화(탄소중립 달성 목표 제시)
- 탄소중립 유관기관 협의회 구축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지원 확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산림청 외 주요 에너지·환경 공기업 및 공공기관)
- 기후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통합지원 방안 마련

**그림 VII-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내용**

제7차 기본계획은 중기 전략으로서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청소년정책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개별 프로그램, 시설 차원에 한정된 실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으며, 탄소중립 정책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청소년 기후 권리 보장에 대한 이행·평가 방안 마련,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에서 청소년 참여 제도 확산, 청소년 기관(시설)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 제시 등, 청소년정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 기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VII-4.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정책 중·장기 전략**

## 1-2 청소년 탄소중립참여지원 재원 확보(기후대응기금)

청소년정책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청소년기금 마련의 해외사례로는 유럽연합의 그린 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틴스포그린 프로젝트(7년간 550억 유로), 아일랜드 청소년기후 정의기금(2021년 50만 유로) 등이 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 가운데 6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조항은 청소년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로써 뒷받침될 수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총괄적인 운영은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추진단 추진총괄과)에서 담당하지만, 실제 사업집행은 13개 부처에서 담당하며, 2022년 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사업과 유사한 취지를 지닌 사업으로는 교육부의 학교환경교육 지원 전담기관 운영 사업이 있다. 청소년 사업의 경우 학교 밖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확산과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역량 강화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사업 제안이 가능하다. 이에 기금 활용 청소년사업 예산은 연간 총 8억 규모로 제시하고, 아래 세부 과제에서 추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표 VII-5. 기후대응기금 관련 현황 및 활용 방안

관련 근거 <sup>88)</sup>	기금 활용 현황 <sup>89)</sup>	기금 활용 청소년사업 예시(연간 총 8억 조성)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70조 기금의 용도 6.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총 2.4조원 규모 예산 확정</li> <li>• 주요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li> <li>• 참고 사업: 교육부 학교환경교육 지원 전담기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지원(2억)</li> <li>- 청소년시설 탄소중립실천(2억)</li> <li>- 글로벌 청소년 기후 리더 양성(1억)</li> </ul> </li> <li>• 청소년의 탄소중립정책 참여지원(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연계 청소년 활동 확산(1억)</li> <li>-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단 운영지원(2억)</li> </ul> </li> </ul>

8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_0924\)](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_0924)) (검색일: 2022. 10. 12)

8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25.).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영심의회 개최.

### 1-3 청소년 기후환경 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후환경과 관련된 청소년 사업의 발굴은 관련 전문 분야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과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환경·에너지 분야 공기업·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기후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확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환경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가환경교육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환경부의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서 환경분야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연계협력 과제 명시되어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역사회 청소년-환경교육 협력 추진의 포컬포인트(focal point)로서, 조직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포컬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VII-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방안

세부 과제	추진 내용	담당부서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환경·에너지 분야 공기업·공공기관 등</li> </ul>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국가환경교육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활동과 사회환경교육 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개발</li> <li>청소년지도사의 환경교육 역량개발 지원</li> <li>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 간 교류·협력 지원</li> <li>사회환경교육사업에 청소년수련시설 참여기회 확대</li> </ul>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가환경교육센터

### 제안 배경

탄소중립 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정책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은 미래세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명목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단순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실질적 영향력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참여기구 중심의 청소년 참여 활동에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활동 경로를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2-1 국가탄소중립정책 청소년 참여 플랫폼 운영(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탄소중립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도 주요 사무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시민회의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정책 학습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통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 실행연구 사례에서 청소년들은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에 대한 해석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기본 개념을 스스로 학습해 나가고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관점이 정책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의 청소년 활동은 이처럼 청소년들이 스스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 내고, 학습과 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기획하며, 주요 사안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정책 전문가와의 교류 등, 참여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참여 기구 활동과 연계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 활동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회 및 부처 차원의 포상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VII-7. 국가탄소중립정책 청소년 참여 플랫폼 운영 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미래세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권리 보장 필요</li> <li>유럽연합과 국가별 기후 거버넌스에서 청소년 참여 지원</li> <li>실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참여 성과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민정책참여 플랫폼(2022년 용역 추진 중)에 청소년 활동의 장 마련</li> <li>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li> <li>퍼실리테이터(청년활동가, 청소년 지도자, 환경교육전문가 등) 지원</li> <li>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기구 활동 연계</li> <li>위원회 및 부처 명의 우수 사례 포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친화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소통 추진</li> <li>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li> <li>여성가족부</li> </ul>

## 2-2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참여 모델 확산(가칭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운영)

현재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직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수렴 장치는 제도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본 연구에서의 실행연구 결과는 지자체-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간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운영 성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참여 활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 담당부서와 탄소중립위원회에 청소년 의견수렴 장치의 마련을 안내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후정책 부서의 주관으로 환경교육팀과 청소년 팀이 협력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며,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시설에서 정책단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연계, 정책단 운영에 필요한 지도자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인프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정책단 운영 사례가 발굴·확산되면, 그 이후에는 전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정책단 활동을 공유하고, 국가 수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의 통로로서 조직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전국단위 활동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각 부처별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표 VII-8.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참여 모델 확산 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에 청소년 참여 장치 부재</li> <li>• 실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참여 성과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에서 기후정책 부서, 환경교육팀, 청소년 팀이 공동으로 행·재정적 지원</li> <li>• 청소년기관(시설)에서 청소년 모집, 사전 교육, 활동 지원</li> <li>•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 등, 전문자원 연계</li> <li>• 이후 탄소중립기본조례 및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지침에 청소년 참여 제도화 방안 마련</li> <li>• 2050탄소중립위원회 우수 사례 포상</li> <li>• 전국적인 정책단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활동 공유 및 국가 정책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 마련</li> <li>• 참고 사례) 유럽연합 EYES 프로젝트(표III-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탄소중립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시너지 효과</li> <li>•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에 청소년의 실질적 영향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li> <li>• 여성가족부</li> <li>•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li> </ul>

실제 정책단의 운영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센터형(참여기구 외)은 실행연구에서와 같이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 외 별도의 기구로서 정책단 참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역 내에서 환경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청소년참여기구 연계형은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운데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간 협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산하기구로서 정책단을 운영하고, 청소년센터는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 주도성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과 참여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모든 유형에 있어 정책단 운영의 원칙은 1) 정책 개발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가 아닌 정책 수립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의 폭을 넓힐 것, 2) 정책 이해, 소통, 개발, 평가 등, 청소년들의 관점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다양한 활동의 기획을 허용하고 인정할 것, 3) 참여과정에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실제 정책 반영 등, 권한을 인정할 것 등이다.

표 VII-9.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운영 모델(안)

추진 주체에 따른 유형	방법	운영 원칙(공통) <sup>90)</sup>
청소년 센터형 (참여기구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구 외 정책단 활동 참여자 모집</li> <li>• 지역 내 환경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센터에서 주도적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정책 전반의 과정에 참여</li> <li>• 정책 이해/소통/개발/평가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획</li> <li>• 청소년 참여 역량 개발 및 권한 인정</li> </ul>
청소년 참여기구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 참여자 모집</li> </ul>	
지역사회 연계형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산하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간 전문성 공유와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강점</li> <li>-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정책적 지원에 강점</li> <li>- 청소년 센터: 청소년 주도적 운영 방안 마련에 협력</li> </ul> </li> </ul>	

### 2-3 청소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참여 가이드 개발

위에서와 같이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원칙과 목표, 활동 방법 안내 등을 담은 가이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과제 실행연구의 두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원칙, 단계, 방법 등을 일반화하여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책 참여 활동 운영을 위해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지자체부서, 지역사회 등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내 자료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와 청소년센터 등에 배포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90) 실행연구 결과 참조(그림 VI-1).

표 VII-10. 청소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참여 가이드 개발 추진 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정책 참여성과 확인</li> <li>• 다양한 참여 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안내자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과제 실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 원칙, 단계 등, 안내자료 개발</li> <li>• 전문가 협의(정책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를 통해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지자체부서, 지역 사회 등, 역할 안내</li> <li>• 각 지자체와 청소년센터에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시너지 효과</li> <li>•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에 청소년의 실질적 영향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연구용역)</li> </ul>

#### 2-4 청소년정책참여 제도화를 위한 탄소중립 법령 개정

유럽에서는 기후 거버넌스에 청(소)년 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청년 위원들이 활동하는 등,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수립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되었고, 전문적인 정책 논의에 있어 청소년과 청년들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경험은(2022.9.21. 자문회의), 정책참여의 제도화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 부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탄소중립 기본법과 조례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 청소년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당장보다는 실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사례가 축적이 되고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다.

표 Ⅷ-11.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제도화 방안(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현행	개정 방안
<p>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p> <p>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p>	<p>상동</p> <p>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청소년, 청년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p>
<p>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마련)</p> <p>정책 제안 플랫폼은 청소년, 청년,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p>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https://www.law.go.kr/법령/기후_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_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  
(검색일: 2022. 10. 12)

정책  
과제 03

학교-지역사회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활성화

제안 배경

최근 학교 환경교육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 활동 간 체계적인 협력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개별 지역 또는 청소년 기관(시설)에서의 협력 사례에 그치고 있어 성과 확산에 제한이 있다.

이에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 지역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소년 기관(시설)에 대한 참여 수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환경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후와 탄소중립 주제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활동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탄소중립 이슈의 반영, 탄소중립 이행에 큰 책무를 지닌 공기업, 공공기관, 기업 등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 3-1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

4장 사례분석 결과,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활동 및 전국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회의(2022.9.26.)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근 기후·환경 분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고 시설 및 기관차원에서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콘텐츠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에서의 늘어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을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 급별, 주제별, 활동 유형별 청소년 활동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학교 협력 프로그램 예시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학교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기후·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부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와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콘텐츠 측면에서는 기후·탄소중립 산업분야 일자리의 변화, 기업가 정신 등을 포함한 진로·직업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진로체험을 직접 제공하는 진로 체험처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 기관 특색 사업으로서의 수요가 있다.

표 VII-12.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추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환경교육 연계 프로그램 수요 증가</li> <li>•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많으나 활동 주제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탄소중립 주제의 청소년 활동 역량 개념 요소 및 활동 요소 개발</li> <li>• 초·중·고 교육과정 분석 및 청소년 활동 연계성 분석</li> <li>• 학교급별/주제별/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제공</li> <li>•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 기본틀로 참고하도록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역량기반 기후·탄소중립교육 효과성 제고</li> <li>•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li> <li>•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진로교육정책과</li> </ul>

표 VII-13. 참고: 학교-청소년기관(시설) 협력 사례

사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천안태조산수련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연계 환경프로젝트 수업</li> <li>• 지역 내 학교 1,2학년 전체 대상</li> <li>• 12개 주제별 전문가 강사 섭외 및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차시 환경교육지도안 개발</li> <li>• 지역 내 학교 17주 파견(자유학년제)</li> <li>• 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운영</li> <li>• 학교급, 개별학교 맞춤형 확산·보급</li> </ul>

\* 출처: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2022). 내부자료.  
천안태조산수련관(2022). 내부자료.

### 3-2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국립청소년수련시설)

위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를 갖추는 한편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들을 중심으로 체험형, 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홍보를 통해 코로나 19이후 늘어난 청소년수련활동의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농생명센터, 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자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후·탄소중립의 전체적인 주제를 고려하여 시설별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탄소중립 이슈의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교통, 건축, 농업 등, 소재를 다변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큰 책무를 지닌 공기업,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 활동의 사회적 임팩트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의 프로그램을 맵핑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 필요한

수련활동을 선정·참여하는데 실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표 VII-14.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 추진 방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현황	체계화 방법	기대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 탄소중립 실천활동(온라인, 학교방문, 숙박형 등)</li> <li>• (농생명) 학교 연계 초·중등 환경교육프로그램(5차시)</li> <li>• (미래) SDGs 테마별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탄소중립 내용 분석 및 프로그램 추가 개발</li> <li>• 지역 탄소중립 이슈 반영,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 기업 연계</li> <li>• 교육과정 연계 요소, 평가지 제공</li> <li>• 국립시설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도 제작 및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환경교육을 보완한 체험 및 실천 중심 역량 개발 기회 제공</li> <li>•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각 국립수련시설</li> </ul>

### 3-3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체 구축

각 교육청의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수의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또는 지역연계 기관협의체 구축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표 IV-7 참고). 반면 청소년 활동 분야와의 협력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국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회의, 2022.9.26.).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관계기관 합동, 2022.10.6.)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 지원시설 간 상시 협의체인 (가칭)‘지역청소년 활동지원 협의체’ 구축하고, 향후 청소년정책-학교교육 간 연계·협력을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환경교육 자원 간의 연계·협력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역 내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하여 탄소중립 관련 공기업과 공공기관, 기업 등, 탄소중립 이행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표 VII-15.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체 구축 추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간 연계협력에 있어 지역 별 편차있음</li> <li>• 탄소중립 기관 및 기업 협력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교육 연계·협력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축</li> <li>• 지역 탄소중립위원회, 공기업, 공공기관, 기업 등, 협력 주체 다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연계 협력의 지속성 강화 및 제도적 바탕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li> </ul>

제안 배경

학교 환경교육(교육부) 및 사회 환경교육(환경부)의 지원방안과 비교하여 청소년 활동의 지원은 매우 약하다. 증가하는 청소년 환경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청소년 기관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의 확산을 위해서는 청소년 기관(시설) 및 지도자 스스로 역량 개발에 힘쓰는 한편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시설)을 선정·지원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해 나가야 하며, 환경교육 분야와 연계하여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기회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4-1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시설) 선정·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행동 확산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 기관(시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위 프로그램사업에서 기후·환경 주제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 기관 전체적인 실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활동」을 통해 기관 차원의 ESG 전략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안)를 개발하였다. 정책연대 소속 기관 6개 기관 가운데 3개 기관에서 이미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향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실천 노력이 자발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아일랜드 NYCI 사례 참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실천 계획 수립과 이행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 중점학교, 시범학교 등 다양한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 건축 등, 탄소중립 실천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공공수련시설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10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 진단·컨설팅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표 VII-16.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시설) 선정·지원 추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방안	기대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활동 단위 사업을 넘어 기관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전략 필요</li> <li>• 학교의 경우 탄소중립중점학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기관(시설)의 ESG 전략 및 실행 가이드 개발: 청소년 활동, 기관경영, 시설관리 분야</li> <li>• 청소년 운영위원회 중심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 활동 실시</li> <li>• 우수기관 선정 및 홍보 확산</li> <li>• 청소년시설 탄소중립 실천 온라인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기관(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기여도 제고</li> <li>• 지자체 청소년 기관(시설) 지원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li> <li>•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컨설팅)</li> </ul>

표 VII-17. 청소년기관(시설) 친환경시설사례

사례	특징
<p><b>풀무원 로하스아카데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청소년수련관</li> <li>• 특징: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로 건설된 친환경건축물</li> <li>• 수상: '제18회 올해의 에너지상' 대상(국무총리상),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민간) 대상</li> </ul>
<p><b>칠보청소년문화의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문화의집</li> <li>• 특징: 자연채광 활용(실내 구역별 빛의 유입과 효과), 옥상 정원</li> <li>• 수상: '2017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li> </ul>

\* 출처: 김경준 외(2021).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항목	소항목
청소년 활동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증진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관련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관련 청소년 활동 기획시 청소년 주도적 참여 정도
	관련 지도자 연수 및 역량강화 참여 정도
	관련 사업운영의 지속가능성(조직/예산/부처·지자체·교육청 지원 등)
기관 경영	기관 비전에 기후위기 대응 또는 탄소중립 관련 내용 포함 여부
	기관 경영계획에 관련 내용 포함 여부(ESG, 지속가능경영 관련 포함)
	조직 구성 및 운영상의 탄소중립 관련사항 우선순위 반영 정도
	기관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정도
	기관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여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영향력 제고 방안	
시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여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시설 개보수 계획에 탄소중립 관련 내용 반영
	친환경적 시설 설치 및 활용 정도

그림 Ⅶ-5. 청소년 기관(시설)의 ESG 경영 체크리스트(안)

#### 4-2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지자체 지원 유도

위에서 제시한대로 여성가족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청소년 기관(시설)을 지원·관리하는 지자체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먼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항목으로 지자체 시행계획에 ‘청소년 기관(시설) 탄소중립 실천 지원’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가운데 ‘유관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분야

에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원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설치 및 운영계획서 상의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의 문구를 ‘탄소중립 실천 목표 수립 및 이행방안’이라는 보다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관(시설)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담당 공무원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기간 동안은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전략을 펴나가고, 이후 성과를 종합하여 향후에는 청소년 기관(시설)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예를 들어, 2040년까지 모든 시설의 탄소중립 달성) 이행·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VII-18.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지자체 지원 유도 추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청소년 시설의 노력만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확산 어려움</li> <li>• 지자체 관심 제고 및 지원 필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자체 청소년 시행계획에 반영(제7차 계획 추진에 따름)</li> <li>2)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가운데 ‘유관 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 사례 제시</li> <li>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서의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을 탄소중립 실천 목표 수립 및 이행방안’으로 확장</li> <li>4)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li> <li>5) 장기적으로 청소년 기관(시설)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 제시</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li> <li>•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과 유기성 강화를 통한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청소년 활동안전과(제도개선)</li> <li>• 각 지자체</li> </ul>

### 4-3 환경교육센터 지정 청소년시설의 지역 거점 기능 지원

지역사회 환경교육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며, 전체 60개소 가운데 5곳은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지원 편차와 시설 간 경험의 차이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있어, 지역에서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자문회의 2022.9.15.) 이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여 이 시설들을 청소년 환경교육의 지역 거점으로서 전략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지원은 청소년 지역

환경축제, 청소년 환경참여예산제 등, 청소년 시설의 장점을 살린 특화 사업에 초점을 두며, 더 나아가 센터 간 연합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시설에서의 환경교육센터 운영 전략을 마련해 가는데 목표를 둔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현재 4곳에서 16곳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이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역시 확대·지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청소년 환경교육의 노하우를 확산함으로써, 향후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있어 청소년 시설의 참여 기회를 확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표 VII-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원방안

현황 및 문제점	지원 내용(예시)	기대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지원 예산 규모차이가 큼.</li> <li>• 예산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공모사업을 다수 운영함으로써 운영비를 충당하는 상황</li> <li>• 환경교육센터는 대상 연령층이 넓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적임</li> <li>• 센터 개별적으로 운영, 청소년 시설로서의 특화된 전략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지역환경축제, 청소년 환경참여예산제 등, 특화사업 발굴</li> <li>• 5개 센터 간 연합활동 실시</li> <li>• 청소년 시설의 환경교육센터 운영 전략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시설의 기후환경분야 지역 거점 기능 토대마련</li> <li>• 향후 환경교육센터 확산에 있어 청소년 시설의 참여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li> </ul>

#### 4-4 사회환경교육 연계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회 확대

기후·환경 분야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며, 이를 갖추지 않고는 단순 실천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다양한 주제의 기후·환경 분야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의 불확실성, 방대한 정책 범위 등으로 인해 활동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양한 전문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환경 관련 연수는 각 수련시설이나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1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크다. 다행히 올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서 2023년 운영을 목표로 청소년 기후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 활동의 기획에 좀 더 초점이 있어 환경지식의 심화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의 기본개념 및 주요 정책 사안을 다루는 심화과정이 향후 개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내 환경교육 강좌 지원 계획이 담겨져 있어, 국가환경교육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보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환경부 사업과 적극 연계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분야 국가자격증으로 환경교육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 환경교육지도사 3급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고, 이수하고 싶지만 양성과정 신청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에서 연간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운영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인원을 별도 배정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환경교육사 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 타 분야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청소년시설의 경우 이미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 더욱이 올해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에서는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사를 1명이상 고용한 경우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에는 환경교육사업 참여기회 부여, 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의 환경교육사 취득은 환경교육센터가 아닌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도 환경교육사업 참여 기회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교육사 취득이 아닌 다른 방법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 아카데미 사업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고,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카데미 사업은 지역사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 내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업 지원을 받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지역 내 학습모임을 조직·운영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공유·확산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VII-20. 사회환경교육 연계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회 확대 추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담당부서(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지도자의 기후환경 전문교육 기회 부족</li> <li>• 각 수련시설 및 사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일회성 연수로 진행</li> <li>• 환경교육사 취득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환경교육센터의 다음 사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사3급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일부 학점 인정 가능)</li> <li>- 환경교육 아카데미 사업 지원(전문역량 개발)</li> <li>- 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역별 학습모임을 운영하여 전문성 전파에 기여</li> </ul> </li> <li>• 청소년활동진흥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국가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지도자의 기후환경 활동 전문성 강화 및 전파</li> <li>• 향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 지원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환경부 환경교육팀 협력 (제도 개선)</li> <li>•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가환경교육센터</li> </ul>

## 정책과제 05 다양한 청소년 주도 기후 행동 확산 지원

### 제안 배경

청소년 기후 행동은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활동과 같은 친환경 실천에서 에너지, 기후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데, 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요구에 맞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때 지역사회 기관들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기후 행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 가이드와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기후 행동 가이드의 개발, 청소년 연대 플랫폼의 구축, 자생적인 청소년 기후활동단체의 지원, 글로벌 리더 양성 등 청소년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후 행동을 기획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 5-1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행동 전략 및 실행 가이드 개발·보급

단편적이고 개인 실천 중심의 청소년 활동 콘텐츠에서 벗어나고 청소년 주도적 활동의 다각화와 청소년 활동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 위기의 다양한 현상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포괄하는 청소년 기후 행동 전략 및 실행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구성 내용으로는 먼저 청소년 기후 행동의 여러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절차적 흐름과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활동의 콘텐츠 마련을 위해 기후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와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 관련하여 심화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출처를 제시한다. 또한 여러 활동 유형별 기존 우수 사례를 제시하여 활동의 흐름과 성과를 예상해 보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관차원의 역할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고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목차와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3장에서 제시한 아일랜드 NYCI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 개발은 문헌조사 및 사례 조사를 필요로 하므로 연구용역으로 실시하며,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 VII-21. 청소년 기후 행동전략 및 실행가이드 개발 방안

구성 내용	추진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후 행동의 목표</li> <li>• 청소년 주도적 활동의 설계</li> <li>• 기후환경 관련 정보 및 자원</li> <li>• 유형별 우수 사례</li> <li>• 청소년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역할</li> <li>• 청소년 주도 활동 기획 목차 및 체크리스트</li> </ul> 참고) 아일랜드 NYCI 사례(표 III-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실천 중심에서 에너지, 주거, 교통, 기후 정의,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 포함</li> <li>• 연구용역으로 실시</li> <li>•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기후 행동 콘텐츠 다각화</li> <li>• 청소년 활동시설의 전문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li> </ul>

## 5-2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구축·운영

청소년들의 기후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의 확산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연대하여 스스로 기획하고 조직할 수 있는 활동 플랫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의 목소리를 모아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는 등, 청소년 주도의 지속적인 기후 행동 연대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이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포털, 교육부 학교 환경교육 지원 플랫폼, 여성가족부 e청소년, 각 교육청의 환경교육 협의체, 지역별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등과 같이 각 정책추진체계별로 구축·운영되는 플랫폼과 차별되는 지점은 기존 플랫폼이 주로 정보 공유와 홍보 기능에 초점을 둔다면, 청소년 연대 플랫폼은 청소년 주도의 활동 기획과 확산이라는 청소년 참여 기반 콘텐츠 생산에 초점을 두는 점이다. 또한 기후 행동 1.5°C, 지구공과 같이 탄소중립 실천 기록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두는 어플리케이션과의 차이점은 캠페인, 봉사, 사회참여 등, 목표를 공유한 청소년들이 지역과 학교(또는 기관·단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운영 방향과 원칙은 ‘기후환경 청소년동아리연합’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기본 토대로 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 운영위원을 모집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정해 나갈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현재 개발 중인 사이트를 통해 마련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플랫폼 홍보, 운영 경비, 청소년 콘텐츠 개발 관련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표 VII-22.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추진 방안

기존 유사 플랫폼의 기능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의 차별성	추진방법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및 자원 공유와 홍보</li> <li>•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li> <li>• 탄소중립 개인 실천 활동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및 콘텐츠 생산</li> <li>• 기관이 아닌 청소년 중심의 기획과 운영</li> <li>• 연대를 통한 사회참여와 영향력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환경교육센터 플랫폼 기능 수정·보완(23년 오픈 예정)</li> <li>•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li> <li>•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환경교육센터(플랫폼 지원)</li> <li>•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비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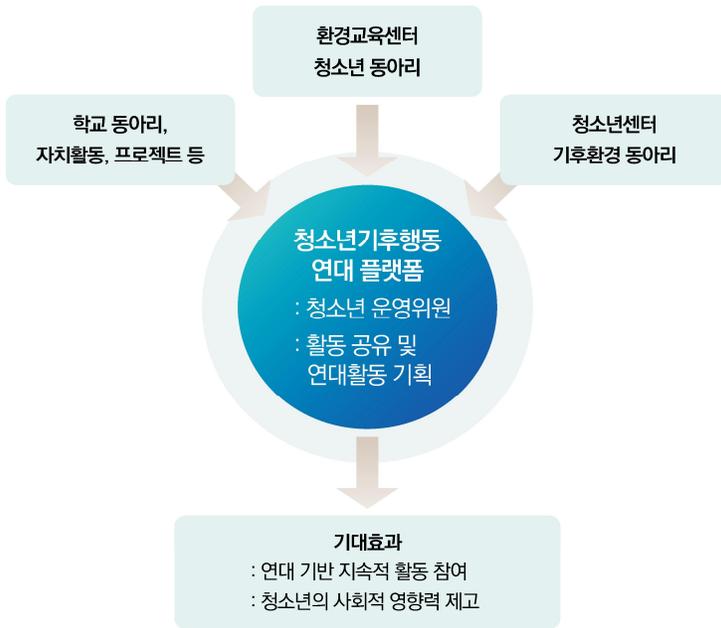


그림 VII-6. 청소년 기후 행동 연대 플랫폼 개념도

### 5-3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단체 지원

2장에서 청소년 기후 운동, 3장 유럽 기후거버넌스에서 청소년조직의 영향력, 4장 청소년활동가단체의 활동 사례 등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은 더 이상 미래세대로서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실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기후 활동은 학교나 청소년센터 등의 동아리로부터 출발할 수 있으나 운영 기관의 방침에 따라 활동 기간과 운영방법 등이 다소 제한적이고 규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에 청소년 기후 활동 조직이 보다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 단체는 스스로 운영의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한다는 점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활동이 가능하다. 지역 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후 청년으로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리더로서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의 지원은 활동 공간의 대여와 기본적인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 연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예산은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환경교육센터의 기존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표 VII-23. 지역사회 자생적 청소년 기후 활동단체 지원방안

기존 동아리·자치활동의 특성	자생적 청소년 조직 운영의 방향	기대효과	담당부서(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또는 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활동 기간, 방법에 제한</li> <li>지속적인 활동 기회 및 파급효과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운영의 목표와 방법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li> <li>운영비 지원시 연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 자율성 보장</li> <li>청년 활동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발성과 주도성에 기반한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li> <li>지역사회 청소년 기후리더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수련시설(공간 대여)<sup>91)</sup> + 환경교육센터(동아리지원) 등, 다양한 협력구조 가능</li> </ul>

#### 5-4 글로벌 청소년 기후리더 양성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자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국제 교류·협력의 좋은 소재이다. 유럽연합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 간의 자발적인 활동 조직화를 지원하고 기후 거버넌스에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단기간의 교류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는 우리나라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가적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대상국의 기후 위기 대응과 회복력 지원과 관련된 청소년 사업을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이에 2021년부터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에서 기후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고, 메타버스 기반 활동 기반이 구축된 것을 활용하여 아시아 청소년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밋의 결과가 현재와 같이 정책 제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기후 취약국가 청소년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국제적 협력방안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91) 참고 사례: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동아리 지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외교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와 환경부의 ‘한·중·일 청년 환경 포럼’이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청소년 연령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이들 사업은 환경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초점이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기후 문제 협력을 계기로 각국의 청소년 단체 및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강화, 현지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교류협력(봉사) 프로젝트 발굴에 초점을 둬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표 VII-24. 글로벌 청소년 기후리더 양성 추진 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후 리더 양성 및 국제 청소년 네트워크 지원</li> <li>참고 사례 유럽 연합 유로 트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으로 구축된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li> <li>아시아 기후 취약국가 청소년협력 프로젝트 선정·지원</li> <li>아시아 청년(후기청소년) 기후리더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환경분야 청년 국제 리더 양성</li> <li>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다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li> </ul>

정책과제 06

기후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통합지원 방안 마련

제안 배경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 위기 영향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탄소중립 추진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의 취약계층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보다 확장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에 청소년분야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기존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에서 기후·탄소중립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복지사업을 확장하는 형태의 통합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6-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친환경분야 발굴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은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의 육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계기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청년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이 친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경우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해 지역사회 현안문제(원도심 재생·복지·환경 등) 관련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청년사업가를 육성하고 있다.

표 VII-2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친환경분야 발굴 추진 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청소년에 비해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기후환경 분야 교육과 활동 지원이 부족함</li> <li>• 친환경 녹색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짐</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환경 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 카페, 생태농업, 녹색소상공인 등, 지역 지원 발굴하고, 지자체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사업(직업장, 인턴십 등)에 반영</li> <li>2) 여성가족부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으로 친환경 녹색산업 분야 신규 발굴 및 지정</li> <li>3) 학교밖청소년의 사회적기업 취업시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취약계층' 근거마련)<sup>92)</sup></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청소년의 미래유망분야 자립 설계 유도</li> <li>•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내일이룸학교)</li> <li>• 지자체 학교밖청소년 및 청년 지원부서</li> <li>•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제도개선)</li> </ul>

## 6-2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탄소중립 담론에서 '기후 정의'가 강조되는 것도 산업과 기술의 혁신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집담회 및 자문회의). 따라서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의 확대는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에 영향을 받을

92) 2021년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 개선으로 청소년 쉼터 입·퇴소자를 우선지원 대상 취약계층으로 인정함(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11.10.)

가능성이 크다. 4장에서 살펴본 대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은 아직까지 정책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청소년정책차원에서는 청소년복지사업과 기후·탄소중립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분야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식생활, 주거복지, 에너지복지, 친환경일자리 등을 포함한 환경복지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정기 세미나 및 협의회 등의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포괄적인 복지체계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및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역사회 환경교육 지원사업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예컨대 환경교육사 신규 교육생·인턴십 지원과정에 취약계층 우대사항을 포함한다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VII-26.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후환경 분야 교육과 활동지원이 부족함</li> <li>•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복지 프로그램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정기 세미나 및 협의회 운영: 식생활, 주거복지, 에너지복지, 친환경일자리 등 -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li> <li>2) 환경교육사 신규 교육생·인턴십 지원과정에 미취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 우대사항 포함 내용 등, 환경교육 분야 지원정보 상시 공유</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복지사업 확대 계기 마련</li> <li>• 탄소중립사회로의 정당한 전환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학교밖청소년지원과</li> <l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li> </ul>

### 6-3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청소년사업 모델 개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서도 기후 변화 관련 주제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자문회의), 이는 4장에서 살펴본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업의 청소년 에너지교육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청소년보다는 아동 분야에 치우쳐있어 청소년에 특화된 사업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기업 수요 조사 등,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사업의 모델 개발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장의 현황에서 보여주듯이, 청소년기후리더 양성, ESG 교육, 청소년기관·시설 에너지복지 지원 등은 청소년 분야와 기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보인다. 이에 이들 주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사업모델의 실행방안과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과 우수 사례 발굴 및 표창 등을 통해 사업 홍보와 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sup>93)</sup>.

표 VII-27.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청소년사업 모델 개발 추진 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ESG 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 사회공헌사업의 다변화에 따라 청소년 사업 수요 증가</li> <li>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기후환경 프로그램 또는 복지지원은 주로 아동분야에 치우쳐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수요 조사</li> <li>유관기관 협의체 구축</li> <li>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사업 기획: 청소년기후리더 양성, ESG 교육, 청소년기관·시설 에너지복지 지원 등</li> <li>우수 사례 발굴 및 표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협력을 통한 청소년복지사업의 확대</li> <li>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li> </ul>

#### 6-4 기후 적응·정의로운 전환 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틴스포그린 프로젝트는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일자리와 지역 성장정책과 관련된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청소년 워크숍, 영국의 홍수 피해 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선언 프로젝트 등도 기후 정의, 기후재난 등의 주제가 청소년 주도의 활동과 결합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9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9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참고할 만하다(에코타임즈, 2022.6.8).

는 점에서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기초조사와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청소년 관련 사안을 분석하고, 기후재난 발생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등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실제 청소년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발굴하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영역을 다각화하고, 기존 청소년 참여활동 및 권리교육 등에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I-28. 기후 적응·정의로운 전환 관련 청소년 지원 추진 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교육과 활동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는 반면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 취약계층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후 변화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 분석</li> <li>• 기후 재난 발생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등, 해당 지역별 청소년 의견수렴 및 활동 프로젝트 실시(유럽 틴스포그린 사례 참조)</li> <li>• 국가 및 지자체 정책에 청소년 목소리 반영 및 지원 방안 도출</li> <li>• 청소년 참여활동 및 권리교육 등에 적용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위기 시대 청소년 안전·복지·노동 정책과제 발굴</li> <li>•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협동연구)</li> <li>• 환경부, 기상청 협조</li> </ul>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추진 시기		주관
		단기	중장기	
1.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중장기 청소년 전략 수립	1-1.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장(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1-2. 청소년 탄소중립참여활동 재원 확보(기후대응기금)		○	여성가족부
	1-3. 청소년 기후환경 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2.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 모델 개발·확산	2-1. 국가탄소중립정책 청소년 참여 플랫폼 운영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여성가족부
	2-2.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참여 모델 확산		○	지자체, 여성가족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3. 청소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참여 가이드 개발		○	여성가족부
	2-4. 청소년 정책참여 제도를 위한 탄소중립 법령 개정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3. 학교-지역사회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활성화	3-1.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	여성가족부, 교육부
	3-2. 학교 연계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각 국립수련시설
	3-3.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체 구축		○	여성가족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4. 청소년 기관(시설)-지도자 역량 개발 지원	4-1.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시설) 선정·지원		○	여성가족부, 환경부
	4-2.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지자체 지원 유도		○	여성가족부, 지자체
	4-3. 환경교육센터 지정 청소년시설의 지역 거점 기능 지원		○	지자체(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4-4. 사회환경교육 연계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회 확대		○	여성가족부, 환경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국가환경교육센터
5. 다양한 청소년 주도 기후행동 확산 지원	5-1.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행동 전략 및 실행 가이드 개발·보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2. 청소년 기후행동 연대 플랫폼 구축·운영		○	국가환경교육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3.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단체 지원		○	각 수련시설, 환경교육센터
	5-4. 글로벌 청소년 기후리더 양성		○	여성가족부
6. 기후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통합지원 방안 마련	6-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친환경분야 발굴		○	여성가족부, 지자체, 고용노동부
	6-2.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후·탄소중립 연계성 강화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3. 기업 CSR 연계 청소년 사업 모델 개발		○	여성가족부
	6-4.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 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그림 VII-7. 정책추진 로드맵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원도교육청 (2022). **2022 강원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 춘천: 강원도교육청. <https://www.seeic.kr/board/citydata/view/416.do?searchword=&searchkey=&page=1> (검색일: 2022. 10. 12).
- 강이현 (2021). 유럽 미래세대의 환경정치 참여 현황과 과제. **해외환경정책동향(2021-03호)**. pp.34-48. [https://www.kei.re.kr/board.es?mid=a10102060000&bid=0032&list\\_no=57730&act=view](https://www.kei.re.kr/board.es?mid=a10102060000&bid=0032&list_no=57730&act=view) (검색일: 2022. 5. 30).
- 경기도교육청 (2022). **2022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계획**. 수원: 경기도교육청. <https://www.seeic.kr/board/citydata/view/417.do?searchword=&searchkey=&page=1> (검색일: 2022. 10. 12).
- 경상남도교육청 (2022). **2022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workroom&menuCd=DOM\\_000001870030000000&contentsSid=6554&dataSid=1499257](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workroom&menuCd=DOM_000001870030000000&contentsSid=6554&dataSid=1499257) (검색일: 2022. 10. 12).
- 관계기관 합동 (2022.10.6.). **학교교육과 청소년정책 간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29552> (검색일: 2022. 10. 20).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572](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572) (검색일: 2022. 10. 20).
- 관계부처합동 (2021a).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http://www.kcnac.co.kr/bbs/board.php?bo\\_table=reference&wr\\_id=6](http://www.kcnac.co.kr/bbs/board.php?bo_table=reference&wr_id=6) (검색일: 2022. 10. 20).
- 관계부처합동 (2021b).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http://www.climate.go.kr/home/cc\\_data/policy/3\\_nation\\_climate\\_change\\_adaptation\\_step\\_summary.pdf](http://www.climate.go.kr/home/cc_data/policy/3_nation_climate_change_adaptation_step_summary.pdf) (검색일: 2022. 10. 20).

- 관계부처합동 (2022).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https://www.odakorea.go.kr/contentFile/MSDC/40.pdf> (검색일: 2022. 10. 20).
- 교육부 보도자료 (2021.2.3.).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발표**. 세종: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83452> (검색일: 2022. 10. 20).
- 교육부 보도자료 (2021.12.7.).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기후 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 발표**. 세종: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89880> (검색일: 2022. 10. 20).
- 교육부 (2022).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0950> (검색일: 2022. 10. 20).
- 국가환경교육센터 전문자료 (2021). **2021년 청소년 환경·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서울: 국가환경교육센터. <https://www.keep.go.kr/portal/144?action=read&action-value=15746f0680c91d4e405b2d88833fe340> (검색일: 2022. 10. 12).
- 국가환경교육센터 (2022). **2022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업: 청소년대상 중심으로** 기후환경 정책연대 3차 회의(2022년 5월 25일) 발표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22).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기후환경 정책연대 3차 회의(2022년 5월 25일) 발표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25). **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영심의회 개최**. 세종: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326&menuNo=4010100](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326&menuNo=4010100) (검색일: 2022. 10. 20).
- 기후 세대유럽과 CEE뱅크워치 네트워크 (2022). *The state of youth engage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Just Transition Mechanism*. <https://www.just-transition.info/wp-content/uploads/2022/05/Briefing-The-state-of-youth-engagement-in-the-implementation-of-the-EU-Just-Transition->

- Mechanism.pdf (검색일: 2022. 10. 12).
- 김경준, 강경균, 변나향 (2021).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연구보고 21-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고운 (2019).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연구**(51-6110000-001220-13). 서울: 서울연구원.
- 김유빈 (2022). **청소년 미래산업 · 혁신 영역 토론문**. 제43차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아, 박성준, 정훈 (2020). **기후 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국회미래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1호).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김인호 (2021). **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기후·환경교육의 제도화 방안 탐색 기초발제**(2021년 11월 23일). 세종: 환경부.
- 김현노, 전호철, 이홍림 (202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KEI 사업보고서 2020-06-03).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 남채봉 (2013).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가 다문화시대 비판시민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45(2), 31-65.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11.10.).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사회적기업 취업 시 우선 지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5413> (검색일: 2022. 10. 20).
-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과제 제안**. 2022년 1월 10일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비전선포대회 자료. [https://www.sjyouth.or.kr/bbs/board.php?bo\\_table=stats&wr\\_id=103](https://www.sjyouth.or.kr/bbs/board.php?bo_table=stats&wr_id=103) (검색일: 2022. 10. 20).
- 사이토 고히이 (2021).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고양: 다다서재.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2022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8825&ctgCd=206> (검색일: 2022. 10. 12).
- 신현정, 임성은, 강다연, 김찬중 (2022). 청소년 기후 시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유물론적 관점을 토대로. **환경교육**, 35(1), 82-109.
- 에코타임즈 (2022.6.8.). **정부-기업 손잡고 ‘환경교육’ 활성화 나선다**. <http://www.>

- ecotig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2 (검색일: 2022. 10. 12).
- 여상인 (2018).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행동에 대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행동 의지와 신념. **에너지기후변화교육**, 8(2), 87-97.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1.10.).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정책 추진**. 서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34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349) (검색일: 2022. 10. 12).
- 여성가족부 (2022). **2022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권고문**. 서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387](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387) (검색일: 2022. 10. 20).
- 여형범, 차정우, 고명찬, 이민정 (2017).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연구**(74-644000 0-000334-01). 공주: 충남연구원.
- 오마이뉴스 (2021.6.9). **‘결석 시위’하던 15세 소녀는 어떻게 노벨평화상 후보가 됐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50201](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50201) (검색일: 2022. 10. 12).
- 외교부·환경부 공동 보도자료 (2021.12.23.).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 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80> (검색일: 2022. 10. 12).
- 울산광역시교육청 (2022). **2022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https://www.seeic.kr/board/citydata/view/419.do?searchword=2022&searchkey=articleSubject&page=1> (검색일: 2022. 10. 12).
- 윤순진 (2021). 글래스고 기후 합의의 의의와 한국의 과제. **열린충남 Vol.95**, pp. 4-8.
- 이유진 (2022). **기후 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제43차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한결 (2022). **청소년이 말하는 기후정의**. 청소년, 「청소년, 기후위기 시대의 삶을 질문하다」 2차 집담회 발제문(내부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희진, 남미자, 정용주, 주영 (2021). **기후위기 대응 교육체제 구축과 환경학습권 보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1-18).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2022학년도 환경수도 인천으로 가는 기후생태해양교육 추진 계획**.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s://www.seeic.kr/board/citydata/view/420>.

- do?searchword=&searchkey=&page=1 (검색일: 2022. 10. 12).
- 전라남도교육청 (2022). **2022 기후변화 환경교육 기본계획**. 무안: 전라남도교육청.  
<https://www.seeic.kr/board/citydata/view/421.do?searchword=&searchkey=&page=1> (검색일: 2022. 10. 12).
- 전라북도교육청 (2022). **2022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 전주: 전라북도교육청.  
<https://www.seeic.kr/board/citydata/view/431.do?searchword=&searchkey=&page=1> (검색일: 2022. 10. 12).
- 전혜숙 (2022). **청소년 복지·안전 영역 토론편**. 제43차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혜숙, 정하은, 최선아 (2021). **기후 변화 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연구보고 2021-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정희라, 최지선, 백성희 (2020). 초등학교 환경역량 검사도구의 개발. **환경교육**, 33(4), 364-37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2). **2022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s://www.seeic.kr/board/citydata/view/433.do?searchword=&searchkey=&page=1> (검색일: 2022. 10. 12).
- 조은주 (2022).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 평가와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서의 녹색 일자리 과제**. 2022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서울: 에너지전환포럼.
- 조인희 (2022). **기후위기시대, 자립(준비) 청소년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가?**, 「청소년, 기후위기 시대의 삶을 질문하다」 2차 집담회 발제문(내부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효제 (2020). **탄소사회의 종말**. 서울: 21세기북스.
- 천성원 (2022). **청소년 노동 영역 토론편**. 제43차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충청남도교육청 (2021).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 홍성: 충청남도교육청.  
<https://www.seeic.kr/board/citydata/view/402.do?searchword=2030&searchkey=articleSubject&page=1> (검색일: 2022. 10. 12).
- 한겨레 (2021.9.27.). **기후위기,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폭염 7배 많이 겪을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2891.html#csidxb6d2b01afa03b879c01864d65b41b3f> (검색일: 2022. 10. 17).

한국동서발전 보도자료 (2021.10.19). **울산에너지포럼, 미래세대 '신재생에너지 팀 프로젝트 교육'**. 울산: 한국동서발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청소년, 참여의 새 시대를 열다**. 201-205. 서울: 살림터.  
현명주, 김남수 (2021). 경계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의 기후결석시위: 정체성, 학교 교육, 시위문화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34(2), 151-166.

환경부 보도자료 (2019.11.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세종: 환경부.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boardId=1082540&boardMasterId=1> (검색일: 2022. 10. 20).

환경부 보도자료 (2020.7.9.). **기후·환경위기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 세종: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383850> (검색일: 2022. 10. 20).

환경부 보도자료 (2021.9.13.). **미래세대 기후·환경교육은 필수: 환경부·교육계 실천 선언**. 세종: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476400> (검색일: 2022. 10. 20).

환경부 보도자료 (2021.8.31.).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세종: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473295> (검색일: 2022. 10. 20).

환경부 (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세종: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deleteYn=N&seq=7634](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deleteYn=N&seq=7634) (검색일: 2022. 10. 20).

환경부 (2022).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boardId=1501200> (검색일: 2022. 10. 20).

환경부·국가환경교육센터 (2021). **2021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지원사업**.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76&orgCd=&condition.deleteYn=N&seq=7634](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76&orgCd=&condition.deleteYn=N&seq=7634)

//www.keep.go.kr/portal/143?action=read&action-value=7727f46a8f0b18a  
ebf275801cc06a8c5 (검색일: 2022. 10. 12).

환경정의 (2020). **환경복지교육사업 매뉴얼**. 서울시, 환경정의. <https://www.eco.or.kr/Data/?bmode=view&idx=8456812> (검색일: 2022. 10. 20).

황세영 (2021). **기후 위기시대 세대 간 정의와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에 대한 해외 동향**. 해외환경정책동향(2021-03호). pp. 3-15.

희망제작소 (2021.5.18).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사례**. 서울: 희망제작소. <https://www.makehope.org/%EA%B8%B0%ED%9A%8D%E2%91%A1-%EC%A7%80%EB%B0%A9%EC%A0%95%EB%B6%80%EC%9D%98-%ED%83%84%EC%86%8C-%EC%A4%91%EB%A6%BD-%EC%A0%95%EC%B1%85-%EC%82%AC%EB%A1%80/> (검색일: 2022. 10. 20).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청년 제안 (2021). **청년이 제안하는 2040 기후중립시나리오**. [https://www.2050cnc.go.kr/download/BOARD\\_ATTACH?storageNo=85](https://www.2050cnc.go.kr/download/BOARD_ATTACH?storageNo=85) (검색일: 2022. 10. 20).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a).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 발표자료**. 서울: 탄소중립위원회. [https://www.2050cnc.go.kr/download/BOARD\\_ATTACH?storageNo=254](https://www.2050cnc.go.kr/download/BOARD_ATTACH?storageNo=254) (검색일: 2022. 10. 20).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b).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서울: 탄소중립위원회.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boardNo=101&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5> (검색일: 2022. 10. 20).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c). **탄소중립시민회의 활동기록서**. 세종: 2050 탄소중립위원회.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boardNo=687&menuLevel=2&menuNo=15> (검색일: 2022. 10. 20).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학습자료 (2021). **탄소중립시민회의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https://www.2050cnc.go.kr/flexer/view/BOARD\\_ATTACH?storageNo=161](https://www.2050cnc.go.kr/flexer/view/BOARD_ATTACH?storageNo=161) (검색일: 2022. 10. 12).

Andrews, E. J., Staples, K., Reed, M. G., Carriere, R., MacColl, I., McKay-Carriere, L., Fresque-Baxter, J., & Steelman, T. A. (2019). Insights for building

- community resilience from prioritizing youth in environmental change research. *Sustainability*, 11(18), 4916.
- Bergmann, Z., & Ossewaarde, R. (2020). Youth climate activists meet environmental governance: Ageist depictions of the FFF movement and Greta Thunberg in German newspaper coverage. *Journal of Multicultural Discourses*, 15(3), 267-290.
- Börner, S., Kraftl, P., & Giatti, L. L. (2021). Blurring the ‘-ism’ in youth climate crisis activism: Everyday agency and practices of marginalized youth in the Brazilian urban periphery. *Children's Geographies*, 19(3), 275-283.
- Boulianne, S., Lalancette, M., & Ilkiw, D. (2020). “School strike 4 climate”: social media and the international youth protest on climate change. *Media and Communication*, 8(2), 208-218.
- Bowman, B., & Germaine, C. (2022). Sustaining the old world, or imagining a new one? The transformative literacies of the climate strikes. *Austral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15.
- British Youth Council & Youth Steering Committee (2020). *Review of Environment and Climate Policy*. <https://www.byc.org.uk/news/2020/uk-government-must-collaborate-with-young-people-to-tackle-climate-change-emergency> (검색일: 2022. 10. 12).
- Brügger, A., Gubler, M., Steentjes, K., & Capstick, S. B. (2020). Social identity and risk perception explain participation in the Swiss youth climate strikes. *Sustainability*, 12(24), 10605.
- Budziszewska, M., & Głod, Z. (2021). “These Are the Very Small Things That Lead Us to That Goal”: Youth Climate Strike Organizers Talk about Activism Empowering and Taxing Experiences. *Sustainability*, 13(19), 11119.
- Delia, J., & Krasny, M. E. (2018). Cultiva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critical consciousness, and authentic care in urban environmental educ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8, 2340.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 strategy for the education and children's services system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strategy/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a-strategy-for-the-education-and-childrens-services-systems> (검색일: 2022. 10. 12).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limate and Communication, Ireland (2022). *Public consultation on the EU Just Transition Fund in Ireland: Final report*. <https://assets.gov.ie/221363/fb539509-bd2b-4b70-9a64-939a03e49440.pdf> (검색일: 2022. 10. 20).
- Diab, K. (2021), *Climate greater worry than COVID-19 for young Europeans, new poll finds*. <https://eeb.org/climate-greater-worry-than-covid-19-for-young-europeans-new-poll-finds/> (검색일: 2022. 10. 20).
- Donger, E. (2022). Children and Youth in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Advancing Rights through Legal Argument and Legal Mobilizatio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11(2), 263-289.
- Eddy, M. (2021), *German High Court Hands Youth a Victory in Climate Change Fight*. <https://www.nytimes.com/2021/04/29/world/europe/germany-high-court-climate-change-youth.html> (검색일: 2022. 10. 20).
- Eide, E., & Kunelius, R. (2021). Voices of a generation the communicative power of youth activism. *Climatic Change*, 169(1), 1-20.
- European Commission (2021). *Youth for a just transition : good practices of youth engagement : annex*,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https://data.europa.eu/doi/10.2776/621005> (검색일: 2022. 10. 20).
- European Parliament (2019). *2019 European elections: Record turnout driven by young peopl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90923IPR61602/2019-european-elections-record-turnout-driven-by-young-people> (검색일: 2022. 10. 20).
- European Union (2021). *What is the EU Youth Dialogue?* [https://europa.eu/youth/get-involved/eu%20youth%20dialogue/what-eu-youth-dialogue\\_en](https://europa.eu/youth/get-involved/eu%20youth%20dialogue/what-eu-youth-dialogue_en)

(검색일: 2022. 10. 20).

- EYES (2020). *Guidelines for municipalities to use youth participation for improving local policies and enhance youth engagement in climate action*. [https://www.projecteyes.dk/wp-content/uploads/2021/01/EYES\\_O4.1\\_Guidelines-for-Municipalities-for-youth-engagement.pdf](https://www.projecteyes.dk/wp-content/uploads/2021/01/EYES_O4.1_Guidelines-for-Municipalities-for-youth-engagement.pdf) (검색일: 2022. 10. 20).
- Feldman, H. (2022). Who's striking, and who's not? Avoiding and acknowledging bias in youth climate activism research. *Austral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8(1), 112-118.
- Fisher, S. R. (2016). Life trajectories of youth committing to climate activism.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2(2), 229-247.
- Fletcher, S., Cox, R. S., Scannell, L., Heykoop, C., Tobin-Gurley, J., & Peek, L. (2016). Youth creating disaster recovery and resilience: A multi-site arts-based youth engagement research project.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26(1), 148-163.
- Friends of Earth (2021). *Climate action plan for councils*. <https://takeclimateaction.uk/download/climate-action-plan-councils> (검색일: 2022. 10. 20).
- Gerretsen, I. (2021), *How youth climate court cases became a global trend*.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1/04/30/youth-climate-court-cases-became-global-trend/> (검색일: 2022. 10. 20).
- Gorman, J. (2021). *Disobedient youth: Lessons from the youth climate strike movement*. European Union-Council of Europe Youth partnership.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47261800/Gorman-J.-%282021%29-Disobedient-Youth-Lessons-from-the-Climate-Strikes.pdf/b1ec729d-ee2f-1e5d-9de3-a22b68e61bb8> (검색일: 2022. 10. 20).
- Grewal, R., Field, E., & Berger, P. (2022). Bringing climate injustices to the forefront: Learning from the youth climate justice movement. In: Walsh, E. M. (Ed.). *Justice and equity in climate change education: Exploring social and ethical dimensions of environmental education*. (pp.41-70).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Guardian(2019.5.28), “*European Elections: Triumphant Greens Demand More Radical Climate Action*”.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may/28/greens-eu-election-mandate-leverage-climate-policy> (검색일: 2022. 10. 20).

Guardian (2021.9.30). *This election has forced a generational shift in German politics*.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sep/30/election-generational-shift-german-politics> (검색일: 2022. 10. 20).

Haugestad, C. A., Skauge, A. D., Kunst, J. R., & Power, S. A. (2021). Why do youth participate in climate activism? A mixed-methods investigation of the # FridaysForFuture climate protes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76*, 101647.

Horton, J., & Kraftl, P. (2009). Small Acts, Kind Words and ‘Not Too Much Fuss’: Implicit Activisms. *Emotion, Space and Society 2*, 14-23. Crossref.

Howarth, C., Lane, M., & Slevin, A. (2022).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Local action in theory and practice*. Cham: Palgrave Macmillan.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https://www.globalchange.gov/browse/reports/ipcc-climate-change-2014-synthesis-report> (검색일: 2022. 10. 20).

Jorgenson, S. N., Stephens, J. C., & White, B. (2019). Environmental education in transition: A critical review of recent research on climate change and energy educatio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50*(3), 160-171.

Lee, K., O'Neill, S., Blackwood, L., & Barnett, J. (2021). “*The right to have a say*”: UK adolescent strikers and non-strikers’ perspectives on the youth climate strikes, 20 October 2021, PREPRINT (Version 1) available at Research Square [<https://doi.org/10.21203/rs.3.rs-965086/v1>].

Ludwig, F. and Dorner, J. (2022), *#timeforchange: the 2022 Austrian Climate*

- Youth Council*. <https://blog.buwog.com/timeforchange-the-2022-austrian-climate-youth-council/?lang=en> 검색일: 2022. 10. 20).
- Marquardt, J. (2020). *Fridays for future's disruptive potential: an inconvenient youth between moderate and radical ideas*. *Frontiers in Communication*, 5, 48.
- McDonaldHarker, C., Bassi, E. M., & Haney, T. J. (2022).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This": Children and Youth's Post-Disaster Views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Sociological Inquiry*, 92(1), 5-33.
- McGregor, C., & Christie, B. (2021). Towards climate justice education: Views from activists and educators in Scotland.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7(5), 652-668.
- McIntyre, A. (2000). *Inner-city Kids: Adolescents Conferment Life and Violence in an Urban Commun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ort, M., Walker, M., Williams, A. L., & Bingley, A. (2018). Displacement: Critical insights from flood-affected children. *Health & place*, 52, 148-154.
- National Youth Council of Ireland (2017). *Submission to the Citizens Assembly on How the State can make Ireland a leader in tackling climate change*. <https://www.youth.ie/wp-content/uploads/2018/11/Submission-to-the-Citizens-Assembly-on-Climate-Change.pdf> (검색일: 2022. 10. 20).
- NYCI (2020). *How to get young people involved in climate justice movement*. <https://www.youth.ie/documents/how-to-get-young-people-involved-in-the-climate-justice-movement/> (검색일: 2022. 10. 12).
- Perlaviciute, G. (2022). Contested climate policies and the four Ds of public participation: From normative standards to what people want.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3(1), e749.
- Pickering, G. J., Schoen, K., & Botta, M. (2021). Lifestyle decisions and climate mitigation: current action and behavioural intent of youth.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20(6), 1-27.

- Red Cross Red Crescent (2021). *Red Cross Red Crescent strategy on youth-led climate action*, [https://www.climatecentre.org/priority\\_areas/youth/strategy-on-youth-led-climate-action/](https://www.climatecentre.org/priority_areas/youth/strategy-on-youth-led-climate-action/) (검색일: 2022. 10. 20).
- Riemer, M., Lynes, J., & Hickman, G. (2014). A model for developing and assessing youth-based environmental engagement programme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0(4), 552-574.
- Ritchie, J. (2021). Movement from the margins to global recognition: climate change activism by young people and in particular indigenous youth.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30(1-2), 53-72.
- Rousell, D., & Cutter-Mackenzie-Knowles, A. (2019). The parental milieu: Biosocial connections with nonhuman animals, technologies, and the earth.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50(2), 84-96.
- Save the Children (2021). *Born into the Climate Crisis: Why we must act now to secure children's rights*. London: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 Simon, P. D., Pakingan, K. A., & Aruta, J. J. B. R. (2022). Measurement of climate change anxiety and its mediating effect between experience of climate change and mitigation actions of Filipino youth.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1-11.
- SPREAD Sustainable Lifestyles 2050 (2012a). *iFuture: The diversity of sustainable lifestyles*. <https://www.cscp.org/publications/ifuture/> (검색일: 2022. 10. 20).
- SPREAD Sustainable Lifestyles 2050 (2012b). *Scenarios for sustainable lifestyles 2050: from global champions to local loops*. [https://www.cscp.org/wp-content/uploads/2016/05/Scenarios-for-Sustainable-Lifestyles\\_2050.pdf](https://www.cscp.org/wp-content/uploads/2016/05/Scenarios-for-Sustainable-Lifestyles_2050.pdf) (검색일: 2022. 10. 20).
- Stapleton, S. R. (2019). A case for climate justice education: American youth connecting to intragenerational climate injustice in Bangladesh.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5(5), 732-750.
- Svarstad, H. (2021). Critical climate education: Studying climate justice in time

- and space.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30(1-2), 214-232.
- Tenti, D. M. (2019). "The youths' participation in the EU Climate policy. How to enhance the representation of those who are most entitled?", Brussels: Institute of European Democrats. [https://www.iedonline.eu/download/climate-crisis/Tenti\\_Duccio\\_IED-Climate-Paper\\_2019.pdf](https://www.iedonline.eu/download/climate-crisis/Tenti_Duccio_IED-Climate-Paper_2019.pdf) (검색일: 2022. 10. 20).
- Thiery, W., Lange, S., Rogelj, J., Schleussner, C. F., Gudmundsson, L., Seneviratne, S. I., ... & Wada, Y. (2021). Intergenerational inequities in exposure to climate extremes. *Science*, 374(6564), pp. 158-160.
- Trott, C. D. (2021a).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Explor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everyday climate crisis activism by children and youth. Children's Geographies*, 19(3), 300-308.
- Trott, C. D. (2021b). Youth-Led Climate Change Action: Multi-Level Effects o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Sustainability*, 13(22), 12355.
- UN General Assembly (2017).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the Secretary-General*. Human Rights Council Thirty-fifth session 6-23 June 2017(A/HRC.35/13),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01813> (검색일: 2022. 10. 20).
- UNFCCC (2010). *Youth Participation in the UNFCCC Negotiation Process: The United Nations, Young People, and Climate Change*. Bonn: United Nations Joint Framework Initiative on Children, Youth and Climate Change.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youth\\_participation\\_in\\_the\\_unfccc\\_negotiations.pdf](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youth_participation_in_the_unfccc_negotiations.pdf) (검색일: 2022. 10. 20).
- UNICEF (2021). *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Introducing the Children's Climate Risk Index*. New Y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Vigne, S. (2022). *All eyes turn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assess future of rights-based climate litigation*. <https://www.universal-rights.org/blog/all-eyes-turn-to-the-european-court-of-human-rights-to-assess->

future-of-rights-based-climate-litigation/#:~:text=In%20December%202020%2C%20the%20ECtHR,impending%20harms%20of%20climate%20change (검색일: 2022. 10. 20).

Walker, C. (2017). Embodying ‘the next generation’: Children’s everyday environmental activism in India and England.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2(1-2), 13-26.

Wielk, E., & Standlee, A. (2021). Fighting for their future: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community building in the youth climate change movement. *Qualitative Sociology Review*, 17(2), 22-37.

Young Scot (2020). *Just Transition Commission Engagement Report*. <https://youngscot.net/ysobservatory/just-transition-commission-engagement-report> (검색일: 2022. 10. 12).

Zimba, J. M., Simbeye, B., & Chirwa, S. C. (2021). Towards intergenerational equity: Analysis of youth engagement strategies in climate action planning in Mzuzu, Malawi. *Urban Planning*, 6(4), 309-320.





## 부 록

- 1. 설문조사 응답지
- 2. 청소년 면담 질문지(실행연구)
- 3. 청소년 지도자 면담 질문지(실행연구)



# 부록

## 1. 설문조사 응답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조사학교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6

## 청소년의 기후변화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 및 향후 5년간(2023~2027년) 적용되는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강경교 연구위원 044-415-2142  
황여정 선임연구위원 044-415-2108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박종경 차장  
※ 문의전화 : 080-430-1000

조사 동의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의 기후변화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학교, 학교급, 주거지역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별

본인의 성별을 응답해주세요.

남자

여자



## 설문지 작성 요령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한 번도 자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각을 자주 한다	<del>X</del>	②	③	④	⑤

###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문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문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 I. 청소년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1** 기후변화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기후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 ② 기후변화가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5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
- ③ 기후변화가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먼 미래(2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 ④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2**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인간 활동(예: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산림 훼손 등)
- ② 자연적 현상(예: 태양에너지 변화, 지구 자전축 경사 변화, 화산 분출 등)

**3**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언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예: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등)

- ①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 ② 5년 이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 ③ 20년 이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 ④ 50년 이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 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4**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기후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기후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를 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기후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	처음 듣는다	들어 본적이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
1) 탄소중립(Net-Zero)	①	②	③
2) 파리 기후변화협약	①	②	③
3) 온실가스 감축	①	②	③
4) 지속가능발전	①	②	③
5) 지구온난화	①	②	③
6) 기후 난민	①	②	③
7) 기후 불평등	①	②	③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습니까? 많이 얻고 있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네모 칸 안에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소셜미디어(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 ② 인터넷포털사이트(인터넷 신문 포함)
- ③ 스마트폰 앱(예 : 기후행동 1.5℃, 지구공 등)
- ④ 인쇄매체(신문, 도서, 잡지 등)
- ⑤ 교과서
- ⑥ TV
- ⑦ OTT 서비스(NETFLIX, Disney+, Sezn, WAVE, POOQ, TVING 등)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6-1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장소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습니까? 많이 얻고 있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네모 칸 안에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학교
- ② 가정
- ③ 기업
- ④ 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 ⑤ 그 밖의 학교 밖 기관 또는 단체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7**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개인적인 노력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무력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집단, 국가, 기업 등에 대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4) 기후변화는 걱정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생활 습관이 기후변화의 원인(온실가스 등)을 제공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하고 절망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결국 인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II. 청소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9** 현재 학생의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 습관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

①

← 중간 →

②      ③      ④

나는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우선한다

⑤

**10**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평소 습관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기후변화 정보(예: 온실 기체의 증가,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등)를 수집하여 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책이나 인터넷, 사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들을 설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나라에서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학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우리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일어나는 문제나 현상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네모 칸 안에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② 기후변화의 원인, 현상, 해결책 등에 대한 교육 ③ 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 ④ 피해 발생에 따른 기준과 처벌 강화 ⑤ 실천 행동에 대한 보상 강화(예: 마일리지 적립, 쿠폰 발행) ⑥ 기업 스스로의 친환경 경영 강화 ⑦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⑧ 국가(정부)의 정책 마련 및 실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2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학생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학교에서 탄소배출량 측정 및 줄이기 활동
- ② 등하굣길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 ③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 ④ 채식 위주의 식단(소고기 등 육류 섭취 줄이기)
- ⑤ 지역 환경개선 활동(쓰레기 줍기 등)
- ⑥ 기후변화와 관련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 ⑦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정책 제안
- ⑧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사용
- ⑨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 ⑩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는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 ⑪ 기후변화 관련 청소년 동아리 조직
- ⑫ 기후변화 관련 학교 밖 교육 또는 활동
- ⑬ 참여하거나 경험한 활동 없음

12-1

**12 에서 제시한 활동들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해당하는 이유를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 ② 참여 기회가 없어서
- ③ 별로 관심이 없어서
- ④ 내가 참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2. 청소년 면담 질문지(실행연구)

### 청소년 면담 질문지

본 면담은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에 참여한 여러분이 느낀 점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번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비슷한 활동을 설계할 때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1)

####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질문

- 1) 이번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나요?
- 2) 여러분이 작성한 정책 제안서는 도청에 제출되어 협의를 거쳐 앞으로 정책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정책 내용에 만족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 제안하고 싶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책으로 만들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3) 이번 정책단 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기후위기 또는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활동이나 주제가 있나요?

#### 2. 정책단 활동 참여 관련

- 1) 가장 흥미로웠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가장 참여하기 어려웠던 활동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팀 안에서 나의 참여도를 상/중/하로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이번 활동은 강의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점을 찾고, 토론과 학습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었나요?
- 4) 이번 활동에 처음 참여했을 때 가졌던 기대를 떠올려 봅시다.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그 기대가 어느 정도 만족되었나요?
- 5)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능력, 나와 다른 의견에 질충하며 토론하는 능력,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등, 토론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6)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이유도 좋고, 활동 진행과 관련된 의견도 좋습니다.
- 7) 앞으로 이 활동과 같이 탄소중립 정책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이 양식에서 A,B 사례에 맞게 활동명, 활동 내용 등을 변경하여 활용

### 3. 청소년 지도자 면담 질문지(실행연구)

#### 청소년 지도자 면담 질문지

1. 이번 활동 전에 기후위기 문제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2. 청소년들과 활동을 하면서 이 주제를 다룰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3. 이번 활동이 지금까지 해왔던 청소년 활동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활동 주제와 방법 모두 관련)
4. 이번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 문제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5. 청소년지도자들이 이 주제를 활동으로 기획하는데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콘텐츠와 방식으로 청소년 활동이 가능할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과 참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 권리보장과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탐색으로서, 청소년 주도적 탄소중립 담론의 주요 논점과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및 유럽 8개국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정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에서 청소년 참여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청소년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참여의 조건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태도, 실천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전국 초5~고3 학생 3,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청소년 참여모델의 실증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센터와 연계하여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사례에 대한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권리 실현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미래를 슬로건으로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기후 위기,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권리, 청소년 참여, 청소년 기후행동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policy measures to ensure youth rights and participation in dealing with climate crisis and in achieving a carbon-neutral society. For doing so, main issues and research questions regarding the discourse of youth-centeredness in achieving carbon-neutrality were identified in terms of youth right and the various conditions that affect young people's present and future lives. Also, the recent policies in the EU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ways of supporting youth climate action, and implications were drawn upon to develop youth participation in the climate policy governance and to expand the scope of youth policy in Korea. The perspective of youth right was also adopted to analyze the current development in carbon-neutrality policy in Korea and to explore the conditions of youth participation through case studies.

In this study, a nationwide survey of 3,024 youths in the fifth to ninth grader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youth's perception, attitude and action regarding climate change. A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collaboration with two youth centers was adopted in developing a model of youth participation in the climate poli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proposed policy suggestions under the slogan, 'youth-led carbon neutral future through realizing youth rights.'

Keywords: climate crisis, carbon neutrality policy, youth right, youth participation, youth climate action



##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중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 수 탁 과 제

###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속희

## 자료 집

###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 워 크 슝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 포 럴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소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소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필진 ◆

강 이 현 (벨기에 생루이대학교·박사후연구원)

### ◆ 자문협력진 ◆

곽 은 철 ((재)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팀원)

권 준 근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관장)

여 형 범 (충남연구원·연구위원)

유 선 영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팀장)

유 승 중 (부천시울림청소년수련관·관장)

윤 여 승 (천안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이 종 순 (고양시성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장 성 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부장)

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연구교수)

천 성 원 ((사)청소년노동인권노랑대표)

최 현 아 ((재)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

##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55-8 93330

연구보고 22-기본06

#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55-8